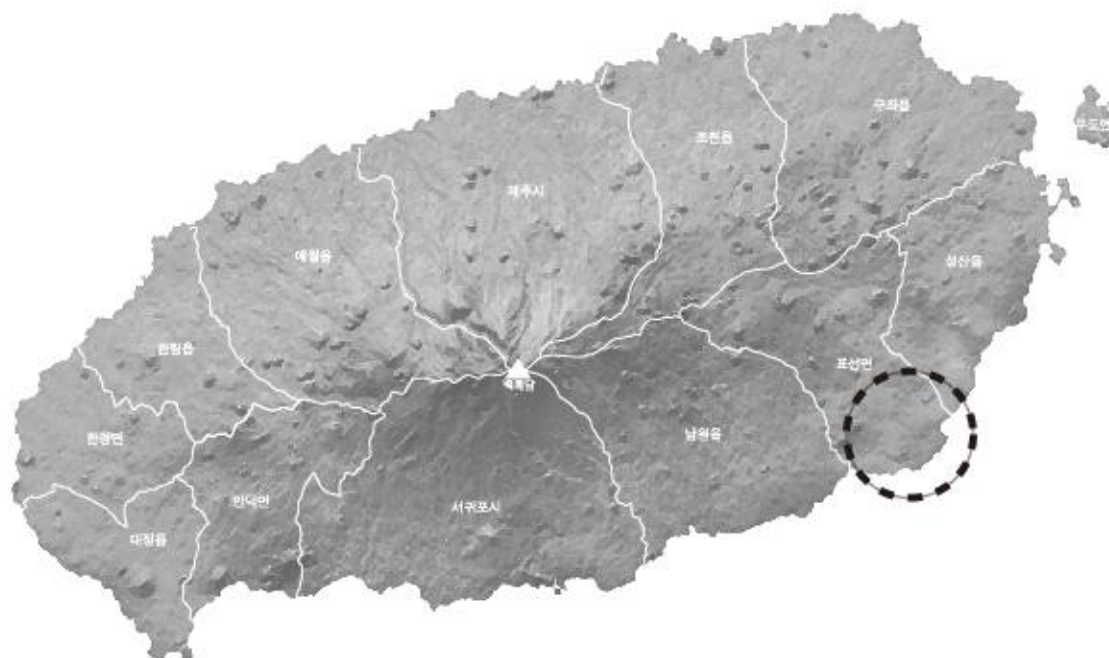


79-6500000-000289-01

5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허영선 · 김순자
조사지점 표선면 표선리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1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2015년 12월 31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5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7
1.2. 사업 기간	7
1.3. 조사 참여자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9
1.5. 기대 효과	9

제2장 표선면 표선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10
2.2. 조사 기간	10
2.3. 조사 항목과 내용	10
2.4. 전사	12
2.5. 장비	13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14	2. 제보자 일생	21
3. 밭일	34	4. 들일	75
5. 바다일	101	6. 의생활	126
7. 식생활	150	8. 주생활	211

제2절 어휘

1. 인체	246	2. 육아	252
3. 친족	258	4. 의복	261
5. 음식	266	6. 가옥	274
7. 생업	279	8. 수와 단위	290
9. 민속	293	10. 신앙	295
11. 자연	296	12. 동물	302
13. 식물	311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낙관하지 않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이매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1.3. 조사 참여자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돈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돈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2장 표선면 표선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고옥년(1936년생, 여)

송봉휴(1936년생, 남)

강옥선(1938년생, 여)

2.2. 조사 기간: 2014. 10. 28.~12. 31.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 마을	구술 1. 조사마을	고옥년	00:47:35	○
2. 제보자 일생	구술 2. 제보자 일생	송봉휴		
3. 밭일	구술 3. 밭일	고옥년	01:30:52	○
4. 들일	구술 4. 들일	고옥년	01:33:04	○
	5. 바닷일 1	송봉휴		
5. 바다일	구술 5. 바다일 2	고옥년	00:05:58	○
6. 의생활	구술 6. 의생활 1 옷감~옷종류 1	고옥년	00:22:44	○
	구술 6. 의생활 2 옷종류 2~모자 등	송봉휴	00:31:13	○

7. 식생활	구술 7. 식생활 1 밥과 국, 죽류, 범벅과 수제비	고옥년 송봉휴	01:16:05	○
	구술 7. 식생활 2 -김치, 젓갈, 장아찌와 회, 장 담그기, 떡류 1	고옥년 송봉휴	01:14:04	○
	구술 7. 식생활 3 -떡류 2, 소와 고물, 별식, 기타	고옥년 송봉휴	00:44:12	○
8. 주생활	구술 8. 주생활 1 구조 1	고옥년 송봉휴	01:30:59	○
	구술 8. 주생활 2 구조 2	고옥년 송봉휴	00:9:18	×
9. 신앙	구술 8. 주생활 3 초가 지붕이끼, 연장 구술 9. 신앙	고옥년 송봉휴	00:31:30	×
10. 세시풍속	구술 10. 세시풍속 1	고옥년 송봉휴	01:31:01	×
	구술 10. 세시풍속 2	고옥년 송봉휴	12:33:52	×
11. 놀이	구술 11. 놀이 1-연~숨바꼭질	고옥년 송봉휴	01:12:47	×
12. 통과례	구술 12. 통과례 1 출생, 혼례, 상례 1	고옥년 송봉휴	01:30:46	×
	구술 12. 통과례 2 상례 2	고옥년 송봉휴	00:56:14	×
	구술 12. 통과례 3 제례	고옥년 송봉휴	00:45:24	×
13. 민간요법	구술 13 민간요법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음성)	고옥년 송봉휴	01:16:40	×
14. 경험담, 속담, 금기어 듣기(음성)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어휘 1. 인체	강옥선	01:15:30	○
2. 육아	어휘 2. 육아 1 발달, 재롱과 놀이 1	고옥년 송봉휴	00:30:49	○
	어휘 2. 육아 2 재롱과 놀이 2, 생리와 질병	고옥년 송봉휴	00:45:29	○
3. 친족	어휘 3. 친족	고옥년 송봉휴	00:38:47	○
4. 의복	어휘 4. 의복	고옥년 송봉휴	01:02:36	○
5. 음식	어휘 5. 음식 1 주식 부식	고옥년 송봉휴	00:37:34	○

	어휘 5. 음식 2 별식, 부엌과 그릇 1	고옥년 송봉휴	01:31:35	○
	어휘 5. 음식 3 부엌과 그릇 2	고옥년 송봉휴	00:18:52	○
6. 가옥	어휘 6. 가옥	고옥년 송봉휴	01:23:43	○
7. 생업	어휘 7. 생업 1 농업 1	고옥년 송봉휴	00:49:53	○
	어휘 7. 생업 2 농업 2	고옥년 송봉휴	00:26:08	○
	어휘 7. 생업 3 농업 3, 어업, 기타	고옥년 송봉휴	00:52:41	○
8. 수와 단위	어휘 8. 수와 단위	고옥년 송봉휴	00:57:29	○
9. 민속	어휘 9. 민속			
10. 신앙	어휘 10. 신앙	고옥년 송봉휴	01:35:35	○
11. 자연	어휘 11. 자연 1 -들, 바다, 시후, 날씨			
	어휘 11. 자연 2 방향	고옥년 송봉휴	00:02:59	○
12. 동물	어휘 12. 동물 1 가축	고옥년 송봉휴	00:22:13	○
13. 식물	어휘 12. 동물 2 벌레와 곤충, 들짐 승, 날짐승, 바다동물 13. 식물 1 풀 1	고옥년 송봉휴	01:31:38	○
	어휘 13. 식물 2 풀 2 나무, 열매, 바다식물	고옥년 송봉휴	01:11:05	○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하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이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 녹음기: SONY ICD-SX 1000
- 캠코더: SONY HDR-PJ 540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 김순자 #1 고옥년 #2 송봉휴)

1. 조사 마을

101001 @ 동창예? 옛날부터 이제 해온 이거 조사마을 해도 돼겠구나. 남자 삼촌 쪽 살았으니까 이 마을 형성이 어떻텨든 현 말 알아줍서.

101001 #2 이 마을 형성은 본래 표선리라도 서상리라고 했는데.

101001 @ 예.

101001 #2 표선리가. 저기 저 마을 형성은 현침에서가 먼저 여길 내려왔수다. 저 웃드르에서.

101001 @ 예.

101001 #2 웃드르에서 내려와서 예 요 밑에 가면 거기 어디우광? 막상올레?

101001 #1 막상올레.

101001 #2 막상올레 물이 나니까 거기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101001 @ 예.

101001 #2 경 돼십주. 그렇게 해서 차츰차츰 많이 형성되니까 예 요 안카름, 안카름이라고 해서 요 웃동네가 잇었고, 서카름이라고 해서 두 개 마을로해서 형성이 시작해십주.

101001 @ 경혜영 이제까지 온 거라예?

101001 #2 예.

101002 @ 그러면 아까 현침의부터 설촌을 표선리는 요즘 표선리는 어떤 성씨들로 이루어전마씨?

101002 #2 표선리는예, 젤 강씨가 만허후다. 편안강씨.

101002 @ 아아.

101002 #2 강씨가 많고 그 다음은 고씨.

101002 @ 예.

101002 #2 그 다음은 고씨가 많고, 그 다음에 오씨.

101002 @ 예.

101002 #2 게 우리 송씨도 많은데 우리 송씨는 본래 여기 잇는 사름은 별로 었었는데 저 애월읍 저 동귀리에서 여기 와서.

101002 @ 아.

101002 #2 애월읍 동귀리에서 와가지고 여기 와서 많이 ** 이루었는데, 예 아마 몇 년 전까지도 송씨들이 좌지우지해십주.

101003 @ 예. 표선 송씨는 유명허지 아릅니까? (웃음) 아,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 허멍 살아마씨?

101003 #2 마을에 처음에는 보리도 같고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전부 밀감으로.

101003 @ 예.

101003 #2 그렇게 하고. 육지 분들도 많이 와 살면서 특작을 많이 합니다. 여기.

101003 @ 예, 어떤 특작들 험신고예?

101003 #2 감자. 지슬감자.

101003 @ 예. 지슬감자.

101003 #2 무우.

101003 @ 예.

101003 #2 많이 합니다.

101004 @ 예. 삼춘 앞으로 말썽헐 뎀 제줏말 조사허는 거난예, 제주도말로 더 하영 해줍서양? 웃음. 이 주변에 오름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천 이런 바위나 굴 등도 잇어마씨?

101004 #2 예. 이십주.

101004 @ 예, 어떤 것덜 이신고예?

101004 #2 오름은 표선 메오름이라고.

101004 @ 예.

101004 #2 잇고. 표선 메오름이라고 잇고, 세화리 가면은 돈오름.

101004 @ 예.

101004 #2 돈오름이라고 잇고.

101004 @ 예.

101004 #2 성읍리 가면은 영주산.

101004 @ 예.

101004 #2 그 쪼끔 그 가면은 어, 백약이오름이라고. 그 백약이오름은예, 백 가지 약초가 난다 그래서 거기서 염소나 소 말이 먹은 것을 어, 그 고기를 남자가, 사람들이 먹으면예 백 가지 약초 먹은 고기를 먹으니까 무병장수한다고.

101004 @ 음.

101004 #2 경도 곱읍니다.

101004 @ 계믄 이 표선리에 잇는 오름은 메오름 헉나뿐.

101004 #1 메오름.

101004 #1 메오름 헉나.

101004 @ 물 같은 거는 엇수가? 어떤 거 잇수가?

101004 #1 물은 우물에서 두레박 행 먹다가 그것이 이젠 이제 쪼끔 발전웨니까 수돗물.

101004 @ 예.

101004 #1 수돗물로 지금도 그자 수돗물도 먹었수다.

101004 @ 그냥 드레박 행은에 물통 이름은 무신 일름마씨?

101004 #1 뭐 텡가락, 데가라왓통. 으, 저 알동넨 나룩질통[나룩찐통].

101004 #2 나룩질통.

101004 @ 음.

101004 #1 그 섯동네.

101004 #2 서오일장통.

101004 @ 나룩질통은 거기 나룩 갈아난 모양이우다?

101004 #1 그 나룩 갈아난 것이 아니고 그디 못이 잇어나신디 못 이름이 나룩
질, 나룩질 그 옛날엔 거기를 경허연 그 저곳디 그 통이 이시니까 나룩질통.

101004 @ 음. 혹, 그 굴 같은 것도 잇어마씨?

101004 #2 예.

101004 @ 굴은 무신 굴 잇어마씨?

101004 #2 한드르.

101004 @ 한드르.

101004 #2 한드르굴이라고 해서 사삼사건 때.

101004 @ 예.

101004 #2 어디 갈 때 엇이니까 거기 가서 숨어서도 잇어나고. 또 그 일본시대.

101004 @ 예.

101004 #2 막 공습 오라가면은 거기도 강 숨어나고 그렇게 해나수다.

101004 @ 음. 그 한드르굴이 표선리에서 유명해낫구나예?

101004 #2 유명허진 안혹.

101004 #1 나룩질 저곳디 오면은 그 굽은쟁기 그디도 굴이 잇어나서. 우리 웨정
때에 비행기 절로 메오름으로 이렇게 와가든 그 굴에.

101004 @ 예.

101004 #2 그디가 이시면은 우리 할머니네 어머니네 이 보리개역혜근에 가정화
근에 거기서 먹영 움찍허지 말앙 여기 ㄱ만이 앓앙은에 놀레. 근치룩 해난 굴이 지
금 그 굴이 그냥 이신지 어신지 몰를 커라. 두린 때 땡겨나부난.

101004 @ 두린 때 땡겨나부난예? 그 막 큰 바위 같은 것도 잇어마씨? 이쪽에.
우리 왜 성산포 가면 바위 잇잖아예? 일출봉 헐 때 등명대 같은 거예?

101004 #1 여기는 바닷가에 바위가 잇어도 바닷가 아닌 디 바위 별로 엇어.

101005 @ 큰 뭐 이름 잇는 거거나 이런 건 엇고예? 그 다음에 이 마을은 표선
면 중심지니까 기관들도 하서예?

101005 #2 기관 많이 이십주.

101005 @ 어떤 기관들이 이신고예?

101005 #2 기관이 뭐 면, 면사무소허고, 그 다음 초등학교가 잇고 옛날 ㄱ트민

국민학교 그거 있고.

101005 @ 예.

101005 #1 중학교 있고.

101005 #2 중학교 있고.

101005 #1 고등학교 있고.

101005 #1 지서. 이젠 파출소엔 허지만 그 옛날엔 지서.

101005 #2 지서. 주재소허면은 얼마나 믱스와낫수가?

101005 #1 주재소.

101005 @ 주재소 하고.

101005 #2 주재소 있고. 또 뭐 농협 축협 신협.

101005 #1 다 있어.

101005 @ 은행 뭐 엇인 거 엇다예?

101005 #1 제주은행 있고.

101005 @ 여기보난 소방도 아까 보건소엔 해신가. 아 보건서.

101005 #1 보건소.

101006 @ 음. 이런 저런 거 다 있고. 옛날에 접들 하영 들어나지 안 해수가예?

101006 #2 접. 개인덜 허는 접덜.

101006 @ 예. 예.

101006 #2 거 말헬서.

101006 #1 아, 그거는 뭐 유채, 유채 그때는 이제 유채 팔앙은에 얼마씩 내놓은
에 이제 접을 헛다가 그 집의 큰일 나면은 뭐 보리썰 혼 가맹이 썰 한 가망이 인치
룩 해줄락 해근에 그런 접덜 허고. 감저 때도 그런 식으로. 경해영 허고 그 그 시절
이 쪼금 지나가니까 흥뽀 세련되게시리 영 마을 영 그자 자기 또래 사름 해근에 큰
일 때 돌아보는 거.

101006 @ 음.

101006 #1 잔치 때, 뭐 영장 때 그런 때 가서 일덜 강 같이 해주고 경허문 자기
네끼리덜 여 돌아보는 거.

101006 @ 그 전에 그런 거 말고 그전에 무사 화단체여, 아니면은 뭐 잔치헬 때
영 몇 명 행은에 제허곡 그레허는예, 옛날 연자매 이런 거 그런 접들도 해낫지 아
녀수가?

101006 #1 그런 거 다양허게 그런 거 저런 거 다 헬. 접엔 헬 거 다해낫주게,
여기도.

101006 @ 음, 그 중에 하나 뭐 저기 화단체 이런 거 해난 기억 해남수가?

101006 #1 화장제 아니고. 사름이 그때는 죽으면 화장이라는 건 엇고. 문상 해
다근에 그 정시 데려당 터 봐근에 거기에 문상. 그 사람덜이 이제 그, 그 멧 사람이
해가지고 이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거 모셔근에 그 저 장터에까지이.

101006 @ 으.

101006 #1 여기서 같으면 저 제주, 성읍리 영주산도 지나가근에 그 터가 좋텐
헤민 그디까지도 문상 헤다근에 다 묻곡.

101006 @ 그렇게 이제 메영 가는 것들도 다 접으로 힌 거라예?

101006 #2 우리도 고 회장 모친 돌아갈 때 우리 그 동창회로 헨에. 국민학교 동
창회.

101006 @ 예.

101006 #2 거기서 저 성읍리 우에 올라가면 준동산이엔 잇수다. 준동산.

101006 @ 예 준동산예.

101006 #2 그디가 그 산터가 막 좋아마씨. 그꺼지 터 받 허니까 우리 그디까지
다 메영 가낫수게.

101006 #1 여기서.

101006 #2 그디 가면은 가당은에 배고프텐 허멍 돌레떡 하나씩 줘나서.

101006 #1 믱물가루[-가루]

101006 #2 돌레떡 하나씩 먹영 또 메영 가고.

101006 @ 아, 그러면은 일찍 돌아가셔난 생이우다예? 몇 세 때 경 힌 겨우과?

101006 #2 멧 세 대 돌아가셔나수가?

101006 #1 우리 어머니 우리는 우리어머니가 쉬은두 설에 돌아가셔시난에 우리
한 서른 정도 톨 때에.

101006 @ 그러면 뭐 생생허겄네예?

101006 #2 예.

101006 @ 게영 돌레떡 하나씩벧기 안 줍디가?

101006 #1 아, 그땐 그것도.

101006 #2 점심 그디서 먹고.

101006 #1 그것도 막 부잣집이나 흥품 영 산텐 허는 집의서 모멸돌레 그런 거
헛주. 그 그때엔 뭐.

101006 #2 경혜영양 성읍리에 그 가름으로 들어가젠 허난.

101006 @ 예.

101006 #2 영장이 들어가젠 허난, 성읍리에 청년들이 오란 막아산.

101006 @ 아.

막아산 못 들어간덴. 가름 안으론 못 들어나난 돌아서 가렌. 영허니까 표선이 청
년덜이 성읍리 청년덜 몰릴 수가 잇수강게?

101006 @ 예

101006 #2 경허연에 가젠 허니까 멀리서 돌멩이 영장 더레 던정.

101006 @ 아아.

101006 #2 영장 놔뵤 잡아단에 그 놈 잡아당 혼나게 팻수다.

101006 @ 잘헛수다. 텃세를 부린 거 아니라예?

101006 #2 텃세 부런.

101006 @ 아, 기구나.

101006 #2 가름으로 못 들어간덴.

101007 @ 이 마을에는 그 옛날부터 해왔던 풍습들이 어떤 풍습이 잇수가? 남아 잇는 것 혹시?

101007 #2 요즘은 남아 잇는 것이 엇수다. 기자 전에는 조금 아프면은 아이덜 아프면은 심방 빌어당 녀도 들어곡.

101007 #1 굿허곡.

101007 #2 요디 가면예 마을 신 모신디 저바당이라고 잇수다. 저바당.

101007 @ 저바당?

101007 #2 예.

101007 @ 예.

101007 #2 저바당에 당을 지어놓고 뭇뭇 마을, 마을에 잘 헤드렌 허는 거, 가정 적으로 잘 헤드렌 세백이 강 기도도 허고 경행. 심방 가근에 허는 것이 잇었는데

101007 @ 음.

101007 #2 이제는 거의 사라져서마썸. 건디 이제도 마을에서 당 짓어 잇기 때문에 심방이 그디 딱 상주혜영 이십니다.

101007 #1 본향, 본향.

101007 @ 아, 본향예, 아 그럼 본향 혜영 지금도 험구나. 언제, 본향제는 언제 헤마썸?

101007 #1 본향은 계난 정월달에 하는 거주. 그.

101007 @ 음.

101007 #1 초예. 정월달 뒤편은 다 그 본향에덜 가는 사름은 쭉 가고 안 가는 사름은 안 가고 우리는.

101007 @ 삼춘넌 안 가고?

101007 #1 이천년 나도 이천년까지는 다녀신디 이천년 지나난에 안 다년.

101007 @ 무사 안 다녀수가?

101007 #1 이천년까지 헤시민 똥주. 무시 거 또.

101007 #2 나도 운수업 헐 때예 차에 돈 많이 벌어오렌 혜근에 그디 강 자꾸 기도도 헤낫수다.

101007 @ 아, 옛날 운수업 헛구나예?

101007 #2 예.

101007 #1 공들이레, 공들이레. 계난 이쥬 말로.

101007 @ 그때 잘 공들이난게 이제 잘 사는 겁주게.

101007 #1 아, 어떻사 헤신디.

101007 @ 이 표선리 특산물로는 뭇 내세울 수 잇어마썸?

101008 #1 표선이라고 해서 특별이 특산물은 없고,

101008 @ 예.

101008 #1 밀감같은 거 그런 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
 101008 #2 전 가정에 다 햐수다.
 101008 @ 다 햐는 거예?
 101008 #2 많이 햐고 적게 햐고.
 101008 #1 하이튼 만 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천 햐까지. 다 그거는 곁고로 다 햐는 거고.
 101007 @ 곁들 많이 햐는구나.
 101007 #1 햐녀덜 뒜 바다에 가서 햐녀덜토 이젠 햐 햐 명 햐고.
 <중략>
 101009 @ 예. 그러면 그 이, 이 마을 자랑거리?
 101009 #2 이 마을 자랑거리는예.
 101009 @ 예.
 101009 #2 요즘 관광. 제주도 관광 산업으로 뒜햐고 햐고 햐수다.
 101009 @ 으음.
 101009 #2 표선리란 마을이예, 관광도로의 요충지가 햐니다, 여기가.
 101009 @ 음.
 101009 #2 뒜냐 햐면 제주공항에서 내리면 성읍릴 거쳐가지고 여기에 햐비치호 햐로 가는 소님들. 이렇게 햐면 바로 건너야 햐고.
 101009 @ 으음.
 101009 # 그 다음 성산일출봉으로 가젠 햐민예 여길 거쳐서 가고.
 101009 @ 음.
 101009 #2 서귀포로 중문관광단지에 가더라도 여기 와서 구경햐서 이렇게 햐서 한참 관광철에는예 상당히 많이 봄비는 도로우다.
 101009 @ 으음.
 101009 #2 그리고 또 춤 유명한 햐비치호텔이 햐지 아녀우과?
 101009 @ 예, 예.
 101009 #2 이렇게 햐문에 춤 햐비치호텔 햐는 그디가 당케라고 햐니다. 당케.
 101009 @ 예예, 당케. 햐날 당케식당 유명햐주마썈?
 101009 #2 이제도 유명햐는데, 그 당케에 그 지금 장사햐는 사람들이 아마 사만 햐 시대는 햐여마썈?
 101009 @ 으음.
 101009 #2 그디가. 아주 수입이 좋수다. 이디햐고 우리 햐는디 햐고 당케에서 장사햐는 사람들햐고예 천지차이 나마썈.
 101009 @ 아, 게난 여기는 그래도 햐수욕장도 유명햐고.
 101009 #2 예. 햐사장예, 햐사장에 햐수욕장도 유명햐고 관광객도 많이 읍니다.
 101009 @ 음, 민속촌도 햐고.
 101009 #1 민속촌 햐고 햐비치 햐고 뒜 햐사장 햐고 그러니까 관광지. 햐날에,

옛날에는 그 부둣가에는 당케라고. 당케.

101009 @ 예.

101009 #1 거기는 다 못 사는 사름만 살아가지고 우린 우에선 토지가 많으니까 일이 많고 그딴 못 살앙 허민, 그디 강 다 인부덜 놉덜 빌어다근에 검질 메곡 해신디 이젠 완전히 꺼꿀로. 이젠 꺼꿀로 해연 당케 사름덜이 다 잘 살고 예 우에 사름이 못 살게 쥔 원인은 민속촌 해비치 백사장 그 관광지 그것이 거기 잇기에 그 꺼꿀로 쥔 거. 지금은. 당케 사름덜이 가름에 와근에 사름 빌어갈 정도로 거꾸로.

101010 @ 예. (웃음) 사이 좋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을에 덧붙일 말씀 있으면? 마을과 관련행 제가 물어 본 것 중 이 말은 안 물어본 거?

101010 #2 당케란 뜻 모르시예?

101010 @ 예.

101010 #2 당케. 그 당자가 당나라 당이우다게. 그런데 당나라 케 허면은 바다 개갯을 이야기허고. 당케란 그 뜻이 옛날에 그 당나라 무역선이 여기 들리는 그런, 그래서 당케우다. 그게. 보통덜 표선이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당케허믄 거기 당신을 모셔 잇는 그, 그걸로 아는데 그건 사실은 아니라마씨.

101010 @ 무사 거기 당 엿수가?

101010 #2 당 잇수다.

101010 @ 개당 잇잖우과예?

101010 #2 그걸 모셨다고 당케라 하는데 역사적으로 그건 아니라마씨.

101010 @ 아.

101010 #2 당나라 무역선이 들르는 곳이라고 해서 당케, 당케. 게 여기서 그거 무역선 오민예 새덜, 새 이디서 막 헛다가 뽕마로 실러당은에 그디 강 실러주고, 물 실어주고 이렇게 해서 돈 받곡 해난디우다. 유명헌 딴 데 그자 당 모신 디로만 알고 잇으니까 그것이 문쥬주.

2. 제보자 일생

102001 @ 예예, 요번은 이제 어쨌든 남자어르신한테 물어보쿠다예. 낳고 자란 과정, 나 언제 태어났은에 그 어떻게 살아수다 현 거를 간단히 좀 골아줘봅서?

102001 #2 어디서 태어났.

102001 @ 예.

102001 #2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습니다.

102001 @ 어디서 태어난 이제까지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간단히 골아주면 될 거예?

102001 #2 그걸 나가 대답허민. 나 표선리서 태어났앙 농사 지으멍 겨우 베꼈디 나간 운전받안에 운전면허증 받앙 운수업 해수다.

102001 @ 예. 게 그 운수업은 몇 년 동안 했수가?

102001 #2 운수업 막 오랫동안 했수다. 혼 이십 년. 부산에 가서도 해나고예.

102001 @ 예.

102001 #2 서귀포에서 택시업도 해나고. 경허단에 이제 돈 좀 벌어진난에 표선이 오란에 바나나도 허곡 경 해연 살아수다.

102001 @ 예, 게영 요즘은 어떻 살덴마씨?

102001 #2 요즘은 뭐 경로당에 오라근에게 회장 허는 일 도와주기도 허곡 경 해염십주 뭐.

102002 @ 부모님은 어떤 일 하셧마씨?

102002 #2 우리 아버지는예, 예 저 모관.

102002 @ 예.

102002 #2 애월읍 동귀리에서 여기 오란에 여기 그 켄당네가 술공장을 했수다 게.

102002 @ 예.

102002 #2 술공장 기술자로.

102002 @ 음.

102002 #2 그렇게 해서 공장장으로 우리 잇으면서 우리들 키웠고. 뭐.

102003 @ 어머닌마씨?

102003 #2 어머니는 표선리. 본래 표선린데 예 우리 아버지한테 씨집오란에 우리덜 낳고, 우리가 육 형제. 게난 팔 남매우다, 팔 남매.

102003 @ 팔 남매예, 아이고, 어머니 하영 고생 하영 해신게예?

102003 #2 큰어머니도 두 분, 큰어머니도 둘 낳고 헨에 팔 남매. 그래서 크단 보니까양 굉장히 고생허멍 살아수다. 먹지도 못허고.

102003 @ 음, 어머니는 어떤 일을 헨 거라마씨?

102003 #2 어머니는 뭐 어떤 일 헨니까? 저 농사 ㄴ치 짓고, 이렇게 허는데 자꾸 몸이 아판예. 경헨에 허고 아버지는 공장에 공장장으로 이신난에 그디서 월급도 받고.

102003 @ 음.

102003 #2 그래서 겨우 겨우 키낳수다. 우린 춤 곤란허다 보니까 회장넨 막 잘 살앗수다마는.

102003 @ (웃음)

102003 #2 우린예 학교도 별로 못허고.

102003 @ 예.

102003 #2 우리 저 큰형님은 경찰관으로 들어간에 허고, 셋형님은 저 고등학교 나오란에 예, 수협 그래도 지소장도 허곡. 난 서귀고등학교 서귀농고 갓단에 돈 엇언에 2학년 때 중퇴해연에 게연 열일곱 살에 부산에 나갓수게.

102003 @ 예, 게영 언제 들어온 거라마씨?

102003 #2 부산에 가서 혼 팔년 이상 살아수다.

102003 @ 아.

102003 #2 경허단에 이디 들어오란에 택시도 허곡.

102003 @ 예.

102003 #2 경해연 살아수다.

102003 @ 계도 농사는 하영 안 짓어신게마씨?

102003 #2 농사는 별로 땅이 잇어사 농사 지을 거 아니우과?

102004 @ 기구나양, 알아수다. 어린 땀 어떤 놀이허멍 놀아수가? 놀는 거?

102004 #2 초등학교 노는 거 중학교 노는 거 다 틀립주게.

102004 @ 예. 어떤 식?

102004 #2 초등학교때사 무시 걸 험니까? 굴렁췌 요즘 말론 굴렁췌데.

102004 @ 옛날은?

102004 #2 그 당시에는 자전거 그 바쿠 잇지 안 허우까? 그거 쌀 다 빼영 불민 이렇게 흠지지 아념니까? 그걸로 대허연 둥그런 다녀십주게.

102004 @ 둥그렁예?

102004 #2 요즘 굴렁췌는 요렇게 췌 췌로 해서 이렇게 허는데, 그런 걸도 못 허 췌디다. 요즘은. 그거 막 밀멍 막 나가는 건디.

102004 @ 그걸 둥그리렌 해마씨?

102004 #2 그렇게 해서.

102004 @ 허고, 게른 중학교 낭은?

102004 #2 중학교 때는 저 축구 선수로 헤가지고예? 지금 시청 잇는데 그디가 광장이라낫수다.

102004 @ 예, 예, 맞수다.

102004 #2 거기 오현중학교 간에 우리 오 대 빵으로도 저낫고.

102004 @ 웃음. 혹시 일제시대 아까 막 비행기도 놀고 헛텐 헛게마는.

102004 #2 예.

102005 @ 그 일제강점기 때 공출 같은 것도 직접 헤봬디가?

102005 #2 아, 공출 우리는 그 잘 모르는데, 우리 어머니네가 말허는 거 보민예, 낫그릇ㄴ쁜 거.

102005 @ 음.

102005 #2 예 쌀도 공출 허젠 허면은 이 어디 우녕팻디라도 굴 파근에게, 막 파 낭은예 공출 그 적게 내젠 그디 다 물어뵈 이젓벳기 엇텐 허곡, 경현 거 기억나곡 우리 어린 때. 경허면은 표선면장예예,

102005 @ 예.

102005 #2 면장네는 춤 그 사름덜 일본놈덜 오랑 막 못살게 굴면서 공출 웨 이 젓벳기 안 뵈느냐 허면 호호방문허면서 공출 많이 내라고 영 헛는데 그 면장덜토 예, 본의 아니게 경현 거라마췌.

102005 @ 음, 경혜실 텃주마씨게.

102005 #2 경현디 여깃 사름덜은 면장한티 막 콧텐 굴아도 지나고 나서 그 생 각을 헤보니까양 그 웃어른들이 말허는 거 보민, 본의 아니게 이녁도 살젠 허난. 경 헛젠덜 평을 험디다. 우린 어릴 때난 잘 몰라마썸.

102005 @ 삼춘넌 부자니까 더 공출 하영 헤실 거 님은디 뉘렌 험디가? 어머니 네가.

102005 #1 우리는 이 우리는 이 동창네 허고 하여튼 농사짓는 것도 그 밭이 너 무 많으니까.

102005 @ 예.

102005 # 밭 많으면은 일도 많이.

102005 @ 맞수다. 일부제예?

102005 #1 우린 일만 일만. 부잣집에 우린 태어나도 그 당시에 여자덜 국민학교 도 안 시킨 사름이 천지우다.

102005 @ 예.

102005 #1 우리 어머니는 경해도 국민학교는 시겨야 뉘텐 헤연 중학교는 가젠 허난에 일 버친 일할 사람이 엇어부만에 경헤연 헤신디, 우리는 믇물, 산디 같은 거 믇물 같은 거, 멧, 멧 가망이 엇언 그때는 가망이 엇어 멧탱이.

102005 #2 멧탱이.

102005 #1 멧탱이로 일로 천장까지 아래는 요만은 헛거 그 다음 그보다 족은 거 허멍 막 거기까지 행은에 우리 집에 왕은 공출 마차로 시겨가수게. 시겨 가서. 그때에. 일본 놈덜. 게곡 우리 종손칩이난에 제사허는 디 뉘그릇이 그때는 그릇 없 으니까 멧탱이에.

102005 @ 예.

102005 #1 혼 멧탱이로 막 혼 다섯 개 정도 담아논 걸 싹 다 썰어가고 우리 어머니네 공출 적게 내젠 도새기 집의 강 그거 강 다 물어놓곡 무시거 헤도 잘도 찾앙 잘도 그 공출헤 간.

102005 @ 종손칩이니까 얼마나 헤실 거라예. 그 제기들이랑예?

102005 #1 제기고, 명석이고 덕석이고 이 동창네 집원 명석 덕석은 엇어어.

102005 @ 웃음.

102005 #1 우린 농사 하영 진 집의 명석 덕석 잇엇주. 엇어 놀 것이 없으니까 엇는 거주게.

102005 @ 삼춘, 명석허고 덕석은 어떻 트난 거우과?

102005 #1 명석은 네개방장한 것이 명석이고, 덕석은 동글랑한 거.

102005 @ 으음.

102005 #1 동글락헤근에 ㄱ레 영 ㅈ근에 영영영 굴 때에 쓰는 것은.

102005 @ 덕석이렌 허고?

102005 #1 덕석. 명석은 네개방장 헤근에 보리하고 조하고 마당에 막 페아ㅈ근

에 그 하는 거는 멍석.

102005 @ 아, 멍석허곡 덕석을 구분헐구나, 여기는예? 아.

102005 #1 그 멍탱이하고 돛가레착허고 다 틀리듯이.

102005 @ 예. 맞수다.

102005 #1 멍석 그 멍탱이는. 멍탱이는 영 해근에 곡식만 놓는 거 멍탱이. 돛가레착엔 헛 거는 보리 갈젠 하면은 거름.

102005 @ 예.

102005 #1 그 돛통에서 퍼내여근에 씨뿌려온에 막 돌허고 소허고 발라근에 그 거를 이거 돛가레착에 해근에 소에 혼 착씩 이쪽에 혼나 저쪽에 혼나 혼 착씩 시경 밧데 강은에 평, 그거 영영영 돛가레를 풀렁 밧하나 전체 뿌려놔온에 보리 갈곡.

102005 @ 음.

102005 #1 우리는 그런 거를 얼마를 헤신지 몰라.

102006 @ 맞아예. 옛날 일부제들예, 맞수다. 삼춘, 사삼스건 때는 어떻 험디가?

102006 #2 우리 사삼사건 때는데, 국민학교 육학년 때 육학년 오학년 말쯤 돼가니까 사삼사건이 일어나십주게. 그렇게 해서 허니까 표선이는 습격이 안 들어나수다.

102006 @ 음, 해안이니까.

102006 #2 워낙 해안보담도 워낙 마을 사람들이 단합을 잘 돼영양 잘 지켰고, 그래서 안 드니까 육학 년 때 성담을 싸는데 우리 이거 무시 것과 이거 푸지게?

102006 #1 으, 지게.

102006 @2 푸지게, 푸지게.

102006 #1 그 산디쪽으로 다 만들영은에.

102006 #2 돌 지영 날를 거. 경험에 표선리 성담을 다 싸니까. 이웃마을 저 하천이까지 다 원정 나가명예 경허멍 그제 험 쫓구게.

102006 @ 음, 큰 피해는 엇고마씨?

102006 #2 표선리는 습격은 안 들어.

102006 #1 습격 혼번도 안 들언. 표선리는.

102006 #2 계난에 뜬 밍을은 가시리 우에 가시리 토산 서화리 다 망가졌는데, 표선이는 습격 안 든 건 우리 어릴 때 ㄱ만이 들어보민예 표선리는 산사름허고 연락자가 엇어부난에.

102006 @ 음.

102006 #2 경해연 안 들엇젠.

102006 #1 폭도덜허고 연락헐 사름 엇고, 웃드르가 마을이, 마을로 싸졌기 때문에 웃드르에는 저 습격이 많이 들곡 파산헐 마을이 많이 이신디 우린 워낙 거리가 멀고 또 그런 사름이 엇고 허니까 우리 표선이는 습격도 혼번 안 들곡 빨갱이도 없고.

102006 #2 경해연.

102006 @ 돌아가신 분은 엇어마씨? 그 당시에는.

102006 #2 돌아가신 분은예, 저 국민학교에 가시리 사름덜이명 뭐 소까이혜영 내려온 사름덜 그 사름덜이 막 잊었는디 군인도 주둔해나수다게, 여기.

102006 @ 예.

102006 #2 지서 순경들이. 그 중에 말이지 어디 강 죽여불카부덴 도망가버려서. 도망가부니까 쫓앙 오니까 영찬이 아방 이름 무신 거?

102006 #1 영찬이 아방, 영찬이 어명이 죽었주.

102006 #2 그러니까, 그 집의 그레 아무튼 그 근방에 가서 영찬이, 고영찬 어머니는 놀에서 감저 영 캐는데.

102006 @ 음.

102006 #2 오란에말여 “여기 어떤 사름 안 들어와시넨?” 허니까 놀에 영 허단 보니까 몰르니까 안 들어왔젠 해십주게. 경허니까 굴목에 곱안. 퀘썸 그디서 죽여벗 수게.

102006 #1 거짓말 헛덴.

102006 @ 거짓말헛젠, 몰란, 몰란 해신디도.

102006 #1 몰란 해신디.

102006 #2 경허니까양 그 집의 비참허게 살아수가?

102006 #1 우리, 우리 아버지는 사삼사건에 돌아가셨는디.

102006 @ 아아.

102006 #1 우리 아버지는 어떠헤연 돌아가셔서닌 허민 토산, 토산에덜이 그 폭도들이 많이 나서.

102006 @ 토산에.

102006 #1 그 토산사름덜을 하영 이제도 폭도, 폭도도 기고 폭도 아닌 사름도 기고 돈딱 썰어단. 표선면사무소 이제 읍궐지만 묵은면사소에 거기에 다 가와 놓니까, 그 이제 폭도가 흔 사름이 폭돈지 폭도 아닌 사름이 도망천에 우리 친정 집의 가 나무가 많이 있어나수다게. 게난. (중략-개인사)

102006 @ 아, 여기 표선에 이신 사름은 혼자 엇어마씨?

102006 #1 나 밑에 여동생.

102006 @ 예예.

102006 #1 저 국민학교 저 선생이라나신디 가이 요디 동생 이젠 퇴직허고. 그 밑에 또 우리 남동생이 이신디 여기서 살고.

102006 @ 예.

102006 #1 우리 삼 남매 표선리 살고 우리 사 남맨디 오빠는 서울 살고.

102006 @ 음. 게난 오빠한테만 다 투자를 헛구나게. 부모님네가.

102006 #2 아이, 잘 삽니께.

102006 @ 예. 아, 집도 큼디가게. 슈퍼는 족아도.

102006 #1 예. 산다는 게 그자 그럭저럭 살다보난 살앗주.

102006 @ 맞아예?

102006 #1 옛날 산 거 생각허민.

102007 @ 우리 결혼은 어떻 중매결혼헐디가? 연예결혼헐디가? 삼춘.

102007 #1 중매결혼이주.

102007 @ 어떤 식으로 행은에 결혼헐디가? 웃음.

102007 #2 나 부산 살 때.

102007 @ 예.

102007 #2 표선리 그 처녀들이 부산엘 물질 가십디다게.

102007 @ 예예.

102007 #2 젠디 우리 후밴데.

102007 @ 예.

102007 #2 게, 가니까 이제 춤, 고향에서 왓젠 허고 후배들 왓젠 허니까 저 부산 기장.

102007 @ 예. 기장. 다시마 유명헌 디.

102007 #2 예, 기장이란디 그디 왓젠 헨에 우리 형님은 동아대학교에 입학헐나 수다게.

102007 @ 예, 예.

102007 #2 경혜연 그디 간보니까 바로 우리 후배고, 젠 와십디다게. 완에 그때 후배 눈독 들엇단에 난 집의 잇고.

102007 @ 예.

102007 #2 난 부산에 잇고, 장계 새각시 구허켄 허면서 허길래 그, 그 집의 헤 줍센 헨 들어쥔 결혼헐수다.

102007 @ 멧 설에 결혼헐디가? 일찍 헤신게.

102007 #2 우리 두 살에. 우리 처는 스무 살에.

102008 @ 아아, 그땐 사주도 봐실 거 아니라예?

102008 #2 사주 봐십주. 보니까 막 천생연분이엔 헨마씨.

102008 #1 웃음.

102008 #2 정시 사주보는 사름이 우리 켜당입주게. 켜당이니까 물론 좋게 말해 준 거 답아.

102008 @ 아, 원해부니까?

102008 #1 잘 살곡, 애기덜이영 잘 살고.

102008 @ 인상이 좋아갖고 여자들이 막 따라 땡겨실 거 답아 . 웃는 거 보난 답아예.

102008 #1 어?

102008 @ 웃는 거 보난 여자들 따라실 거 답아예?

102008 #1 동창으로 모여근에 기자 먹고 놀고 그자.

102008 #2 우리 동창덜, 상당히 춤 동창훼 잘 뒀어낫수다.

102009 @ 아아, 그, 혼수품이나 결혼 예물은 뭘 해주고 뭘 받으니까?

102009 #2 혼수품은 받질 아닙니다. 그때는예 여자한테 받질 아닙니다. 나 부산에 잇을 때 그때 시계 하나 헐 와십주게, 시계 허난 막 소문난.

102009 @ 아, 그때 시계도 엇일 때난예?

102009 #2 손목시계.

102009 @ 예.

102009 #2 혼 삼십 년 이상 보전해나수다게. 고장 나도 그대로 놔두고.

102009 @ 이제는 엇어마씨.

102009 #2 이제는 엇어. 어디 갖는지.

102010 @ 거 잇어야 돼는디? 결혼식은 어디서 헐마씨?

102010 #2 결혼식은예 표선리 그 예식장이 엇엇수다게. 엇엇는데 그, 저 저, 보통 뭘 타곡 사모관대 쓰곡 헐는데 우린 신식으로 헐서마씨.

102010 @ 음.

102010 #2 마당에, 천막 쳐서.

102010 @ 예.

102010 #2 그래서 허는데 제주시예 가면은 교육계에 오래 잇는 분인디 현화진 교장선생.

102010 @ 예예.

102010 #2 아십니까?

102010 @ 성읍분예.

102010 #2 예, 그디가 표선중학교 교감으로 올 때우다.

102010 @ 예.

102010 #2 경헌디 그분이 초등학교도 가리켜났고 우리 동창도 잇주마는 초등학교 육학년 때 그분 처가침의가 신희우다.

102010 @ 예.

102010 #2 경헌 저 서귀포 걸언에 수학여행을 갔다와십주.

102010 @ 음.

102010 #2 갔다웁디게양. 그분허고는 아주 중학교 때도 우리 가리키고.

102010 #1 장작 다 시끄고, 밥 해 먹을 가메 다 시끄곡. 경헌예 그 수학여행 갈 때. 에이그.

102010 #2 수학여행 간 저 신희국민학교.

102010 @ 예.

102010 #2 그디 가니까 밤에 어둡으난예 그 신희국민학교 육학년 아이덜한테 혼 사름, 육학년 학생 두 사름씩 부쩍 집의 강 제완단 아침에 데려와집주게. 경헐는디 우린 이디서 헐 때 정심 싸가게 돼민 조팝에 감자 영 해 놓곡 해영 먹었는데, 우린 부갓침의 나는 해당이 돼가지고.

102010 @ 예.

102010 #2 고태근이라고.

102010 @ 예.

102010 #2 부자칩에 해당이 돼갖고 그디 간 저녁도 곤밥 해주고, 그 이튿날 싸주니까 고맙덴 헨 나오란 서귀포 완 점심 먹으멍 딱 갠 보니까 딴 사름은 조팍에 보리밥인데 난 완전히 곤밥이라.

102010 @ 음. 수학여행 간 때?

102010 #2 예. 그딴서 정심 해준 것이. 어떻게 우쭐돼지는지양,

102010 @ 아아.

102010 #2 그 재와준 그 학생 이름을 딱 기억헨 놔뒀습주.

102010 @ 예.

102010 #2 기억헨 놔두서 신호 거기 지나 갈 때마다 저만큼에 그 집에 잇었다 생각을 헛는디, 어느 기회에 나가 신헌에 그 이사장을 해수다게.

102010 @ 예.

102010 #2 여기 오란 살 때 신헌에 이사장을 오란 살 때 서귀포 회의혈 때 간 그 역대 이사장 명단을 딱 보니까 고태근이라고 잇어. 아 그래서 직원한테 물어서, “고태근 어디 사름이냐?” 허니까 신호 사름이엔. 아이고, 일부로 좇아가십주. 그분은 깜박 잊어버렷어.

102010 @ 그렇주마씨?

102010 #2 잊어버렸는데 아, 그때 와서 자기네 집의 와서 자난 그 생각이 난다 고. 경헨에 춤 그분 돌아가섯주마는 그때부터 알아가지고 켤장히 친히게 지내낫수다게.

102010 @ 결혼 애길허단 이젠 수학여행 얘기. 결혼식은 아까 집의서.

102010 #2 집에서 허는데, 현화진 그땐 교감으로 잇을 땐 교장 선생도 놔두고 이제 우리 저 삼춘 오춘이 저 여기 표선면장으로 잇엇수다게. 오춘안티 의논허난에 현화진 선생한테 헤드렌 허라. 해서 강 부탁을 해십주게. 부탁허니까 난 주례를 안사랐는데, 처음으로 산 거라마씨.

102010 @ 예예.

102010 #2 그래가지고 우리 마당에 천막 쳐놓고 헨에, 저 둘러리가양 은호허곡 준범이가 헛수다게. 나 둘러리.

102010 @ 예.

102010 #2 경헨에 헛는데 굉장히 잘 헛디다게, 주례가. 그 다음에예 그 현화진 교장 선생 제주시에 나 표선이 올 때 만나민, “야, 아이덜 멧이라.” 묻곡. “아이덜 건강헤여. 어느 학교 가서.” 지금도 만나면은 그렇게 물읍니다. 첫 주례로 그 신헌 신푸를 잊어지질 아녀는 거 닐아마씨?

102010 @ 음, 경헛구나예? 경헨에 결혼 사진도 찍고, 사진도 잇수가?.

102010 #2 예예.

102011 @ 나중에 그 사진 혼번 보게예? (웃음) 신헌살림은 어디서 헨마씨?

102011 #2 아, 이디 여기서 새각씨 나뉘된 결혼헤 혼 삼 개월쯤 잇단에 난 부산 간 살아십주. 부인은 여기 놔두고.

102011 @ 건 무사마씨?

102011 #2 아, 부산 가서 일을 해야 월급 받안.

102011 @ 돌양 가압주. 무사 거 꼭 내붙어똥예.

102011 #2 그때는예 데령 갈 형편이 아니우다게. 부산예, 나가 오십삼년도에 부산 갓수게.

102011 @ 예.

102011 #2 오십삼년에 육이오 동란 정전똥지 아녀수가? 한창 팡팡 허단에. 그디 간 해놓니까 피난민들이영 무신 거 허영 살 형편이 아니라마씨. 그래서 오십육년, 오십칠년도에 결혼을 헛수게.

102011 @ 예.

102011 #2 그래서 이디 살고 난 부산 가서 월급 받노렌 헤 살아봐도 월급도 잘 안 똥고예, 우리 집의 사람 막 고생헛수다. 여기서.

102011 @ 똥 년에 내려온 거라마씨?

102011 #2 거기서 팔년 만이 내려왔수다.

102012 @ 아이들은 어떻 똥마씨?

102012 #2 아이들은 아들 둘에 딸 셋마썸.

102012 @ 음, 아들 둘에 딸 셋예? 씨집살이. 자식들은 다 결혼헛고예?

102012 #2 예.

102012 @ 예, 며느리허고 사위에 대헛?

102012 #2 며느리 저, 계난 이디는 우리 집사름허고 나허고만 살암수다.

102012 @ 지금은예?

102012 #2 우리 큰아덜 제주시 강 살고예, 또 작은딸 또 제주시예 가서 교편.

102012 @ 아, 하고.

102012 #2 교육청예 지금 갓수다. 똥냐 그 교감 똥젠 헤 시험보니까 합격헤예 교육청예 근무허고 잇고.

102012 @ 송연심이우과? 혹시.

102012 #2 송미예.

102012 @ 아, 송미예도, 다른 저기우다. 무사 저의 친구도 거기 가 잇어서 아, 경허고 그 가족관계 해갓고 똥붙인 거 잇어마씨? 재미 잇거나 이런 결혼생활 허는 거 중에?

102012 #2 그 작은딸이 큰딸 큰아덜 셋딸은 여기 표선에서 학교를 헛고, 작은딸은 서귀포 나 가니까 서귀포에서 인자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서귀여고 깃지 나오란 제주대학교 나오란 선생허고 잇고 이렇게 헌데, 그 위낙 곤란허니까. 서울예 우리 누의동생이 잘 살아수다게.

102012 @ 예.

102012 # 큰누의동생이. 그래서 인자 보아가지고 “아이고, 오빠 미엘랑 저 서울에 보냈서.” “보내면 나 키우곡 저 대학교까지 다 시키쿠다.” 이렇게 해서 “으 좋다.” 경허게 했는데” 어멍이 “늑시 안 된다”고. 경헨 했는데 그 족은딸이 그걸 눈치알아가지고 그때 막 울면서 경헨났수다. “그디 보내젠 헛젠.” 허는데, 아이가 경 공부를 잘 해가지고.

102012 @ 예.

102012 #2 가이 졸업헸 때 우리나라에 임용고시가 처음에 생겼수다게. 그때 합격헸에 지금 수학 선생으로 잇수다.

102007 @ 예, 이젠 삼춘안티 물어보쿠다예. 삼춘 중매결혼 헛수가? 아니면 연예결혼 헛수가? 삼춘은.

102007 #2 나는 그때에 그때 결혼 처음 스무한 살에 해신디 중매결혼 이디 하천리.

102007 @ 예.

102007 #1 처음 결혼헸에 신랑 되는 사름은 결혼헸영 곧 일본 가부난 일본 간편지도 안 오고 소식이 엇이난 게연 뭐 이제 우리 이제 애들 아방 만난에 그냥 표선서 살고.

102007 @ 남편도 이제 표선이라났구나예?

102007 #1 아니 육지. 진주라나신디.

102007 @ 예.

102007 #1 나가 여기에서 다마네기ㄴ튼 거 미역같은 거 이제 부산 장사 막 텅긴데 그 우리 신랑은 제주상회 잇어나서. 거기에서 사무 보멍.

102007 @ 예.

102007 #1 게난 물건 그디 시꺼당 놔두면 잘 팔아근에 돈으로 잘 주곡. 경 하단보난에 정들언에 같이 살안에 행 표선이서 살단 돌아가시고.

102007 @ 연예결혼헸신게 게문예?

102007 #1 그거는 ** 연연지 그자 그럭저럭허연.

102008 @ 사주는 봐실 거고. 경헸도. 사주 봅디가?

102008 #1 사주 보멍 기자 그냥.

102008 @ 그냥 거시서 살아봅디가? 게난.

102008 #1 그냥저냥.

102009 @ 그 혼수품이나 결혼예물은 어떤 걸 헸마씨?

102009 #1 우리 나가 처음에 결혼할 땐 혼수품 그런 건 엇어. 그자. 이불허고요허고 무신 례 헸나 허고 그거 헸 가는 게 기본.

102009 @ 예.

102009 #1 그거 행 간에 그 하천리 간 뭐 거 다 내벼뵤에 가져오지도 아넨 내벼뵤 기자.

102009 @ 어, 어쨌든 가부난예? 거기서는 땃 년 잇단 온 거라.

102009 #1 몇 년 잇단 뭐 결혼해연에 뭐 일년도 아니 돼연에 그 남자 일본 가
부난에 그 웨 한 이년 동안 갖다왔다하단 기자 거기 치와부런.

102009 @ 소식은 못 들고.

102009 #1 치와불고.

102010 @ 잘 해수다. 겐 그때 결혼사진은 찍읍디가?

102010 # 결혼사진 찍어신지 그때 결혼사진 어디사 가신지 엇어.

102011 @ 웃음. 신혼살림은 어디서 헨 거? 그때.

102011 #1 신혼이명 그때 시집의서 경허단 가부난 무신.

102012 @ 아이들도 엇고, 지금은 자식은 몇마씨?

102012 #2 딸 두 개 아들 하나.

102012 @ 딸 둘 아들 하나. 어디 살았수가?

102012 #1 아들은 서울 살고 딸은 큰딸은 저디 모실포.

102012 @ 예.

102012 #1 그디 살고. 저 작은딸은 제주시, 제주시에 가근에 살고.

102012 #2 아들이 막 유명해 마씨. 아들이.

102012 @ 아들이.

102012 #2 학교 어디?

102012 @ 계난 여기는 혼자

102012 @ 아들이?

102012 #2 어디 대학교.

102012 #1 서울 시립대학교 교수.

102012 @ 으, 서울시립대학교?

102012 # 서울대학교 석사 박사학위 다 받고 미국 유학도 갖다 오곡. 서울 그냥
그 시립대학교 교수로 기자 기냥 살았서.

102012 @ 예.

102012 # 메누린 서울대학병원에 수간호원이고.

102012 @ 음.

102012 #2 이제 한이 돼는 게 아들 안 낳앙 딸만 두 개 난에 낳렌 해도 안 나
부난에 그것이 복통 나는 거주.

102012 @ 더 나시민 아들들 저기 할 건데.

102012 #1 딸만 둘이 난에 죽은아이가 국민학교 육학년인디.

102012 @ 안 나켄마씨?

102012 #1 안 낳겐. 저 요변이 완에 막 헨나 더 딸이고 아들이고 나보레 해보난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딸만 두 개엔 허멍.

102012 @ 웃음.

102012 #1 경허멍 ㄱ난 이놈이 자식아, 그 그디 미국하고 우리하고 문화가 틀린
디 그런 말 허민 돼느넌 허멍 막 싸완허난 포기해연 이젠.

102013 @ 예, 포기하는 게 좋수다게. 게연 그 혹시 씨집살이 이런 것도 안 해 봐시커라예?

102013 #1 씨집살이 그런 건 안 하고 그자.

102014 @ 자식덜 결혼은 다 시컨마씨? 헨?

102014 #1 모실포 간 거기 모실포 보성에서 행복주유소.

102012 @ 예.

102012 #2 우리 큰딸은 그거 하고. 그런대로 밥은 먹영 살아.

102014 #2 잘 살아.

102015 @ 게연 메느리하고 사위 자랑 좀 해봅서?

102015 #2 메느리는 우리 아덜 결혼할 때에 그때에 몇 년도에 결혼해서, 결혼할 때에 그때에 전셋돈 팔천만 원 결혼시키고 팔천만원 해주멍 이 이상은 바라지 말라. 절대 못한텐 지네대로 벌언 그거 팔천 만원 준 것에서 헝뎀 더 보태연에 조그만 집 샅단에 이젠 딸 두 개 난 방도 다 딱로딱로 쓰게 똬난 죽텐 헨 그 집 풀안에 큰집 헨에 헨, 큰집 헤영 할 때도 돈도 그때 그런 말 골아부난 드렌도 아녀고 주젠도 안 하고 또 주젠 해도 또 었고.

102015 @ 웃음.

102015 #1 경헨에 원 아덜네 집의 가보지 안 헨에 서울대학병원에서 무릅 수술 아덜네 집의 딱 이틀 밤 이틀밤 잔에 이디 완. 그거 이틀 밤 이틀 산 것이 아덜 하고 그거 산 거.

102015 @ 웃음. 게난 거의 뜯덜하고만 연락헤연 살암구나예?

102015 #1 애기 딸. 사위는 그 주유소하고 그냥 사업덜 허멍 살암서.

102016 @ 노인혜장 안 허민 안 돼 이 동창들허고만.

102016 #1 동창들 때문에. 동창 권유에 헨에 하단 보난.

102016 #2 노인회장 헨 때도 세 사람이 출마했는데.

102016 @ 예.

102016 #1 남자 둘이하곡.

102016 @ 남자 둘을 물리치곡?

102016 #1 남자덜은 다 대학졸업헌 사름덜.

102016 @ 아, 게도 동창 힘이 크다예?

102016 #2 둘이 표보다 훨씬 많이 얻언. 인기가 처너 때부터 잇엇수다게.

102016 @ 음, 베풀기를 잘헸구나예?

102016 #1 베푸는 것 보단 성격이 남하고 지는 것도 싫어허곡, 또 남하고 씹는 것도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라놓난에.

102016 @ 예.

102016 #1 건드리지 아녀민 씹지 아녀믄 돼고.

102016 @ 음, 맞습니다. 예.

102016 #1 살당 보난 그자 혼자 집의 나 혼자 사는 거.

102016 @ 알아수다. 이제까지는예,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예 잠깐만예?

3. 밭일

103001 @ 예, 이젠예 농사 지어보젠마씨. 이젠 다 옛날에 했던 거난예, 밭일 하는 거는 옛날 해난 거 골아줍서예? 어떤 밭일 해여수가?

103001 #2 밭일엔 현 건 췌해근에엥 밭 갈앙 씨뿌리로 해근에 남테로 해서 남테는 사름이 막 끝나다게.

103001 @ 예.

103001 #2 거 이렇게 혼합시킬라고.

103001 #1 남테. 남테도 이만은 둥그런현 나무를 이 정도 길쭉현 거이.

103001 @ 예.

103001 #1 그것에 그 군데군데 고망을 뜯라가지고 거기 다 밭을 박는 거라.

103001 @ 음.

103001 # 거 둥그려가가면 그 밭로 밭이 뽕뽕하게 밟아지게 그 남테엔 한 것이 그런 거를 소덜 소 말 엇인 사름덜은 그런 거 가정 사름으로.

103001 #2 우린 다 사름으로.

103001 #1 사름으로 하고. 우리 집 경우에는 소하고 말이 많으니까 소덜하고 말하고 해근에 조. 옛날에는 멍청현 거라 그때양. 이제 빼영 내벼도 돼는디 줍씨 빼영 데깅허게 밟으는 거라. 그 완전 골게기 들어가지 아니할 정도로. 경혜사 조가 잘 된다고.

103001 @ 으음.

103001 #1 경혜신디 이젠 기냥 빼여근에 꼬시게질만. 꼬시게엔 현 건 나무 소나무라도 영 췌 이신 거 멧 가지 심영 영 납작하게 만들영 그걸로 슬슬 꾹영 씨만 묻어저도 돼는 거를 옛날에는 그치록.

103001 @ 경 다련예?

103001 #1 하루 종일.

103001 @ 아.

103001 #2 그 소, 소 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 저 오랑근에 불러드렌 허면은 내일 멧 시에 올랑은에 불러 줍서 허면은 물 말덜 가정오라서 딱 디믈라서 다니는 데 것보고 테우리, 테우리.

103001 @ 예.

103001 #2 그 사름덜 얼마나 잘 받은 줄 얹이우파? 우리는 조팍 보리밥을 정심으로 하고예, 그분안티는 고기 다 굵고 곤밥해당은예양 경 다 대접허젠 허민 잘 불러주지도 아녀마씨.

103001 @ 이 표선리도 테우리들이 으라 집 잇었구나양?
 103001 #1 소 우리 친정에도 말 한 오십 개씩 잇어나수다.
 103001 @ 아이고.
 103001 #1 오십 개 잇언 혼 우린 우잣이 멧 핑이나 웨여. 혼 백 평 정도 웰 거
 라. 멧 그디 다 물.
 103001 @ 아.
 103001 #1 이 쪽에 길게시리 집 짓은 거 소.
 103001 @ 으.
 103001 #1 소는 눈 올 때라도 집 속에서 하고 말은 눈 올 때도 베갯디 기냥 출
 만 쥬 내벼도 어떻 안 허는 거란게.
 103001 @ 진짜 부잣집, 일등 부자라났구나.
 103001 #2 막 부자라나서.
 103001 #1 밧 하나가 만 평. 그거 다 농사지레 두린 때 게나제나 우리 어머니네
 일만 일만 헤부난 다리가 처녀 때 다리가 고장난 거.
 103001 #2 경해도 고장나도 아들허고 메느리 이시난 다리 다 새 겔로 고침수게.
 103001 @ 게니까마씨.
 103001 #1 아이고.
 103001 @ 알아수다. 이제는.
 103001 #1 옛날 생각허민.

보리농사

103002 @ 보리농사부터 헤보커라예? 보리농사 짓젠허민 어떤 식으로 준비헿수
 과?
 103002 #1 보리 농사 짓젠허민 어떻 준비헿신고 허민 그때는 영 돛통 만들어
 놔근에 도새기를 키우지 않아요.
 103002 @ 예.
 103002 #1 도새기 키우민 그 거름을 만들젠 보리짚 같은 거 바당에 가근에 듬
 북.
 103002 @ 예.
 103002 #1 듬북 그거 헤다근에 보리짚 농곡 듬북 농곡 헤근에 돼지가 똥 싸멍
 거 밟으민 그것이 거름웨. 일년 동안 하면은. 게면은 음력으로 시월달 웨면은 그 거
 름을 이 남테.
 103002 @ 예.
 103002 # 남테엔 현 거는 양쪽에 영 헤근에 저 남으로 딱 웬 거 헤근에 이디 저
 그 줄.
 103002 @ 예.
 103002 #1 집, 초가집 그 이는 줄 잇잖아요. 그거, 그거 가져근에 이레저레 헤근

에 그거를 요만은허게 멘들아근에 양쪽으로 영 해근에 두 사람이 그 돛통에 가근에 그 쉼스령으로 걸로 막 해영 그레 다 퍼 놔근에 둘이가 들렁 나와근에 올레에.

103002 @ 음.

103002 #1 올레 와근에 해영. 그 이제 혼 낫전은 그 돛통에 거 다 퍼내영 거 해 놓면은 그거를 이제 보리씨를 그레 막, 그 걸름테레 뿌리멍. 뿌리멍 소 해근에 막 밟으는 거라.

103002 @ 음.

103002 #1 그 씨를 다 걸름에 서꺼지라고.

103002 @ 예.

103002 #1 쟁근에 밋이 천 평이면은 씨가 얼마 든다 그거를 이 생각해근에 그 씨를 다 뿌리멍 그 소 해근에 그거 다 밟앙. 또 이제 두집어 놔근에 또 씨 뿌리멍 다 밟아. 경해영 그거 영영해영 모두와 놔근에 뒷날은 그거 아까 돛가레착.

103002 @ 음.

103002 #1 응. 그 돛가레착에 그거 다 해근에 걸름을 담아놔근에 다 밟아.

103002 @ 음.

103002 #1 경 해영 소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양쪽에 흥나씩 시꺼근에 밋 디 가근에 다 시꺼당 비와 놓민 그 돛날은 사름 멧 사람이 빌어가지고 그 돛가레. 그 돛가레엔 허주게. 그 걸름을.

103002 @ 예, 예. 돛가레.

103002 #1 돛가레를 그거 옛날엔 고무장갑도 장갑도 아무 것도 엇이니까.

103002 @ 맞수다.

103002 #1 손으로 문딱 그거 소로 막 밟아논 거 탄탄한 거를 부비멍 그거 막 부벼근에 골고루 뿌려야 그 보리씨가 골고로 날 거니까 근치룩해근에 보리 갈아.

103002 @ 음,

103002 #2 경해영 그 이튼날은 소로 갑주게.

103002 @ 예.

103002 #1 소로 다 뿌려놓은 거 소로 밋 갈멍 그 돛가레 다 문영. 게영 그 뒷날 썸 돼면은 돛가레가 다 묻어져시냐 안 묻어져시냐 그 콤베엔 현 거. 콤베.

103002 @ 예, 예. 콤베.

103002 #1 그거 콤베 가정 다니멍 그 흑이 이렇게 헤진 거는 병에. 그 병에 그 콤베 보리 이제 흑이 이렇게 헤진 거는 병에.

103002 @ 예.

103002 #1 병에를 그거 콤베로 뿌스멍 거름을 묻는 거라.

103002 @ 아아.

103002 #1 게영 묻어근에 허영 보리 나면은 이제 밭로 다 밟아.

103002 @ 삼춘, 아까 그 걸름 읍길 때 나무로 행은에 만들엇덴 헨 그 일름이 뭐라마씨?

103002 #2 남테, 남테.
 103002 #1 남테.
 103002 @ 아까 밧 꺾을 때 쓰는 그거는?
 103002 #1 그거는 남테, 아니.
 103002 @ 두 개 다.
 103002 #1 산테, 남테.
 103002 #2 산테.
 103002 #1 산테, 남테.
 103002 #2 들러서 허는 거는 남테.
 103002 @ 예, 기지예.
 103002 #2 두 사름이 들르는 거는 영해서 들른 거는 산테.
 103002 #1 밧 밟으는 그거는 남테.
 103002 @ 아까 이것도 남테렌 허고, 이것도 남테렌 허니까.
 103002 #1 계난 그거는 요셋 아이덜 말하면은 하나도 알아먹지도 못허고.
 103002 @ 맞수다.
 103002 #1 거 우리, 우리도 웃터레만 알지 그 밑으로는 잘 몰라.
 103002 @ 계난 이런 살아온 이야기를 이치록 녹음 안 행 놔두면 누게가 훗날 알 거우과게. 계난 허는 거마씨?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영 가는 거라예? 아까 보리밭 걸름은 우리 삼춘은 경 헛덴 어떻 준비해수가? 보리밭 걸름.
 103003 #2 우리도 마찬가지.
 103003@ 마찬가지예?
 103003 #1 다 마찬가지.
 103004 @ 그럼 보리는 언제 누가 어떻행 가는 거우과?
 103004 #1 보리 그때 거름 보리 해근에.
 103004 @ 계절
 103004 #2 시월달에.
 103004 #1 시월달에 다 허면은 그때는 음력 오월 달 뒤편은 보리 빌 거 아니.
 103004 @ 예.
 103004 #1 다 비여근에 오월 단오멧질 해여 먹영 보리 비레 가젠 허민 완전 싹 평 죽어지는 거라. 멧질해근에 막 그때는 먹을 것이 별로 없으니까 멧질 때 같으면 봐지는양 막 먹으민 베도 불령 실폰 디 보리 비레 글렌 허민 완전 안 가면은 매 얻 어맞일 거고 보리 비레 가근에, 보리가이 그때도 사름덜이 이제 ㄴ치 역하시면은 그렇게 꼬부라질 때 ㄴ장 내불지 아널 건디. 보리가 다 곱는 거라.
 103004 @ 음.
 103004 #1 보리 ㄴ고리가 땅드레 가고. 경허민 그거 혼쭈 영 꿩영 영영 폐왕 그 고고리가 혼 디레 와야만 그 저 거세기 틀.
 103004 @ 예.

103004 #1 보리틀 그것에서 보리 이렇게 해근에.
 103004 #2 홀탕.
 103004 #1 홀탕.
 103004 @ 음.
 103004 #1 경 해영 이제.
 103004 #2 도끼로.
 103004 #1 도끼로 허영 두드렁. 그 두드리멍 보릿ㄴ스락 다 꺼꺼지게 그거 쫄만
 뒤편시리 두두려근에 바람에 불렁.
 103004 @ 음.
 103004 #1 경해근에 보리 그 기젯방에 가정 강 골아근에 경 허영 그 시절엔.
 103004 @ 엇그저께 같은 디예?
 103004 #1 이제 이제 우리 똥덜안티라고 경 골으민 그거 무신 말인지 도저히
 알아듣지 못허여.
 103006 @ 보리 종류는 어떤 종류 있어났수과?
 103006 #1 슬우리하고 이 줄우리.
 103006 @ 음.
 103006 #1 슬우리, 슬우리엔 한 거는 이 줄이 저 네 줄로 있어, 네 줄. 슬우리
 는.
 103006 @ 음.
 103006 #1 네 줄로 있어근에 이제 그 보릿ㄴ스락이 영영 부떠 잇고. 줄우리는
 두 줄.
 103006 @ 음.
 103006 #1 두 줄만 이신 거는 줄우리. 녀 줄 이신 건 슬우리.
 103006 @ 음.
 103006 #1 그 보리 이름이.
 103006 @ 이름이. 두 가지만 있어나수가?
 103006 #1 두 가지만. 그 다음은 밀.
 103006 @ 음, 밀도 해연예?
 103006 #1 밀도 갈양 밀 그거 해근에.
 103006 @1 것보리 이런 거는 엇어나수가?
 103006 #1 것보리가 거 줄우리.
 103006 @ 아, 것보리허고 줄우린 ㄴ튼 거예? 예. 혹시 보리밭도 블랏수가?
 103006 #2 블랏주.
 103006 #1 보리 블랏주게. 보리 나면은 보리 나민 옛날에는 눈이 위낙 많이 오
 면은 막 땅이 곶아근에 이만이 올라와. 곶앙. 그거 밟아주지 아녀민 보릿밭[보리빨]
 다 들러져근에 보리 다 죽어분덴 해여근에 보리를 다 블른 거라.
 103007 @ 보리 블를 때 어떤 식으로 블른 거라마씨?

103007 #1 파니 우의 텡기멍 그 포기 포기마다 발작 농멍 막 불르멍 가는 거라.
 103007 @ 파니 우의서.
 103007 #1 가근에 다 헤지민 돌아오멍 또 불르고.
 103007 @ 음.
 103007 #1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그 보리 불르는 것도.
 103007 @ 그러니까예. 아, 보리밭 그 검질은, 검질도 하영 매얍니까?
 103008 #1 검질도 매영.
 103008 @ 멧 번 맵니까?
 103008 #1 검질, 보리밭 검질은 혼불벳기 안 메고.
 103009 #2 혼 번 매른 웨여.
 103009 @ 아, 혼불만 메여예? 어떤 검질들 납니까? 거기는.
 103009 #1 겨울 검질은 그 옛날엔 겨울검질이나 여름검질이나 검질은 잘 난. 잘 나서. 무사 ** 허민 이제 ㄱ치록 제초제 그런 거 안 썩 순 손으로만 깨끗하게 하지를 못하니까. 두루두루헨 내부난 만날 매해 그자 그 빨리에 그 검질이 나는 거라.
 103009 @ 그 일름들은 알아지쿠과? 어떻 검질 나나신 거.
 103009 #1 검진 그거 무슨.
 103009 #2 제완지.
 103009 #1 제완지.
 103009 @ 예.
 103009 #1 따시 뭐 고롬풀.
 103009 #2 고롬풀. 고롬풀은 죽지도 아녀.
 103009 @ 고롬풀은 어떤 겨우과?
 103009 #1 영 메면은 고롬 닳은 거 나.
 103009 @ 음.
 103009 #1 그 검질에서.
 103009 @ 검질에서.
 103009 #2 고롬풀이에 메여서 저 돌담 우의도 놔둬도 혼 들이 웨도 죽지 아녀.
 103009 #1 죽지 아녀.
 103009 @ 고롬풀이 그 요즘 췌비눔이렌 헨 겨우과?
 103009 #1 췌비눔 말고.
 103009 @ 아, 또 다른 게 잇구나예?
 103009 #2 췌비눔 닳아.
 103009 #1 췌비눔은 빨경헤근에 막 영 이치록 슬정 막 영 벌겨지는 건디 그 고롬풀은 그 줄이 깎는깎는헤영 땅소굽에서 막 영 번어가멍 우터레 기자 썩만 동글랑헨 거.
 103009 @ 음.
 103009 #1 요만씩 동글락헨 거 직각헤여근에 혼 덩어리가 이만씩 헹 그거 그

혹 다 털젠 하민 그치룩헤근에 그거는 다 풀치는 거.

103009 @ 으음. 풀치는거.

103009 #1 그 농사 짓젠 허면은 밧 갈아낱은에 그 풀이 없어야 농가사 돼기 때문에 혹 다 풀치는 거. 농사 그 풀이 농사를 그 검질을 다 쳐 내는 거라. 다 메여내는 거. 메영 다 치와뒤근에 그거 조도 불리고. 그런 것에 얼떡언.

103010 @ 고름풀이 잇어났구나예? 아까 보리 그 수확예. 아까 저 비엿젠 허는데 어떤 식으로 수확헨마씨?

103010 #1 게난 그거 아까 도께로 두드려근에.

103010 @ 빌 때부터?

103010 #1 보리 비명 다 그 꼬고라진 거 영영 비명 보릿고고리를 한쪽으로 오게시리 다 털명 이제 비여근에.

103010 @ 음.

103010 #1 거 다 무경. 무꺼근에 마차나 무시거 엇인 사름덜은 다 지어오고.

103010 @ 음.

103010 #1 경 아년 사름덜은 부자칩의덜은 뭐 소 말 이신 사름덜은 소 말에 다 시꺼근에 집의 와근앵게 그거를 이제 늘 늘영.

103010 @ 음.

103010 #1 늘 이렇게 늘어근에 낫다근에 그거를 날 종민 홀테에 다 홀탕.

103010 @ 음.

103010 #1 경헤근에 보리찍은 보리찍대로 헤근에 무경 행 낫다근에 그거는 돛통에 농명 거름을 만들고.

103010 @ 음.

103010 #1 그 보리 그 행 도께로 막 두드려근에 그 ㄴ스락 다 꺼꺼지민 그 바람에 불려근에 하면은 그 보리만 이렇게 나오민 그거 헤영. 그거 행영 그거 헤근에 장만헤 농면은 이제 또 멍석을 폐와와근에 삼일씩, 삼일씩을 말려야 돼여.

103010 @ 음.

103010 #1 이 혼번 말령은 그 기갯방에 가근에 골아지질 아녀.

103010 @ 아.

103010 #1 강 삼일씩을 말라야만 삼일씩 그 멍석 폐와와근에 그거 헤근에 하루 두 번 세 번 채우쳐근에 또 널영 또 해가 저만인 가민 혼번 채우청 이제 또 널영 그치룩하명 삼일 동안 말려근에 기갯방에 가근에 그 골아근에 보리쥬.

103010 @ 그 보리 빌 때는 뭇로?

103010 #1 호미로.

103010 @ 호미로 헨에.

103010 #1 호미로 앓아근에 영영 비는 거라. 앓앙.

103012 @ 음, 그 아까 이제 보리를 멍석 위의 영 년텐 헛잖아예? 그 너는 거를 뭇런 험니까? 뭇 널엇저 허여?

103012 #1 보리 널었저.

103012 @ 날레 이런 말은 안 써마씨?

103012 #1 보리 널었젠도 날레 보리. 보리 지금 우리 어머니네 경우는 밧디 강 날레 채우칭 널라. 경허멍이 날레 채우정 널라 그치룩허멍.

103012 @ 거기도 이렇게.

103012 #1 근데, 근데, 근데로 이제 영영 나무 영현 것에 쫓뻗쫓뻗허게 이렇게 영 뜯게시리 해근에 이걸로 굶어지게시리 허영 근대.

103012 @ 건 근대예?

103012 #1 즈룩에여 막꿇데 부짱.

103012 @ 건 근대예?

103012 #1 그걸로 근대여 그런 거 그 우리부터 우에 사름이나 알주. 그 밑에 사름은 근대니 무신 거니.

103012 @ 근대허는 거잖아예? 굴묵 질는 거는 뭐렌 허여? 굴묵도 허는 거?

103012 #1 굴묵허는 것도 근대엔 허여 그거.

103012 #2 작은 거.

103012 #1 족게시리 허영.

103012 #2 날레에 허는 거 영 넓게 현 거고. 굴묵에 허는 거는 작게.

103012 @ 일름을 둘 다.

103012 #2 굴묵근대.

103013 @ 아, 굴묵근대? 으, 그리고 삼춘, 이제 보리쫄 이제 멘들 거 아니우과?

아까 기젯방에 강은에 그 보리쫄론 뭘 해영 먹어수가?

103013 #1 밥 해영 먹엇주게.

103013 @ 예, 밥만 해영 먹어시카?

103013 #1 밥만, 밥만, 해영 먹언.

103013 #2 보리쫄로 무신 거 해영 먹을 것이 엇수다.

103013 #1 술 ㄴ튼 거는 해도 술은 그 위낙 이제 보리 갈아가지고 이녁네 식구를 먹당 남을 정도로 한 사름덜은 술 담고.

103013 @ 음.

103013 #1 저 그치룩 남을 정도로 해근에 먹을 집의가 뻗 집 엇어.

103013 @ 무사게 보깡은에.

103013 #1 아니, 게난 개역 행 먹는 거는 그 개역은 뭐 양식이 남으나 안 남으나 일단 혼번 보리농사 지면은 개역덜은 혼번씩 술우리 집에서 해근에 솟두깽이에 보까근에.

103013 @ 예에.

103013 #1 보까근에 그거 집의서 집의서 ㄴ레에서이, ㄴ레에서 곶아근에 하는 것도 있고, 헨 그 초창기는 그치룩 곶앙 먹어신디 흥뽀 셴 기젯방에 가근에 곶아다 근에 보릿개역.

103013 @ 보릿개역예?

103013 #1 보릿개역예, 그땐 설탕도 없으니까 사까린.

103014 #2 사까린.

103014 #2 사까린 그거 혜근에 하면은 햅뽀 달주게.

103014 @ 예.

103014 #2 들꺾롬허게예.

103014 @ 들꺾롬허게예, 맞수다. 그 다음에 그 보리체라든가 보리썩 꺾시락은 뭇허멍 써신고?

103014 #1 꺾시락은 굴묵 진영.

103014 @ 음.

103014 #1 굴묵 겨울에 굴묵 진어야 그 방이 햅뽀 뭇일 거 아니.

103014 @ 예.

103014 #1 굴묵 진곡 보리썩은 뭇통에 막 일부러 막 집어 놔근에 그거를 썩여 근에 걸름.

103014 @ 음.

103014 #1 보리 걸름 하젠 허면 일부러 막.

103014 @ 보리체는?

103014 #2 경허곡 아까 무시거 저 그 꺾스락.

103014 @ 예.

103014 #2 꺾스락은 또 어떤 때 쓰느냐 허면은 여름에 마당에서 막 밥 먹곡 모기 오라가민 모기 다 다올리는 거.

103014 @ 아, 꺾스락예?

103014 #2 꺾스락에 불 피왕.

103014 @ 아아.

103014 #2 그렇게 허민 모기들이 다 도망가.

103014 @ 아아.

103014 #1 연기 나니까.

103014 @ 거기 뭇 다른 거 서끄는 게 아니고.

103014 #2 아니고, 다른 거 서끄는 게 뭇 잇어.

103014 #1 그런 용도로도 써서.

103014 #2 주로 굴묵 진는 거.

103014 @ 보리체는 뭇 햅수가?

103014 #1 보리체 보리 톨 때에 그 거시기 아이고.

103014 #2 그건 도새기 줘.

103014 #1 건 뉘지.

103014 @ 예.

103014 #2 도새기 도새기 햅여.

103014 #1 보리 껍데기, 보리 껍데기 그거 기껏방에서 뱉겨진 거 그거는 도새기.

103014 @ 음.

103014 #1 돼지 이제 주어진에 이제 돼지 키우곡.

103015 @ 예. 혹시 보리농사 지을 때예, 이것만큼은 나 절대 잊어볼 수가 엇다 허는 거 잊수과?

103015 #1 에이그, 보리 나 이제 자리, 자리젓양 식당에 강 자리젓 내놓면 자리젓 먹을 때마다 그

103015 #2 돛가래.

103015 #1 보리 돛가래 그걸 영영영영 막 밧 하나 다 뿌려놔 그 손으로 자리젓 영 해근에 그냥 손 씻지도 아녀고 그냥 밥 먹어난 거. 이제 자리만 보면은 그때에 그치록 해근에 그 밥 먹어난 거 잊어버지지 아녀.

103015 #2 그때 물이 엇엇수게, 물이.

103015 @ 맞아예?

103015 #1 그것이 잊어져볼지 아녀. 흥썸 무시거 허민 손 시썸 왕 먹으라 허민, 예, 옛날 돛가래 놔놔 손으로도 먹어나신디 해근에 경 해근에.

103015 @ 요즘도 그 말 햄구나예? 삼춘 어떤 거 기억햄수가?

103015 #2 아니, 그거 말헌 거.

103015 @ 너나없이 그런 식으로 살아시난예. 예, 맞수다. 이제는 보리농사를 지엿고, 혹시 여기 농사를 뭐 용시 지엄썸 이런 말은 안 험니까?

103015 #2 무시거 햄저?

103015 #1 용시, 용시 지엄썸도 곱아.

103015 #2 용시 용시 지엄덴.

103015 @ 용시 햄덴은 햄염구나예? 어른 덜이 곱아나신디.

103015 #1 용시 지엄썸은 와전 사투리고. 농사엔 현 건 표준어 부튼 거라.

103015 @ 옛날 어른덜 용시렌 허여서예?

103015 #1 용시, 용시엔 현 거 농사 지엄덴 허는 말.

조 농사

103016 @ 예, 조도 하영 불러수가?

103016 #2 예.

103016 #1 그 당시엔 조. 그런 거 아니 불리믄.

103016 #2 보리 조 모멸 그것뱃과 더 잊수과?

103016 @ 조 불릴 때는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우과? 조 불러봅서 이젤랑?

103016 #1 조 불릴 때는 어떻 해신고 허민 밧을 일단 갈아놔이, 소 해근에 갈아놔은에 밧디 이제 줍씨는 너무 기쁘게 묻어지면은 조가 잘 안 난다고 해가지고, 밧을 인치록 갈앙, 갈아놔근에 밧을 뎡썸허게시리 그 남.

103016 #2 남테로.

103016 #1 남테. 남텐가 그 끄는 거.

103016 #2 게 끄는 거. 저 무신 거.

103016 @2 크실퀴.

103016 #2 저 끄시게.

103016 @ 끄시게예.

103016 #1 끄시게 해근에 그 나무 썸 이신 거 소낭이나 뭐 썸 이신 거 해영 일 단 혼불 가명오명 그 막 파니 없이 멘짝허게 만들어와근에.

103016 @ 음.

103016 #1 좁씨 빼여근에 그 이제 혼불 영해영 그 아까 그 끄인 거. 걸로 끄어 와근에 끄시게 허영 막 소로 소 말 해근에 게나제나 막탱이 영 찢러보명.

103016 @ 어어.

103016 #1 막탱이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안 들어갈 때ㄱ장 막 불리는 거 라.

103016 @ 남테로도.

103016 #1 엇인 소 말 엇인 이제 남테로 허고. 또 놈의 집의 강 말이나 소나 막 빌어다근에 하는 사름은 소말 또꼬망에 강 테우리. (웃음) 테우리 그 잘 대접. 그 사름은 잘 대접해야 잘 해주지 안 대접해주면.

103016 @ 대접할 때는 어떤 식으로?

103016 #2 술허고.

103016 @ 술허고. 곤밥허고.

103016 #2 그때 돈도 줘서양?

103016 #1 돈 아니 받으면은 검질이라도.

103016 #2 메여주고.

103016 @ 음.

103016 #1 메칠 메여주고. 소말 임제네 집의 강.

103016 #2 막 테우리는 완전히 춤 그뻐 부체칩의.

103016 #1 테우리는 완전 큰냥 행 땡겨서. 완전 이젠 내년 잘 대접 안 허민 잘 우쭈민 안허민 내년에는 안 해주겟다 허는 식으로.(웃음)

103016 @ 갱 해여근에 그렇게 오십머리씩 그런 거를 뭐렌 험니까? 테, 몰테?

103016 #1 몰테덜.

103017 @ 아, 몰테예? 음, 그 조 불릴 때도 걸름도 험마씨? 아까 보리는 걸름헛 덴 험게.

103017 #2 걸름 아녀.

103017 #1 조는 검질 아녀.

103017 @ 전혀 그거는 안 해예?

103017 #1 걸름 할 게 없주게. 비료도 엇고 아무 것도 엇이니까. 그건 허난 그

거는 조는 그 밧 좋은 밧에는 조가 이만씩 크고.

103017 @ 음.

103017 #2 밧 굵인 디는 조가 이만씩벧기 아니 허여.

103017 #2 계난예 이디서는 밧 좋은 디는 흐린조, 흐린조.

103017 @ 흐린조?

103017 #2 흐린조 난덴 허는 밧은 좋은 밧이고.

103017 @ 음.

103017 #1 그 어디 어느 밧 허면은 그 흐린조 나는 밧이라. 영. 웃음.

103017 @ 아아.

103017 #2 그래서 좋다는 거.

103017 #1 좋다는 말로 흐린조 나는 밧이라 경해근예.

103017 #2 경해연 저 밧 굵은 디는예? 흐린조 아녕 그대로 모힌조 해도 밧 굵 인디는예 이만큼씩벧기 안 험니다. 고고리도 요만큼.

103017 #1 조코고리도 요만큼씩벧기 안 허고 밧 좋은 디는 고고리기 이만씩. 이만 썩 하는디.

103017 #2 가름팻썩은 이만씩.

103017 #1 쟈쟈현 거 우리 두릴 때 생이 잡으레 조코고리 요만은 현 거 툷아근 예 저 눈 이만이 묻으민, 아이고, 나도 진짜 스나이나 마찬가지주. 눈 가근에 묻은 거 발로 영영 근어벼뵤 그디 조코고리 헨근예 영.

103017 #2 들충.

103017 #1 헨근예 들, 들 끌랑지 혼번 빠당 얻어찬예.

103017 #1 그것에 헨예 그거 영허영 졸라매뵤 낫당 뒷날 강 보민 참새.

103017 @ 예.

103017 #1 참새 발 걸렁 죽을 때 데가리 걸렁 죽을 때.

103017 @ 게영 그거 해당 뭐허여?

103017 #1 그디서 작허게 벧기민 완전 그거 털하고 가죽허고 멘작허게 벧겨지 메. 경허민 그디 영 나무, 나무께기 봉가근예 불 습아근예 거 구웁덜 갈라먹고 경해 난.

103017 @ 놀이로예?

103017 #1 막 그것이 버른이주게, 버른이라.

103017 @ 버른이?

103017 #1 버른.

103017 @ 버른이 뭐우과?

103017 #1 버른이엔 한 건 쓸데가리 엇이 일을 만들멍 뎡긴덴 허는 말이주기. 버른.

103018 @ 버른이렌 허는구나 여기서는예? 삼춘, 계른 조는 언제 불리는 거라마 썩? 시기적으로.

103018 #1 시기적으로 건 봄에.

103018 @ 봄에.

103018 #1 봄에 가을에 다 헤들이고. 조는 봄에, 봄에 해근에 여름에 다 검질메
곡 문딱 해근에 가을에 헤들이고. 보리는 가을에 갈아근에 봄에 헤 들이곡 경 헤여.

103018 @ 왜 조혈 때면 무슨 마같이조여 이런 말? 마걸이, 마같이? 이런 말 안
들어봅디가?

103018 #1 그런 말은 우린 안 들어보고?

103019 @ 안 들어보고예? 좁씨는 어떤 식으로 뿌려마씨?

103019 #1 좁씨는 짹짹 뒤 좁씨는.

103019 #2 손으로.

103019 #1 그거는 조가 덕kak하게 검질이, 조가 이만씩 영영헤야 조가 잘 돼주.
복작허민 조가 안 돼니까 좁씨 하영 빼여도 메젠 해도 검질이라 그것도.

103019 @ 조가 검질돼불어예?

103019 #1 메젠 허민 검질이주게. 겨난.

103019 #2 좁씨 빼는 아무나 기술자라야 돼여. 아무나 못 빼여.

103019 #1 빼는 사름이 그 ** 딱 이치룩 멜 거 엇이 그자 검질만 멜 정도로 뿌
리는 사람.

103019 @ 아, 경 잘 기술자를 뭇렌 불러나수가?

103019 #1 씨뿌리는 사름게.

103019 @ 씨뿌리는 사름 별도로 허는 거라예?

103019 #2 오랑은에 씨 좀 뿌려줍서. 이렇게.

103021 @ 아, 진짜 별도로 험구나게. 아까 조, 조도 검질이에 헤신디 조팍검질
은 멧불이나 뻤니까?

103021 #1 조팍검질은 두불. 보리밭 검질은 혼 불, 산디밭 검질은 세불.

103021 @ 아아, 산디밭이 더 검질 하구나? 계민 조팍 허는데 두불 허면은, 처음
매는 거는 무신 거렌 해?

103021 #1 초불.

103021 #2 초불.

103021 @ 초불.

103021 #1 두불.

103021 @ 두불. 처음힐 때는 소끄는 겨우과?

103021 #1 처음힐 때는 좁씨도 소끄고 기자 초불만 메여놓면은 두불은 쉽주게.

103021 #2 두불은 막 이만큼힐 때.

103022 @ 아, 클 때 매는 거고. 그 초불검질은 어떤 종류 검질들이?

103022 #1 그 제완지ㄴ든 거.

103022 @ 보리나 마찬가지로.

103022 #1 보통 제완지가 많이 나와.

103022 @ 아.

103022 #1 검질이.

103023 @ 예, 조 수확은 어떤 식으로 했수가? 보리하고 특나잖아예?

103023 #1 조는 어떤 식으로 허냐허민 조팏디 강 다 비어근에 놓면 밧디서 조를, 조를 다 조코고리틀이, 그거를 즈근즈근 심어근에 호미로 영 해근에 꿩잉, 꿩잉은에 멩텅이에 다 담양은에 저오는 사름 시꺼오는 사름. 우린 조코고리 툫앙, 그 조코고리 툫넌 말 허주게. 조코고리 툫아근에 집에 가정 와근에, 옛날에는 마당도 깨끗해나서. 그 후 땅 마당에서 그 조 같은 거 다 두드려나서.

103023 @ 음.

103023 #2 조 빌 때 우리 어릴 때 기억에 남는 것이.

103023 @ 예.

103023 #2 조 비당보민 부께, 부께.

103023 @ 예, 부께.

103023 @ 부께 알지예?

103023 #1 갈장귀.

103023 #2 갈장귀.

103023 @ 갈장귀.

103023 #2 그거 그걸 하나씩 먹을라고. 웃음.

103023 #1 갈장귀도 이시면 아이고, 이젠 먹지도 아녀는 거. 요 길에 그 미깡이 천지만지라도 그 미깡도 하나 안 타 먹는다.

103023 @ 맞아.

103023 #1 그 옛날에 갈장귀 하나 먹젠 허민 스몫.

103023 @ 아, 노랑허게 익었예? 어어.

103023 #1 갈장귀, 부께.

103023 @ 음. 그 다음에 그 조 수확은 아까 그런 식으로 빈 다음에 이제?

103023 #1 빈 다음에 집의 다 이제 고고리 다 해영 그거 집에 다 저다냥이. 소말 이신 사름덜은 시꺼당 농곡 해근에 날 좋은 때에 그 마당에.

103023 @ 예.

103023 #1 마당에 해근에 뱅허게 돌아가멍 다 멩석 그 튀어난 거 그 곳인 디레가지 못허게 멩석 다 돌아가멍 폐와와근에 가운디서 행은 두드렁.

103023 #2 마당질.

103023 @ 마당질.

103023 #1 마당질. 마당질 도끼로 해근에 마당질해영 그거 허영 이제 조각메기는, 조각메긴 다 걸러넷두근에 것도 이제 그 여물만 이치록해근에 불려근에 그 말류와근에 기겟방에 강 곶아당.

103024 @ 으음, 그 조각메기는 뭐허여마씨?

103024 #1 조각메긴 소 맥여. 소. 소 이제 그 이제 소 그 메는 그 소막 잇주게.

103024 @ 예.

103024 #1 소막에 그 이제 그런 거 다 갖다 놓게끔 다 만들어져 있어. 소 앞에 그거 다 이제 굴체로 해근에 아저당 밤의 혼 굴체씩 앓다당 다음날 밤의 혼 굴체씩 앓다당 줘.

103024 @ 아. 조각메기를?

103024 #1 조각메기는 소 먹고.

103025 @ 음. 예전에 그 조도 이제 쌀허젠 허면 또 강 껍질 벗겨알 거 아니우과?

103025 #1 계난 널어근에 것도.

103025 #2 물론 다음에.

103025 #1 명석에 널영 채우치명 해근에 혼 이삼일 몰라근에 기젯방에 가근에 거 골아다근에 그 체는 그 굴멍 나온 체는 도새기.

103025 @ 음, 계난 조각메기는 쉼 맥이고. 그 체는 도새기 맥이고. 음. 그 좁쌀은 그런 식으로 장만허는 거? 여기에 삼춘네는 연자매 영은 안 해봣디가?

103025 #1 무시거?

103025 @ 그 연자매, 몰ㄴ레, 몰방에 이런 거.

103025 #1 그런 그는 기젯방 엇인 때는 그 거시기 그 저 물레방아처럼 이렇게 해여근에 한 거 해낫주마는.

103025 @ 거 몰르고예?

103025 #1 하단에. 거 우리 커울 때도 일이년 하단에 기젯방 생기니까 그것이 이제 차차로 없어전.

103025 @ 그 일름은, 몰ㄴ량 험니까?

103025 #2 몰고량.

103025 #1 몰고량인가? 이디.

103026 @ 좁쌀로는 뭘 해여신고예?

103026 #1 죽도 췌 먹고.

103026 @ 음.

103026 #1 또 밥도 행 먹곡. 감자 놔근에.

103026 @ 음.

103026 #1 감자 좁쌀 놔근에 모힌조. 흐린조 엇이난에 모힌조 감자해근에.

103026 #2 감자밥.

103026 @ 감자밥.

103026 #1 보리쌀에 또 그거 서꺼근에 보리밥 밥 다 돼강 물 조금 확 놔근에 젓어근에 흐끔 잇당 틈제왕 놔두민 밥이 돼가지고.

103026 #2 이 휘장네는 부자니까 흐린조에 오메기떡도 해영 먹고 헛주마는 우리는 그런 거.

103026 @ 오메기떡은 어떻 겨우과?

103026 #1 오메기떡. 그거 그 호린조 골아근에 가루 그거 물 싹싹 끓여 그거 허영 반죽해여근에 오메기떡 이만씩 허주게. 영영영 해근에 요만씩 만들어근에 그거 해근에 삶아내면 그거 껴여근에 우리 집의는 그때는 농사도 많고 흥뽀 옛날 부자난에 그거 가져근에 저 누룩에 서경 그 막걸리처럼.

103026 @ 예.

103026 #1 그치록해근에 술. 술 만들어근에.

103026 #2 오메기술.

103026 @ 오메기술.

103026 #2 여기 민속촌에 가면 지금도.

103026 @ 예, 예.

103026 #1 술 만들어근에 보리밭 할 때에 일, 일꾼 밋가는 사름덜 그거 해영 줘야 잘.

103026 @ 일이 워낙 하난.

103026 #1 잘 해주. 경 아녀민 게난 우리 어머니네 보면은 그때 보리밭 하젠 허민 이만은 향으로, 이만은 향으로 그 술 흥나.

103026 @ 음.

103026 #1 그거 해근에 그 보리밭 할 때 그거 먹곡. 조오메기 해근에.

103026 @ 조오메기 음.

103026 #1 검은오메기. 보리쌀 그 거피여근에 보리 검피여근에 그거 해영 누룩 만들영.

103026 @ 음.

103026 #1 티와근에. 불 버물여근에 멥텅이에 담양놔두면은 그것이 북삭허게 막 곱뽀이 올라오잖아. 게문 그거를 해근에 다 부수레기 해영 다 말리와근에 곱.

103026 @ 곱.

103026 #1 옛, 옛 만들젠 해도 그 곱이 잇어야 옛 만들곡.

103026 @ 예.

103026 #1 술 만들젠 해도 그것이 잇어야.

103026 @ 누룩. 누룩해영예?.

103026 #1 누룩해근에.

103027 @ 어, 조쪽은 뭐헉니까?

103027 #1 조칩?

103027 @ 예.

103027 #1 조칩은 그 이제 옛날에는 마당이 너르니까 마당에 즈근즈근허게시리 쿳쨌허게 이제 처음에 깎 땀 막 놔미 왕 영 봐도 막 곱닥허게. 경 해근에 그거 말류멍 그거 불 때멍 다 밥 해먹는 거.

103027 @ 아, 조쪽으로 밥헉 먹어?

103027 #2 조쪽으로 소 주당 덩케기덜.

103027 #1 소도 쥐근에 부드러운 디는 소 먹어나고 그 찢긴 저 못 먹영 하면
그거 다 혜근에 말류명 밥 행 먹을 것이 그런 것벳기 더 잇어.

103027 @ 음, 이쪽에는 지들커들이 별로 엇구나예?

103027 #1 지들커 엇어. 저 우리는.

103027 #2 출.

103027 #1 출왓 이시난에 그런 거 혜근에 귀하지 아녀난디, 그 출밧 어신 사름
덜은 술, 술입 가근에 다 글쟁이 가정가근에 걷어근에.

103027 @ 음.

103027 #2 겨울에.

103027 #1 겨울에 그거 혜근에 멩텅이에 담양 저왕 굴묵도 살르고 아니믄 밥도
행먹고.

103027 #2 계난 조칙은 놀어놔뒀당 소 말 주당 남텅이 이런 거 남은 거 그런
거 거두와당 땔감으로 허고.

103027 @ 으음.

103027 #1 밥 행 먹고.

103027 @ 계난 이 버리는 게 헉나도 엇어서예?

103027 #1 엇어.

103027 #2 비니루 요만큼 헉 거 헉나 잇으면 애기 지성기 허젠. 이젠 버리는 것
이 헉나 엇어. 이젠 쓰레기가 많은데 그때는.

103027 #1 씨레기 하나 엇어.

103027 @ 그러니까.

103027 #1 밥 먹는 씨께기 그런 거 나오는 거 돼지가 먹곡.

103027 #2 돼지 먹곡.

103027 #1 또시 검질 그런 조찍 무신 그런 거는 소가 먹곡. 웃음.

103027 #2 경허단가 쉼밥. 쉼밥.

103027 @ 예.

103027 #2 씻어근에 쉼다리 만들영 술 행 먹곡.

103027 #1 쉼다리.

103027 #2 지금 말허는 말허는 요구르타.

103027 @ 쉼다리 맛종주마씨.

103028 @ 조 농사 헉 때 보리헉 때처럼 잇어불지 못허는 거?

103028 #1 에이그, 조 농사 혜근에 그 유월 염천에 긴긴 구 혜에 그 땡별 맞아
가명 그 검질 메영. 우리 오빠도 그때 검질 헉뽀 메여신디 검질 한창 메여가당 무
신 것에서 싸와신디 돌 영 혼 사름 편지민 나가 또 편지민 편지민 경혜근에 나 어
디 발에나 맞이민 막 아팜 들어가민 우리 오빠 췌들곡 맞앙 우는 사름안티 욱만허
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어처구니 엇어근에 이제도. 아이고, 경허민 우리 오빠 더
출썩거리근에 더 들락귀여.

103028 @ 출썩거련. 게난 삼춘펜을 안 들엇구나 어머니가예?

103028 #1 나 맞앙 우는 사름신디만 엄살헬텐 막 욱헬 빨리 메어오지 아념젠.

103028 #2 그 당시에는 아덜보단, 딸 딸덜 막 괘세헬서.

103028 #1 에이그 딸은.

103028 @ 딸은 사름이 아니라예?

103028 #1 이젠 이젠 뭐 완전 딸덜토 스몫 큰소리만 빵빵 치고.

103028 #2 게난 우리나라도 그 저 호주제 폐지허는 통에.

103028 @ 예.

103028 #2 *통에 딸덜이 막.

103028 #1 출썩 거련.

103028 @ 딸이 좋지 아념니까? 아덜보단은 딸이 안 좋아마씨?

103028 #1 아멩헬도 아덜이 잇어야 든든하주. 딸은 원. 아니, 우리 아덜 저 미국 저 거시기 유학 갈 때 가부난 제사 때에 저 안넛방에 그 젓상 그거 이신디 딸덜 거 들러와질 말이우과? 행글락행글락허영. 아덜 이실 때 거 젓상 들어오렌 허민 우꼇 들러근에 원 말엇이 들어오느디 에이그, 딸덜은 원 당치 안 뵈커라.

103028 @ 젓상이 막 무거운 거구나예?

103028 #1 우리 아덜이 막꼇텐 곤는 말이 어머니 나 잇이난 걱정 잇수가? 나가 걱정이주.

103028 @ 나가 걱정이주. 맞아예?

103028 #1 경 곱아난. 경 곤곡 경 곱아.

콩 농사

103029 @ 삼춘 콩도 여기 하영 싱것지예?

103029 #1 우리 우리 여기는이, 옛날에 콩이 잘 안 뵈나서. 짬물 헤불면은.

103029 @ 아.

103029 #1 바다가 가까워가지고. 태풍 불어근에 짬물 하면 콩이 하나 잇이 다 죽어비여.

103029 @ 음.

103029 #1 경하면은 조 ㄴ튼 거 무시거 헤근에 모관 사름덜 콩 아저와근에 줍 썰에 바파가곡.

103029 @ 아아.

103029 #1 경헤신디 어느날 그 이제 과수원덜 허명 담덜 노프게 하고 방풍낭 노프게 헤난에 콩 흐끔씩 가난에 그 콩이 뵈 거라.

103029 @ 으음.

103029 #1 게난 이제는 이녁 먹을 건 이녁이 갈아근에 행 먹느디 그 옛날에는 다 모관 사름덜신디 바판에 줍썰 쥘 바판근에.

103030 @ 콩 농사는 여기는 하영 안 헛구나예? 게문 콩 허게 뵈면 언제 가는

거우과?

103030 #1 콩도 그 이제 쪼금 시민 같아.

103030 @ 음.

103030 #1 하지. 절기로 하지. 하지 한 열흘 앞뒤근에 갈곡 열흘 두에 갈곡 경허멍 그거.

103030 #2 콩은 날짜를 잘 봐야 돼여. 콩은.

103030 @ 콩은마씨?

103030 #1 절기. 절기를 잘 봐서 그건 옛날은. 검은콩도 막 갈앙 잘 돼곡 뭐 이젠.

103030 @ 이제는 음.

103030 #1 사름덜이 막 역앙 어디 땅만 요만은 어디 남은 거 버린 거 이시민 검은콩 거 헤영 싱그면 콩입도 툇앙 콩도 장만헤영 밥에 낱 먹어도 맛싯곡.

103030 @ 게도 예전에는 우리 웬장허고 장을 담아야 댜난예, 콩은 갈아실 거 아니라예?

103030 #1 콩은 게난 여기 찐물 헤근에 그 옛날엔 방풍낭도 없고 담도 무시거 안 허난 찐물 하면 콩이 안 돼여. 게난 이 바다 쪽으로는 다 고구마만 싱거서.

103030 @ 감저.

103030 #1 땅 속에 들어강 그거는 찐물 헤도 피해가 없으니까.

103030 @ 예.

103030 #1 그런 거 콩 ㄴ쁜 거.

103030 #2 옛날에는 콩 허젠 허면 물물교환.

103030 @ 음.

103030 #2 우린 쌀 주고 그디선 콩 주고. 이제는 콩이 안 댜면은 돈 줘근에 사 당은에 장 담으곡.

103031 @ 으음. 콩도 저 뭐냐 걸름 험니까?

103031 #1 걸름 안 해.

103031 @ 안 허고예?

103031 #1 콩은 너미 걸면은 콩이 열지를 아니 허여.

103031 @ 음.

103031 #1 너미 걸러지민.

103031 @ 예.

103031 #2 경허난 그거는 걸름 아녀도 적당허게 커근에 적당히 잘 여난예.

103032 @ 게문 아까 보리씨헐 때도 트나고 좁씨헐 때도 트잖아예, 콩씨는 어떤 식으로 뿌리는 거?

103032 #1 콩, 그 옛날에 우리 할 때는.

103032 #2 콩 싱그지 아녀수가?

103032 #1 콩 싱것수가게. 옛날에는 그 조팍디 하나씩 뿌립니께. 하나씩.

103032 #2 으, 맞아, 맞아.

103032 #1 하나씩 뿌려근에 조 비여나민 그 콩이 이제 내불민 그거 익으민 그 때 콩 강 비여당 먹어수게. 콩엔 헨 따로 갈진 아녀서.

103032 @ 갈진 안 허고 조팠디. 조팠디 하나씩 가는 콩은 무신 콩 해낫수과?

103032 #1 장콩, 장콩.

103032 @ 그냥 장콩엔. 으, 머들콩 이런 말은 안 허고.

103032 #1 그자 장콩.

103035 @ 장콩. 음, 그러면은 그 장콩 갈면은 수확은 어떤 식으로 해연마씨?

103035 #1 수확 그거 조 다 해난 다음에 조할 때 파랑헌냥 있어. 콩이. 조 해여 불면은 조 이실 때 조로 그늘 지니까 그 잘 익지 못헛다가 조 다 비여불면은 그땐 햇빛 잘 받으난 잘 익영 다 비여근에 무꺼 와근에 집의 와근에 멍석 영 폐와와근에 멍석 우의서 막덩이로 때리멍. 뭐 마당에 영헤영 때릴 정도로 하영은 안 허고.

103035 @ 아아.

103035 #1 멍석 폐와와근에 막덩이로 영 두드리멍 행 하면은 콩 두 말 아니민 서 말 정도 그 정도 돼민 집의 장 담양은에.

103036 @ 별도로는 안 하고예. 게문 이제 콩으로 해서 먹는 거는 옛날에?

103036 #1 콩 옛날은 장벳기.

103036 @ 음.

103036 #1 콩으로 행은에 먹는 거 었어. 뭐 콩해근에 콩 그 옛날엔 어떻 해서* 콩 싯정 물에 담жат 당 막 즈눌민 이만씩 헐 거 아니?

103036 @ 예.

103036 #1 그거 소쿠리에 와근에 물 빼여뒤근에 방에에 췌앙 죽 썰은에.

103036 @ 아, 콩죽? 그렇게 행 먹으민 맛있겠다.

103036 #1 미역 농국 해근에 콩죽 쑤민 것도 웬간이 맛 잇어나서.

103036 #2 영양식으로.

103036 @ 콩죽 헐 때 메역을 놔마씨?

103036 #1 음, 미역 농민은 완전 미역도 민작허고 완전 맛있어. 미역 낱.

103036 @ 게문 거기는 뭐뭐 낱은에 허는 거라마씨? 콩죽헐 때.

103036 #1 콩죽 헐 때 줍솔이나.

103036 @ 줍썰에 콩 그거 해갓고 메역 낱은에에.

103036 #1 경헤영 썰 먹어난.

103036 @ 혹시 뭐 콩늑물허거나 콩주름 이런 건 안 해마씨?

103036 #1 제사할 때, 제사 하영 허는 사름덜은 콩 집의서 그땐 콩늑물 같은 거 헤영 파는 디가 었고, 었으니까 제사헐 때는 콩 영 컷당은에 그 **민 시리.

103036 @ 예.

103036 #1 시리에 콩 벳겠디레 나가지 아녀게 무시거 영 고망에 뭐 갈아근에 콩 해여근에 물에 막 물 짹 빼면은 그디 영 와근에 와근에 뭐 방구석에 낱.

103036 #1 이만은 한 장탱이에 남 영 놔근에 그 시리 우터레 낡 물 우터레 쥐 근에 하민 물 밑으로 빠지민 그거 비와불곡 경허멍 콩낙물 키와근에 그 제사헛주.

103036 @ 예, 맞아. 옛날은 다 집의서만예.

103036 #1 집의서 다 제사.

103036 @ 삼춘, 둌비도 해봣디가?

103036 #1 둌비?

103036 @ 예.

103036 #1 둌비 그거, 그거는 둌비 갈아근에 ** 그거 일일이 다 거 흔꺼번에 익 지 아녀니까 거 일일이 그자 영 우갯에 쪼끔 가는 건 해도 큰밧디 갈앙 앵간히 힘 든 거.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네 천오백 평 갈아신디 돈은 하영 사서. 그거에. 그 거 해근에 흔 번에 익지 안 하니까 익으민 익은 것만 탕. 선 거 놔두민 선 거 익으 민 또 그 너른 밧디 거 타젠 하난에.

103036 @ 그게 이름이 뭐마씨?

103036 #1 둌비, 둌비.

103036 @ 둌비. 으, 둌비 행은에 그 콩 닳은 거예?

103036 #1 요만씩 현 거.

103037 @ 음, 콩 타작해나면 그 남뎡이덜 남을 거 아니우과예?

103037 #1 응.

103037 @ 그건 뭐렌 험니까? 여기서.

103037 #1 콩찍.

103037 @ 콩찍이렌 험니까? 으, 콩찍, 콩찍 용도는?

103037 #1 콩찍 그 뭐 자리 같은 거 무시 거 같은 거 바당에 고기 같은 거 영 굴 거 이실 때는.

103037 #2 자리 켤 먹을 때.

103037 #1 콩찍으로 불 숨아와근에 불, 콩찍 불이 왕강허주게.

103037 @ 예.

103037 #1 그것에 적췌에 그 자리 영영 놔근에 그 불에 켤 먹는 거.

103037 @ 아아, 콩찍 용도가 그냥 막 불 숨아부는 켤 아니고 딱 놔뒀당은에.

103037 #1 무신 거 굽젠 허면은 흔 단 빼다근에 자리 켤 먹곡.

103037 @ 아, 췌 주거나 영은 안 해마씨?

103037 #1 소 ** 거칠영.

103037 @ 기구나.

103037 #2 판판해여.

103038 @ 예, 콩 용시 헐 때 또 아까처럼 잊어불지 못허는 이런 추억이라도 잇 수가?

103038 #1 콩은 그치록 막 그 힘들게 한 적이 옛이난에 그거는 그자. 췌 힘들 게 한 거는 그 돛가레 다 퍼내여근에.

103038 #2 보리헐 때.

103038 #1 그거 다 씨 뿌리멍 소 말 해근에 그 돛가레 막 블렁 이제 또 다 쉼스렁으로 다 뒤집어 놔근에 또 씨뿌리멍 또 막 블렁낭 멩텅이로 소에 다 시끄멍 밧디 강 다 방수 벌영 이디 흐나 놓민 저만 쪽에 흐나허곡 허멍 다 비와낭 돛가레 뿌린 거.

103038 @ 것도 추운 때에?

103038 #1 그 손으로 해근에.

103038 @ 상강 넘영은에. 웃음.

103038 #1 그 손으로 자리젓 경해도 맛만 좋아. 보리밥에.

103038 @ 예.

103038 #1 조, 조는 그 검질메젠 허민.

103038 @ 음.

103038 #1 그 땡벧디. 거 검질이 밧창 뜨거와근에 양말도 엇고 아무 것도 어시난에 밧창 뜨거와근에 검질 할 때 메영은에 놓앙은에 그 검질 맨 우터레 밧 영영 놓멍 검질 쪽 메영갓텐 허난 옛날에.

103038 @ 맞아예? 게난 그런 말들이 재미진 말들입주게.

103038 #1 게난 저 옛날엔 페랭이 모자도 엇곡 허난에 고사리 큰 거 영 꺼꺼근에 머리에 낳 수건 영 썩. 그늘지게시리 헤영은에.

밭벼 농사

103039 @ 맞수다. 여기 산디도 하영 갑니까?

103039 #1 산디 우리, 우리집인 산디 하영 같아서. 산디하고 믱물.

103040 @ 산디는 어떤 식으로 가는 거우과?

103040 #1 산디도 그거 빼영은에.

103040 @ 언제 계절부터?

103040 #1 계절에 것도 봄에 가는 거난. 갈아근에 하면은 산디는 세 불 메는 게 농사 중에 젤 믱너 산디가 젤 믱너 갈주게.

103040 @ 음.

103040 #2 경하는 때문에 검질 혼불을 더 메는 거라.

103040 @ 음.

103040 #1 검질 탄 거는 나근에 요만씩 할 때는 산디는 이만씩 하니까.

103040 @ 어, 검질이 더 한 거라예?

103040 #1 세불 메곡. 산디밧.

103042 @ 산디는 씨는 어떤 식으로 빼영 허는 거우과?

103042 #1 산디씨도 좁씨 빼는 식으로.

103042 @ 먼저 갈아낭은에?

103042 #1 으. 갈아낭. 그것도 갈아낭 씨 뿌려낭은에 똑 조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103042 @ 것도 불러마씨? 어.

103042 #1 또 믱물같은 거는 불치.

103042 @ 음.

103042 #1 불치 가져다근에 밧디 불치를 멧 가마니 실어당 낳. 혼 천 평 정도 모멸 갈젠 허민 믱멸씨 서 말 정도. 경 관웨로 한 열두 개 정도 씨를 헤가지고 그 불치에 그 씨를 다 버무령.

103042 @ 음.

103042 #1 버무령은에 밧을 영영영 졸졸 그거는 밧 골 깃엄젠 허주게. 그 돌멸 가는 거는.

103042 @ 아. 골 깃엄젠예.

103042 #1 골 깃엄젠. 골 요디 갖고 요디 깃이민 그때 옛날 출구덕.

103042 @ 예.

103042 #1 출구덕에 해근에 영 저것이 끈 해근에 어깨에 영 허영 그 불치 담아근에 쥼아놓는 거라 다. 요디 쥼아놓민 요만쫘에 가게시리. 것도 완전 기술적으로 세 고랑씩 심어근에.

103042 @ 음.

103042 #1 경해근에 그 쥼아놓면은 믱물은 난 거 보면은 텅기낭 난 거 보면은 모록모록 나눈디, 지금은 씨 빼연에 갈암신ㄱ라 믱물 간 디 가 보난에 조 나듯이 다 나선게. 아 씨뿌령 갈암구나.

103042 @ 아, 옛날에는 이렇게 골 굿은은에 다헨예?

103042 #1 골 굿이민 불치 씨를 다 버무려근에 탁탁탁탁 영 쥼아와근에 쥼아와근에 하면 혼 밧디 대으섯 개씩 모록모록헨 나신디 그때 모물 영 나는 디 간 보난 하나씩 하나씩 나난 우리가 해보만 씨 뿌련 이젠 험구나. 씨뿌림구나 경 생각.

103042 @ 게문 그 믱멸 가는 것도 잘도 힘들으랴예? 쥼아낳 허면.

103042 #1 믱멸은 언제 가느냐 하면 한 저 음력으로 유월달 쫘에 갈아.

103042 @ 음.

103042 #1 유월달.

103042 #2 췌고 더울 때.

103042 #1 췌고 더울 때. 경하는 때문에 그 소를 잘 맥여야 그 밧을 갈 거니까 어데 출밧디 가근에 가되근에 맥영 하여튼 새벽 혼 시다 두 시나 돼면 밧디 가근에 밤의 갈아근에 새벽이부터 믱멸은. 여덟 시나 아홉 시 돼면은 쫘나야 돼여.

103042 #2 췌가 얼먹어.

103042 #1 더워부난에.

103042 @ 사름 얼먹을 생각 아녀고 췌 얼먹을 생각? 웃음.

103042 #2 경허젠 허면은 잘 맥이젠 놈의 출왓디 담컬은은에 들어강은에 붉도록 툇아상 췌 맥영 몰르게 주인 몰르게 나와야주. 거 걸리민 혼나.

103042 @ 놈의 밧디 강 맥어부러.

103042 #2 어떻게해 맥일라고 하면.

103042 #1 옛날에 다 그치룩허멍.

103042 #2 이녁네 밋되는 이녁네 밋되는 아깁고.

103041 @ 나중에는 난리가 나고예? 아까 산되도 걸름 험니까? 산되밋되.

103041 #1 산되도 걸름 엇주게. 산되는 믱들이 이제 제일 가만히 젤 걸름을 잘 해야 되는 모양이라. 그거 불치에 버무렁 이거 다 영영 똑 인치룩 해근에 쥼아놔. 쥼아놔근에 행 끄시게질 행 내불민 그건.

103043 @1 그거, 그러면 이제 아까 산되검질은 세불예?

103043 #1 으.

103043 @ 게문 그거는 처음 메는 거는 초불?

103043 #1 초불, 두불, 세불.

103044 @ 세불검질 영 허는 거구나예? 그 산되밋되는 어떤 검질 이십니까?

103044 #1 검질.

103044 @ 예.

103044 #1 검질 그 제완지ㄴ튼 거게.

103044 #2 뭐 그런 거.

103044 #1 그런 거 하고 저 무신 거 물 흐뭇 영 골르는 밋은 저 쉼터럭엔 해근에.

103044 #2 거 쉼터럭.

103044 #1 여름에 나는 검질이 그 쉼터럭.

103044 #2 그것이 우터여.

103044 #1 그것이 북삭허게 막 구멍이 엇이 나는 검질이 잇어.

103044 @ 쉼터럭.

103044 #1 게문 쉼터럭하고 산되하곡이 비슷허여.

103044 @ 어.

103044 #1 종자가 경허민 이거 뭐 그 산되, 산되를 그 잘 놔두멍 검질을 메야 웰 건디 그거 골리멍 메젠 허민 여간 아니. 그.

103044 @ 산되메불엿텐 어멍안티 욱 듣고.

103044 #1 산되 다 메불엿젠 욱 듣고.

103045 @ 맞아예. 산되는 어떤 식으로 수확합니까?

103045 #1 그거는 보리하고 똑 ㄴ튼 식이라. 비여근에 시깁 왕.

103045 @ 음.

103045 #1 시깁 와근에 홀테를 홀탕.

103045 @ 홀테로 홀탕예.

103045 #1 두드령은예.

103045 @ 여기는 클을 홀테렌도 허기도 험니까?

103045 #1 홀테, 홀테.

103046 @ 아, 홀테렌 헤예. 산뒤썰로는 뭐 해수가?
 103046 #1 산뒤썰?
 103046 @ 예.
 103046 #1 산뒤썰은 뭐 제사 때에 그 메.
 103046 @ 예.
 103046 #1 메 하곡. 뭐
 103046 #2 절벤 솔벤 ㄱ르 곶아당.
 103046 #2 ㄱ르 곶아당은에 절벤 솔벤 집의서 다 그땐 멘들앙.
 103046 @ 예.
 103046 #2 그때는 우리 그때 할 때는양 기켓방이 엇엉 것도 물에 담갓당 건정
 다 방에에 뽏아.
 103046 @ 음.
 103046 #1 방에로 이거 뽏이난 나 이디 켜이진 거 엇어진지가 멧 년벳기 안 뵈
 수다. 이디가 막 다 켜이 다 전.
 103046 @ 종손칩이니까 또 식게도 하구나.
 103046 #1 하도 식게가 일년에 열두 번씩. 멧질 부뜨민 혼 열대으섯 번씩 하니
 까.
 103046 @ 아.
 103046 #1 옛날에는 우리 그 친정 우리 처녀 때는 일 보민. 그 메썰 멧밥도 두
 말떼기로 혼나 해. 이만한 솜으로.
 103046 @ 어어.
 103046 #1 혼나 허민 육춘 스춘 구춘 십춘ㄱ장 다 먹으레 오면은.
 103046 @ 예.
 103046 #1 그것도 죽앙. 혼두말떼기 그 밥헌 것도.
 103046 @ 으으.
 103046 #1 떡 같은 것도 해근에 다 허민 아니 온 분들 나시 밥에 떡에 무시것
 에 다 보내곡.
 103046 #2 식게밥 나누레.
 103046 #1 혼 동네 다 식게밥 아이고, 눈 이만이 온 때는 어느 집의 아저 가라,
 어느 집의 아저 가라 허멍 우리 얼먹언.
 103046 #2 그땐 뭐 가로등이 이실카. 킴킴한다.
 103046 #1 킴킴한다.
 103046 #2 후라시가 이시카.
 103046 @ 계난 식게 끝나면 그 밤에 아정가야 뵈예?
 103046 #1 계난 그 만약에 제사 먹으레 안 온 집의 다 아저가야 뵈.
 103046 @ 밤에.
 103046 #2 참 정말.

103046 @ 웃음.

103046 #1 산디 갈양 그치룩허멍 이제 이제 아이고, 이제 그 이제 멩질 이제 식으로 못전디다, 못 살겐다 허난. 옛날 우리 식으로 살민 진짜로 일년도 못 살양 다 죽을 사름덜.

103047 @ 웃음. 계난 그 산디찍은 뭐헐니까?

103047 #1 산디찍도 그 소, 소덜 주민 소말덜 주면은 산디찍 먹어. 겐디 저 그 때에 보난에 소덜은 잘 안 주젠 헐게. 이빨 그 하영 저 거세기 다여분덴.

103047 @ 아.

103047 #1 그 산디찍이 찢기는 생이라.

103047 @ 음.

103047 #1 이빨 제게 다여분덴 허멍 잘 안 찢. 무시거 이 작두로 영영.

103047 #2 작두로 찢랑.

103047 #1 찢라근에 무시것에 저 조각메기나 그런 거에 버무려근에 물 흐끔 놓곡 헐 버무려근에 찢.

103047 @ 응, 산디찍은예?

103047 #1 기냥은 저 찢긴 생이라.

103047 @ 계도 산디찍은 용도가 하지 아녘니까?

103047 #2 어.

103047 @ 어떤 걸로 찢수가?

103047 #2 새끼도 꼬고 초신도 **놓고.

103047 #1 그걸로 해근에 저 멩텅이하곡.

103047 #2 멩텅이 허고.

103047 #1 돛가레착도 다 그거 하고 멩석도 다 산디찍으로 하고.

103047 @ 산디찍으로 하곡 아까 새끼 꼬앙.

103047 #2 새끼 꼬왕은엿에 초신 만들고.

103047 @ 어, 초신도 만들고 계난 켜장히 크게.

103047 #1 그 옛날에는 덤드렁마께.

103047 @ 예.

103047 #1 덤드렁마께 그 산디찍만 두드리는 마께. 웃음.

103047 @ 예.

103047 #1 이만은 돌 멘작헌 둥그렁헌 거 그것에 낱 그 덤드렁마께로 산디찍 막 피우면 북삭해주게.

103047 @ 예.

103047 #1 경하면 그치룩 헤 봐사 노 꼬우면은 곱닥해주. 그냥 버작한냥 노꼬민은.

103047 #2 노꼬지 못허여.

103047 #1 노꼬지 못허여. 그것도 옛날 말 곱아가난 우습다. 나가 곱아도.

103047 #2 우리도 국민학교 때 산디찍 피왕은에 조리 삼양 신영.
 103047 @ 국민학교 때예, 산디찍으로.
 103047 #1 우리 학교 다닐 때 초신, 초신 신영 다녔다가 조리 신영 다녔다가 허민.
 103047 @ 으, 흐루에 다 놀라볼 거 아니예? 그건예?
 103047 #1 아이고 흐루. 저 우린 지금 민속촌 한디 볼레 타 먹으레 초신 신어근에 강 흐루에 낚당 오민 어명안티 맬 조그만이 맞아.
 103047 @ 웃음.
 103047 #1 웃도 강 다 체어비똥은에.
 103048 @ 아, 그 산디 농사허명 아까같이 잊어불지 못허는 기억 같은 거 잊어마씨?
 103048 #1 그 산디, 산디농사 질, 산디밭디가 부께하고 갈장귀가 하.
 103048 @ 아까 조팍디도 하고.
 103048 #1 경혜근에 산디밭디 우리 할머니네 영 보면은 부께낭덜은 매지 아녕은에 듚상듚상 놔두민, 할머니네 우리 할머니네 옛날 굴중이.
 103048 @ 예.
 103048 #1 굴중이 이디 이만헌거 영영영영 헤여근에 다님 메여근에 하면은.
 103048 @ 예.
 103048 #1 부께를 일로 행은에 이레 다 타냥.
 103048 @ 아아.
 103048 #2 아이덜 주젠.
 103048 #1 손지덜 주젠.
 103048 @ 예.
 103048 #1 그 밧디 강 와가민 손지덜 막 완젠 헤가든 그거 헤근에 부께 주민 그거 영영 다 갈란 줘나서. 부께를.
 103048 @ 아, 요즘 사탕 주듯이.
 103048 #1 씹지 말렌 하명.
 103048 @ 게든 그 푸케예? 푸케도 막 으라 가지 잊지 안 허우과?
 103048 #1 개부께. 개부께는 켜켄하면서 영 흐끔 영 저 볼레 ㄴ치록 쫄랑쫄랑하 게시리 생긴 거고. 그 개부께는 색깔도 다양하게 검은 색깔도 잇꼭 빨간 색깔도 잇꼭 경.
 103048 @ 아.
 103048 #1 그냥 부께는 이제 푸리룽한 색깔에다가 하여튼간에 이만씩허게 흙으 게.
 103048 @ 흙고예?
 103048 #1 건 익으면, 익으면은 먹을만 헤여.
 103048 #2 새콤헌 게 맛있엇어.

103048 @ 옛날 개부께도 잇어나고예?

103048 #1 개부께.

103048 @ 게믄 이제.

103048 #1 그치룩하당 어찌다가 갈장귀낭 하나 이시민 갈장귀가 지락지락허게 열아근에 다 빨강케 익은 것도 잇고 파랑것도 잇곡 허민 그 갈장귀. 그 신신헌 거.

103048 #2 거 뿐이라. 담에 영 보면 멀위, 멀위.

103048 @ 예.

103048 #1 멀위. 개멀위여 무신 멀위여, 아이고.

103048 @ 게난.

103048 #1 또 감자 놀 때에 저 무신거우과? 딸기 이름 무시거여마는.

103048 @2 탈.

103048 #2 탈.

103048 #1 탈. 그 탈을 멩게낭썸 하나 해근에 그것에 다 타놔근에 영허영 텡기 멩 타 먹곡. 아이고.

103048 @ 게도 그런 것들이 이젠 다 사라져부런예?

103048 #2 다 사라져변.

103048 #1 사라져변 엇어. 그거 그 탈인가 그것도 원 잇어난디 이제 흔적 다 썸 멘헤벼선게.

103048 @ 으.

103048 #1 길 요만은 한 길덜 넓히멍.

103048 @ 게난예.

103048 #1 다 포장해부난에 씨가 다 사라전.

103048 #2 메옹이꽃, 메옹이꽃.

103048 @ 메옹이꽃 어떤 거우과?

103048 #2 이 출왓디나 담벽 돌덜 모아놓은디 메옹이꽃 그것이 상당이 고와났어.

103048 @ 메옹이꽃은 나 처음 들어수다.

103048 #1 메옹이꽃은 나 잘 모르키여.

103048 @ 색깔은 어떤 거우과?

103048 #2 난초 닮은 건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색이.

103048 @ 어,

103048 #2 여러 가지로 똬서.

103048 @ 난초 닮은 거예?

103048 #2 난초 ** 쪽 올라와서 그 메옹이꽃 보면은 좋앗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

103048 @ 게믄 주황색 꽃 피는 거우과? 혹시.

103048 # 그런 것도 잇고. 빨간 것에서 점 딱 적어진 거 잇고, 이런 것들 많이

잇엇는디.

103048 @ 아아.

103048 #2 ** 혼번 탄 마을에 강도 혼번 들어봍서. 메옹이쑈.

103048 @ 메옹이쑈에 헛 말은 처음 드네예? 삼춘, 혹시 감저 농사는?

103048 @2 혹시 그 쑈 피면 장마가 가둔덴 헛니까?

103048 #2 그건 모르겟는데.

고구마 농사

103049 @ 아, 감저농사?

103049 #1 감저는.

103049 #2 고구마?

103049 @ 예.

103049 #1 감저도 아이고, 감저 모종 놓젠 허민 바당에 강 듬북헤당 이제 밋데 다 곶양 이제 흑 더꺼와근에 감저 낱 감저에 흑 더경 그 갈레죽질을 얼마나 헤사 감저 헤남시*. 이제 ㄴ치룩 비니루 씹왓서. 그자.

103049 #2 모종 놓젠 허민양.

103049 #1 우리, 우리 집 경우에는 혼 오천 평씩 감저 놓주게. 그 감저쑈를 그 밋디 다 사름으로 저가젠 허난 그 뭐 길 옆의 밋이 이시민 허주마는 놈의 밋 념영 념영 가는 밋은 놈의 밋으로 사름만 텅겨도 텅검젠 욱하는 디 그거 무신 마차나 무신 거 그런 건 리아까나 못 텅기니까 사름으로 다 저 날라. 하루 멧 짐을 정, 혼 서너 너이는 게나제나 감저쑈 저날름이 일이라.

103049 #2 감자 놓는 것이 농사가 쥔 힘들엇수다게. 감자 쥔 때도.

103049 @ 아.

103049 #1 쥔 때도 눈 올 때. 눈 올 때 감자 파니까.

103049 #2 그때는 또 전분공장에 그거 허젠 허민 마다리에 다 담곡 쥔 힘들엇수다. 겐디 돈은 많이 생겨도.

103049 @ 돈은 많이 생겨도.

103049 #1 전분공장 하기 전에.

103049 @ 예.

103049 #1 이제 그 감저를 헤근에 버덕디레 다 이제는 다 측량하멍 그 우리 곶왓 그디도 버덕이가 엔간하게 다 널러난디 다 다벼섭디다. 밋덜 측량하멍 문딱 앓아부난 험주. 옛날엔 버데기가 잔디밋 그런 디 다 저내영 뺏테기.

103049 @ 음.

103049 #1 이거 막 곶양 뺏테기하멍 그거 물류와근에 그 뺏테기 헤영 그거 풀멍 헤신디. 뺏테기는 막 받아가서.

103049 #2 주정공장, 주정공장.

103049 #1 주정공장에서 다 .

103049 #2 술허젠.

103049 #1 뺏테기를 혼 삼십 가마니씩 우리 집의 경우에는.

103049 #2 잘도 얼먹어수다.

103049 #1 그거 하명 이거 독모리 다 고장난 간 수술 다 행 왓덴 허난.

103049 #1 우리 너으누이 중에 우리 오빠는 서귀고등학교 텅기명 그 남로당 만세 불르레 텅겨부난 심으레 텅겨부난 그거 피헨에 서울 어디 갓단에 군인 장교헨에 서울서 살고. 우리 아신 공부함이엔 공부 허라 공부 허라 허명 나만 게나제나 이거 물 질어오라 승키 해오라. 무신 아이고.

103049 @ 큰뜰이엇구나예? 큰뜰.

103049 #1 그치룩헤시민 무시거 요즘 ㄴ따시민 땅 혼 삼스천 켜은 분배받아실 건디 옛날이라놓난 땅 혼 평 주지도 안 하고.

103049 @ 혼 평도 주지 안 험디가? 그 널른 땅을. 아까 감저 농사 새로 지어사 커라예? 어렵덴 헤신디. 모중 농젠 허면 갈레죽질 허연마씨? 그것은 무사?

103049 #1 갈레죽으로 영 파니를 만들어놓민 이것이 이 파니민, 이 파니에 흑을 다 베졌되레 허영 이디 듬북.

103049 @ 예.

103049 #1 듬북을 깔앙.

103049 @ 음.

103049 #2 또 듬북 우티레 씨 감저를 놓으면 감저 썩으카부덴 흑을 이제 흐끔 더꺼냥.

103049 @ 음.

103049 #1 감저씨를 다 이제 쪽허게 방수 벌영 영영 영영 놔놔근에 그 감저씨 보이지 아녀게 갈레죽으로 흑 이 다 이 더프는 거라.

103049 @ 으음. 게난 듬북 걸름을 거기 놓은 거구나예? 아아.

103049 #2 열 받아야 그것이 잘 나게. 요새 비니루 더퍼불민 뉘는데.

103049 @ 아, 옛날은 비닐 안 허난에 듬북을 깔아근에.

103049 #2 경허민 가메기 다 오랑은에 감저덜 파먹어불민 그걸 다올리고.

103049 @ 음, 게연 그치룩허면 모중이 날 거 아니우과예? 모중 나면 싱그젠 허면 또 어떻 해야돼?

103049 #1 감저꿀 민작허게 감저를 놓을 때가 돼민 감저가 감저 하나에 모록모록 나올 거 아니 그 순이. 그 순 흐나가 혼 줌이라. 영영 끓어근에 감저꿀 끓영은 예. 널 감저 농젠 허민 오늘 저녁에 그 감저 이슬 맞은 거 해당 심으면은 죽어부난 예.

103049 @ 아.

103049 #1 죽기 때문에 앞선 날에 이거 다 끓영 쉼막이나 이문간에 다 무끄멍 날라당 낫당은예, 뒷날은 감저 농젠 흐면은 이제 쉼 두 개로 놓을 때 잇고 흐나로 놓을 때 잇고 놓는 사름도 한 대여섯 명 돼주마는 저가는 사름도 서너 네 사름은

돼여사 그 감저꿀 저 날르젠.

103051 @ 거기 혈 때는 뭐 거름 같은 거는 안 험니까?

103051 #1 옛날에 거름 안 허연.

103051 @ 거름 안 해연예? 거름 안 행 꿀을 싱근 거.

103051 #1 파니 영 만들민 그자 하나로 쪽허게 싱거갈 거주게. 싱거근에 또 파니 안 웬 디는 이제 뭐 쉼스랑으로 이렇게 파니 멘들영 다 행 싱그고. 우리 우리는 옛날에 우리 집원 맛이 좋으니까 감저 같은 거 그 곡식은 잘 돼. 잘 크고 잘 돼고 이제 생각해보민 비료 줘서 큰 거 만큼 큰 거 닐아.

103051 @ 경 허영은에 허잖아예. 그거는 어느 철에 싱그는 거마씨? 감저메는 언제 메고.

103051 #1 감저 그거 어쨌든 간에 이제.

103051 @ 모종허는 거는 언제 싱거?

103051 #2 봄에 싱거.

103051 #1 음력으로 이월 말 경에 새** 농면은 싱그기는 음력 유월절 그때 절기 보명 다 허여. 하지 절기.

103051 @ 음.

103051 #1 유월들 절기에는 비가 오니까 유월절 비 물 흐썸 고이는 밧은 유월절 물 오는 거 보명 감저를 놓고.

103051 @ 음.

103051 #1 또 경 아년 경 아니한 물 아니 하는 밧들은 하지.

103051 @ 음.

103051 #1 하지에 그 절기 때에 맞추와근에 감저를 놓고.

103053 @ 예, 경행 검질은 또 여름에 메는 거 아니우과예?

103053 #1 검질이 나쁜 여름에만 다 메는 거.

103053 @ 계난 고생헌 거지.

103053 #1 여름에. 계난 만 평 가까운이 다 농사허젠 허민 그 검질멘다는 생각만 해봐. 그 얼마나 사람 고된 일을 헤시니 그때 다.

103053 @ 보리왓 검질하고 감저밧디 검질은 트날 거 닐아예?

103053 #1 감저밧디는 감저꿀 영 어우러지민 감저꿀 굴게기로 영 건영 영 헤근에 손으로 영영영 언주와근에 내불면은.

103053 @ 음.

103053 #1 감저꿀 그 막 번어불민 그 아래서 검질이.

103053 #2 자라지 못허니까.

103053 #1 자라지 못허니까 자연적으로 죽어부는 것도 있고. 그자 살아도 그자 무신 씨 생기거나 무시거 하지 못할 정도로.

103053 #2 감저밧디 검질이 젤 쉬와서예?

103053 #1 제 쉬와. 혼불만 메곡.

103053 @ 혼불만 메든 쫓나고예.

103053 #1 감저왔디 검질은 혼불만.

103053 @ 기구나. 그러면 감저는 언제 파마씨?

103053 #1 봄나민 봄나민 다 농사 해근에 여름에 다 씨뿌령 뒤희민 파는 건 음력으로 구월 하여튼 십이월달까지.

103053 @ 감저 좇일 때도 재미지지 아녀수가?

103053 #1 감저?

103055 @ 예, 어떤 식으로 팟수가? 감저는.

103055 #1 골게기로.

103055 @ 아, 골게기로 해여예.

103055 #1 골게기로 영허영.

103055 @ 쉼로 헨 게 아니꼬?

103055 #2 쉼로.

103055 @ 예.

103055 #2 아니 그때는 골게기로.

103055 #1 골게기로. 골게기로 다 파.

103055 @ 경허난 더 힘들었다는 거구나. 쉼 갈양은에 좇이는 게 아니꼬.

103055 #1 그 막 묻어져불곡 무시거 한덴. 잠대로 보섭으로 해근에 문딱 감저 끊어져분덴 허멍.

103055 #2 손으로 판 거라야 놀에 놀영 놔뒀.

103055 @ 아.

103055 #2 겨울 음식으로.

103055 @ 겨울 음식으로.

103055 #1 거 간식.

103056 @ 예, 그 말 곱아줍서.

103056 #1 그거 감저 해근에 집의 이만은 하계 해근에 땅 파. 하이튼 땅 소곱에 이것이 우이면 이 밑에 7장 땅을 이만은 둥글게 파근에 그디 이제 조칩을 다 세우는 거라이.

103056 @ 아, 옆에.

103056 #1 돌아가멍 아래도 조칩 깔멍 그레 감저를 다 낱. 하이튼 이것이 팽지면은 이제 요만은 팽지 우로 요만은 노프게시리 감저를 놔근에 그 조칩 다 오그려근에 해영 다 손으로 다 해영 팽팽하게시리 다 해놔근에 느람지.

103056 @ 예.

103056 #1 느람지 해근에 뱅뱅 둘러근에 우의, 우의.

103056 #2 주지.

103056 #1 주지. 웃음.

103056 @ 웃음.

103056 #2 주지 딱 씹왕.

103056 #1 주지 딱 해근에 놔두면은 (웃음) 하나도 안 씹어. 감저가.

103056 @ 아아.

103056 #1 겨울내낭 그거 파멍, 낫의는 감저 치멍. 이런 차룽에 내당 옛날엔 무슨 고춧가루를 무시거 해서 누물 우잣에 갈아근에 김치산디 그때도 그 김치도 맛있엉 이만한 낭푼 닭은 걸로 하나 해다 놓민 혼 차룽 감저에 그 김치에 다 먹어나서.

103056 @ 웃음.

103056 #1 이젠 감저도 하나만 먹어도 스몫 실프덴 허는디 그때는 아이고.

103056 #2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103058 @ 예.

103056 #2 점심 도시락을 감자 두 개.

103056 @ 예.

103056 #2 이 주머니에 낭 그걸 정심으로 먹어나서.

103056 @ 음.

103056 #2 보통 다 경혜수다.

103056 @ 다 쫄이 엇이난 이제 감저로예?

103056 #2 경허고 또 좁쌀이 별로 없으니까.

103056 @ 예.

103056 #2 감저 그 썰어낭 독독독 혜영 조팝 해놓면은 그 조팝만 다 돌랑 먹다 보민 감자만 남아.

103056 @ 아, 요즘은 감자부터 먹을 거 닭은디.

103056 #1 감자만 둥그러부렁 밥만 먹영. 그 감자만.

103056 @ 그니까예, 감젓눌은 멧 개씩 만들아마씨?

103056 #1 우리 집 경우에는 네 개. 하나는 씨로 가만 세 개. 세 눌은 겨울내낭 간식으로 먹을 거.

103056 @ 먹을 걸로예. 게문 씨 문은 눌을 딱나게 불르는 거 잇어났수가?

103056 #1 그 식으로 그디 거는 그자 더울 때는 주지 열아주곡.

103056 @ 음.

103056 #1 어둑어가민 더퍼주곡. 그치룩하멍 혜영 감저 놓을 때 영 혜쌍보민 하나 안 씹어. 옛날 어른덜토 잘 그 연구도 보통 연구가 아니라.

103056 #2 건 그거는 반드시 조칩이라야.

103056 @ 조칩이라야.

103056 #1 조칩.

103056 @ 아아.

103056 #1 조칩은 까들락하니까 흑이 영헤도 썩지도 안 하고 하난에.

103056 @ 게난 이 어른들이 정말.

103056 #2 게난 낮 온도 보면서 주지로 그 다 온도 조절헌 거.

103056 @ 예.

103056 #2 영 혜영 날 뜨거우민 주지 열앙 영 베르쓰고. 추웁직허민 더퍼불 주지 더프곡.

103058 @ 음, 이 감저꿀로는?

103058 #1 소.

103058 @ 아.

103058 #1 감저꿀 그거는 소마귀.

103058 #2 말이영.

103058 #1 소하고 말이 감저꿀을 잘 먹어.

103058 @ 아.

103058 #1 부드러운 생이라. 그거는 무시거엔 안 허영 게나제나.

103058 #2 소 만약 길루곡 밧은 엇어근엥에 소 맥일 거 말 맥일 거 엇이민 세벽이 일어낭 늚의 줌 물른 거 밧되 가서 혼 짐 저 와사 아침밥 먹곡 해나수게.

103058 @ 으, 그 사람이 먹거나 허진 아넛구가? 감자.

103058 #2 사람은 먹건 ** 감자순은 육이오 동란 피난민덜 먹기 시작허니까 먹엇지.

103058 #1 그런 거 먹을 걸로 생각도 안 허여.

103058 #2 생각도 아녀 나서. 밧은 먹어 보니까 막 맛좋은 건데.

103058 @ 아, 기구나예?

103058 @ 췌만 먹는 거.

103058 #1 그 피난민덜 완 먹으난에 그때부터 ** 헤 먹는 사름은 헤 먹어신디. 우리 경우는 우잠이 막 널르난 우잠에 느물. 무수허곡 저 콤포산이 그런 마늘 엇인 사름이 천지가 만지. 우잠 엇인 사름.

103058 @ 맞아예.

103058 #1 우리 집원 그 마늘도 문딱 요만씩 다 남텡이 차 무꺼근에 올레 긴긴 현 올레에 올렛담에 빈지롱허게 다 넣어놓고 무수도 옛날 그 단지늚뻘.

103058 @ 예.

103058 #1 단지늚뻘 그 단지늚뻘 그 썸해근에 돛국물 끓이민 얼마나 그 잔치때 맛있िका부덴.

103058 @ 아, 단지늚물 썸으로예. 그 썸을 뭐렌 험니까?

103058 #1 썸. 경혜영 단지늚물 그 썸이엔 해근에.

103058 @ 음. 게난 꼭 이 늚뻘가 단지치록 생견?

103058 #1 단지치록 땅소굽에만 들영 우터렌 나오지 아녕 단지늚뻘는. 따시 세뿔늚뻘엔 현 거는 우터레만 나오고.

103058 @ 건 췌뿔처럼.

103058 #1 우터레만 나오곡 흐꿈 추우민 다 꺾아.

103058 #1 꺾아변에 먹을 것이 엇이면은 단지늚뻘 그거 행은에.

103058 @ 단지늪빠는 저장도 잘 돼켜예?

103058 #1 건 지대로 저장돼니까. 계난 우리는 그런 거 저런 거는 귀하지 아녀
게 살아시난. 켈 못 건딘 것이 일 너미 많은 것이 켈 못 건더.

103058 @ 맞수다. 삼춘 아까 그 감저농사허멍 잊어불지 못허는 거?

103058 #1 감저 농사 지멍 그 저 감저 모종 놓을 때에.

103058 @ 예.

103058 #1 그 땅 파는 거 거 켈 그거. 갈레죽질 하는 거 얼마나 그거 힘들게.

103058 @ 젊었을 때.

103058 #1 젊으멍 말멍 아이 때 그 어른 할 일을 다 시겜다니까. 우리 어머니.

기타 농사

103060 @ 으, 그 다음엔 여기에 이제 수박도 여기 갈아신가마씨?

103060 #1 우리 이 우리 동네는 수박 안 **

103060 #2 수박은 별로 안 허고 물웨, 물웨.

103060 #1 함덕.

103060 @ 아, 물웨.

103060 #2 예, 물웨해서 원두막 짓엉.

103062 @ 아.

103062 #1 원두막 짓엉 걸 헨 폼니께게. 경허면은 물웨 사례 갈 적에 보리도 가
경가곡 물물교환으로, 경해연 해나고. 우리 어릴 때는 그 물웨도 먹고 싶어가지고.

103060 #1 다 도둑질해단.

103060 #2 웃음. 물웨 원두막에 하르방이 앓아아 잇으면 이렇게 앓앙 잇으면 두
이로 가곡 이렇게 앓앙 잇으면 이쪽으로 가곡.

103060 #1 다 도둑질 해단 먹언.

103060 @ 도망가곡. 아

103060 #1 웃음.

103060 @ 아, 이쪽엔 물웨덜은 하영 갈안예?

103060 #1 수박은 함덕, 함덕서 수박 많이 나난 함덕서 시꺼오민 우리 그디서
폴레 오민 산 먹어나서.

103060 @ 음.

103060 #1 수박은 안 돼고 물웨만.

103061 @ 아, 물웨는 하영 헛구나예? 아, 춤웨 ㄱ튼 건마씨?

103061 #2 어.

103061 @ 춤웨.

103061 #1 춤웨.

103061 #2 춤웨는 조끔식 해서.

103061 #1 춤웨는 그 수박 가는디 조끔 대대적으로 하지 아녕. 춤웨하곡 수박은

이제 가만이 생각해보든 함덕서 그걸 많이 헨 그걸 폴레 땡겨난 거 닐아.

103062 @ ㄴ치도 옛날 싱거낫수가?

103062 #1 고치도 기자.

103062 #2 기자 김치혜 먹을만큼.

103062 #1 김치혜 먹을 만이 어디 기냥. 고치 기자 그 옛날엔 우리 어머니네 그 보면은 우잣에 고치, 기자 고치 연 거 남뎡이 차 메불민 익도 설도 아년 그 돌른 거. 그런 거 다 타다근에 솟뚜껍에 보깁.

103062 @ 음.

103062 #1 보까근에 이제 그거 방엿귀에 뽏앙. 막 입 영 막안에.

103062 @ 음, 메운 거난예?

103062 #1 흰하느디 영혜영 뽏아근에 그거 가져근에 뽏젓에 기자 어떻 어떻 김치 버무령.

103062 @ 으음.

103062 #1 고치엔 해근에 어디 강 사오는 건 안 봐봐서.

103062 @ 우잣에 그냥 싱경예? 어느 철에 싱그는 겨우과? 고치는?

103062 #2 요새 싱검주, 요새.

103062 @ 봄에 다예?

103062 #1 봄 여름에 다 농사 해방 검질 해놓민 가을 돼민 다 걷어들이

103063 @ 모든 게. 그 느물은마씨?

103063 #1 느물도 기자 그냥.

103063 @ 느물은 어떤 느물덜 갈아수가?

103063 #1 옛날 느물은 퍼기 안 앓안게. 퍼데기. 그런 거 김치 김장할 때에 퍼데기 한 거 폐닥진 거 흐뽀 영 쫄랑진 겨영 문딱 캐영 이제 저근에 어디 바당에 가근에 거 시저당 바당물 물 저단에 둥간 놔뎡엔 무시거 어떻 어떻 헨 김치헨.

103063 #2 소곰이 비싸니까 쫄곰 절여근에 놔뎡당 그걸 이제 지여근에 이 당케에 그디 물 종난에 그디 강 다 씻영.

103063 @ 예.

103063 #2 경헿 오라근에. 오라근에 그대로 김치

103063 @ 집의서 소곰헿당.

103063 #1 소곰이 막 비싸난 돈 줘도 소곰을 살 수 엇어나서.

103064 @ 소곰도 하지 아녀난예? 아까 늑뽏는 무신 늑뽏허고 무신 늑뽏마씨?

103064 #1 쉼뽏늑뽏 우로만 나오는 거 단지는 땅소곰으로만 들어가는 거.

103064 @ 음, 그것도 저기 느물 갈 때 갑니까? 언제 갑니까? 거는.

103064 #1 ㄴ치 가느디 그 저 언제 가느냐 허면 거는 여름에 갈앙. 여름에.

103064 @ 여름에. 경햐야 겨울예예?

103064 #1 검질메난에 메난 꾹데에 배추하고 느물하고 갈아나서. 그 생각해보민.

103064 @ 음, 경행은에 그 단지늬뻬가 맛 좋은 거?

103064 #1 단지늬뻬 그 쉼뻬늬비는 흥뻬 열어가민 다 곳아부난에.

103064 @ 음.

103064 #1 먹지 못허여.

103064 #2 단지늬뻬는 겨울용이주게. 땅소굽에만 들어가니가 곳지를 아녀. 쉼뻬늬비는 일찍 눈이 곳아부렁 먹을 것이 었어. 초겨울에는 이거 먹꼭 한겨울에는 단지늬뻬를 먹꼭. 요즘도 그렇게 하는데.

103064 @ 요즘도예? 게른 열무 같은 게 세뻬늬뻬가마씨?

103064 #1 열무 같은 것이 쉼뻬늬뻬 닮아베여.

103065 @ 여기는 요즘 고구마 말고 감자를 뉜렌 해?

103065 #1 지슬감저.

103065 #2 지슬감저.

103065 @ 지슬감저렌. 지슬엔 안 허고 지슬감저. 그냥 고구마는.

103065 #1 고구마는 감저.

103065 @ 감자고.

103065 #1 지슬감저는 지슬엔 현 거 부찌야 알주, 감자엔 허른 그 고구마허고 꼭 같은 걸로 취급하니까.

103065 @ 지슬에 안 굴고 여기는 지슬감저렌 험니까?

103065 #1 지슬감저.

103065 @ 지슬감저? 지슬감저도 여기 같아마씨?

103065 #1 여기 우린.

103065 #2 아 그뻬 쫓뻬씩.

103065 #1 그 시절에는 가는 사름 잇고 안 가는 사름 잇고 그뻬 그 그뻬 지슬감저씨는 먹으면 막 목 아파나서.

103065 #2 목 아파나서.

103065 #1 그뻬 씨는.

103065 @ 예.

103065 #1 막 목 아파근에 에이그 헤나신디.

103065 #1 아마 그것이 토종인 모양이라.

103065 @ 음, 헛뵈 맞아부난.

103065 #1 어떻사 헤신디 어떻 **사 헤신디 목 아팠 먹지 못헤나서.

103065 @ 반찬헛 뻬 옛날에게 그 지슬감자 행은에 반찬덜 하영 허지 아녀수가?

103065 #1 그거 놔신디 막끗데.

103065 #2 메리치 농꼭.

103065 #1 메리치, 메리치도 바당에 강은에 뻬 들엇저 허민 돌아가근에 거려다 근에 그거 헤영 어떻 메리치 뻬드는 체 헤근에 헤 가른 그것에 헤근에.

103065 @ 아, 지슬감저를?

103065 #1 썰어놔근예.

103065 @ 아, 그 멜 헨 거예예?

103065 #1 멜 그 물론 거주게.

103065 @ 예, 예.

103065 #1 이제 생각허면 멜 톨를 때 푼리 조그만이 앓아시카. 웃음. 아니 파리가 그땐 이제보다 더 하낫주게.

103065 @ 맞수다게.

103065 #1 무시거 더꿈을 헤시카. 데우청 넣어놓민 푼리가 조그만이.

103065 @ 시에는 멜에 감저를 보끄는 거를 봐보질 아녀신디.

103065 #1 그거 그 저 멜 헤근에 국물 등당하게 낡.

103065 @ 예.

103065 #1 이 국ㄴ치룩게. 그치룩허게 헨 집의 탁덜 키우난 독새기 나민 독새기 뒤 개 깨어났은에 휘하게 젓영. 제법 그 그때 이제 생각해보민 뭐 국 겸 반찬 겸 거 닥아벼.

103065 @ 아, 그 지슬감저행예?

103065 #1 지슬감저 경허영 썰어놔근에 네게방장허게시리 막 흑게 아녕.

103066 @ 어, 거고 삼춘, 여기 피농사도 해낫수가?

103066 #1 피농사덜은 이 가름, 우리 해변엔 안 허고 웃드르.

103066 @ 아.

103066 #2 웃드르에는 피덜 막 갈아난.

103066 @ 음, 게영 피밥도 먹어봬마씨?

103066 #1 난 피밥을 우리 큰고모가 이젠 씨집간 디가 신평리라. 신평리.

103066 @ 신평리?

103066 #1 신평리서 헤근에 피도 곁지 아널 때는.

103066 @ 예.

103066 #1 껌데기 실 때는 아이 그것이 거무룽헤근에 무시거 헨디 곁아는 거 보난 헤영헨게. 피쫄이 헤영헤신디 밥은 하니까 완전 조팍보다 더 살락 허는 거라. 피쌀.

103066 #2 피.

103066 @ 예. 삼춘은 피 먹어봬마씨?

103066 #2 피는.

103066 #1 피 우린 해변은 피 엇어. 웃드르.

103066 #2 드리 손당. 드리 손당 그레만 피 나주.

103066 #1 이렌 피 안 헤. 그 피는 얼굴하고 음식이 틀려. 빗깁은 헤영헌디 밥은 하니까 조팍보단도 더 살락.

103066 @ 음, 살락헤연예? 맛도 없고.

103066 #2 드리손당이 보리도 안 돼고 조도 안 돼고 허난에 피벳기 안 돼나서.

계난에 치너덜 말 안 들어가민 득리 손당에 씨집보네켤.

103068 @ 아, 여기서. 그만큼 힘든 삶이니까예? 혹시 여기 담배도 갈아놔수가?

103068 #2 아, 노인네들 담배 갈안.

103068 @ 예.

103068 #2 봉초. 봉초 만들언.

103068 @ 그 말 곱아줍서.

103068 #1 담배 우리 어릴 때주마는 담배 갈아근에는 여자분들은 담배 가는 디는 신경 안 쓰는데 이녀 피울 거니까 하르방덜 캐어근에.

103068 #1 여경.

103068 #2 헛빋 안 발른다.

103068 #1 돌아멧 내비는 거라.

103068 #2 돌아멧 놔두면 인제 다 몰르면은 피울 때 뒤편은 거 아저당 썰영. 썰어근에 봉초로 몰아근에 허곡 통대 해근에 피우곡 해놔주게. 쟁장히 독해 난건데.

103068 #1 돌아메영 우리 셋하르버지. 셋하르버지네 집의 강 보민 그 밧그레 이제 정제 님은 디 돌아메신디 것도 오래난 벌경헙디다.

103068 #2 벌경허여. 벌경.

103068 #1 말르난에 색깔이. 벌경헌 디 우리 셋하르버지 이 작두 님은 겔로 막 해근에 보민 신문지에도 몰아근에 피우곡. 경 아녕 통대해근에 이만헌 거 해근에 해착에 앓앙은에 보민 저 새.

103068 @ 예.

103068 #1 새 해영은에 통대에 영 빼내는 거 보민 니꼬쥌. 시꺼멍헌 니꼬징이 그 새에 막 묻영 나오는 거라. 통대 그 청소하는 거.

103068 @ 아, 아.

103068 #1 아이고, 그겔 다 이디 다 들어가놓난 어떨 거라.

103068 @ 그거를 몰랑 영허는 거를 봉초레 해여예?

103068 #2 봉초.

103068 @ 아아.

103068 #1 봉초, 봉초.

103067 @ 이젠 삼춘 막 얼떡어난 믱물 농스. 믱물씨 한번만 더 곱아줍서?

103067 #1 믱물 가는 것는 밧 갈렌 안 해영 곱 곳으렌 허주게.

103067 @ 예, 예. 곱 곳으렌.

103067 #1 곱 크게 일찍 선으로 이치룩 이치룩 행은에 하면은 그 불치를 그 믱말 갈젠 불치를 다이 모두와 낱. 일년내낱 모양 낱당 믱를 그 불치를 다 모양 밧디다 시꺼다근에 이 땅 영영영 곱라근에 우티레 불치를 다 비와와근에 씨 놓멍 막 거서끄는 거라.

103067 @ 예.

103067 #1 불치에. 곱고로. 가게 해근에 싹 올려와근에 해영 그 곱 곳은더레 그

출구덕에 영 담으멍 하나 숨빡 담으민 무겁곡 반씩 담으멍 이거 영혜근에 영 이거 끈 뚜러멩은에 요만쫘에 허민 출구덕을 이추룩 이추룩 허멍 이젠 막 놓는 거라.

103067 @ 음.

103067 #1 쪼끔씩 쪼끔씩 접으멍.

103067 @ 예.

103067 #1 골고로. 경혜근에 문딱 해놓민 쫘이, 쫘는 걸로 쫘어야 돼여. 씨를 다 문제 하면은. 게난 그것이 유월에 음력 유월달에 그 믱덜 농사를 그때 지젠 허민, 쉼 밤 혼 시나 두 시에 밋디 가야 돼여.

103067 @ 음.

103067 #1 그 쉼 얼먹영 죽넌. 쟁 허영근에 강 하여튼 간에 아홉 시나 열 시 뉘면은 다 쫘나.

103067 #2 쫘나.

103067 @ 경허영은에 그 이제 크왕.

103067 #1 게난 그 믱덜은, 믱덜 농사가 질 막쫘데 허주게. 질 맛쫘데 허여도 더운 때 크는 거는 꼭같이 커.

103067 @ 빨리에?

103067 #1 꼭 같이 현 거도 앞에 한 거 가을 거 믱물도.

103067 @ 검질도 메여마씨?

103067 #1 우리집. 으?

103067 @ 검질도 메여?

103067 #1 검질은 안 메여. 유월달에 가는 거난. 게난 믱덜 갈[칼] 밋디 유월 검질 게난 풀은 치주.

103067 @ 풀 친데는 말은 무슨 말이우과?

103067 #1 검질을 다 메여낸단 말이주. 갈기 전에. 풀 다 쳐근에 다 치와베근에 판척허게 골 깃는 거라.

103067 @ 잠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골 곳을 댜 뉘로?

103067 #1 잠대로 굿는 거라. 소에.

103067 #2 잠대로 이빠이 물리지 앓고.

103067 #1 우의로 술술허게 딱 일직선으로.

103067 @ 으.

103067 # 1 경혜근에.

103067 @ 씨문을 디레 허는 거 아니라예? 혼 파니 세 개씩 혜근에?

103067 #1 혼 사름이 그 영영영 씨 놓아가는 것이 세 고랑씩.

103067 @ 음.

103067 #1 세 고랑씩 잡아근에 그 걸름을 놓는 거라. 걸름 놓는 거엔 하느디. 걸름 다 놓아놓민 끄시기로 혜근에.

103067 #2 믱덜 난 거 보면은 그거 놓은 거 일정허게 탁탁탁탁.

103067 #1 일정하게 막 눈절엇이 그냥 막 놓앙 해도 틀린 디가 하나 엇이.

103067 #2 딱딱딱딱.

103067 #1 잘도 씨도 딱 맞게시리 잘덜 서꺼놓곡.

103067 @ 눈절엇어도예?

103067 #1 그 옛날 어른덜이 그 하나하나 한 거 이제 가만이 생각해 보민이 다 그 생각하멍 연구하멍 다 한 거.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옛날 어른덜 한 것이 진짜로 그 슬프게시리 생각이 들주마는 그 시절에 그 어른덜 한 것이 너무나 그때는 정확 허게 잘했다고 생각들어. 감저 그 놓는 거나 므를 가는 거나 계절 맞춰간에 딱딱 므들은 막끗데 갈아도 므녀 한 것보단 ㄹ치 크니까 그 유월달에 이제젤 마지막에 므를 가는 거라.

103067 @ 경 행은에 이제 언제 비여? 수확은?

103067 #1 그거 해근에 한 음력으로 구월이나 시월 나민 비여낵. 므멀이 다 거 멩케 쫓 햐양케 피엿다가 것이 므멀 다 열아근에 익으민 거멍허여.

103067 @ 음.

103067 #1 거멍하면 므를 익엇텐 다 비여근에 밋디 이제 혼 이틀 낫다근에 다 무꺼근에.

103067 @ 음.

103067 #1 므멀 무끄는 거는 그냥 영 해근에 보리처럼 이 보리는 이 여물은 혼 더레 가게 해근에 무끄는 게 아니고 모멸은 마주.

103067 @ 아.

103067 #1 이 므를 그 열매를 므를을 딱 마주가게 해근에 가운데로 무끄는 거.

103067 #2 새 비여당.

103067 #1 새 비여당 그 저 줄 영 만들어근에.

103067 @ 그 줄은 뭇렌 험니까?

103067 #1 이녁 우리가 영 무끄젠 새 두 개로 썩 갈랑 이디 저쟁이에 접정 이 디 영영영 해근에 탁허게 영영 무꺼.

103067 @ 재난 그 무끄는 끈을 뭇엔 곶아? 뭇엔 곶아? 여기서는.

103067 #1 ㄹ네기엔 허주게.

103067 #2 ㄹ네기. 새 비연에.

103067 @ ㄹ네기. 께? 깨틀영은에.

103067 #2 므멀단이 이만씩 햐여.

103067 #1 양쪽으로 딱 허게 그 이제 므물이 그거 잘 털어지주게. 그거 약허영 경허난.

103067 @ 아아, 경허난 이렇게 양쪽으로 행은에.

103067 #1 벧껏디레 양쪽으로 무경 헛지. 집의 시꺼당 그거는 놀영 낫다근에.

103067 #2 놀영 놔뒀당.

103067 #1 놀영 놔뒀당 밋뒀일 뺏데기고 무시거고 썩 다 햐들여나근에. 새 집

이는 새 7장 다 비여 들어뒀은에 모물은 젤.

103067 #2 냉중에.

103067 #1 냉중에 그 두드리는 거라.

103067 #2 날보명.

103067 #1 도끼로.

103067 @ 날 보명.

103067 #1 다 영영 세와근에 저 벧 맞좌가명.

103067 @ 게난 두들길 때는예? 진짜 이 지혜가 어른들이 지혜가 대단했던 거 같아예. 영허영은에 농사는 다 쫓나수다. 버치지예?

103067 #1 음.

103067 @ 막 버천? 어땡허고.

103067 #2 다음엘랑 허주게.

103067 @ 다음에 허카마씨?

103067 #2 저 이사덜 오난에 웨의힐 거 닻안게.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자, 쉼 어땡 질좌마씨?

104001 #1 쉼은 이제 농사짓는 사름, 농사짓는 집의는 다 쉼 흔 머리씩. 암크나 수크나 새끼내와근에 하영 팔곡 무시건 하젠 허민 암췌.

104001 @ 예.

104001 #1 암췌 헤근에 메고. 경 아녀면 밧만 갈앙은에 농사만 대농사 짓젠 췌소.

104001 @ 예, 여기는 뭇렌 곶아마씨? 수소를.

104001 #2 부랭이.

104001 #1 부랭이.

104001 @ 으.

104001 #1 부랭이 그 췌를 키와근에 거 밧 같고 농사지젠 헤근에 소 키우는 거고.

104002 @ 예, 그 췌도 종류가 으라 질 아니우파예?

104002 #1 음.

104002 @ 어떤 종류 잇어마씨?

104002 #1 우리는 우리 집의는 얼룩소 잇어. 얼룩소.

104002 @ 얼룩소?

104002 #1 빨간 색 까만 색 영헤영 서꺼진 색깁.

104002 @ 그 무사 얼룩소를 다른 제주도말로 굳는 말은 엇수가?

104002 #1 그냥 그자 으 얼룩소엔 굴아난 거 다탐아.

104002 @ 아, 또 색깔에 따랑도 트나지 아녀마씨?

104002 # 색깔에 따랑은 기자 뭐 한 색으로, 빨간색으로 기냥 영 켜 거는 붉은 쉼, 까만색으로만 켜 거는 까만쉼.

104002 @ 음.

104002 #1 얼룩쉼.

104002 @ 음.

104002 #2 경혜근에 그때 혜근에 굴아난 거 알아져.

104002 @ 음, 알아수다. 이 부분은 쉼 질루는 거예, 여기 쉼 질화난 하르방 잇 지예? 그 섭외해줍서? 쉼는.

104002 #1 쉼는 우리 이상 키운 사름이 엇어.

104002 @ 아.

104002 #1 우리 그 소는 어떻 돼느냐 허며은 우리 집의가 소를 키우면은 이제 겨울에는 집에, 우리 집에서서 이제 소를 이제 키우면서 그 조, 조쥌.

104002 @ 음.

104002 #1 그런 쥌 같은 거 감저꿀 그런 거 다 말류와근에 놀영 낫당근에 그거 다 소 이제 그 것으로이.

104002 @ 음.

104002 #1 경 혜근에 쥌근에 키우당, 이제 키우다근에 이 봄나가면은 이제 농사 짓기 전에는 웃드르 올리는 거라.

104002 @ 음.

104002 #1 소 키우는 사름안티이. 거 얼마 쥌근에, 그디 올렷다근에 또 농사짓 쉼 허면은 소 가근에 몰아다근에.

104002 @ 응.

104002 #1 몰아다근에 집의 그 소 메영 그 먹을 거 말른 거만 주민은 잘 안 먹 으니까 들에 나가근에 이녁 밧디 강 어웁 같은 거 무신 새 같은 거 그 쉼출.

104002 @ 예.

104002 #1 쉼출 비어다근에 주멍 이제 농사짓고.

104002 @ 음.

104002 #1 경 혜근에 농사 다 저나면은 또 웃드르 올리는 거라.

104002 @ 음. 목장에.

104002 #1 웃드르 그 소만 그 가름에 이 혜변에 그 소 하나씩 혼 집의 하나씩 신 소를 다 모여다가 그 돈벌이로 그 키우는 사름이 잇어나서. 그거 저 가꾸는 사 람.

104002 @ 가꾸는 사름.

104002 #1 소 보는 사름.

104003 @ 예. 게문 그 췌는 어떤 식으로 뭐허멍 이용헌 거라마씨?

104003 #1 췌는 그거 기자 집의 그 하는 거는 어떤 집의는 아까 곧듯이 암궤키와근에 새끼 막 낭 그거 새끼 전중혜근에 돈 벌젠 하는 사름 잇고.

104003 @ 음.

104003 #1 또 그 소가 많이 시면은 거넘하기가 힘드난에 기냥 혼 머리만 농사 짓는 디만 하는 거, 수궤. 부랭이.

104003 @ 부랭이.

104003 #1 그거.

104003 @ 게난 농사지을 때는 주로 어떤 일을 헤마씨? 췌는?

104003 #1 밧 갈고. 밧디 또 짐.

104003 @ 음.

104003 #1 것덜 이시민 그 짐 조췌 같은 거, 조는 비어 농면은 이제 다 조코코리만 톤아근에 멩텅이 놔뵤 조췌 그 다 무꺼근에 거는 다 소로 시꺼오는 거라. 집에.

104003 @ 질메에예, 아, 게영 그거 혼 바리 헤나수가?

104003 #1 혼 바리 그거 질메 영 헤근에 질메엔 헌 거 알아지커라?

104003 @ 예, 예.

104003 #1 소 질메엔 행은에 양쪽에 혼쪽에 열 단씩 양쪽에이 스무 단씩 시꺼아저근에 하루 종일 그거 헤근에 집에 다 시꺼오는 거라. 게문 그거 눌엇다근에 겨울에 눈 와근에, 옷드르가 눈 더 묻으니까 그땐 눈 하영 올 때는 옷드르 소를 못 올리니까.

104003 @ 예, 예, 예.

104003 #1 집의서 조침 같은 거.

104003 @ 음.

104003 #1 감저꿀 같은 거 그런 거 허영 산디췌 같은 거는 영 췌어근에 이제 췌근에 건 특별허게시리 그 이제 소를 잘 멕여야 이제 여름에 농사질 거라 헤근에 그 할 때는 경허곡. 낮의는 집에 뭇 때 낮이는 물을 멕여야 뭇 거니까 클러근에 몰양가근에 물통.

104003 @ 예.

104003 #1 물통 이신디 가근에 물 멕여근에 저 몰양 와근에 메여근에 출주곡.

104004 @ 출주곡, 맞수다. 경허고 삼춘 이제 그 췌도 키우당 보면 이제 밧갈젠 허면 그냥 갈지 못허잖아예? 췌 질들이는 거 봐봣디가?

104004 #1 질들이는 거.

104004 @ 직접 헤판?

104004 #1 그 부랭이 처음 하면은 질들이는 거 그 남테 영 헤근에 헤영 두에.

104004 @ 으.

104004 #1 그 줄 메여근에 ㄴ레착.

104004 @ 예.

104004 #1 ㄴ레착 영 고망 뜰라진 것에 그 메여근에 꺾어근에 갓다왔다 갓다왔다 그걸로부터 이제 질드리기 시작하는 거라. 경 해근에 그 다음엔 그 남테 해근에 해영 밧디 가근에 할 땐 막 그 소가 막 말 안 들민 꼬 꿔여근에.

104004 @ 음, 가 코꺾여은에 이제 경해영 질드리는 거라예?(잡음)

104005 @ 경허곡 그 쉼 나이힐 때 혼 설이믄 뭇렌 허는 것도 알아지쿠과?

104005 #1 나이는 그 소가 그 집에서 행 허며는 뭇 살 뻐저, 소는 뭇 살 뻐제.

104005 @ 금승 다간 이런 말은 안 허고?

104005 #2 금승, 금승 다간 경해여.

104005 @ 그 다음?

104005 #2 다간.

104005 @ 뭇, 예. 사름 나름 이런 말은 안 들어뵈마씨?

104005 #2 사름, 나름 허는데.

104005 @ 예. 웃음.

104005 #2 사름 나름.

104005 @ 들어보진?

104005 #1 그런 말도 잇어나서. 거 쉼 장시덜 와근에.

104005 @ 예, 맞수다.

104005 #1 쉼장시덜 와근에 쉼깁 그거 영 해근에 치젠 허면 이거는 뭇 무시거 그때 말로 아까ㄴ치록.

104005 #2 금승이우과? 다간이이과?

104005 #1 금승송애기.

104005 @ 금승송애기 허고, 다간송애기?

104005 #1 세 살. 세살이여, 뭇 두 살이여.

104005 #2 그걸 확인허젠 이거 들러근에 이빨로 확인허여.

104005 @ 아, 이빨로예? 아아.

104005 #2 이빨 뭇 개 나민 금승이다 다간이다 이렇게.

104005 @ 행은에 이젠 그 부분도 아 그것도 소만 전문적으로 허는 사람들이 아는 거주게예?

104006 @ 경허곡 혹시 밧갈젠 허민 잠대?

104006 #1 잠대.

104006 @ 잠대도 이름 어디 어디 부분 명칭 알아지쿠과?

104006 #1 잠대.

104006 @ 만약에 잠대 영허영은에.

104006 #1 잠대 그거 영영 하면은 곱배.

104006 @ 예, 곱배 잇고, 이거 잠대가 영 있으면 이거 손이랑 다르잖아. 여기가 뭇여 현 이런 말은 모르겠지예? 밧 같아나지 아녀니까.

104006 #1 밧 갈아나지 아녀니까 어쨌든 잠대하고 곰배 그거는 알아져. 그 코쟁이에 그 췌.

104006 #2 그거허곡 또 이제 파니 넘어가는 거.

104006 @ 예.

104006 #1 파니 넘어가는 거 이름 무시거여마는.

104006 #2 베, 베.

104006 @ 뱃.

104006 #2 뱃, 뱃.

104006 #1 뱃.

104006 @ 보섭. 뒤편.

104006 #1 보섭 그거.

104006 @ 끝에.

104006 #1 뱃은 보섭 앞에 잇는 거.

104006 @ 예. 뱃, 그다음 여기 뭘 설치여 뭘여 허는 말은?

104006 #1 그런 거는 우린 그자 잠대로만 기자.

104007 @ 맞수다. 잠대로만예? 이 질메도 부분 명칭이 핫텐예?

104007 #1 질멘, 그거 질메는 질메엔 현 거는 소에 그 짐 시끄는 거보고 질메엔 해신다.

104007 @ 이렇게 해영은에 생겼잖아예?

104007 #2 으.

104007 #1 요쪽에 해근에 요쪽에 해근에 소 이거 영 허영 허민 그 곡식단을 영 허영 소에 이제 질메 그거 해근에 그 이제 그 노곳은 그때 뭘엔 골아신고. 하여튼 간에 그 짐 시끄는 그 노곳이 있어나서.

104007 @ 예, 예. 게난 그런 이름마다 다 잇주마씨. 질맷가지여 무신거여 허니까 이 부분은예, 이 농사 하영 하르방덜 엇어.

104007 #1 하르방덜 엇어.

104007 @ 엇어예. 다 돌아가션예?

104007 #1 우리가 채고.

104008 @ 멩에 허는 거는?

104008 #1 멩에엔 현 건 밧 그거.

104008 @ 밧힐 때 멩에도 있고 밧갈젠 허면?

104008 #1 이디 영 긴 거. 이디 영 긴거.

104008 @ 멩에. 멩에도 보면 이름들이 다 잇거든예? 멩에여, 아니른 목에 좁게 여 허명 이름 잇거든. 그런 것도 기억에 안 남지예? 알아수다.

104009 @ 여기에서는 목장도 잇수가?

104009 #1 목장은 게난 여기 목장이 없으니까 웃드르. 웃드르 목장에 올리는 거라.

104009 @ 음, 삼춘. 음.

104009 #1 우리 경우에는 출왓이엔 해근에.

104009 @ 예.

104009 #1 뭐 우리 친정 경우는 만 켜 그 출왓이 잇어나신디 거 아녀민 이천 켜 삼천 켜.

104009 @ 음.

104009 #1 그자 사천 켜 이 정도 자기 그, 그 옛날에는 출왓이 그것이 살림. 살림살이라. 거기에서 그 출을 비여근에 불도 때곡 소도 주곡. 게민 소 먹어난 그 앞에 거 이제 안아당 말류와근에 또 불 때멍 밥하곡.

104009 @ 예, 경허고.

104009 #1 경허여.

104009 @1 이제 혹시 소 하영 질락시난 켜 질루멍 막 고생헛거나예 잇어불지 못허는 거?

104010 #1 잇어불지 못하는 거, 소가 영 해근에 소 두 개고 세 개고 켜막에.

104010 @ 예.

104010 #1 켜막에 이렇게 녹대 해근에이 녹대 그거 빨에 영 해근에 매는 코에 매영 잇다근에 소 물 맥이젠 내놓면은 이거는.

104010 #2 들락퀴영.

104010 #1 소가 무경, 무경 낫당 클렁 내놓면은 완전 들락퀴멍 그 우리 이제 말로 물이 남추구. 아이제 아래 저것이 남추구. 민속촌하는 그디가 남추곳이주. 그레 풀랑지 들렁 막 도망가민 그때 그 소 못 심어근에 쫓아가당 쫓아가당 못 쫓아가민 막 앓안 우리 울어나서.

104010 @ 음. 맞아.

104010 #2 울영 ㄱ마니 허영 가보민 손 어디 간 곳이 없고 이제 집원 오면은 이제 소 이제 줄바로 아념젠 행은에 매를 맞거나 욕을 들을 거난 경 그거 때문에 확 오지 못해근에 앓앙 이시민 소가 들어와. 자기대로.

104010 @ 지 먹어질 거 먹영예?

104010 #1 아 먹는 거 보난 뽕대로 뛰영 오곰 폐운 모양이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민.

104010 #2 ㄱ만히 가두왕 놔뽕당 풀어놓면은.

104010 #1 그것이 켜.

104010 #2 막 위험허여 어린아이덜 이시민.

104010 #1 이거 영영허멍 돌아가민 물 맥이젠 그것이 켜 걱정.

104010 @ 에에.

104010 #1 저 소 강 어뎡 물 맥영 오늘 올 건고.

104010 @ 음.

104010 #1 물 맥이지 아녀민 안 켜 거니까. 물은 꼭 맥여야 뽕난. 게난 그것이

이제도 생각하민 생각하민 우습기도 허고 복통난 일어난애.

104010 @ 잊어불질 아녀예?

104010 #1 잊어불질 아녀. 켈 그거는 잊어불지 아녀.

말 기르기

104011 @ 음, 맞수다. 이젠에 뭘 질봐줍주예.

104011 #1 뭘.

104011 @ 예, 뭘은 어떻 질랴수과?

104011 #1 뭘은, 기냥 뭘은 쉼 닭진 아녀근에 집속에 키웁지 아녀 베켓되 영 담 다와근에 문 하나 만들어근에 거기에서 그레 디려몰고 이제 뭘 맥이레 영 가곡 헨 디. 그 말은 저 소가치룩은 안 허여.

104011 @ 음.

104011 #1 울타리가 널르게 헨에 가와냥 키우난 그런지 출도 앞디레 안 낱 아무 디레라고 그 안티레망 게 풀멍 들렁 네경 내불면은 자기네가 다 텅기멍 좇앙 먹곡. 게민 그거 뭘 맥일 때는 그 문 올라근에 헤영 하면 그 오야지가 뛰지 아니민은 말은 절대 또꼬망에 새끼덜은 절대 안 뛰여.

104011 @ 으, 오야지만 딱 잡으민 돼는구나.

104011 #1 오야지만 뛰면은 ㄴ썸 다 뛰는 거라. 경허는 기 거기에서 우리 생각에 여기서 이 말이 대장이다 그 말만 잘 헤근에 하면은 소처럼 애먹지 아녀.

104011 #2 뭘은 겨울에 추위를 안 타.

104011 @ 아, 경 험니까?

104011 #1 경허난 베켓되 집도 엇인다.

104011 #2 집 엇이 눈이 이만큼 물어도 이렇게 막 파면서 먹이를 먹어. 소는 좀 추위 타니까 집을 지어야 돼고.

104011 @ 예.

104011 #2 말은 그대로 놔두면은.

104011 @ 음, 게민 말을 그치룩 애왕 놔두는디예, 거기는 뭐렌 험니까?

104011 #1 거기는 뭐 말 가두는 디엔 그뻘 곱아신가? 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곱아실 거라.

104011 @ 예, 맞수다.

104011 #1 말 가두는엔 곱아신가 건?

104014 @ 말도 부르는 이름이 으라 가지라예. 옛날 혹시 기억해지쿠과? 무슨 말이여 무슨 말이여 허는 말?

104014 #2 뭘 연령은 수로 헐 건디? 수.

104014 @ 수로예?

104014 #2 무슨 수, 뻗 수. 소는 뻗 다간.

104014 @ 예, 다간.

104014 #2 경허는데.

104014 @ 아, 이수매 일수매 이런 식으로.

104014 #2 수.

104014 @ 어, 일수 이수 삼수 행은에예? 아.

104014 #2 곧 나면은 망아지 아넨은에.

104014 #1 뭉생이.

104014 #2 뭉생이.

104014 @ 예, 뭉생이.

104014 #1 또 소는 허면 송애기.

104012 @ 예. 맞수다. 혹시 털 색깔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도 있어신가마씨?

104012 #1 말은 색깔이 엇주. 기자 검은색 기자 붉은색 경 저 붉은말 검은말 기자 영 색깔이 경 요란하지 아녀. 소ㄴ치룩.

104012 @ 음. 그 다음에 몰도 색깔에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점도 찍은 것도?

104012 #1 점백이.

104012 @ 으.

104012 #1 점백이엔 허멍 그 점백인 뭐 흰점백이 저 점백이가 보통 흰 점백이라. 흰 걸로.

104012 @ 예, 예, 예, 코로도 이렇게 허고.

104012 #2 걸로. 이렇게 여기까지 헤지면서 점백이엔 허여.

104012 @ 음, 점백이엔 허고예? 발도 무사 색깔이 트난 경우도 있고.

104012 #1 발은 소덜, 몰덜은 기냥 발, 발 영 해근에 어떤 땀 영 메여근에 발 영 들렁 보는 거는 봐나수다. 이런 발 이런 디 뭐 끼어시냐 안 끼어시냐 그거 봐근에 떼어주기도 허곡.

104013 @ 몰은 어떤 데 이용헌 겨우과?

104013 #2 몰은 마차, 마차힐 때 무시거.

104013 #1 몰 그거 큰 말 그거는 뭐 나이로 멧 살이나 뿔 건고? 다섯 살이나 뿔 건가. 마차 끄는 말.

104013 @ 음.

104013 #1 경 아녀면은 조 같은 거 갈아근에 그 불리는 거.

104013 @ 예, 불리는 거?

104013 #1 땀땀하게 줍씨 물어지게.

104013 @ 음.

104013 #1 그거 불리는 용으로 하영 허고, 보리 돛가레.

104013 @ 음.

104013 #1 그거 불리는 용. 그런 용으로 해근에 집집마다 다 돛가레 불리곡 조 하곡 해난에 말 이신 집의가 경 하지 아녀주게.

104013 @ 예.

104013 #1 경허난 특별히 부잣집 이런 디 말 이시민 그 밑에 사름덜 흐뎡 빌어 다근에 “물 그거 허영 흐뎡 불러줍서?” 하면은 불러쥬근에 그뎡 돈으로 받지 아니고 일로.

104013 @ 예, 일로예?

104013 #1 일 헤근에 메칠 왕 검질을 매 주던가 그런 식으로.

104013 @ 맞수다.

104013 #2 게난 그 당시에 물 마차 이신 디는 막 잘 사는 디.

104013 @ 예. 오십 머리씩 허면예? 거고 여기에 그 물 마차예, 마차를 다른 말로 불르는 거는 안 들어봅디가?

104013 #1 구루마?

104013 @ 구루마 말고 다른 말?

104013 #1 그거, 그거는.

104013 @ 물바레기. 바레기.

104013 #1 바레기. 바레기, 바레기.

104013 #2 바레기.

104013 @ 바레기렌 헛지예?

104013 #1 마차엔도 허고 바레기엔도 허곡 구루마엔도 허곡 허여.

104013 @ 아.

104013 #2 구루마는 일본말인가.

104013 @ 예, 구루마는 일본말이우다. 바레기, 물 바레기, 쉼바레기 헤서예? 물로도 하고 쉼로도 하고예?

104013 #2 이디션 쉼로는 잘 안 허여.

104013 @ 여기는 물로가 하영 험니까?

104013 #1 물헤영 바레기. 간혹 가당 쉼로도 한 데도 있어.

104013 #2 쉼로 허면 빠르질 못허여.

104013 @ 음.

104013 #1 말은 빨리빨리.

104013 #2 힘은 잇는데.

104013 @ 음, 요즘 마차지만 옛날에는 바레기엔 헤서예? 그 다음 삼춘네는 물도 하영 질라시난.

104013 #1 쓰무 개씩.

104013 @ 예.

104013 #1 울타리 영 헤와근에 출도 흔꺼번에 한 여남은 단 다 깨 풀어근에 아무데다 떤정 내불민 말은 자기네가 덩기명 다, 말은 말 먹어난 디 진짜 흐뎡 허민 뉘 무신 무시거 어디 가근에 만약에 고사릴 꺼끄레 간다, 강 뺑 허민 물 메여난 딴 똥이나 썩다 허연 물 메여 난 디는 똥이나 썩다고. 물 메여난 디는 먹을 것이 요만

이도 냉겨놔두지 아녕.

104013 @ 다 먹어부리?

104013 #1 다 먹어.

104013 #2 배고프면은 이거 파면서 뿌리깎지 다 뽑아 먹어.

104013 #1 발로 다 파멍.

104013 #2 생활력이 강해.

104013 @ 아 밖에 강은에 산에도 강 키우고예?

104013 #2 아무 디 헤어도 말을 살아나고. 췌는 꼭 쥐야 돼고.

104015 @ 음, 뭘 질루멍 밧블리는 거 보든 거 허면서예 아까처럼 잊어불지 아
년 거.

104015 #1 잊어불지 아녀는 거 말을 해근에 밧을 영 블리젠 허면, 아이고 우리
생각에는 탄탄허게 다 똬 거 닻은 디도 우리 하르버지가 “요레 혼번 돌라 저레 혼
번 돌라” 허멍 막 그 이레 혼 번 돌면 또 또 거기 돌렌 허믄 아이고, 그것이 완전
살지를 못허는 거라게. ㄴ찌 막 말하고 게나제나 걸어다니니까.

104015 @ 예, 게믄 삼춘 역할은, 밧 블릴 때 어떤 역할을 헨 거라마썸?

104015 #1 돌아나지 못허게 영 에와쌍.

104015 @ 뒤에서 막는 거?

104015 #1 따로 영 나가는 거 못 나가게 뭉쳐야 돼니까.

104015 @ 예.

104015 #1 게난 쥬 이제 앞의 뭘 하나만 영 이끄면은 그 말 따라근에 졸졸 가
는 거 잇고 또 이땅 부량한 것덜은 또 베꺾디레 아니 하젠 도망가젠 허는 것덜 이
시니까 그런 거.

104015 @ 게면 하르버지가 앞에서 뭘을 이꺽구나예?

104015 #1 막 소리허멍.

104015 @ 삼춘이 소리 해집니까?

104015 #1 아이고, 우리 소리는 아녀도 들음은 하영 들어나서.

104015 #2 하르방이 허면은 후렴은 해야주.

104015 @ 음, 기억 나는 거 혼번 불리봅서?

104015 #1 아니. 우리.

104015 @ 뭘믄는 노래엔 험니까? 무슨 노래엔 험니까?

104015 #1 말 거 하는 거. “이러 이러 이러 요레 뱅뱅 돌라, 저레 뱅뱅 돌라. 어
어어 어러러.” 허멍. 막 경허영 허민 막 우리도 같이 어러러 어러러 허멍 막 해근에
허민 말덜이 말 잘 들어 소보다.

104015 @ 거 밧 뵙는 소리예?

104015 #1 그 블리는 소리에 맞추어 말덜도 잘 허여.

104015 @ 삼춘 목청 막 좋은게. 노래 잘 불르켄게.

104015 #2 노래 잘 불러.

104015 @ 이제 경허고 이제 쉼나 몰이나 먹어야 될 거 아니우과예? 쉼나 몰덜 이 먹는 출덜은 어떤 거 이서마씨?

104015 #1 게난 그 감저. 감저 놔난 감저꿀 막 그 이제 출. 출왓엔 현 디서 그 출을 비여근에 하면은 집만씩 늘어놔. 그거를 늘 그거 비 안 들어가게 막 늘어근에 헤여근에 단단히 가을에 다 준비해놔. 소 말 먹을 거. 다 조칙도 다 헤근에 비 안 들게 잘 늘어근에 다 누람지 더끄명 하고. 감저꿀 출 막 그런 거 하영 헤근에 하여튼 집만씩 현 대여섯 개 겨울내낭 그거 말이영 소영 한 삼십 머리 먹젠 하면은 보통으로 아니 뤼.

104015 @ 삼춘네 대여섯 개 허난에 삼춘네 부자는 부자여.

104015 # 독새기, 독도 키울 때 독새기도 그 놀트명에 고망 툔랑 들어가근에 출 그거 뽑으레 강 보민 독새기도 잇곡 헤근에 그거 행 봉가당 우리 옛날에 거 도매.

104015 @ 예.

104015 #1 도매 강 바파당 빈주룽허게 도매 하영 찢른 것도 가다엔 허명. 웃음.

104015 @ 독새기 가정강은에.

104015 #1 도매. 독새기 아정가민 도매 바파근에 아이고.

먹이

104017 @ 맞수다. 그 출은 어떤 식으로 마련허는 거라. 출 비는 거 옛날 하영 비레 다넛지예?

104017 #1 아니 출은 그 낫, 낫이엔 현 거.

104017 #2 낫으로.

104017 @ 낫으로 비는구나예?

104017 #1 낫으로 영영 비명 거. 일꾼덜을 낫 비는 사람. 낫도 아무나 못 헤영. 이제 가만히 김창범이 아방네 빌언에 우리 헤여난.

104017 #2 낫, 낫비는 놉 낫허는 놉을 빌젠 허민 정말 잘 맥이곡. 돈도 하영 주곡.

104017 #1 그날에 하루 종일 이거니까, 허리 힘 엇인 사름은 못허주. 경허영 허곡 뽕뽕한 디는 낫으로 다 비곡.

104017 @ 예.

104017 #1 낫으로 후린덴 하주, 후린덴.

104017 @ 낫으로 후려예? 예, 예, 예.

104017 #1 낫으로 후리곡. 또시 돌트명에 인치룩 인치룩 이신 거는 줌호미.

104017 @ 예.

104017 #1 줌호미로 영영 이젠 우리가 줌호미로 헤근에 낫으로 못 후릴 디는 낫으로 돌 신 디 후리민 낫이 그 이제 꺼꺼정 나가니까. 그거 경 그런 디 돌 이신 디는 기자 우리 여자덜이 다 비여.

104018 @ 게문 이 출 이렇게 헤영은에 무꾼 거, 께로 무꾼 거예? 그걸 뤼렌 험

니까? 여기는.

104018 #1 줄 틀어근에.

104018 @ 줄 틀었은에 허잖아 예.

104018 #1 줄 틀었은에 출 무끄는.

104018 @ 출 무끈 하나 덩어리를 무끈 거를 여긴 뒤편 곱아?

104018 #1 흔 단.

104018 @ 흔 단이 잘도 크쿠다예? 다른 디 보단.

104018 #2 흔 바리가 삼십 단.

104018 #1 그거, 뒤편 그거는양 출에 메여. 조씩 ㄴ튼 거는 흔 바리 스무 단.

104018 @ 아까 스무 단허고.

104018 #1 이 출 같은 건 게부우니까 흔 쪽에 흔 열다섯 단씩 헤영 흔 삼십 단씩.

104018 @ 음.

104018 #2 삼십 단. 그것보고 흔 바리. 소에 실을 수 잇는 거 흔 바리.

104018 @ 여기가 확실히 못이. 못이렌 안 허영 단이렌 허더라고예?

104018 #1 단.

104018 @ 단이 큰 거 같애.

104018 #1 께틀어근에 우리 말로 께틀어근에 출단[출판] 무끈덴 영 헤영은에.

104018 @ 기지예, 여긴 단으로 허더라고마썸. 그렇게 하고, 그 출 빌 때 출 빌 때덜도 낮으로 후릴 때 노래 부르멍덜은 허지 안 험니까?

104018 #1 그 남자덜 노래 하명 막 헤여. 경해도 우린 들으멘 들엄주 그거 행은에 무신 여자들은 기자 돌트멍에 거나 낮, 낮으로 못 비는 디.

104018 @ 예.

104018 #1 하여튼 간에 두 사람이면은 낮으로 다 빌 디를 다섯 사름 비여. 손으로 비는 건.

104018 @ 음, 두 사람이 허는 거를?

104018 # 두 사람이면 낮으론 다 후릴 건디.

104018 @ 예.

104018 #1 그 돌트멍에 두 사람 들 거 사름으론 다섯 사름 정도 들어. 비는 거.

104018 @ 비는 게 맞아.

104018 #1 늦엉.

104019 @ 아무래도 손으로 줌호미로 허젠 허면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출 운반허고 이제 저장허젠 허면?

104019 #1 게난 그 운반헐 땐 소에.

104019 @ 음.

104019 #1 실어근에 우리 우리 경우는 어떻 헤시닌 허민 우리 이제 출بات이 저 이제 가시리하고 표선허고 똑 중간 지점이라.

104019 @ 음.

104019 #1 꿔 멀주게. 이디서 돌새기엔 하면은.

104019 @ 예.

104019 #1 돌새기 멀지 안 허우과게. 그디서 이제 여기 오젠 허면은 이제 네 팀. 네 팀이 혼 팀이 두 개주기.

104019 @ 예.

104019 #1 게난근에 앞의 믋는 사름이 몰앙와근에 집의 왕 부러뒤근에 몰아가 당 또 오는 거 하고 바꾸는 거라.

104019 @ 으음.

104019 #1 올라가는 건 이제 쥐뒤근에 짐 실어오는 거를 이제 마타근에 그 일 번 사름이 이번 오는 것도 마탕은에 집이 왕 부러뒤근에 그추록 이번에서 가는 거는 삼번 사름이 마탕은에 몰앙가곡 이번 사름안팀 매끼고. 그치룩헤근에 네 팀으로 헤근에 으답 개 헤영은에 그거 하루 종일.

104019 @ 하루종일.

104019 #1 하루 조일 시꺼나서. 집의 오민 집만큼 그 출이 출 영 누는 건 초가 집 두 개만큼 크게.

104019 @ 것도 크게예? 어어.

104019 #2 경혜사 혼 겨울에 다 맥일 거.

104019 @ 예, 맞수다. 그 출 비는 거는 보통 어느 계절에 헤마씨?

104019 #1 가을에.

104019 @ 가을에.

104019 #1 먹는 거.

104019 #2 추석 헤 먹을 때가 그 때 빌 때라양.

104019 #1 추석 헤 먹어근에 저 추석 헤 먹을 때만 헤도 더웁니다. 흥꿈 더 잇 어야 하늬브름 술허게 찬바람이 이젠 저 찬바람엔 하지마는 그때는 하늬느룻 내림 썸 허멍 이제.

104019 @ 음.

104019 #1 하늬느룻 내림썸 앞으론 씨원하켜. 저 한라산으로 찬바람이 술하게시 리 영 불어오기 시작허면 그 출도 잘 말려야 웨니까 출 비어낭 혼 삼일 동안 말리 와근에 께 틀영 무꺼근에 시꺼오는 거라.

104019 @ 음, 게니까 하늬느룻 불엄썸 행은 느림썸.

104019 #1 하늬느룻 저.

104019 #2 하늬느룻.

104019 #1 불엄젠 현 내려왓젠.

104019 @ 내려왓젠. 한라산으로 이렇게. 하늬느룻 내려왓썸 이렇게 헤예? 그러 면 이 한라산 방향이 여기에선 어디우과? 동서남북으로 헐 때?

104019 #1 우리가 남인가.

104019 #2 우리 이쪽이 남, 북. 서북쪽 서북쪽. 한라산이.

104019 @ 서북쪽.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무슨 바람이렌 헤마씨?

104019 #1 셋븜.

104019 @ 동은 셋븜이렌 허곡 서쪽은?

104019 #1 마븜.

104019 @ 서는 마븜하고.

104019 #2 북쪽은 하늬븜.

104019 @ 북쪽은 하늬븜 하고 남쪽은?

104019 #2 늣새.

104019 @ 남쪽.

104019 #2 늣새븜.

104019 @ 남은 늣새렌 헤예? 이것도 막 트나다.

104019 #1 셋븜허고 저 마븜허고 사이에서 불어오는 늣셋븜.

104019 @ 셋븜하고.

104019 #1 마븜하고 그 사이에서 불어오는 거.

104019 @ 이게 늣새예?

104019 #1 따시 그 마븜하고 하늬븜하곡 불어오는 건 같하늬.

104019 @ 같하늬, 예. 아 같븜은 엇어 여긴?

104019 #1 같븜엔 아니고 같하늬 불엄젠 허고 마븜 불엄젠 허여. 또 기냥 한라산으로 직통 막 불어오는 건 하늬븜 불엄젠 허여.

104019 @ 음, 하늬븜엔도 허고 아까 하늬늣이엔 허고.

104019 #2 살살 하게시리.

104019 #1 가을에 살하게시리 느끼는 그런 바람 불 때에 하늬늣 내렴젠 경.

104019 @ 음, 그자 평소에 이제 그 하늬븜 헐 때는 북쪽에서 오는 건디 그냥 가을철에만 하늬늣엔 험구나예?

104019 #1 가을 그 접어들 때 뒤편은 진짜 아침 저녁으로 씨원헌 바람이 솔하게시리 불어와. 경하면은 그때에 이제 그 븜에.

104019 #2 늣새 내렴젠.

104019 #1 늣새 내렴젠 헤근에 조 같은 거 두드러났당 그 아침 일찍. 그 븜 꺼지지 아널 때. 흥뽀 이시민 븜 꺼져분다 바람 꺼져분다허멍 서들어근에 불림질 허주게. 불림질.

104019 @ 음, 조 헐 때도예? 출도 잘 몰르킨게예?

104019 #1 그 게난 그 계절에라야 이 출도 허곡. 모든 곡식이 다 그때에 다 가을에 다 헤 들이기 시작허는 거.

104020 @ 경허곡예 삼춘, 이제는 아까 이제 쉼도 그 짝 썰엇당 행은에 또 맥인덴 헛잖아예? 으물 맥이는 거?

104020 #1 여물. 그거 그거 행은에 물 끓여근에 조각메기기 잇잖아. 조각메기하

꼭 그 산티썩 썩 거 그거 하고 그거 헤근에 소 죽 썩는 솟 큰 것이 있어.

104020 #2 가마솥.

104020 @ 가마솥.

104020 #1 그것에 하나씩 썩근에 그거 더운 때 주면은 소 이빨 빠진텐 허멍 식 어근에 주렌 헤근에 식으면은 그거 그때는 바께스 그런 것도 엇어. 장탱이.

104020 @ 음, 장탱이래.

104020 #1 장탱이에 퍼놔근에 들러다근에 그레 이제 그때는 쉼 앞에는 그 나무로 썩 거 무슨 도고리 닳은 거.

104020 #2 남도고리.

104020 #1 남도고리. 그런 거 소가 장탱이도 깨여불곡 무시거 허난에 나무로 썩 거. 소가 발로 발라도 안 깨지는 거 그런 거 행 그레 앓당 비와주민.

104020 #2 게난 널 만약에 무슨 썩 일을 허게 썩면은 거 그거 헤 준 거 썩것, 썩것.

104020 @ 썩것.

104020 #1 썩것 썩.

104021 @ 썩것 썩.

104020 #2 썩것 썩근앵에

104021 #1 잘 메경.

104021 #2 잘 맥이라.

104021 @ 썩것예? 썩죽이렌은 안 허고. 썩것.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 출 빌 때 잊어불지 못허는 거? 재미란 거라든가.

104021 #1 에이그, 출 빌 때 나 이제 가만히 생각하민 출 빌 때에 그 벌집 이신 걸 몰란에.

104021 #2 벌이 심하고.

104021 #1 벌집 이신 거 몰란 그 벌집 건드렛당 그 벌덜안티 얻어 쏘안에 흠마 죽을 뻔 해서.

104021 @ 음.

104021 #2 요새 벌, 요새 벌은 독이 아주 심헌데 그 옛날 독은 독이 엇어난 거 닳아.

104021 #1 그자 따끔따끔 막 근지러왕 막 사람이 완전.

104021 #2 요즘은 벌초 갖다가 허면은 사람 죽고.

104021 @ 예. 아.

104021 #1 벌집이 요만은 현 거.

104021 @ 예.

104021 #1 영헤근에 우에는 이만은 둥그런 아니, 앞의가 이만은 허고 우트레 올라 갈수록 썩아진 거. 썩아진 거 이런 디 출에 부튼 거를 그거 이신 중 몰라근에 비면은 그 소굽에 벌이 고망에 다 들어갓당 왕하게 나와근에 막 하민 출 손에 심은

걸로 후려도 후려도 막 달려들곡.

104021 @ 음.

104021 #1 그런 것이 켈 이제 기억에 남아.

104021 @ 예.

104021 #2 아, 그런 것도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은 그때가 저 감자, 고구마가 한창 날 때주게.

104021 @ 예, 예. 감자.

104021 #1 뺏데기.

104021 #2 그거 해당은엔에 저 구웁 먹는 거.

104021 @ 예. 출 혈 때. 뺏데기도 허고.

104021 #1 뺏데기, 뺏데기.

104021 @ 웃음. 게난 뺏데기 구웁 먹는 거라마씨? 그땐.

104021 #2 아니 고구마. 이디션 감자라고 허주게.

104021 @ 예, 예, 예.

104021 #2 육지 사름은 감자 허민 지슬을 말하는 건데 이디션 감자. 감자 거 뽕 아다근엔에 막 구웁 먹고 경.

멜감

104022 @ 출 비명예? 아, 그런 것도 이제 있고. 옛날은 여기는 또 해안이니까 멜감예, 지들케. 여기는 지들케 험니까? 지들커 험니까?

104022 #1 짚을거[지들꺼]

104022 @ 짚을거. 그 짚을거는 어떤 거 주로 그 지들거로 썰수가?

104022 #1 게난 그 소이 먹다근에 조침 같은 거는 소 초집이 이만은 한덴 허면은 반벳기 못 먹어. 반은 먹고 반은 못 먹는 거 그런 거 다 해다근에 그런 거 막 아침 돼면은 다 밤새낭 먹당 그 남은 거를 다 뺏것디레 근어내어근에 거 말화근에 허고. 또 가시리까지 그 짚을커 하레 뎡게서.

104022@ 음, 여기서 가시리까지.

104022#1 서들, 서들에 구림폐기냥이여. 그 냄새 막 그 냥은 냄새가 쟁장히 나. 그런 남덜 막 해근에 무경 그 꼭 행 걷어근에 그걸로 해근에 무꺼근에 혼 다섯 단씩 저근에 그 가시리. 가시리 가기 전에서 해여근에 얼추 가시리 다 보여.

104022 @ 음.

104022#1 그렇게 가면은. 경 해근에 해오곡. 또 소남 밧 하영 이신 사름덜은 우리는 소남밧이 한 천 평도 더 돼니까.

104022 @ 음.

104022#1 그 소남 그 가지 다 거슬환.

104022@ 음.

104022#1 가지 거슬환근에 그거 해여근에 무꺼근에 영 데명 놔두면은 비 맞고

벧 맞고 하면 그것이 자기대로 삭아근에 경허면 그거 가져다근에 땀감 같은 건 우리 경우에는 그거 그렇게 어렵게 안 살안.

104022 @ 음.

104022 #1 땀 사람덜 이 땀 없고 그 게나제나 그 나무. 나무허곡 솔입.

104024 @ 솔입. 솔입 걷으레도.

104024 #1 글쟁이. 글쟁이로 솔입 다 걷어다근에 굶어다근에 그거 허영 땀탱이에 답아근에 정 와근에.

104024 #2 게난 고 휘장네는 잘 사는 사름이난 그거고.

104024@ 삼춘이 돌아봅서.

104024#1 못 사는 사름은 식구들이 세백이 일어남 저 감자 다 케영은에 감저꿀 저 소나 뭇 주젠 그거 늘어놔둔 것을 걸 세백이 가근앵에 주인 몰르게 혼 짐씩 정와사 밥 먹어나서.

104024@ 음. 모르게.

104024#2 그걸로 해서 땀감도 허곡.

104024@ 음.

104024#2 또 뭇 혼 머리 두 머리 잇는 거.

104024 #1 맥이기도 하곡.

104024 #2 맥이기도 하고. 경 헤여낫젠 허난. 경허고 아까 말허지만 글쟁이 해서 이제 밥 먹고 나서 허면은 이제 또 낮에는 이제 놈의 땀덜 솔입 걷으레 가고.

104024 #1 소낭땀덜.

104024@ 음.

104024#2 소낭땀덜.

104024 #1 그 당시 때는 지금은 솔입이 이만큼 데며정 잇어도 누구 하나 헤가지 안 하느디 그 당시에는 출땀 그 땀임제들이 솔입도 못 걷어가게 해서.

104024#2 못 걷어가게.

104024@ 음. 그렇지. 땀감 자기들이 해야 뉘니까예.

104024#1 자기네가 헤 갈 거. 몰르로. 몰르고 걷당 땀임제 와가민 막 돌아나고.

104024#2 도망가고.

104024 @ 음, 경행은에 단 행은에 짐 정 왓덴 허지 안 허우과예? 이렇게 단 무끄는 거를 보달 친덴 이런 말은 안 됩니까? 여기는.

104024 #2 솔입은.

104024 #1 보달 행.

104024 #2 이 나무 가지에, 소나무 가지덜 그거 영 놔근에 그레 놓 이거 무끄는 거주게. 저 꼭이나 저 줄 비여근앵에.

104024 #1 뵙허게 몰아근에.

104024@ 예.

104024#1 진짜 것도 기술적으로.

104024#2 기술자가 아니면 안 돼?
 104024#1 기술적으로 잘 무꺼근에 해근에.
 104024 @ 그치록헌 거를 보달이렌은 안 곴아.
 104024 #1 보달.
 104024 @ 아, 여기도 보달엔 험니까? 소낭 영 무꺼 거를 보달이렌은 안 허여?
 104024 #1 그건 단.
 104024@ 건 단이렌 허고. 술입만 보달 첫텐예?
 104024 #2 그건 잘 기술적으로 잘 허면은 집에까지 정 와도 어떻 안 허는데, 잘 못허는 사름은 자꾸 헤싸지는 거라. 오당 보민 헤싸지고.
 104024 #1 술잎이 이만씩 한 거를 이만큼 뭉치난에 그 기술적으로 잘 아녀면은.
 104024@ 맞수다.
 104024#1 자꾸 흘려.
 104024#2 흘려.
 104024#1 잘 허는 사름은 완전 뛰어도 흐나 털어지지 아녀게 보달 무끄는 사름 털이 있어. 우린 우리 경우는 그 술잎 그렇게 하계는 안 다니고.
 104024 @ 음, 소낭밧이 잇어놓난예?
 104023 #1 소낭밧 이시니까 지들커도 경 헛주마는, 말 영영 키우니까 말뚱 같은 거 막 퍼내근에 널영. 말류와근에.
 104023 @ 음.
 104023 #2 걸로 굴목.
 104023 #1 굴목 살루고.
 104023 @ 음, 뭇뚱으로?
 104023 #1 뭇뚱 것덜 썬 거 뱃젓디레 올레레 어디레 다 널만헌 디레 날라다근에. 날라당 그거 행 말류와근에 하곡. 또 소뚱은 소뚱은 이만씩 하잖아.
 104023 @ 예.
 104023 #2 경허민 소뚱은 하잖아. 그 소뚱을 영 현 거 담고망디레 아사당은예.
 104023 #2 부지대겨.
 104023 #1 탁탁 고망더레 부지대경놔두민.
 104023 #2 뭇랴.
 104023 #1 바람 불곡 뱃나곡 무시거 허민 거기에서 와상하게 말라. 그거 영영 떼여다근에 굴목 그 떼고. 굴목에 그거 해근에 그 불치 같은 거 다 헤영 메왕 낫당 모물 갈고.
 104025 @ 음, 그렇지. 모멸허젠허민예? 삼춘 아까 이제 소낭밧의 강은에 이 낭 거슬.
 104025 #1 가지치는 거.
 104025 @ 가지치는 거렌 헛잖아예? 그거는 무신 걸로 거슬럿수가?
 104025 #2 메호미, 메호미.

104025 #1 메호미.

104025 @ 메호미로. 그러면예 줌호미하고 메호미는 어떤 식으로 탄난 겨우과?

104025 #1 그 줌, 줌호미는이.

104025 @ 예.

104025 #3 호밋즈룩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긴 거 이 긴 거 가다.

104025 @ 이렇게 웬 거? 예. 영 현 거예.

104025 #1 으.

104025 @ 이건 줌호미고.

104025 #1 낮은 영 이 췌가 이렇게 이렇게 널른 것에 또 이것에 즈력이 영 부
 뜬 거.

104025 @ 이렇게 웬 거예? 영허영은에 여기 줌 두툼현 거?

104025 #2 으, 두툼현 거 날 잇는 거.

104025 @ 아아.

104025 #1 이거 즈력. 즈력 심영 착착 거슬러.

104025 #2 막 무겨우메.

104025 @ 예, 이거를 아까 이제.

104025 #1 메호미.

104025 #2 메호미.

104025 @ 메호미. 으, 메호미예? 예, 나대란 말은 안 써마썌? 여기는.

104025 #2 나다.

104025 @ 나다엔예?

104025 #1 나다엔도 허고 메호미엔도 허곡.

104025 @ 나다는 일본말.

104025 #1 일본말, 일본말.

104025 @ 어떤 때는 메호미라는 말은 사라지고 나다가 더 유명해?

104025 #1 이제도 나다엔 곧는 것이 쉬어.

104025 #2 우리는 메호미엔 허곡.

104026 @ 메호미 이젠 허고예? 예, 알아수다. 그 다음에 혹시 솿도 여기도 귀봤
 수가?

104026 #1 으. 솿.

104026 #2 솿 구웁. 솿 구웁허는 건 표선린 별로 안 허고 저 가시리.

104026 #1 안자름.

104026 @ 안자름 사름덜은 허고예?

104026 #1 안자름 사름덜 저 무신 낭 츠낭.

104026 #2 츠낭. 츠낭솿이 쥔 췌고.

104026 #1 츠낭 그 솿 구는 낭이라. 그 츠낭이. 솿 멘드는 낭. 경혜사 그 솿이
 불이 오래.

104026 #2 오래 가고.

104026 #1 불 살르민 불기가 오래 가곡, 이 소나무 그런 솟은 빨리.

104026 @ 음.

104026 #2 금방 없어져.

104026 #1 금방 없어. 불이 꺼져. 계난에 그때는 솟 ㄱ튼 거는 우리 다 산에.

104026 #2 산. 가시리 사름덜.

104026 #1 가시리 안자름 그 사름덜이 장날 그거 솟 그거 놓는 그것도 그 무신 조찍.

104026 #2 어웁.

104026 #1 어웁헤근에 짜는가.

104026 #2 어웁.

104026 #1 뱅허게 큰솟단 죽은솟단 영헤근에 가시 안자름서 그때 가시리 사름덜도 고생헛주. 그거 솟 헤근에 그 두 단이나 석 단이나 저근에 표선이 장에 ㄱ장 걸영 화시난에.

104026 @ 으음.

104026 #1 걸영오면 여기서 상 허곡.

104026 @ 계난 안자름서 솟 묻은 거라예?

104026 #1 그 솟 쾡.

104027 @ 쾡은에 예, 알아수다. 혹시 아까 마찬가지로 이 지들커허명예, 잊어볼지 못허는 거라든가 재미진 거?

104027 #1 질을 거 허명 뉘, 땀 사름덜 보면은 혼 집이 어명도 잇고 딸도 잇곡 메누리도 이신도 저 웃드르 가근에 이제 어명이 만약에 우뜨르 질을거 하레 가민 지들거를 그 헤근에 그 놀냥 그거 잡냥이주게. 그거.

104027 @ 예.

104027 #1 그거 헤근에 단을 혼 다섯 단이나 정 오젠 허민 가시리 가까운디 표선리 오젠허민 조그만이나 멀어. 계민 마중덜 이제.

104027 @ 음.

104027 #1 메누리나 딸이나 이신 그 어명들은 마중 가근에 더러 두 단이나 영덜어근에 정 오곡. 경하는 거는 우린 봄만 헛주. 우리 경우는 그 밧디서 다 행 밧디 그냥 행 놀영 내벗다근에 행 마차로 시꺼 오든가 소로 행 시꺼오던가 짐은 벨로 안져봐신디.

104027 #2 경허난 그저 밧디덜 지들케 헤여근에 놀영 봐둔 거, 그거 없는 사름들은 지들커허레 갓당 그것덜 혼 단씩 또시 시꺼.

104027 #1 다 도둑질덜. 웃음.

104027 @ 우리, 삼춘이 하영 도둑질 현 모양이나?

104027 #2 하여튼 그거 그거 도둑질 허영 오당 걸리면 어떻사 도망사 가는지.

104027 @ 음.

104027 #2 경해난.

104027 @ 맞아예?

104027 #2 도둑질 안 행은 늘 거 거 허면 얼마 지지도 못하고.

104027 @ 맞수다. 그 벤벤헌 거.

사냥

104029 @ 그 혹시 여기 사농도 해마씨?

104029 #2 사냥?

104029 @ 예.

104029 #2 아 꿩, 꿩.

104029 #1 꿩사냥 옛날엔 꿩도 막 사냥.

104029 #2 그건 막 저 개 데령은엥에 막 떼징영 강 놀앙. 이쪽에서 놀리곡 저쪽으로 날리고 이렇게 해영 개는 뛰어가는데 사름도 ㄴ찌 응원허곡.

104029 #1 꿩이 지치면 꿩 앞디레 돌아, 돌아산텐 말이 잇지 아녀.

104029 #2 꿩이 지치면은

104029 #2 놀당 안 놀아.

104029 #1 담고당디레 얼굴만 숨지 몸은 그대로 잇는 거라.

104029 @ 음.

104029 #1 눈만 보이면은 다 쥔 줄 알곡 고망에 영 해근에 몸땡이 베겏디 놔근에 심어다근에.

104029 #1 심고 개가 물어오고.

104029 @ 개가 물어오고. 게난 삼춘도 직접 가봣디가?

104029 #1 아니,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그때에 이제 보민 치까데비.

104029 #2 음, 치까데비.

104029 #1 저 밭고락 영 해진 치까데비 행 신곡 이디ㄱ장 영 무끄는 거 일본 사름덜 하듯이 총 가져근에 꿩 쏘레 텅겨나서. 우리 아버진.

104029 @ 아아.

104029 #1 꿩 가근에 쏘아냥.

104029 @ 잘도 멋쟁이라낫수다예?

104029 #1 말 저, 그 개 집의 키우는 개 데리곡 해근에 강 하면 꿩 세 개도 헤오곡 뭐 하면은.

104029 @ 꿩은 어떤 식으로 행 먹는 거?

104029 #1 제사. 꿩은 그때 행은에 이제 그 물 끓여근에 그거 허영 그 털 다 이제 해불민 꿩은 가족은 안 먹는 생이랍디다.

104029 #2 꿩은 벳경.

104029 #1 가족 짹 하게 벳겨변게.

104029 #2 가족 벳기면은 꿩, 수 장꿩은 아주 멋잇거든 여기.

104029 @ 예.

104029 #2 그거 해서 말려근에 장식도 하고 그렇게 해놔는데.

104029 #1 그치록해근에 그거 행 믋물국수.

104029 @ 예.

104029 #1 그때는 믋물허고 산되는 이제 흐끔 부잣집이는 그 믋물허고 산되는 막 많이 잇으니까 그 저 믋물해근에 믋물국수 행 먹고. 그거 영영 못아 낱은에 무수 놓곡 가루 놓곡 행 국도 행 먹고.

104029 @ 그 국은 무슨 국 해마씨?

104029 # 그 거 썩국, 썩국 국이엔 허멍 썩 잡아단에 국 끌렷덴 허멍 경해근에 허영.

104029 #2 옛날에는 그 믋물칼국수 할라면은 제일 먼저 썩.

104029 @ 예.

104029 #2 썩, 썩 엇이면은 대신이 닥이엔.

104029 @ 썩 대신 닥이라예?

104029 #2 썩국수로 알아근에 먹으렷 썩 대신 닥으로.

104029 @ 음.

104029 #2 썩은 경 쉽게 잡질 못해서.

104029 @ 음.

104029 #1 그 썩 잡아오는 집도 보통 집은 아니.

104029 @ 그렇주마씨?

104029 #1 그 옛날 그 일본 사름덜 총. 그 일본 사름덜 보민 생이도 잘 쏘읍디 다. 우리 친정 그 안튀에, 이젠 안튀. 우잣이엔 이젠 허는디 먼안튀엔 집보다 흐끔 떨어진 두에 우잣 현디 먼안튀엔 현디 나무가 막 우거지니까 돛박생이 참새 무신 지꾸리 무시거 안 모아지는 생이가 엇어.

104029 @ 음.

104029 #1 게문 일본 사름덜이 웨정 때. 일본 사름덜 와근에 일본사름덜이 그런 건 잘 쏘는 생이라. 생이 쥬쥬현 생이덜 쏘는 거 보문.

104030 @ 삼춘, 이 동네도 노리 내려와나수가?

104030 #2 노리는 내려오지 않고. 노리는 이 저 서화리에.

104030 @ 예.

104030 #2 돈오름.

104030 @ 돈오름.

104030 #2 그디꺼지는 내려왔는데 막 한겨울에 한 일주일 동안 저 바당 쪽으로 노루들 오랏젠 말은 잇엇는데 잡아보진 못허고.

104030 @ 노리사냥은 안 해보고?

104030 #2 노리사냥은 이 저 가시리나 서화리.

104030 @ 음.

104030 #2 가시오름이나 저 서화리 동으로 이런 디.

104030 #1 웃드르.

104031 @ 웃드르예? 지달이엔 행은 들어봔디가?

104031 #2 지다리는 많이 잡으매.

104031 @ 아, 지다리는 어떤 식으로 잡는 거우과? 거는.

104031 #2 개.

104031 #1 지다리는 개. 개 허영 지다리는 지다리 고망을 파근에 막 들어강 거
기서 사는 건디 베졌디 나와근에 이제 놀다근에 뭐 사름 그적이 나나 개 텅기민
그 고망으로 들어가는 거 봤당 그거 헤영 파근에 잡아 올 때도 있고.

104031 #2 막 그저 뭐 돌 막 일루고 헤근에 그디 지달이 들어갓젠 허면은 경행
일루민 개가 막 들어가서 지달이가 막 독헌 거라 거. 개가 막 다쳐.

104032 @ 아, 기마씨? 지달이도 있고 족제비도 잇잖으과?

104032 #1 족제비 잇주.

104032 @ 족제비허고 지달리허문 지달이는 어느 정도 크기는 어느 정도 허여?

104032 #2 지달이는 훨씬 크주. 족제비는 죽아.

104032 #1 북강생이만은 헤. 강생이.

104032 #2 족제비는 요만큼벧긔.

104032 #1 요만헌 몸뻡이도 이만큼 ㄴ늘고 ㄴ늘곡 요만은 헤근에 빨강.

104032 #2 족제비, 족제비는 잡으면은 전문적으로 잡는 사름은 거 잡으면 가죽
삭 벧겨내면은 그거 물리면은 목도리도 허고.

104032 @ 음, 옛날도 그런 식으로 목도리헌 사름 잇어난마씨?

104032 #2 족제빈 끌랑지헐 붓도 만들고.

104032 @ 예, 지달이는 뭐를 헤?

104032 #2 지달이는 먹는 거.

104032 #1 지달이는 먹는 거. 지달인 약이엔 헤서양?

104032 @ 직접 봐보기도 헐마씨? 삼춘.

104032 #2 우린 먹어보기도 허고.

104032 @ 먹어보기도 허고.

104032 #1 우린 건 안 먹언.

104032 @ 크기는 어느 정도 헤.

104032 #2 지달인 거북이보다 크나마다 헤.

104032 #1 북강생이 잡아온 거 보긴 봐신디.

104032 #2 그것이 엄청 것이 살이 많고 지방이 많아.

104032 @ 아아. 굴에 이렇게 살아서 그런가?

104032 #1 오만 것 다 쉼이고 무시거고 눈에 보이는 거 다 잡아먹어놓난애.

104032 @ 음. 아 거는 다 먹는 거.

104032 #2 족제비는.

104032 @ 예.

104032 #2 족제비는 닥이 이렇게 여러 마리 잇으면은 닥 그 커다란 것도 딱 물어가지고.

104032 @ 예.

104032 #2 이것만 가져가. 몸뚱인 놔두고.

104032 @ 아아.

104032 #2 거 히안헌거메.

104032 #2 아침에 보면은 닥 족제비 물어갓젠

104032 @ 으음.

104032 #2 족제비.

104032 #1 옛날엔 닥허고 비에기도 잘 못 키와서. 비에기는 매.

104032 #2 매천이.

104032 #1 매천이 땡기당.

104032 #2 가마귀.

104032 #1 저 물어가불곡. 비에기 새끼덜. 족제비덜 다 죽여불고.

104032 @ 삼춘 아까 매천이마씨?

104032 @ 음. 매천이렌 험니까?

104032 #2 독수리, 독수리.

104032 #1 이젠 말로 독수리는 그땐 매천이.

104032 @ 매천이렌 험예? 북강생인 어떻 겨우과?

104032 #1 북강생인 강생이 북삭헌 거 잇잔녀게. 지달이가 그거 닳아. 잡아온 거 흔 번 봐신디 부각험니다 털.

104032 @ 요즘은 북강생이가 잘 안 보이지 안 험니까?

104032 #1 이젠 발발이.

104032 @ 옛날 북강생이가 아니지 아녀우광양?

104032 #1 큰개 그 새끼. 그것이 채 개 돼기 전에 강생이 때 북강생이ㄴ치 경털이 부각헌 거 곱닥허여.

104032 @ 음.

104032 #1 지달이가 똑 그 그치룩 생겨선게.

104032 @ 아아, 북강생이가 큰 개 돼기 전에 거를 북강생이렌 허는 겨우과?

104032 #2 새끼.

104032 @ 종류가 다른 게 아니고.

104032 #2 아니, 아니, 다른 게 아니고.

104032 #1 큰 개 새끼. 그 잇당 북삭한 개.

104032 @ 으.

104032 #2 뭐 우리 옛날에 북실강아지여 뭐.

104032 @ 으음. 똥개라도 어렸을 때는 쫌 털이 많잖아예?

104032 #1 털 막 부각허영.

104032 @ 그때허면 그때를 북강생이렌 허는 구나예? 아아.

104032 #2 종류가 틀린 것이 아니고.

104033 @ 예, 예, 예. 자 그 다음에 삼춘은 사냥은 안 해보난 사냥에 얹인 추억은 어시쿠다예?

104033 #1 사냥 무시 거 우리 아버지.

104033 #2 밥주리 잡으레 다녀나지 아녀수가?(51)

104033 #1 밥주리 다니레. 밥주리 밥주리 우리 밥주리가 어디냐 허민 (웃음) 버들못엔 헌 디가 잇고. 나룩질엔 헌 디가 잇고 강단이란 헌 디가 잇는디 그것가 혼참을 할 거라예. 그 거리가. 이디 이 버들못에서 이제 밥주리 이제 수궤를 잡앙 썰에 영 꿰여근에 그거 막 하멍 이제 암궤 봐지민 온다 온다 허멍 그 밥주리만 보멍 나룩질로부터 강생이ㄱ장 강 포부뜨젠.

104033 @ 음.

104033 #1 포부뜨면은 잡젠. 잡은 거는 이 손가락에 다 집정. 놀개. 영 해근에 다 집정 그거 아이고, 그거 하레 얼마나 땡겨서.

104033 @ 그 밥주리도 종류가 으라 개 아니우과? 무사.

104033 #2 고치.

104033 #1 푼자리.

104033 #2 푼자리.

104033 @ 푼자리도 잇어?

104033 #2 으.

104033 @ 푼자리허고 밥주리허고 ㄴ튼 겨우과?

104033 #1 밥주리허고 푼자리는 ㄴ트지 아녀주만 푼자리는 나무에 켜끌락 헌 거.

104033 @ 으, 이거는 매미 종류 아니? 푼자리는예?

104033 #1 매미 종류는텐 켜글락해도 그렇게 커. 우는 소리는 아주 목청도 좋고.

104033 @ 삼춘, 밥주리 종류 어떤 거 잇어?

104033 #1 고치밥주리.

104033 #2 표준말로 가을에 나면 고추잠자리 그것보고.

104033 @ 그거를 여기서는 고치밥주리?

104033 #1 고치밥주리.

104033 @ 또.

104033 #1 기냥 밥주리.

104033 #2 그것은 가을에, 가을에 늦은 가을에도 조팍데나 ㄴ물팍디 앓는 거보고 밥주리. 수, 무신 거 수커 닳은 암커엔 허는가.

104033 #1 수궤 닳은 암궤 그거양, 수궤가 풀랑지가 빨강허주게이.

104033 @ 예.

104033 #1 빨강하니까 암콧는 꺼멍허여. 이 꼬리가.

104033 @ 음.

104033 #1 게민은 그 밥주리를 포부뜨젠 허면은 암코안티는 포부뜨지 안 허여. 수콧안티만 포부멍. 경하니까 이제 그 암콧 밥주리를 잡앙양 춘역. 춘역 해근에 막 그거 카근에 물이 빨강케 만들엿은에 밥주리 풀랑지에 그 물들이는 거라. 수콧처럼.

104033 @ 경허민 포부떠?

104033 #1 어.

104033 @ 경허민 포붙어 왕?

104033 #1 영영 온다 온다 허멍 헤영 하민 그 암콧가 그거 저 그거 수퀸 줄 알고 포부뜨는 거라. 경 해근에 심어근에 이런 디 다 끼와아정 탱기멍 아이고, 우리 이젓 이젓 아이덜은 그런, 그런 버른은 아니 허여.

104033 @ 그런 추억이 잇어야 돼는데. 웃음.

104033 #1 우리 하이튼 요디 버들못에서 강단리엔 헤영 가젠 허면은 여기서 신산리 가는 것만이 멀 거라.

104033 @ 음.

104033 #1 거리가. 그디를 갓다왔다 허멍 그 밥주리 잡으레 거 아무 것도 잡앗자 아무 필요어신 걸 경 잡으레.

104033 #2 먹지도 않고.

104033 #1 먹지도 아녀고.

104033 @ 놀이주게예?

104033 #2 놀이. 경해서 어둡으면은 그거 춤 날리기가 아까우면은 썰로 무경.

104033 @ 예.

104033 #2 저 누물팍디.

104033 @ 예.

104033 #2 누물팍디 영헤영 누물에 올령 놔두주게.

104033 @ 예.

104033 #2 아침에 돼민 죽어불곡.

104033 @ 웃음. 죽영 잇어예?

104033 #1 죽영. 그 누물에 무꺼근에 그 살류우젠 그디 헤단 놓은 거주게. 아침의 강 보든.

104033 @ 아침의 강 보민 다 죽영 잇어. 웃음. 게난.

104033 #1 아이구, 우리는 그 생각허민 웃으왕. 춘역 해근에 돌, 돌도 잇당 보민 돌고망 잇어이. 돌고망. 돌은 돌인에 영 고망이 잇어. 거기에 이제 물 놓곡 춘역 놓곡 헤영 물 그거 허영 빨강케 암콧에 그거를 이레 풀랑지 문딱 헤영 말르면은 빨강허는 거라. 경하민 밥주리, 밥주리 암콧더레 그거를 수콧카부텐 다 포부뜨는 거라.

104033 @ 음, 음, 음. 흠치 두 개씩 잡앙예?

104033 #1 빈주렁허게 이런 디 끼와아정 텡기멍, 아이고 누게 득렌 허민 주지도 안 허곡 결과적으로 다 죽여불멍 그.

104033 @ 맞수다.

104033 #1 이제 생각허민 우수와근에 원. 이젯 아이덜은 그치룩 버른 아니 허여.

104033 @ 계난 놀이를 버른이렌 허는 구나예?

104033 #1 하지도 못하곡.

104033 @ 계난 그 놀이를 버른이렌 허는 구나예?

104033 #1 버른.

104033 @ 아아.

104033 #1 버른을 조그만이 해서.

104033 @ 아.

104033 #1 신 그때는 우리 그땐 신 검은, 검은, 검은 코신인가 검은 반한가 헤영 허민 우리 어머니가 신을 발에 맞인 걸 사주지 아녕 을 그냥.

104033 #2 큰 걸로.

104033 @ 큰 거 사줘야 오래 신

104033 #1 오래 신으라고 큰 거 사주민 그 쏘곶에 소게 담아근에. 웃음. 소게 담아근에 신영 그 밥주리 좇아근에 뛰어가젠 헤봐봐. 거 얼마나 사름 웃음 경허영 그 텡기당보민 신 이런 디 체지민 집의 오민 어명안티 죽게 얻어 맞고. 또 돛날 또 그거 하레 가는 거라.

5. 바다일

105001 @ 그렇주마씨. 자 이젠 여기 바당 동네난 바다일도 하영 헤시커라예? 삼춘예?

105001 #1 바당 일도 뭐.

105001 @ 바다에서 허는 일들은 어떤 거 이십니까?

105001 #1 바다에, 바다에는 바다에서 그 듬북.

105001 @ 예.

105001 #1 이제 닻지 아녕 이젠 오염웨부니까 그것이 엇인디 듬북.

105001 @ 예.

105001 #1 듬북이 많이 늘 불어나민 듬북 많이 올르민 그 듬북헤여근에 저다근에 돛통에. 돛통에 듬북 혼 혼 도리 짹 놔놔 보리짚 또 농곡 거름 만들젠.

105001 @ 예.

105001 #1 저 듬북걸름 거 물 들게시리. 그 듬북이 거니까 경허곡. 우리 경우엔

미역. 그때는 미역 값이 잘 가니까 그때 그 당시 때 상군덜은 그 흔 해 미역 즈물 밍 밧 하나씩 샅텐.

105001 #2 밧 천 평씩.

105001 #1 밧 천 팽짜리 하나씩.

105001 #2 흔 췌역, 흔 췌역. 천 평이 흔 췌역.

105001 @ 아, 천 평을 흔 췌역이렌 험니까.

105001 #2 소가 하루 종일 갈 수 잇는 것이 천 평. 그것보고 흔 췌역.

105001 @ 예, 예, 예. 췌 할 수 잇는 역이구나, 어.

105001 #2 흔 췌역.

105001 #1 그거 하레 다니고.

105001 #2 상군덜은 그자 그 메역 흔 해 허민 흔 췌역씩 샅주.

105001 #1 메역철 나근에. 오염이 안 돼니까 메역 허곡. 그때는 미역을 그렇게 이제 값이 잘 가근에 육지서 막 미역 받으레 와. 그땐 양식덜 안 할 때난 건가.

105001 #2 육지 양식덜 안 헐 때니까.

105001 #1 미역이, 육진 미역이 안 나 나 신ㄱ라. 이젠 양식해부난 받으레 안 오주마는. 그 옛날에는 제주도에 미역 받으레 육지 사름덜 막 하영 와. 미역 행은에 폴양 뒜.

105001 @ 돈 되는 건 옛날 메역이라낫구나예?

105001 #1 메역허곡 소라. 소라 전복도 그때는 이딴 사름 일본 사름덜이 와근에 통조림 공장 해근에 하민 그디. 우리 아버진 일본 사름 일본 그 이 간스메 공장에 삼마. 삼마엔 현 일본 사름 알아지쿠과? 그 사름하고 우리 아버지가 일본말을 잘 하니까 그디 채용헐에 허민 그 일본서 온 납작보리줄이여 무시거여 그 웬장도 요만한 양철 통으로 막 가져오민 우린 거기서 다 갓당 먹으난 옛날에.

105001 #2 그 옛날에는 이디 전복도 이따만 것덜.

105001 @ 예.

105001 #1 점복이 바로 이만씩 해여. 점복 흥나가 뒜 일키로 오백씩 나갈 정도로.

105001 #2 상군덜 허면은.

105001 #1 요만씩 한 거는 잡지도 아녕 내불고.

105001 @ 그게 다 어디 가신고예?

105001 #1 아이고, 이젠.

105001 #2 양어장덜 해부난.

105001 #1 양어장 해부나마나 먼바당에 점복씨가 다 저비연에.

105001 @ 예, 맞수다.

105001 #2 이젠 전복 해녀덜 해도 전복은 나지 안 하고 기자 양식 전복덜 해근에 전복죽도 쭈고.

105003 @ 삼춘 소라를 이 동네 말로 뒜렌 곶아마씨?

105003 #1 구쟁기.
 105003 #2 구쟁기.
 105003 @ 구쟁기? 으. 구쟁기.
 105003 #1 구쟁기엔도 고동엔도 허곡.
 105003 @ 아, 여기도 고동 표선도 햄구나예?
 105003 #1 또 구쟁기보단 영 죽은 건 생쟁이.
 105003 @ 생쟁이? 아아, 생쟁이 말앙 구쟁이보다 켜은에 저 뭐 없는 거는?
 105003 #1 민둥, 민둥구쟁기.
 105003 #2 민둥구쟁기.
 105003 #1 쌀 엇인 거 민둥구쟁기.
 105003 #2 오래 쥔 거.
 105003 @ 맨 죽은 거는 생쟁이?
 105003 #1 생쟁이. 그 중간에는 구쟁기, 민둥구쟁기.
 105002 @ 여기 감태 ㄴ튼 것도 해나수가?
 105002 #2 아, 감태.
 105002 #1 감태 그때는 약으로 약한텐 허멍.
 105002 #2 옥도쟁기 만든텐 해나서.
 105002 #1 감태행은에 감태도 즈물앙덜 풀곡 막 해나서.
 105002 @ 옥도쟁기예?
 105002 #2 독헌 약.
 105002 @ 예, 삼춘, 그 메역 즈물젠 허면 언제 메역은 즈물아서마씨?
 105002 #1 삼월 달에.
 105002 @ 음.
 105002 #2 허제 허주. 허제.
 105002 #1 음력 삼월 달 뒤편은 지금은 삼월 달에 음력 삼월달 뒤편은 날씨가 따뜻하주마는 그때는 얼어도 그때 뒤편은 기자 한 이월 중순경에 할 거라도 속, 속 곳만 입어근에 고무옷 안 입어근에 할 때니까.
 105002 @ 예.
 105002 #1 추위부난에 삼월보름 물끼에 그 미역허제를 허여.
 105002 @ 음.
 105002 #1 경하면은 그 속곳허곡 저 거세기 광목 수건 써근에 눈 영 해근에 그것만 게 물적삼이엔 해근에.
 105002 @ 예.
 105002 #1 그거 입곡 경해근에 하면 얼어근에 거 삼월 달에 그 미역허제도 막 얼어. 추웁.
 105002 @ 그때 ** 해갖고.
 105002 #1 경해근에 막 불습아근에 몸 조금 풀어지민 또 들곡 하루 세 번씩.

105002 @ 하루 세번씩 들어? 게문 세 번씩 들민 헐 때마다 혼 망사리씩?

105002 #1 혼 망사리씩 행 나민.

105002 #2 상군덜쫘은 영 들르지 못허여. 우리 남자들이 가서 그 덕에서 영 세 사람이 들르젠 해도 들르지 못허주 뭐.

105002 #1 옛날 질구덕.

105002 @ 예.

105002 #1 질구덕으로 아마 혼 번 해 오면은 혼 다섯 개 정도 담아놔.

105002 @ 아아.

105002 #1 그치록 망사리 막 크게 해영은에.

105002 @ 으.

105002 #1 크게 해영 메역도 잘 나와.

105002 @ 그 망사리는 무신 망사리로 헛수가? 그때는.

105002 #2 테왁, 테왁.

105002 #1 그때 망사리는 그거 아니우과? 어웁 미뿌쟁이.

105002 #2 미뿌쟁이.

105002 #1 미뿌쟁이 그거 빠당은에 물리왕 그거 영영 그 던드덩마께에서 막 두 드렁 북삭허게 해영 다 깨여근에 그거 허영 깃는깃는하게 노꼬아근에 거 가져근에 망사리.

105002 #2 지금 여기서 말허는 갈대.

105002 @ 음.

105002 #1 갈대 거 춤 미뿌쟁이 그거.

105002 #1 곧 날 때 그거 뽑아다가.

105002 @ 억새, 억새. 갈대가 아니고.

105002 #2 억새, 억새.

105002 #1 그거 가정. 옛날에는 만약에 메느리, 메느리도 물질 잘허는 메느리만 다 구해가젠 해서.

105004 @ 아아, 역시 해안마을이니까예. 예. 자 이제 하나씩 물어보쿠다예? 여기 그 바당에서 잡을 수 잇는 보말? 여기는 뭐렌 헉니까?

105004 #2 ㄴ메기.

105004 #1 보말 ㄴ메기엔도 허고.

105004 @ 아, ㄴ메기 허는구나예? ㄴ메기 종류는 어떤 게 잇어낫수가?

105004 #1 춤ㄴ메기도 잇고 뭐 마타살.

105004 #2 마타살.

105004 @ 마타살.

105004 #1 춤ㄴ메기.

105004 @ 으.

105004 #1 따시 거 하나 이신디. 보말, 춤ㄴ메기, 보말.

105004 #2 마타살.

105004 #1 마타살. 것뿐인가.

105004 @ 수두리?

105004 #2 수두리.

105004 #1 수두리, 수두리는 보말히고 틀려. 수두리는 그자 이제는 수두리.

105004 @ 먹보말도 험니까? 여기도.

105004 #1 먹보말은 먹보말 거기서 멘작헌 거. 반들반들하게시리 한 거는 먹보말.

105004 @ 그 다음에 막 쓴 것도 잇잖우과?

105004 #1 쓴 거 그거 마타살.

105004 @ 쓴 것도 마타살도 잇주마는 동글락허영 돌포말. 아니면은 뭐렌 해야웨나 웨는고? 남?

105004 #1 보말.

105004 @ 으. 보말.

105004 #2 그 꺾데기가 두툼헌 거. 그것이 쓰는 거 아니?

105004 #1 수두리.

105004 @ 아니, 수두리말고 이제 보말 ㄴ메기는 알룬알룬 꺾데기가 알룬알룬허지 안 험니까? 그런데 알룬헌 거 말고.

105004 #2 두툼헌 거.

105004 #1 아이고 그거. 웃음.

105004 #2 쓴 거.

105004 #1 먹으민 쓰는 거.

105004 @ 썬데기?

105004 #1 먹으민 쓰는 거?

105004 @ 생각해영 놔뒹봅서.

105004 #1 건 해녀들안티 물어봐야겠다.

105004 @ 그거는 어떤 식으로 잡아나수가?

105004 #1 그건 그때 우리 그 시절에는 그것이 뭐 바당, 바다에만 가민 뭐.

105004 #2 돌만 일루민.

105004 #1 돌만 일루민 뭐 수두룩하게시리 그것이 잇어. 춤 ㄴ메기로부터 보말까지 수두리까지 그 안네에.

105004 @ 예.

105004 #1 게들레기까지.

105004 @ 게들레기.

105004 #2 으 저 소라 작은 거 생깁이 그런 거까지 막 잇어.

105004 #1 잇어난디 이젠.

105004 @ 오분제긴 여기 뭐렌 험니까?

105004 #1 소개.

105004 @ 소개렌 허고예? 여긴 소개렌 허고. 경허고 점복도 부텅 잇이고.

105004 #1 점복도 꺼끄먹도 잇고 전복 마타살. 마드레.

105004 @ 마드레.

105004 #1 마드레, 마드레 점복 잡았저 뭐.

105004 @ 마드레는 어떤 식으로?

105004 #1 마드레는, 그 마드레는이 영 점복이 전복이면서도 납작허게시리.

105004 @ 음.

105004 #1 보기에 납작하게 생긴 것은 마다리. 그거 그 저 꺼끄먹엔 현 거는 그
 흠뿔 영 움팡하면서 요 정도 낭 큰 거. 크지 아녀근에 현 거.

105004 @ 전 꺼끄먹? 으.

105004 #1 꺼끄먹.

105004 @ 으.

105004 #1 그 다음에 전복 생복.

105004 @ 생복. 생복허고 꺼끄먹하고는 트난 거?

105004 #1 아니, 저 점복은 막 큰 거를 말헤영 전복.

105004 @ 음.

105004 #1 꺼끄먹은 그 이제 죽은 거.

105004 @ 죽은 거예? 전복이라도 죽은 거 중에 이렇게 움탕현 거를 거끄막하
 고, 아까 마드레는?

105004 #1 마드레 납작현 거.

105004 @ 아, 마드레는.

105004 #1 크면서도 납작한 것이 있어. 움탕한 거 말고. 베짜현 거 말고.

105004 @ 삼춘, 게문 암천복하고 수침복은 어떻 트나?

105004 #1 게난 그 수침복은 그 납작현 거고 암천복은 그 깊은 거. 움탕한 거.

105004 @ 음, 경 허영은에 이제 하고, 새끼, 전복 새끼는 뭐렌 험니까?

105004 #1 전복 새끼 그 꺼끄먹 새끼. 꺼끄먹.

105004 #2 꺼끄먹엔 허고.

105004 #1 꺼끄먹이지 무시거.

105004 #2 저 무신 거냐? 오분작, 오분작은 뭐?

105004 #1 오분작 소개주게. 오분작은.

105004 @ 오분작은 소개고. 썸피역인가 썸피역 이런 말은 안 해?

105004 #1 그런 말은 안 해.

105005 @ 예, 알아수다. 꺼끄먹. 음, 자 그 다음에 갱이? 여긴 갱이렌 험니까?
 갱이렌 험니까?

105005 #1 갱이.

105005 #2 갱이.

105005 @ 여긴 쟁이. 쟁이도 종류도 으라 갸디다예?

105005 #1 쟁이도 여러 가지다 잇주.

105005 #2 똥쟁이, 똥쟁이.

105005 @ 똥쟁이도 잇고.

105005 #1 춤쟁이.

105005 #2 춤쟁이.

105005 #1 따시 게들레기.

105005 @ 예.

105005 #1 그 뭐냐? 그 웬장찌게 헤떡곡 허는 거 그 쟁이 이름 무신거여마는.

105005 @ 식쟁이?

105005 #1 식쟁이.

105005 @ 으.

105005 #1 식쟁이.

105005 @ 읊.

105005 #1 그거 그 종류.

105005 @ 식쟁이허고 아까 똥쟁이는 어떻 생긴 걸 똥쟁이렌 험니까?

105005 #2 거멍헌 건데 똥쟁이가 쥔 맛이 잇어.

105005 @ 아, 맛이 잇어?

105005 #1 꺾테기, 꺾테기 영 저 선이 짹짹 짹 짹 잇어져서. 똥쟁이는.

105005 #2 똥쟁이는 물 없는데 우에, 우에꺼지 막 올라오랑 잡식성이주게.

105005 @ 예.

105005 #1 똥 썬 거 것도 먹고 이렇게 해서 막 똥쟁이, 똥쟁이허는 데 그것이 쥔 맛잇어.

105005 @ 아 춤쟁이는 어떤 거우과?

105005 #1 춤쟁이는 아래 아래 돌 밑에 이신 거.

105005 #2 돌 밑에 잇는 거. 이렇게 좀 크고 춤쟁이는.

105005 @ 아, 춤쟁이는 커에. 아까 식쟁이는?

105005 #1 식쟁이는 빨강헌 거 이만은 헌 거 저 무슨 웬장찌게 그거 하는 식쟁이.

105005 #2 식당에 가면 두 개 딱딱 잘라서 그것보고.

105006 @ 읊, 그런 식으로 이제하고예.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햏불 햏여근에 바당에 강 뉘 잡아나수가? 햏바리?

105006 #1 햏불 ㄱ매기. 초파일날.

105006 @ 예.

105006 #1 초파일날 저 기신새.

105006 @ 예.

105006 #1 기신새, 새 지붕에 그 새 말고 그 집 일 때 영영 저 햏꿈 높은 거 영

내리운 거 그거 가져근에 막 무껍. 이만은허게 무껍 이만은 솔지게 이만하게 무꺼
근에 저아저강은에 그것에 불 부껴근에 그거 영영영 비추멍 그 꺾메기 잡아나서.
게난 헛불 봐근에 꺾메기 나온덴 그 해근에 거 행은에.

105006 @ 그걸 헛바리엔 험니까?

105006 #1 헛바리. 그거 해근에 해영 그 꺾메기 밤의 강 꺾메기 하영 잡아나서.

105006 @ 아아.

105006 #1 초파일날 불 보젠 이젠 꺾메기가 나온덴 해근에. 초파일날 불 그 초,
그 초파일날 등 싸잖아.

105006 @ 예, 예, 예.

105006 #1 게난 그런 불 보젠 꺾메기가 남왓젠 해영 초파일날 저녁에는 꺾메기
가 하영 나온덴 해영 그치룩허영 잡으레 땡겨나서. 그거 짹, 헛, 해엔 허주. 헛.

105006 @ 헛예?

105006 #1 헛 그거 저근에 잘못허당 그 불에 그 헛불, 헛레 부껴버봐근에 스뭇
불영 물더레 다 꼬멍 얼먹곡 경.

105006 @ 음. 게영 그 정 가는 거를 헛렌 헛예? 아아. 게영 그 헛바리 해영은에
저기 꺾메기 말고 다른 건 안 나와?

105006 #1 아이, 문어도 나오고.

105006 #2 문어도 나와.

105006 #1 막 그 바당에 신 거는 그 곳에 나올 수 잇는 건 다 나와.

105006 #2 쟁이덜토 막 올라오고.

105006 #1 쟁이도 나오고 으.

105006 @ 게른 밤에 가민 하영 잡앙 오는구나?

105006 #1 봐지는양 막 잡아. 문어 새끼덜토 기어다니믄 잡고.

105006 @ 이 바당에도 낙지 꺾든 것도 잇수가?

105006 #1 낙지 잇어.

105006 @ 아, 낙지.

105006 #1 밤의덜 가근에 요즘도 밤의 강 낙지 잡아와. 우리 동네 굴밥 집의 그
스나이.

105006 @ 으.

105006 #1 그 헛불 그 무신 불 해근에 그 낙지 막 잡아다근에 우리 집의도 아
정 오민 먹고 해서.

105009 @ 이 바당에서도 옛날 멜 거리고 해나수가?

105009 #1 멜거림. 통 통 이신 디 물 슴뻑 들민 그 멜 수록 다니다근에 그 통에
와근에 노는디 물 싸불민 나가지 못 해근에 그 통에 가두와지민 뭐 차롱 아정 가는
사름, 족바지 멘들앙 가는 사름, 뭐 가근에 거려근에 그거 가정 젓도 담곡.

105009 @ 으.

105009 #1 메르치도 해여근에.

105009 #2 경현디 여기 사람들은 자기만 먹을라고 허는 것이 아니라.

105009 @ 예.

105009 #2 그런 통에다 물 저, 멜 들면은 “멜들엇저, 멜들엇저” 막 웬다고.

105009 @ 음, 음, 음.

105009 #2 다 나와서 잡으라고.

105009 @ 음.

105009 #2 이렇게 허지. 요즘 사름 같으면 자기가 가서 해 올 건데.

105009 @ 예.

105009 #2 아이고, “갯놉에 멜 들언.” 막 선전허면은 막 가는 거야.

105009 @ 음.

105009 #1 족바지 들른 사름. 족바지 들른 사름은 흥뽀 그거 바당에 관심 이신 사름 족바지 만들앙 낫당 하곡. 경 아년 사름덜은 차롱 들렁 가는 사름, 구덕 들렁 가는 사름.

105009 @ 음, 음.

105009 #1 갯 해영 가도 멜 물 상 가명 미쳐 못 나간 거는 그 빌레 우의.

105009 @ 예.

105009 #1 빌레 영 호랑쟁이에.

105009 @ 음.

105009 #1 멜덜이 소복소복 다 잇어.

105009 @ 음.

105009 #1 호랑쟁이에.

105007 @ 음, 삼춘 아까 그 멜 혈 때 이렇게 통 헛잖우과예? 그 통은 직접 영 사람이 만든 겨우과? 아니면?

105007 #1 자연.

105007 #2 자연.

105007 @ 자연으로.

105007 #1 자연적으로 통이 다 웬 거 다.

105007 @ 아.

105007 #1 그 통이 자연적으로.

105007 @ 무슨 통 무신 통 헛니까? 여기 이신 거?

105007 #1 무신 바당 이름 곶으멍 뭐 뭐.

105007 #2 갯놉통.

105007 #1 갯놉통.

105007 @ 갯놉통.

105007 #1 뭇통여.

105007 #2 뭇통여.

105007 #1 뭇통여 또 뭐냐.

105007 #2 저 서쪽에 가면 성코지, 성코지라고.

105007 @ 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돌을 이렇게 해서 원담 같은?

105007 #1 저늘레통. 무시 거.

105007 @ 갯담처럼 허진 아녀마씨?

105007 #2 원담 다나지는 아녀서예?

105007 #1 원담 그 뭉통여는 원담 다낫수다.

105007 #2 뭉통여?

105007 @ 원담도 잇긴 잇어낫수가? 원담 아녀도 자연통이 핫구나예?

105007 #1 원담 현 거는 기자 머흘만 짝 이신디 평온허게 무슨 여 엇이 머흘만 이신디 중간에 담 헨 딱 영 쌓아놔선게.

105007 @ 으, 거기도 뭉 들고 허잖아예?

105007 #1 그 안에 뭉 들곡 고기도 들어왓당.

105007 #2 거기는 숭어ㄱ튼 거 많이 들어. 원담으로.

105007 #1 숭어 막 뛰여.

105007 #2 큰 고기덜토 마 들도 원담 안에는.

105007 @ 원담에?

105007 #1 들어왓당 나가지 못허민 가두와지민 사름덜이 잡아다근에 먹고.

105007 @ 요즘도 그런 거 잇수가?

105007 #1 이젠 엇어.

105007 @ 숭어원이여 뒤편 이런 식으로?

105007 #1 뭉수룩도 엇어. 뭉도

105007 @ 뭉 수룩이 엇구나 이젠예?

105007 #1 뭉 원 안 들어. 옛날엔 흐꼬만 허민 “뭉 들엇덴” 막 허는디.

105007 @ 으, 삼춘 아까 말 중에 호랑쟁이렌 헨 게 마는 호랑쟁인 뒤편과?

105007 #1 호랑쟁이 돌 이렇게 굴 곳어진 거. 그 굴 곳어지면서 파 진거게.

105007 @ 으음, 건 호랑쟁이렌 헤예?

105007 #1 이것이 만약에 빌레. 돌이면 이치룩 파져서 인치룩. 인치룩 파진 디 이런 디 ㄱ메기도 잇고 쟁쟁이도 잇곡 뭉 들 때는 이런 호랑쟁이에 뭉이 헤영케 거 하민 우린 뒤편, 나 같은 경우는 뒤편 무신 족바지에 그런 거 엇이나 강 그런 거 그 빌레에.

105007 @ 예.

105007 #1 그 빌레에 그 호랑쟁이에 거 이신 거 그건 거 영 좇영 와근에.

105008 @ 경허영은에 이제 하고예? 그 다음에 이제 원 뒤편 보수 이런 거는 모르키여예?

105008 #2 어.

105008 @ 그거는 엇이고. 계난 뭉은 아까 이제 통에 든 거 말고 후리 허거나 이런 거는 안 헛수가? 뭉 후리 이런 거?

105008 #1 옛날에는 헛어.

105008 @ 음, 어디서?

105008 #1 옛날에는 우리 백사장에서 우리 하르버지네가 멜 헤신디 옛날에는 멜 그거 저 거세기 걸름하젠.

105007 @ 음.

105007 #1 밧디 그거 허영 보리 같고 무시거 하젠 거름이 비료 그런 거 없으니 까 그 멜 헤근에 밧디 만약에 늘어나민 밧도 걸고 그 멜도 만약에 곱게시리 말라진 거는 헤다근에 또 먹기도 허곡 경 헤난.

105007 @ 음.

105007 #1 우리, 우리 하르버지네가 이제 그 삼 형제가 이제 그 백사장에 구물 놔근에 멜 배 두 개 헨에 그 구물에 헤근에 멜 거런 거 헤나난 우리 오빠 그때 아프난에 선양굿 하렌 헨. 웃음.

105007 @ 음.

105007 #2 그거 멜 잡아부난.

105007 #1 멜 잡안에 그때에 이제 구신 그 바당 구신 서낭엔 현 구신 그거 헨에 아판에 헨에 곱하렌 헨에 우리 곱도 헤나서.

105007 #2 그때부터 멜 그때부터 치와벗수게예.

105007 #1 우리 할아버지네가 이젠 저 거시기 다 돌아가셔부난에.

105009 @ 예, 예. 그땐 멜후림 헛지예?

105009 #1 그때는 멜 후리, 우리 하르버지네만 헛덴 거 우리 또 우리 집안에 역사.

105009 @ 예, 맞수다.

105009 #1 역사 그거 들은 말로 곤는 거주게.

105010 @ 계난 배 두 개 멜 정도로 영 허면 얼마나 크게 헤실 거라예? 거고 삼춘, 꿰기 나끄레도 가뽏데가?

105010 #2 예.

105010 #1 꿰기 나끄레.

105010 @ 어떤 식으로 행은에 갑니까? 꿰기 나끄레.

105010 #2 고망우럭, 고망우럭엔 현 거.

105010 @ 음.

105010 #2 물 이렇게 싸면은 이 그 구멍에다 이렇게 놔서 뒹허는 거 고망우럭이라고.

105010 #1 대막댕이에.

105010 @ 예.

105010 #1 대막댕이에 그 노꿏.

105010 @ 으.

105010 #1 노꿏 정술.

105010 #2 그땐 정술도 엇이.
 105010 #1 정술도 엇이 노곳에 헨 가. 노곳에 헤여근에 무신 낙시 그 이제.
 105010 #2 낙시가 얼마나 귀했는지.
 105010 @ 예.
 105010 #2 그 여기서는 요즘 낙시 허니까 딱 오면은 낙시 탁탁 찢라버려* 고기
 에 낙시가 그걸 다 빼서 이젠.
 105010 #1 꽃어근에.
 105010 @ 음.
 105010 #2 경 해난.
 105010 #1 경해영 고망에 강 데면은.
 105010 @ 으.
 105010 #1 그 고기.
 105010 #2 어랭이도 물고 고망우럭 북바리 ㄹ든 것도 물고.
 105010 #1 그땐 북바리 막 그땐 많이 잇어나서. 이젠 씨가 전.
 105010 #2 완전히 씨가 전.
 105010 @ 계난 고망우럭이렌 현 거는 그 고망에서 나끄는 우럭이난 고망우럭이
 구나예?
 105010 #2 어어.
 105010 @ 꿰기 이름이 고망우럭이 아니고.
 105010 #2 아 고망우럭이라고 해서 시커멍허여.
 105010 @ 아, 고망우럭이라는 것도 잇어마씨?
 105010 #1 으 그건 고망에만 사는 거.
 105010 @ 으으, 우럭이.
 105010 #2 우럭허면은 좀 붉은 기가 잇고, 검평우럭.
 105010 @ 검텅우럭도 잇고.
 105010 #2 그런 거. 어랭이 코생이.
 105010 @ 음.
 105010 #2 다 잇었는데 이젠 하나도 없어. 이젠 어랭이도 나끄젠 허민 배 탕 나
 가서.
 105010 @ 아, 이 여기서?
 105010 #2 여기서 ㄱ되서는 엇어.
 105011 @ 엇어마씨, 이제는. 게른 예전에 낙싯대를 아까 대막텅이를 뒀렌 불럿
 수가?
 105011 #2 침대.
 105011 @ 침대예? 침대하고 그 침대 낙싯줄하고 낙시 어떤 식으로 행은에 거를
 구헨 거우과?
 105011 #2 아니 그때 노곳, 노곳. 요즘은 정술로 해서 허는데, 낙시도 팔곡.

105011 @ 예.

105011 #2 뭐 코생이 낚시 뭐 검평우럭 낚시 저 잇는데, 그거 낚시 사다가 그 저
노곳으로 빠져근엔에 경혜근에 뽕돌.

105011 @ 예.

105011 #2 뽕돌, 낚. 그거 혜영 이녁대로 만들엉 경혜영 으.

105011 #1 이깎은 돌 일렁은에 그.

105011 #2 물주넝이.

105011 #1 물주넝이 파근에.

105011 @ 음.

105011 #2 물주넝이.

105011 #1 물주넝이 팡을 허던가.

105011 #2 경허고 새우, 새우 거러근엔에 족바지로.

105011 @ 아 여기도 새우?

105011 #2 족바지로 요런 통에 보민 새우덜 막 이시난에 족바지에 낵 자리것
흐나 영 농곡 행 놔두면은.

105011 @ 예.

105011 #1 냄새낭.

105011 #1 막 냄새 나서 몰려오면 들르면은 그.

105011 @ 어어. 물주넝이로 혜민예? 이거 갯지렁이 아니라예? 물주넝이?

105011 #2 경허곡 급허면은 저 무 게들레기 못앙.

105011 #1 게들레기 못앙.

105011 #2 게들레기 못앙은에 거 깨여서 허고.

105011 @ 삼춘도 이거 허레 갓다완?

105011 #1 아니, 그거 니깎 하레는 안 우리 오빠가 가근에 그때는 코생이하고
어랭이하고 그 코생이 거 낚시구덕이 잇주게.

105011 @ 예.

105011 #1 구덕 요만한 걸로 반씩 혜당은에 나끄는 추미로 나꿈만 허주 그 장
만은 절대 아녕 우리 오빠가.

105011 @ 예, 예.

105011 #1 앓다당 내불민 장만은 나가 이.

105011 #2 거 장만험이 잘도 성가셔.

105011 #1 코생이 어랭이가 다 요만씩 한 거라놓난 하나하나 다 하젠 하민 사
스미도 혜영 먹는다, 그 옛날엔 그거 혜영 소곰혜근에.

105011 #2 음 들류왕.

105011 #1 그걸.

105011 @ 들류왕.

105011 #1 요만은 한 무시것에 다 시청 혜영 대막댕이 막 높은 거 왕대.

105011 @ 음.

105011 #1 왕대 해근에 노곶해근에 그 영영영영 그 도리께에 그거 해근에 막.

105011 @ 올령.

105011 #1 올려근에 그 폭리도 못 올라가게시리 행근에 말황은에 그거헤영 구민.

105011 #2 잘도 맛 좋아 코시롱.

105011 #1 구민 코스롱 고사리.

105011 @ 어.

105011 #1 고사리 그 출 빌 때에 고사리덜 서꺼저근에 하면은 고사리는 소가 안 먹주게.

105011 @ 예.

105011 #1 게문 그런 걸로 숨아나근에 그 불치에 그거 구면은.

105011 #2 그렇게 맛 좋아.

105011 @ 아아. 그러면은.

105011 #1 코시롱헤여.

105011 @ 그거 배캉만 이제 물리는 거라. 소금 안 헤영?

105011 #1 소금 헤영.

105011 #2 아썩 헤영.

105011 @ 아아.

105011 #1 그거 큰 반찬.

105012 @ 음, 여기 우리 저쪽에는 그렇게는 안 했던 거 같은데예? 그 다음에 작살로 삼춘 저기 물질도 헤시난예?

105012 #1 무신 거?

105012 @ 소살, 소살 가정은에 꿰기도 쏘아봤지예?

105012 #1 으.

105012 @ 어떤, 무신 고기덜 쏘읍디가?

105012 #1 그때는 벤자리.

105012 @ 음.

105012 #1 벤자리엔 한 고기는 바당에 영 저 희여가당 보면은 여가, 여엔 현 건 높은 동산이주게. 바다 속도.

105012 @ 바다 소곱에.

105012 #1 동산인디, 동산 뱅하게 이신 디 가운디 모살통이 있어. 모살통, 모살통. 그 모살통에 바글바글 옛날에는 그 벤자리가. 게민 소살이 영허영 늘리왕은에 숨비영 동산으로 영허영 곱앙 가근에 고기 그 발허여근에 착 하게 쏘아근에 하면 그 옛날에는 하도 고기가 벤자리가 바글바글허니까 허난 어떤 땐 두 개도 쏘아근에 와져.

105012 @ 흔 번 딱 헤신디 으.

105012 #1 맞아근에 두 개도 꿩 나 올라오고.
 105012 #2 그 옛날에는 상군털은?
 105012 @ 예.
 105012 #2 비껴, 비껴.
 105012 @ 비껴.
 105012 #1 비껴보고 이디선 무시 건엔?
 105012 @ 상어, 무신 수염상어여.
 105012 #2 비껴 이따만 거 행은에.
 105012 #1 다 쏘양 나와.
 105012 #2 상군들 다 쏘양 나와.
 105012 @ 상군들은예? 게른 삼춘예, 아까 모살통 헛짚우과예, 그 여 이신디 그 러면 거기는 모살이 있어 아니면은?
 105012 #1 아래 모살.
 105012 @ 아, 모살 있어.
 105012 #1 춤 이상혀여. 바당도 가보민. 그 여가 동산 잇는 가운데 통이 신 디 는 모살이라 다.
 105012 @ 음. 통 이시믄?
 105012 #1 케민 그런 딴 저 무시거 가오리.
 105012 @ 예.
 105012 #2 가오리.
 105012 #1 가오리도 그 모살 속에 모살 속에 영 잇이민 기냥 우론 몰란.
 105012 @ 예.
 105012 #1 눈, 눈이 보여.
 105012 @ 아아.
 105012 #1 까망허게.
 105012 @ 아아.
 105012 #1 가오리처럼 이 모살로 원이 다 기러져근에 눈이 보이는 거라. 케민 그거 저거 가오리로구나 헤여근에 강 쏘아근에 나오곡.
 105012 @ 삼춘은 다니명 어떤 걸 쥔 하영 쏘은 거라마씨?
 105012 #1 벤저리 주로. 그때는 벤자리가 많이 나고, 북바리도 북바리는 그 모 살통 같은 데 엇어근에 여예, 감태 막 이신디 영 허면은 바당 속에 호랑쟁이는 인 치룩 널르주게. 널른 디 그 이치룩 이런 디 누웠 있어, 북바리는.
 105012 @ 북바리는?
 105012 # 어떤 북바리는 뭐 바람 부는 냥 물결 가는 냥 이레저레 이레저레 영영 허멍 허어다니는 것도 잇곡.
 105012 @ 음.
 105012 #1 것 말고 북바리는 여에만.

105013 @ 예, 이 동네도 께깃배들 하낫수가? 옛날.

105013 #1 하낫주. 다 고기.

105013 @ 아아, 게난 께깃배덜은 어떤 그 종류에 따라서 배들 잇잖음니까예?
여기서?

105013 #1 아니, 종류에 따라 배 잇지 아녀고 배 하나 가정 갈치도 나끄고.

105013 #2 갈치도 나끄곡 자리도 거리곡. 경 해난.

105013 #1 자리도 거리고. 배 하나.

105013 @ 이 동네도 옥돔도 한?

105013 #1 옥돔, 옥그 당시는 옥돔 이신디쓰장 배는 못 가.

105013 @ 아아.

105013 #1 그 옥돔은 완전 멀리 가야 옥돔 잇주.

105013 #2 이어도 그 근방에 가야.

105014 @ 글로 가야. 그 다음에예 우리 줌녀예, 여긴 줌녀 험니까 줌수험니까?

105014 #1 줌수.

105014 @ 옛날에 줌수예? 줌수들이 바다에 강 숨병은에 행오는 해산물은 어떤 거 잇어?

105014 #1 그 겨울에는 주로 해삼 같은 거. 해삼 많이 해삼 많이 잡곡. 고동 그 런 거 주로.

105014 #2 점복.

105014 #1 그 옛날에는 그 속곳만 입어근에 물에 들어가니까 시간이 얼마 못 사니까 조금씩 잡앙 와서.

105014 @ 음.

105014 #1 이제는 고무옷 입어근에 하루 종일 사니까, 하루 한번벳기 안 드는 디. 옛날은 세 번씩 네 번씩 들어가. 불 추와근에 또 흐뎡 몸 그거 언 기가 좀 엇어 지민 또 속곳 입영 또 들어가곡 경 허멍 하니까 추위부난에 배랑 저 수입은 못 올 려.

105014 @ 음.

105014 #1 여름에는 이제 딱실 때는 해도. 겨울에는.

105014 @ 그 해녀들 불초는 디 거긴 뭐렌 굴아?

105014 #1 불턱.

105014 @ 여기는 불턱예? 그 다음에 메역혈 때허고 이제 소라나 이런 거 잡을 때는 그 메역무래 이렇게 허잖아예? 그 고동 잡을 때는 무신 거 험니까?

105014 #1 헛물예.

105014 @ 헛물예, 어.

105014 #1 그 미역은 미역은 물에 들면은 미역은 꺾하지 안 해주게. 미역은 그 냥 돌 우로 영 영 우로 다 볼 수 잇어근에 우로 가근에 확확 해근에 나오는 거고. 이 소라 전복 같은 거는 돌 밑에.

105014 @ 예.

105014 #1 그런 디 잇으니까 우로 보아근에 들어강 해오는 거 보단 그 수입 잡아내는 것이 얼마 못 잡아내니까 헛물에. 헛, 빈차도 온다 허는 식이라. 이 헛물에는.

105014 @ 음.

105014 #1 경 허고 저 미역은 그거 우의서 보는 거난 뭐 미역 직통 가서 미역 확확 해영 오는 거난 그거는 하영 할 수가 이신디 이거는 안 보이는 디 물속에 가근에 그걸 찾아근에 행 잡아 오기 때문에.

105014 @ 맞수다.

105014 #2 그 물숨도 무신 것고 겨울쫄은 얼면은 물숨도 쫄라근에 깊은 디도 못 가.

105015 @ 맞수다. 그 메역혈 때는 뭘 가정 갑니까?

105015 #1 호미허고 망사리.

105015 @ 그때 호미는 다른 말 부르는 이름 엇어마씨?

105015 #1 비호미.

105015 @ 비호미, 아까는 메호미해서예?

105015 #2 음.

105015 #1 메호미. 비호미. 그 비호미엔 헌 건 바다에 가정탱기는 거.

105015 @ 음.

105015 #1 듬북하레 메역하레.

105015 @ 예, 메호미는 이제 맞디 출 비는?

105015 #1 나무.

105015 @ 나무허는 거예? 아.

105015 #1 출비는 거는 호미.

105015 @ 출비는 건 호미하고 그 다음에 낫하고.

105015 #2 낫.

105015 #1 낫으로 후리는 거.

105015 @ 낫은 후리는 거니까.

105015 #1 남자들 후리는 거.

보리 빌 때는 저기 호미로 하고예.

105015 #2 호미.

105015 @ 비호미는 메역 즈물 때.

105015 #1 메역. 그거 바다에.

105015 @ 예, 예, 예. 그 다음에 어, 이 즈수들 물질허젠 허면 필요한 도구? 삼춘.

105015 #1 어디 무시 거 하젠 허민?

105015 @ 물질허젠? 메역허젠 허나 아니면 헛물에 허젠 허나 허면 즈수덜?

105015 #2 줌수덜.

105015 #1 헛물에 할 때는 골게기 가지고.

105015 @ 골게기 가지고.

105015 #1 비창.

105015 @ 비창.

105015 #1 비창은 이 두에 영 헤어근에 차근에 가근에 점복 봐지민 영 꺼냉 점복 때는 거. 비창 가지꼭 골게기 가지고.

105015 @ 예.

105015 #1 거 테왁도 망사리는 기본이고.

105015 @ 예, 그 다음 쪼끌락현?

105015 #1 그 조레기.

105015 @ 조레기도 아상 가고예?

105015 #1 조레기, 조레긴 가져강 점복 ㄴ튼 거 잡으면 조레기 속에 놔야주 소라하고 같이 놓면은 소라 그 딱살로 그 점복 그 살.

105015 @ 예, 예.

105015 #1 끓어질 수가 잇으믄 끓어져 분 거는 반값도 안 가주게. 기수 닛텐 헤어근에.

105015 @ 으음. 경허난 오분제기나 저기 전복은 조레기에 놓는 게 그거구나예?

105015 #1 조레기에 해삼도 잡아지면 조레기에 놓고. 그 해삼도 소라영 놓면은 소라영 소라가 힐 때마다 그 흥창흥창허민 그 해삼도 등아리에 그 꺾데기.

105015 @ 예.

105015 #1 끓어불면은 것도 상처나니까 그 전복허고 거는 조레기에 놓고, 소라는 큰 망사리는 기자.

105015 @ 음, 삼춘, 여기 해삼을 다른 말로 불르는 일름은 엇어나수가?

105015 #1 해삼 다른 말로 잇어난 거 닥기는 한디.

105015 @ 웃음. 미, 미렌 안 헨?

105015 #1 미엔 골아나신가, 미.

105015 @ 아, 여기는 안 헨예? 아 해슴 그냥.

105015 #2 해슴, 해슴.

105017 @ 해슴이렌 그냥 해예? 예전에 삼춘 이제 그 물웃 속곳 입을 때 하고. 고무웃 입영도 해낫지예?

105017 #1 고무웃 입언에 헝꿈허단 치완벤.

105017 @ 그 변천. 게난 옛날예 물웃이 어떤 식으로 변천했는지 것 좀 간단히 게 골아줘 봅서?

105017 #1 옛날 그 속곳도 우리가 다 만들어나신디 다 잊어버서. 영 재단을 못 허커라. 재단만 해 놓면은 만드는 거는 그거 만들어지겟는디.

105017 @ 음.

105017 #1 그 속옷이 잇어근에 속옷을 보면은 그걸 재단허면서 해질 건디 그 속옷이 이제 해녀덜안티 이신가 엇인가 몰르커라.

105017 #2 속곳에 특이헌 것은 나가 그 가만히 보니까 특이헌 것이 단추를 안 돌아.

105017 @ 아아.

105017 #1 별모작.

105017 @ 예.

105017 #2 별모작 이렇게 허면은 딴 사름이 이거 뵈기질 못허여.

105017 #1 웃음.

105017 @ 아아아.

105017 #2 본인이라야 뵈겨지지.

105017 #1 이거 클르지 잘 못허지.

105017 @ 예, 그니까 별모작이예?

105017 #1 속곳을 영 입영 이거 여기 끈 해영 여기 딱 즐라매민 일로 이디까지 난에 일로 이디까지난에 일로 하면 별모작 세 개 올로 하면 별모작 세 개 허민 으섯 갠 돌아.

105017 @ 아.

105017 #1 여섯 개.

105017 @ 여섯 개?

105017 #1 게난 누게 남자덜 홀어멍안티 들영 해도 이거 클르지 못허영.

105017 #2 속곳을 입으면은 강간을 못 해. 그리고 또 소변, 소변 볼 때도 자기가 허는 것이지 딴 사름은 클르질 못해. 옛날 그.

105017 @ 어른들이예?

105017 #2 어른들이 머리가 상당히 춤 대단허여.

105017 #1 거 진짜 속곳 춤 그거는 히안진 거라. 우리가 나가 가만히 생각허민.

105017 #2 이것을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디 가서 딱 배우면은.

105017 @ 음, 이 사회 문제가 안 일어날 건데. 맞수다. 맞수다.

105017 #1 아이, 진짜 속곳을 그 수소문해근에 그거를.

105017 @ 한번 멘들어봅서.

105017 #1 아니 아이덜안티 딸덜한티 가리켜줘도 우리 딸도 웃음만 헐 거라. 음.

105017 #1 웃음.

105018 @ 그리고 삼춘, 여기에 툷.

105018 #2 으, 툷.

105018 @ 툷. 툷 여기 하마씨?

105018 #1 툷 여기 하낫주. 툷을 막 그냥 막 출놀만은 놀어 혼 동에. 우리 사 개동인디.

105018 @ 예.

105018 #1 동상 동하 서상 서한다. 혼 동에 출눌 만씩 다 늘어나서. 바당도 다 이넉만씩이난.

105018 @ 아아.

105018 #2 바당도 다 동상 동하 딱로딱로 이넉 바당.

105018 @ 딱라딱라예. 아 경혜근에.

105018 #1 경계가 다 있어.

105018 @ 그 톨 행은 주로 어떤 음식덜을 혜영 먹은 거라마씨?

105018 #1 아이, 그 톨음식은 이제 뭐 톨체.

105018 @ 음.

105018 #1 톨밥도 행 먹곡.

105018 @ 으.

105018 #1 톨 그자 그거 혼닥허민 웬장에 찍영도 먹고 먹는 방법은 다 여러 가지 있어.

105019 @ 음, 우미 ㄱ튼 것도 이 바당에 나?

105019 #1 으.

105019 @ 예.

105019 #1 우미, 바당에 강은에 그거 행은에 우미 빨강헌 거 이시면은 그거 다 이제 메여당.

105019 @ 그건 메여당.

105019 #1 그건 메여다근에 뜯어당이 아니고 메여당.

105019 @ 예.

105019 #1 그건 혜근에 뭐 옥상 난 우리 집 경우에 옥상에 올려놔 거기 수도로 혜근에 이제 아침 돼면은 강 물 짝 줘.

105019 @ 으.

105019 #1 그 이튼날 돼면은 또 강 물 줘.

105019 @ 음.

105019 #1 아마 열 번 정도 물 주면은 인치록 혜양허여. 그 빨간 것이.

105019 @ 경허면 그거를 뭐 헌텐 험니까?

105019 #1 우미.

105019 #2 우미 행 먹어.

105019 #1 천추.

105019 @ 게난 그거를 그 물로 계속 이렇게 주면서 허는 것을?

105019 #1 발래는 거.

105019 @ 아 발래는 거렌 혜예. 발래는 거 행 혜먹고. 그 다음에 여기 톨망? 뭘?

105019 #1 톨망.

105019 @ 여기는 물망예? 물망 옛날 하영?

105019 #1 아이 옛날에 물망 하영 해근에 물망 다 해근에 장삿군털 오민 폴곡 해나신디. 이젠 물망이 하나도 없어.

105019 @ 음.

105019 #1 사 개동 다 씨져서.

105019 @ 다 씨져부런. 물망도 종류가 으라 개 잇어나진 안 헨예?

105019 #1 물망도 막 맨지락 한 물망 잇고. 저 어디 동쪽에 물망 이신 디 이신 건 맨짝허지 안 험니까게?

105019 #2 우도에서 흐는 거.

105019 #1 그런 거는 무청 먹는 거벧기 안 돼고.

105019 @ 음.

105019 #1 우리 여기는 물망에 돛국물.

105019 @ 음.

105019 #1 잔치 때.

105019 @ 돛국물헤영.

105019 #1 돛국물 끓이는 디 채고. 우리 여기에 물망은.

105019 @ 으, 그 물망 이름은 무슨 물망이렌 헤여? 여기서는.

105019 #1 아니 게난 그냥 물망허고. 물망본다 틀린 거는 쥐물망엔 해근에.

105019 @ 아, 쥐물망이렌 허고. 춤물망 이렇게는 안 써마씨?

105019 #1 쥐물망허곡.

105019 @ 그냥 물망허고.

105019 #1 쥐물망.

105019 @ 쥐물멍허고예? 쥐물망은 무청만 먹고. 추자도에서 하영 나는 거.

105019 #1 그건 저 무청만 먹는 거.

105019 @ 예.

105019 #2 웬장에 찍영 먹고.

105019 @ 삼춘, 아까 이제 돛국물이렌 헛잖아예? 그 돛국물허고 요즘 뭇국허고는 어떻 톡난 겨우까?

105019 #1 돛국물엔 현 거는 옛날에 그 잔치 때 돼지 다섯 머리고 으섯 머리고 잡안에 큰 그거 이제 그 가메에서 삶아내영.

105019 @ 예.

105019 #1 막꿇데 이제 수에.

105019 @ 예.

#1 수에엔 현 거는 순대.

105019 @ 음.

105019 #1 그 수에를 담아근에 믰말가루헤근에 그 피.

105019 @ 음.

105019 #1 피허곡 막 해연 이제 무슨 양념덜 해놔근에 그거 해영 수웨 담아근
에 수에ㄱ장 다 삶아난 그 물에 이제 그 물망을 놔근에 물망하고 찹늬물 그 썸.

105019 @ 음.

105019 #1 단지늬물썸 늬뻬썸 그거하곡 서꺼근에 그 돛국물허민 진짜로 그 국
이야말로 잔치 때벳긔 이거는.

105019 @ 헐 수 엇어?

105019 #1 못 먹는 거.

105019 @ 음.

105019 #1 잔치 때 아니면은 기냥 돼지고기 사당은에 해영 집의서 해영 영영
끓여도 그 맛이 절대 안 나.

105019 @ 음, 그 일름이 뭐라, 뭐렌 불러마씨? 여기서는.

105019 #2 돛국물.

105019 #1 돛국물.

105019 @ 그냥 돛국물, 돛국물 허는 거라예? 게난 요즘 말은 몸국이렌 현 말은
여기서는 안 불렀던 이름 아니우파예?

105019 @ 예. 여기선 안 불린.

105019 #2 그때는.

105019 @ 요즘 몸국허지만은.

105019 #1 몸국은 요새 그냥 뭐 돼지 다리라도 헉나 삶아놔 그 물에 기자 국
끓영 몸국이여 무시거여 해도 옛날은 그냥 돛국물.

105019 @ 돛국물예. 아니 왜나허면 여기는 몸이렌은 안 허지 아녘니까? 물망이
렌 허니까.

105019 #2 물망.

105019 @ 물망국이렌?

105019 #1 경해도 몸국이엔 해여.

105019 #2 몸국이엔.

105019 @ 경해도 몸국엔 해여. 거 이상헌 거라. 몸국도 옛날부터 있어났수가?

105019 #1 잔치 때에 돛국물벳긔 안 먹어나신.

105021 @ 아, 요즘예, 알아수다. 으,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복허고 그 오분제기
나. 오분제기는 즈무는 거 아니지예? 고등.

105021 #1 어떻 허영?

105021 @ 저기 점복이나 구쟁기.

105021 #1 구쟁기.

105021 @ 건 어떤 식으로 아까 채취허는 거?

105021 #1 그건 뭐 그 고등 그 고등 종류는이 물속에 들어가민 감태가 막 있어
이.

105021 @ 음.

105021 #1 감태 영혜영 걷으면은 영 기자 둘 우의 이렇게 잇고. 전복은 어떤 디 이런 디 영덕, 그런 속에 이런 호랑쟁이. 그치록혜영 잇는 거 부땡 잇는 거.

105021 @ 그 다음에 오분작은?

105021 #1 오분작은 갯, 갯디. 오분작은 먼바당에 잇는 게 아니.

105021 @ 아아.

105021 #2 갯디.

105021 #1 갯바당에

105021 @ 아.

105021 #1 갯바당에 돌에 보민 고망 잇잖아이.

105021 #2 이렇게 만지면서.

105021 #1 그런 디 다 부땡 잇는 거.

105021 @ 조개는 고망에 들어간텐예? 고망 소곶으로 들어가고. 전복은 이렇게 영덕 밑에.

105021 #1 영덕 밑에. 때로는 막 오래된 늙은 점복은 이 여 우의 기냥 탁 부텡 이신 것도 잇어.

105021 @ 부땡. 늙은 것들은. 경혜영 하고 아까 이제 꺼끄떡?

105021 #1 꺼끄떡.

105021 @ 꺼끄떡. 이 꺼끄떡은 제가 처음 들어봤수다. 이름을 처음 들어봐수다.

105021 #1 꺼꾸떡은 그 전복새끼.

105022 @ 으, 전복새끼예?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테배? 터배?

105022 #2 터배

105022 @ 터배?

105022 @ 터배 용도는 뭐우과?

105022 #1 자리.

105022 #2 자리 거리레.

105022 #1 자리거리레 다니는 거. 터배는 나무 토막 여껴가지고.

105022 #2 숙대당 혼 일고요덥 개 여껴가지고.

105022 @ 으음, 거는 자리거릴 때만?

105022 #1 자리 거릴 때. 그거는.

105022 @ 예.

105022 #1 바다 파도 썰여도 건 안 뉘고.

105022 @ 음.

105022 #1 자리도 잔잔해야 자리가 영 물결이 영 이시민 자리도 다 이런 영덕 에 다 들어가변은에 못 거려. 계난 물결이 잔잔해근에 물도 아니 가고 할 때에 그 자리가 다 우터레 떠.

105022 @ 음.

105022 #1 올라근에 노는 거라. 경 할 때 그 터배가 강은에 그 자리 거릴 거.

거리는 용도. 무신 거.

105022 @ 그러면 그 자리도 종류가 으라 개 잇어실 거 아니라예? 옛날에예. 불르는 이름은 엇엇수가?

105022 #1 무시거 자리. 자리는 큰자리 족은자린가?

105023 @ 자리, 음, 알아수다. 그 다음에 혹시 돛베?

105023 #1 돛, 돛 달아근에 그 텡건. 옛날은 풍선덜 돛 달안 안 다녔수가?

105023 #2 돛 달안 텡건.

105023 @ 풍선예?

105023 #1 브름. 바람으로 영 가는 거.

105023 @ 그 풍선헐 때 그 풍선 돛 다는 거를 여기서 뭐렌 근지 알아지쿠과? 혹시.

105023 #1 돛 달아젠만 허난.

105023 @ 돛 달았저. 초석 들았저는 안 해? 그냥 돛단베예? 풍선.

105023 #1 풍선에 그 돛 달양 광목 가져근에.

105023 @ 광목 해영. 그것도 광목허는 거. 삼춘 육깃물질도 가판?

105023 #1 육깃물질은 안 가판?

105023 @ 안 가봅디가? 육지 물질 우리 사모님 강은에.

105023 #1 웃음.

105023 #2 아 경헌디 육지 물질 가문 나 물질허는 거 봐서?

105023 @ 여자삼춘은 물질 언제까지 헛수가? 여기 왕도 해실 거 아니예?

105023 #2 미역허제 헐 텐 막 바지개영 막 준비해영 가면은.

105023 @ 예.

105023 #2 판사름들 들르는 것만 허지 우리 집의 사름 건 나 간단허게 들러내영.

105023 @ 물질 못헛구나게. 웃음. 게문 아,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는 사름을 뭐렌 해?

105023 #1 어떻게 가는 사름?

105023 @ 왜냐, 그 메역 허제헐 때는 다 이제 물질헐 거 아니우과예?

105023 #1 상군허고 중군.

105023 @ 상군 중군 이렇게 가잖아예? 그러면 이.

105023 #1 돌과레.

105023 @ 끌어내고, 집에 날르는 사름 잇잖우과?

105023 #2 미역마중.

105023 #1 마중, 마중.

105023 @ 다시 한번?

105023 #1 마중.

105023 @ 마중 감텐 해. 미역 마중엔 해예? 삼춘, 마지막으로 그 저기 물질하는

줍수들 물질 쥔 물질 잘 허는 사람 누게?

105023 #1 상군.

105023 @ 상군.

105023 #1 그 다음은 중군.

105023 @ 중군.

105023 #1 그다음 돌파리.

105023 @ 돌파리. 상군 중군 돌파리. 하군이라는 말은 안 써마써?

105023 @ 그 할망들 따로 부르는 말은 없고.

105023 #1 할망덜은 부르는 말은 없고 그자.

105023 #2 문딱 할망들이 상군이라.

105023 @ 상군.

105023 #1 나이 든 사람들이 물질 오래 하니까 하영 잡아.

105023 @ 잡고예. 상군보다 더 잘 허는 사람은?

105023 #1 그자 상군.

105023 @ 그냥 상군. 상군 중군 돌파리로만 세 단계로 하는구나예?

105023 #1 이디 어명은 돌파리.

105023 @ 어. 웃음.

105023 @ 경허난 들어내지 못허연.

105023 #2 땀 사람 것 막 들러오당 우리 오민 건 난 간단허게 바지게에 놔서 오민 쫓.

105023 @ 쫓.

105023 #2 멧 번덜

105023 #1 상군덜.

105023 @ 안 가지는 못헤영은에 이제 간.

105023 #1 고무옷 입지 아녀곡 그 죽영 때는 사람이 멧 배 고생헷수다. 상군덜 보단.

105023 @ 맞아. 하영 허믄 기분이라도 좋을 건디.

105023 #2 미역 마줌 허염젠 허민 막 저들어.

105023 @ 아, 웃음.

105023 #2 경허난에 이디 안 살안 서귀포로 가불엇주.

105023 @ 경헷구나예?

105023 #1 서귀포 무신 그것에 가서. 사업 따랑 갓주, 무신.

105023 @ 알아수다. 예, 영헤영은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허쿠다예. 고맙수다.

105023 #1 멧 시니? 다섯 시 돼시니? 두 시간 딱 헷구나.

105023 @ 두 시간 안 헷수다. 1시간 38분. 여기 딱 기록.

6. 의생활

옷감

106001 @ 공부허कु다예, 오늘은예 의생활, 식생활 이런 거 헐 거예? 옷감 종류예, 삼춘 어떤 거 잇수과? 옛날예.

106001 #1 옛날에 우리 그때 그 두린 때는 옷감이 미녕하고 광목.

106001 @ 음.

106001 #1 미녕 광목 옥영목. 그런 거 그걸로 가정은예 주로 옷 행 입어서.

106001 @ 멩지는 엇고?

106001 #1 멩지는 해도 멩지옷은 죽을 때나.

106001 @ 음,

106001 #1 호상옷 할 때에 멩지옷 허고 또 종가집 같은데 큰옷.

106001 @ 예.

106001 #1 제사 지낼 때 입는 그런디 해주워. 일할 때 그 멩지옷은 입영 일할 수가 엇주게.

106001 @ 예, 맞수다. 음, 경해도 씨집갈 때도 멩지옷 해줘실 거고?

106001 #1 씨집갈 때는 뭐 멩지로 해근에 치마도 허고 영 끄동 들안에 해신디 그것이 원 영 그때 그 옷 어디사 가신디 그때 입어난 것이 끼우지도 못허여.

106001 @ 너무 족양.

106001 #1 족양.

106001 @ 맞아예?

106001 #1 치마도 이만은 올라가고.

106001 @ 음.

106001 #1 경허영 하난 네껴져벼신가 어떻 해신가.

명주

106002 @ 알아수다. 혹시 삼춘, 여기 멩지허는 거 짜는 거 봐봤수가?

106002 #1 여기는 멩지 짜는 디가 엇어.

106002 @ 요 남원은 가난 멩지를 짜낫덴 헨게 마는예?

106002 #1 옛날예.

106002 @ 예.

106002 #1 몰라 여기는 멩지 짜는 거 엇어. 육지서 들어와근에 다 사곡.

106002 @ 여기 누에치거나 이런 것도 엇어.

106002 #1 누에는 말만 들엇지 표선이서 직접 누에 치는 거는 안 봐봐서.

106004 @ 아, 안 보고예? 게문 삼춘 멩지로는 어떤 옷을 주로 만들어서봐서마 씨? 다시 한번만예?

106004 #1 멍지는 그거, 멍지는 뭘로 멍지썰은 뭘로 해신고? 그때에. 뭘 목화는 아니고.

106006 @ 계난 누에고치, 누에치는 거.

106006 #1 누에, 누에 그걸로 헐에.

106006 #2 우리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에서 누에 질러놔수게.

106006 #1 국민학교에서.

106006 #2 으. 누에 그 뽕나무덜이 많이 잇으니까.

106006 #1 음, 요 밧디 뽕나무, 국민학교 옆에 텃밭 대신 밧헐 무시거 허고 집도 짓어벼신디, 거기에 이제사 생각해보난 뽕나무가 그디 많이 잇어나서.

106006 #2 그래서 당번덜 우리 학생덜 당번덜 해가지고 누에도 뽕나무 따당 주고 이렇게 당번해서 해놔는데, 그 당시에는 누에 해서 우리가 뭘 뭘허는 것도 몰르고

106006 #1 그자 하렌 하난에 뽕썩 따당 주렌 허난 그것만 헛주. 그거 가정 뭐가 하는지.

106006 #2 겐디 선생은 오라가지고 누에 크는 거 이거 다 체크허고 이렇게 허더라고.

106006 @ 음. 기지예?

106006 #1 이제 생각해보난 이런 뽕남, 뽕썩덜 해당 영 주면은 막 일로 즈근즈근 먹어난 거 그 생각이 남신게.

106006 @ 아, 뽕썩 먹어난 건예? 계난 이제.

106006 #2 일반 집에는 안 해놔수다.

무명

106007 @ 그건 안 하고 알아수다. 계몬 미녕일랑 빼불고예?

106007 #1 미녕은 목화로 헛주게.

106007 @ 목화로예? 미녕도 종류가 으라 개 잇수과? 어머니 같은 경우는 미녕 차놔지예? 삼춘네.

106007 #1 미녕웃은 뭐하느냐 하면 갈웃 같은 거.

106007 @ 예.

106007 #1 갈웃 같은 거 헤여근에 감들여근에 일할 때이 입는 거.

106007 @ 음.

106007 #1 또 몸빼 같은 거. 거 헤근에 광목은 그보담 헝뽀 고급으로.

106007 @ 고급으로, 음.

106010 #1 겐디 광목은 옷을 해가지고 이 저 감 들이민 그 광목이 덕각하니까 미녕 7치룩 흘랑흘랑허지 아녀고 덕각하니까 다 꺼꺼져. 감들영 버작허민.

106010 @ 아아.

106010 #1 영 꺼꺼지는 때문에 주로 그 미녕으로는 아니 하고.

106010 @ 예.

106010 #1 이제 그 광목으로는 아니 허고 미녕으로만 이 감옷해난 거.

106010 @ 삼춘, 그러면은 그 미녕도 종류가 아까 광목도 잇고 미녕이 잇고.

106010 #1 옥영목.

106009 @ 옥영목 잇고. 무신 토목이여 생목이여 이런 말은 안 들어봤마씨?

106009 #1 토목 그런 거는 그것에 다 속헌 거 아니?

106009 @ 삼춘이 들어본 건 아니고예? 직접 무명 차는 베틀허는 거는 안 봅디가?

106009 #1 베틀하는 거는 여기는 베틀허는 거 엇엇어.

106012 @ 여기는 그것도 안 하고예? 홍세미녕이렌 허영 들어봅디가?

106012 #1 홍세미녕, 그 막 알룬 거 이신디이.

106012 @ 예.

106012 #1 그 옥영목보단도 막 얇은 거 이신디 그런 거는 뭐 씨집갈 때 영 홍세에 그 함에 놓는 그런 용으로 그거는 이제 켜주. 겐디 그거는 조금 비싸고 뭐하니까 건 주로 잘 안 쓰고 우리 여기는 그자 광목하고 미녕.

106012 @ 음.

106012 #1 그거 주로 써서. 또 베옷, 여름에 베옷허고.

106012 @ 베옷하고예? 그 홍세미녕 용도는 뭐라마씨? 씨집갈 때.

106012 #1 홍세, 그 그거는 치마이.

106012 @ 예.

106012 #1 치마덜 해근에 그 완전 곱게시리 그 나들이옷 7치록 그 치마를 행 입고.

106012 @ 음.

106012 #1 그거는 아주 올이 막 잠지니까 해영허고.

106012 @ 음.

106012 #1 경허니까 걸로 가져근에 적삼도 행근에 어디 나들이 갈 때 입는 옷으로 그 막 고급으로.

106012 @ 게문 홍세미녕에 담는 거는 남자 집의서 해주는 거?

106012 #1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해가는.

106012 @ 해가는 거예? 옷감으로예? 아아, 삼춘네도 멘네 농사 져나수가?

106012 #1 멘네 농사 져나서.

106012 @ 그 멘네 농사는 어떤 식으로 해서 언제 어떻게 해서 수확허는 거?

106012 #1 멘네는 봄에 멘네씨를 뿌렁 밧갈양 그거는 그자 씨만 뿌려근에 밧을 갈안게. 그 멘네는.

106012 @ 아아.

106012 #1 우리 켜다리못엔 현디 밧 혼 팔백 평 짜리 이제 멘네를 갈아나신디.

106012 @ 음.

106012 #1 그거 헤여근에 쫓 피영 그 쫓 피기 전에 영 할 때는 땅 우리 막 먹어나서.

106012 @ 먹는 그거는 뭐라마씨? 이름이.

106012 #1 그거 어쨌든 간에 멘네 열매렌 헤근에 그치룩 헤근에 막 따근에이 소게 되기 전에 따 먹어난 기억이 나고.

106012 @ 음.

106012 #1 게영 그 하늬브름 영허영 붙어가가든 그것이 커근에 탁 퍼지민 헤영 한 그 멘네가 나오면 그거 따다근에 이제 영 말류와근에 이거 영영 나무.

106012 @ 예.

106012 #1 씨 발르는 나무. 그 기계.

106012 @ 예.

106012 #1 그거 가정 영영 대문 씨는 앞더레 빠지고 그거는 그 숨은 두으로 이렇게 나장 허민, 그거를 하영 헤여근에 이제 그 소게 테우는 집에 가근에 테와다근에 이불도 만들곡.

106012 @ 음.

106012 #1 그거 헤근에 그치룩 테와다근에 이제 영영 그 그것이.

106012 #2 썰 빠는 거.

106012 #1 썰 빠는 거. 그거 영영 헤근에 빼어근에 작허게 감아뒤근에 그거 가정은에 세타도 짜곡.

106012 @ 음.

106012 #1 게썰 만들영.

106012 @ 으음.

106012 #1 경헌디 그것도 그 멘네도 아무 집의나 밧 엇인 사름은 못 갈아.

106012 @ 그렇주마씨?

106012 #1 그 멘네는 기자 그냥 뭐 집에서 잇어도 돼고 엇어도 돼고 하난 거 신경 써근에 막 갈젠도 안 하고.

106012 @ 음.

106012 #1 헤신디 우리 경우는 밧이 많으니까 그 멘네 갈아근에 헤영 우리 겨울에 걸로 헤영 양말도 짜근에 신고. 이제 세타도, 세타 짜면은 이런 디가이 영 늘어난 데로 입주. 요즘처럼 입을 때 늘어젓당 입고 나면 영 쫓어들지 안 허영 이디가 쳐지민 쳐지는 대로 그 멘네는 그거는 해서 그 세타를 짤 우리가 입어봐도 그치룩 늘어지민 늘어진양?

106012 @ 늘어진양 그냥 잇어양?

106012 #1 영 쫓아들지를 아녕 목화는?

106012 @ 아까 먹는 거를 여기서 멘넛드레 이런 말은 안 험니까?

106012 #1 멘넛드렌 그런 거는 몰르고. 멘네밧디 그거 타 먹으레 가젠 헤근에 강 그 영 오무라진 그것 허영 먹으민 맛 잇어.

106012 #2 새콤하게.

106012 #1 영 현 거 해근에 타근에 계민 우리 어머니넌 그거 타먹어불면은 그 목화 그것이 안 나온덴 허멍 막 밧디 막 못 가게 해근에 해도 우린 몰르게 먹을 것이 그거 타 먹으레 그 밧틸 간 거주.

106012 @ 음.

106012 #1 갱 강 그거 타근에 영 벨라근에 먹으면은 경해도 그거 맛이 있어. 들 크름헌 맛도 잇고.

106012 @ 예.

106012 #1 그거 타 먹으면은 맛이 있어.

106012 @ 예.

106012 #1 타먹으레 텡겨난.

모시

106013 @ 웃음. 그 다음에 여기는 모시도 옷 행 입어마씨? 모시?

106013 #1 옷은 행 입어봐도 여기서 모시는 생산하지 안 해. 여기는 사. 육지서 들여왕.

106014 @ 모시는 무신 옷 험니까?

106014 #1 모시 가져근에 적삼하고 남자일 경우에는 중의바지.

106014 @ 음.

106014 #1 그 이제 팔월 여름 때 제사 때에 그거 해여근에 남자덜.

106014 @ 남자덜?

106014 #1 남자덜 중의바지 그거 허여근에 이디 영 쫓께. 그런 거 허영 입어근에 팔월 추석 때도 남자덜 그거 허영 그 저 후루메.

106014 @ 예.

106014 #1 후루메 해여근에 우의 해영케. 것도 아무 집의나 그거 못 입어서. 부자칩.

106014 @ 음.

106014 #1 부갓집덜이나 모시 해영케 해근에 삼대가 이제 하르방 아버지 뭐 그 손자 영 하민 삼대가 그거 해영케 거 입영. 우리집 경우는 하르버지 아버지 손자 영 허영 삼헌 출령은에 그거 모시 후루메 입어근에 제사 지내난 거. 그 그런 생각 그것이 이제.

106014 @ 게니까 삼춘넌 부자난 그렇게 현 거지예?

106014 #1 그런 거는 철저하게 제사 때 그 출리는 거는

106014 @ 철저헨예?

106014 #1 철저하게 그 겨울에는 이 맹지 해근에 탁 허게 이런 디 영허영 그 저 무신 거 제사 지낼 때 입는 톱. 톱. 토폅엔 하느냐?

106014 @2 도복

106014 #2 도복.

106014 #1 그거 입어근에 모자도 어떻게 이렇게 웬 거 요새 사극에 나올 때 그 쓰는 그런 거 영 써근에 이제 제 지낸. 상도 젓상도 이치룩 이제는 영 납작 젓상도 이렇게 높은 거 다리 이만은 노프게 해영 알상 영 놓고. 거기 종이. 그 종이 영 깔아근에 허는 것도 제사 지내나면은 그 종이 다 몰아근에 거기에 다 같이 보관 헛당은에 종이 폐와근에. 종이 폐와근에 허는 집도 벨로 엇어나서.

106014 @ 그렇주마씨.

106014 #1 종이도 그 당시 어렵주게.

106014 @ 맞수다.

106014 #1 우리 그 나가 그 어릴 때 친정에 영 허영 하는 거 보면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디 땡기당 그런 거를 막 이 잘 제사 때 쓰는 거. 그런 거를 잘 해근에 사오곡. 이 떡 같은 것도 하는 거는 뭐 저 뜯 집덜은 강 보민 아무 거나 허는디 우리 뉘그릇으로만 짹 허게 이만은허게 영헌 거 친떡 우의 영 놔근에 우의 또 그 솔벤 절벤.

106014 @ 음.

106014 #1 이 송편 같은 거는 못하게 하고.

106014 @ 예.

106014 #1 솔벤 절벤 옛날 식으로. 또 요만은 해근에 그 이름이 뭐라났저마는 경허고 네개방장한 거 그거 행은에 아래 친떡 놓고 솔벤 절벤 낳 거 켈 우의 농곡.

106014 @ 중계 약궤?

106014 #1 중계 약궤. 그거 이만은 노프게 해근에 경허영 지내고. 그 뉘그릇 일 본놈덜 다 문딱 썰어가면 멩텅이에 헨 다 담안 놔두난. 멩텅이로 멧 개사 아저가버 신지 몰라.

삼

106017 @ 예, 그 다음에 이제 삼, 아까 삼으로 만든 옷은 베옷?

106017 #1 삼으로 만드느 건 베옷.

106017 @ 베로는 어떤 옷 만들야?

106017 #1 베로는

106017 #2 여름용.

106017 #1 여름에 적, 남자덜은 그 남자도 적삼 이디 앞의 보겏도 두 개 지갑인가 그거 영 들곡 해근에 남자덜토 해영 입고 어떤 집들은 스나이덜 그 중의만 입영 데니멍 베겏되로 굴메로 그 물건 다 봐져도. 웃음. 다 보여도 그자 여상으로 헛주. 이제 같으면 대개나 옷주만은 그때는 무신 뺄스여 무신 거 그런 거?

106017 @ 없고. 그냥 중의 하나만 입영은에.

106017 #1 베중의 하나만 입으면은 앞으로론 베중이민 영 오그렷 허리띠를 영 매는디 두으론 다 보이주게. 두으론 다 보여. 앞으로 오그려지니까 안 보이는다.

106017 @ 예, 예. 맞수다.

106017 #1 그런 생각덜도 여자덜토 베 해근에 몸빼.

106017 @ 음,

106017 #1 여자덜은 몸빼 멘들앙 저번에 말했주마는 속곳.

도구

106019 @ 삼춘, 아까 씨 영하는 거. 건 그 이름 무신 거마씨?

106019 #1 그 이름이 뭘고? 그거.

106019 @ 뭐 씨블르는물래여 이런 말은 안 들어봣디가?

106019 #1 물래엔 해신가 어쨌든간에?

106021 @그 다음에 베클 그거는 안 들어보고?

106021 #1 베클 그거는 뭐.

106021 #2 베 짜는 건디.

106021 #1 베 짜는 건디 그거는 기자 영허영 소문만, 귀소문만 들엇주 우리가 직접 그런 거는 해보지 아녀고.

106021 #2 표선리 엇엇어.

106021 @ 표선리 엇엇어예?

106021 #1 우리 두린 때도 보민 베나 미녕 그튼 것도 장사허는 나 많은 어른덜 육지 가근 그런 거 사근에 입엇주. 직접.

106021 #2 군데군데 포목집덜 잇어.

106021 @ 아, 어릴 때도예. 이 표선은 옛날부터 잘 살앗네예?

106021 #1 표선이 그치록.

106021 #2 장서덜을 막 해난.

106021 #1 표선인 폭도도 엇고.

106021 #2 저 장사허는 점방 보는 사름들이 직접 부산 이제 나가서 해여 오랑. 호야, 호야.

106021 @ 예, 예.

106021 #2 이런 것도 말여 혼 트럭씩 사당은에 놔뒀당 풀고.

바느질

106022 @ 게도 삼춘, 바농질은 해실 거 아니라예?

106022 #1 우리 바농질 막 헛주.

106022 @ 어, 바농질 허젠 허민 필요헌 도구들은 어떤 거 잇수과?

106022 #1 아, 도구는 바농질 하젠 허민 뭐 가위 잇어야 댜고, 또 바늘이 잇어야 댜고 찢이 잇어야 댜는 거 아니?

106022 @ 으.

106022 #1 흰은썰, 줌진썰, 검은썰, 빨간썰 썰은 다양허게 그 당시에도 색깔은

잇었어. 뭐 흰옷 허젠 허민 흰쌀로 허곡, 빨간 건 허젠 허민 빨간쌀로 허고.

106022 @ 으.

106022 #1 그치록 해근에. 겨영 우리 나 딸 성제주마는 두릴 때 그 한복 같은 거 다 만들어근에 입져근에 학교 보내곡 다 해나서.

106022 @ 삼춘이예? 음.

106022 #1 대충 다 이제 돈 드는 거니까 이발도 집에서 나가 다 이발 해근에 보내고. 이발소에 강 이발 안 해봐서. 똥덜.

106022 @ 똥덜예? 집의서 직접 다 해부런. 팔방미인이라나신게.

106022 #1 그때는 그치록허영 허고.

106022 @ 예.

106022 #1 이 미싱 하나만 이시면은.

106022 @ 예.

106022 #1 다 바느질 입지명 다 허곡. 사젠 하민 돈이니까.

106022 @ 예. 맞수다.

106022 #1 큰옷 다 찢라근에 족게 해영 쫓여근에 입히고 그치록허명.

106023 @ 그 바느질 방법도 으라 가지 잇일 거 아니라예?

106023 #1 데침하고,

106023 @ 데침.

106023 #1 데침이엔 현 거는 미싱으로 한 것처럼 그거 줍는 건 데침. 그냥 뭐 수왕수왕하는 거 하고.

106023 @ 예.

106023 #1 시끄는 거. 널른널른하게 시꺼근에 또 그 이제 그보단 쪽게시리 영 해근에 시, 저 쫓르게시리 하는 거 영 이치록 이치록 하는 거고.

106023 #2 감추는 건 바느질.

106023 #1 감추는 건 요거 기지고 이거 기지고 두 군데 영영 허명 감추명 이제.

106023 @ 감추는 거고?

106023 #1 시끄는 거이 쥔 빠르고 그 다음은 감추는 것이 빠르고 데침이 쥔 미싱처럼.

106023 @ 음,

106023 #1 미싱.

106023 @ 그 다음에 듬섬듬성 주는 거? 이불 같은 거?

106023 #1 시끄는 거.

106023 @ 거가 시끄는 거? 호는 건 엇입니까? 호는 거는 뭐렌 해?

106023 #1 호는 것이 지금 보난 흐뎡 시끄는 것보단 줍질게 하는 거.

106023 @ 아, 그게 호는 거예, 예?

옷 종류

106024 @ 남자옷 종류는 어떤 거 있어나수가?

106024 #1 그 옛날에 남잔, 남자 일하는 사람은 그 미녕, 미녕 해근에 이제 점 뱅이 멘들곡 우의 적삼 멘들앙 감들여근에 그거를 입어근에 주로 농군덜이 일허곡. 놀 때고 기자 옷이 많이 없으니까 그거 입영 놀곡. 또 감옷 입어나민 땀 옷 입지 못허여.

106024 @ 음, 건 무사?

06024 #1 축축허영. 감옷은 입으면은 피부에 감옷 다도 스락헨 씨원한 기가 있 는디 땀 건 입으민 막 칙칙한 기가 나니까 집의서 놀아도 감옷. 베. 부자칩들은 베 로 해근에 다 저 남편덜 그 적삼이나 이제 그 흐끔 잘 사는 집들은 영 반바지.

106024 @ 음.

106024 #1 이, 바지라도 기자 무슨 뚝 바지 이제 바지처럼 가다 내우지 아녕 바 지처럼 쫄르게.

106024 @ 예.

106024 #1 경해근에 감들영 입어근에 집의서 놀멍 입어근에 허고.

106024 @ 정월멩질 때는 남자들 무신 옷 입언?

106024 #1 정월멩질 때는 게메 그 우리 경우에는 그 도폭 그런 거 입어근에 제 쏘굽에 뒹.

106024 #2 후루메 입영 허주. 겨울 후루메.

106024 #1 저 무신, 중의 바지 그거 이제 광목으로 한 거 쏘굽에 입영.

106024 @ 음.

106024 #1 또 완전히 저 그 부자칩 아니면은 그자 영 후루메 입어근에 경허곡. 부자칩은 도폭 그거 입곡 모자 이런 거 쓰곡?

106024 @ 모자를 유건이렌 험니까?

106024 #1 유간인가 무시건가 옛날 우리 하르버지네 이제 사진도 막 있어.

106024 @ 아, 집에? 옛날 사진.

106024 #1 정동화리에 영 불살랑좌근에 그디 통대 영 정동화리에 딱 허게 영허 영 짚어근에 그런 사진덜.

106024 @ 하르버지 사진 있어예?

106024 #1 큰 ㄱ지스 작은 고지스 비석 다 잇주마는. 우리 옛날 하르버지네 옛 날 베슬.

106024 @ 음, 알아수다.

106024 #1 증조부.

106025 @ 그 사진 옛날 결혼헿 때 사진이영 다 보쿠다. 그 다음엔예? 여자옷은 어떤 거 남자 옷은 그런 거 잇고?

106025 #1 여자옷은 영 해근에 요만은 막 길게도 안 허고 요 정도 해근에 그 여자 옷은 주로 집의서는 몸뻘.

106025 @ 예.

106025 #1 미녕 가져근에 몸빼나 광목 가정 몸빼 그거 해근에 그자 입곡. 또 감 들영 입고, 검은물 주로.

106025 @ 아아.

106025 #1 주로 검은물 들여근에 검은 그 봄빼를 입어. 게난 버문 타카부덴.

106025 #2 외출용으로 통치마라고 잇어나지 아녜수가? 통치마.

106025 #1 통치마. 그거는 저 옥영목, 옥영목 그거 즘질게 해진 흐뎡 곱닥헌 거 주. 그뎡 그 시절에.

106025 @ 예.

106025 #1 그거 가져근에 통치메 요만은 길게 해근에 주름 해근에 어깨 다 어깨에 영 들아근에 입어근에 허고. 우에는 적삼 입고. 적삼.

106025 @ 음, 우의는 적삼 입고예, 삼춘 그리고 막 이 통이 몸빼보다 큰 거 잇엇잖아예?

106025 #1 중의, 중의.

106025 @ 중의? 굴중이 이런 거?

106025 #1 그것가 굴중이.

106025 @ 여자는 굴중이렌 허는데 남자는 굴중이렌 안 허지 안 험니까예?

106025 #1 남잔 것 그 점벙이 바지.

106025 @ 바지. 으, 여자는 바진 안 입어?

106025 #1 몸빼.

106025 @ 몸빼예? 굴중이 입영 치마 입는 거우까?

106025 #1 굴중이는 입을 때는 치마 안 입곡. 굴중기느이 이디가 이만이 넓어. 인치룩 인치룩 접어근에 다님 치, 다님 딱 즐라매근에 경해근에 저 여자덜은 경허곡. 또 흐뎡 그것이 넘언 신식 웨난 몸빼.

106025 @ 음.

106025 #1 이디 고무도 들고 우의도 고무 들앙 몸빼 입을 때는 흐뎡 멋질 때라.

106025 #2 일본시대.

106025 #1 굴중기 입을 때난.

106025 #2 옛날에 일본 시대 봐서 그 몸빼들 입어서 일 허렌 허니까 막 거부해 나서.

106025 @ 예.

106025 #2 그런 거 알지예?

106025 @ 예, 예.

106025 #2 거부허연 안 허니까 별 주면서. 그렇게 헛는데 입어보니까 괜찮으니까 그 다음부터 싹.

106025 @ 요즘도 몸빼덜 다 입영은예예?

106025 #1 요새는 집의서 만들지 아녜주마는 다 시장에 가면은 오천 원씩. 오천 원씩 그 해근에 집에덜 주로 입어. 막 요새 붉은색 푸린색 막 그 한 것덜. 옛날에는

딱 그런 거는 전연 없고 단색. 흰 거 아니민 갈 몸빼 검은 몸빼 그거.

106025 @ 기다예? 아이들 옷들은 특이한 거 잇었수가?

106025 #1 아이덜 옷은 옛날에 우리 아이덜 클 때에 해근에 키울 때, 우리도 저 그, 그 시절이나 우리 아이덜 국민학교 때나 마찬가지로.

106025 #2 조금 달라져서, 조금.

106025 #1 조금 달라전. 저고리, 겨울에는 저고리 행 입지곡.

106025 @ 음.

(중략)

106026 @ 경행 이제 하고. 그 아이들 옷 헐 때 애기 태어나면 입지는 옷 잇지 예?

106026 #1 그거 저 거세기. 암만 겨울에라도 애기옷은 베로 해근에 저고리.

106026 @ 음.

106026 #1 이제 붓옷이엔 해근에.

106026 @ 붓옷.

106026 #1 붓옷이엔 해근에 베로 해근에 애기덜 냉중에 커도 등도 근지럽도 아 녀고 이제 몸에 무슨 그런 피부병 엇넌 해근에 베 가정은에 그 저 저고리 맨들아근 에 이만은뜨게 헐에 그거 해근에 입정.

106026 106026 @ 음, 그게 붓옷.

106026 #1 그것이 붓옷.

106026 @ 붓옷 입져나면 애기들도 치메저고리해영 입지고?

106026 #1 치메 저고리 입지곡. 그 스나이덜은 어른 쓰봉 ㄱ치록 다 만들멍 입 지고. 우리 아덜도 다 나가 자갯도 짱 입지곡 독고리 그 썰로 행 게썰 다 사다근에 막 밤 열두 시 혼 짜근에 입히곡 상 입지곡.

106026 @ 그 다음에 애기도 커 가면 영 강알도 터진 옷도 입지고 허지 아넵니 까예?

106026 #1 강알터진옷 입젓주게.

106026 @ 그건 무신 옷이렌 허여? 옛날은?

106026 #1 그건 무신 거렌 해신고. 애기덜 입질 때에. 아, 오줌 똥 그거 옷에 싸 카부텐 앓이민 앓이민 똥허고 오줌허고 베갯디레 나오게시리 영 저 거세기 그거 헤 연 터지게 입져나신디 그 옷 이름 알아지쿠과?

106026 #2 웃음.

106026 @ 웃음.

106026 @2 다른 디 가민 그냥 강알터진옷 험니다.

106026 #1 터진, 강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106026 @ 경허영 허는 거예?

106026 #1 그, 그 옷을 주로 입져나서. 애기 때는. 누게 그 샷바도 없고 무시거 허난에 저 밤의 짙은 이만은하게 나 경우는 이만은허게시리 미녕해근에 그 이제 두

더기.

106026 @ 예, 예 예.

106026 #1 뚜데기 그거 만들어 그디 애기 녹정 이쪽 거 오그령 낫당 그거 몰르 게시리 직접 안 당게시리 헤영 그치룩허멍 헤근에 헛당 뒷날은 그냥 널영 몰류왕 헐 때도 잇곡 빨 때도 잇곡.

106026 @ 예, 바쁘난예, 예?

106026 #1 똥 싸면은 그거 빨주마는 똥이나 안 쌀 할 때엔 기냥 그거 오줌 막 젖인 것도 그냥 널어근에 그냥 말류왕은에 그럭저럭 허멍. 그자 그 시절엔 그런 식 으로 헨예.

106027 @ 맞수다. 다 경 살앗주게. 게난 삼춘, 옷 만드는 과정 하나만 헤보게 예? 만약에 이제 저고리를 만든다, 저고리 혼번 몰라봘서. 몰르는 것부터 어떤 순서 로 해서 저고리를 만드는지?

106027 #1 그거 저고리 종이 이시믄 나가. 이거 하나 영허영.

106027 @ 찢이카?

106027 #1 찢이면은, 이것이 애기 이제 옷이엔 하면은 이거 영 헤근에 앞판 뒤 판 아니?

106027 @ 예.

106027 #1 앞판 뒤판이민 요거 이렇게 오그려근에 하면은 이제 앞에는 흐뎡 길 게 영 헤근에 허곡 뒤에는 흐뎡 짧르게. 앞에는 길게 험시닌 하면은 영 사면은 애 기가 흐뎡 앞더레 영 하민 앞뒤를 맞추젠 하면은 앞에 쪼끔 길게를 하는 거라.

106027 @ 음.

106027 #1 길게 헤근에 이거 가워 이시면 이거 나 다 만들 건디 이렇게 헤근에 이거 앞판은 요렇게 헤근에 영 헤근에 딱 하게 영 꿇곡. 이건 앞의 이거 영.

106027 @ 목 허는 디는 무신 거렌 험니까?

106027 #1 이거 기자 목 돌람젠 하는 거주게.

106027 @ 목 돌르고.

106027 #1 영 돌라근에 앞으로 이거 영 꿇은 거는 앞섭.

106027 @ 앞섭.

106027 #1 단추 드는디.

106027 @ 어.

106027 #1 단추 드는 디 두이는, 두이는 그자 이디 이디 딱 이레까지 닿지 아녀 게시리 쪼끔 이렇게만.

106027 @ 둥그스름하게.

106027 #1 둥그스름 하게 꿇어근에 허곡 기지 이시면은 율로 요레 헤근에 율로 요레는 소매 부짱.

106027 @ 소매 부짱.

106027 #1 일로 이레 소매까지 쥐부는 거라이. 마지막에는 오그려근에 박아놔근

은에.

106027 @ 예.

106027 #1 그축룩 멘들앙 단추고망 만들앙 옛날은 단추 엇일 땐 벌므작.

106027 @ 예. 벌므작.

106027 #1 벌모작 그거 허영.

106027 @ 벌므작.

106027 #1 옛날엔 단추도 어려와낫주게.

106027 @ 예.

106027 #1 그거.

106027 @ 이렇게 돼잖아예? 옛날은?

106027 #1 계민 이 두이도 흥끔.

106028 @ 이렇게 돼잖아예? 영 허믄. 삼춘, 여기는 이름이 무신 거라마씨?

106028 #1 앞섭, 앞섭,

106028 @ 여기는?

106028 #1 소매. 소미.

106028 @ 제주도 말로 소미? 여기는 이렇게 헤갓고예?

106028 #1 이진 앞섭.

106028 @ 이게 앞섭.

106028 #1 요긴 목, 목 돌람젠 그때 영 헨에.

106028 @ 목 돌람쩌. 그 다음에 이 앞섭 말고 여기 판 헵니까? 앞판 헵니까?
이몐?

106028 #1 기자 앞판이주. 뒤편은 뒤편.

106028 @ 뒤편은 뒤편. 예, 이렇게 하고. 이 곳부분은?

106028 #1 곳동.

106028 @ 이거는 곳동. 요디를 뒤편 헵니까? 여기를.

106028 #1 거기, 거기는 저갱이.

106028 #2 저갱이, 저갱이.

106028 @ 여기는 저갱이. 저갱이렌 허는 거라예? 예, 알아수다.

106028 #1 몰르커라.

106028 @ 그 다음에 바지 혹시 이렇게 허면 이실 거 아니우파예? 남자 바지 이
렇게 생기곡. 남자 바지 이름 명칭도 알아지쿠과?

106028 #1 정뱅이.

106028 @ 정뱅이다 허면 이 부분은 뒤편 헵니까? 여기는.

106028 #1 그 부분은 무시거옴 굴아낫저마는 우의.

106028 @ 그 다음 이런 거는 뒤편 헤? 이런.

106028 #1 그디는 이제 그, 그 밑에는 남자 것덜.

106028 @ 음.

106028 #1 정뱅이, 정뱅이는 알아지는데 그 아랫 것덜은 그.
 106028 @ 모르커라예?
 106028 #1 가달엔 해나신가. 어쨌든간에.
 106028 @ 그냥 가달. 가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걸 여자 치마는 이렇게 생기잖아예? 여긴 뭐우과?
 106028 #1 허리. 이것도 허리.
 106028 @ 허리 맞수다. 허리 영 허면 허리 무끄는 끈이 잇일 거 아니라예? 이걸 뭇렌 해?
 106028 #1 끈. 끈. 저 거시기. 끈이엔 안 허곡.
 106028 @ 허릿곰?
 106028 #1 곰, 곰.
 106028 @ 으, 무슨 곰?
 106028 #2 허릿곰.
 106028 #1 허리때엔 해근에 그냥 곰이엔 해나서.
 106028 @ 허리띠예? 허리띠. 이 부분을 이런 디?
 106028 #1 이거는 치마폭이주게.
 106028 @ 치마폭?
 106028 #1 여기 영허여근에 여기 기냥 민짜 해근에 치마가 뒤편 게 아니고 여기 영영 깃어근에 주름.
 106028 @ 이거 주름.
 106028 #1 주름 해근에 허리 돌아근에 해근에 영 해근에 벌뭇작을 들던가 경아녕 허리띠로 즐라매던가. 이거 그냥 여자덜은 그때에는 이치록 해근에 저 어깨말이.
 106028 @ 예, 어깨말이.
 106028 #1 어깨말이 헨에 어깨말이에 요거 부찌근에 기냥 입어근에 이런 앞의 벌뭇작 영 헨 들양 입어나서.
 106028 @ 벌뭇작 헨예?
 106028 @2 치메깅은 어디우과?
 106028 #1 으?
 106028 @2 치메깅?
 106028 #1 치메깅 이디.
 106028 @ 여기는 치메깅. 그 다음에 이제 보선 같은 경우?
 106028 #1 보선.
 106028 @ 이렇게 뒤편아예?
 106028 #1 으.
 106028 @ 게문 보선 허면 여기는 뭇렌 해? 입구는?
 106028 #1 입구는 보선 목.

106028 @ 보선 목.
 106028 #1 이진 볼.
 106028 @ 어디? 보선볼.
 106028 #1 여긴 뒤치기
 106028 @ 이거는 뒤치기. 그 다음에 여기 영허영 바넵으로 주지 아녜니까예?
 이 아랜 뭐렌 해?
 106028 #1 그 그디 그자 볼엔 해. 볼.
 106028 @ 볼.
 106028 #1 보선 코쟁이.
 106028 @ 이진 보선 코쟁이. 그 다음에 우리 버선 신으면 이렇게 웬착 오른착
 구별허젠 이렇게 잇어예? 이진 뭐렌 험니까?
 106028 #1 계난에 이 보선은 이거 저 웨보선이 아니주게.
 106028 @ 예.
 106028 #1 겹을 하느디 겹할 때에 오른쪽에 거는 이디 썰밥이 오른쪽드로 오게
 시리 만들고 웬쪽 거는 웬쪽더레 가게시리 해근에 그 썰밥 보명 이제 그거 오른쪽
 인지 웬쪽인지 해근에 신는 거라.
 106028 @ 계난 그 부분을 이름을 뭐렌 해?
 106028 #1 계난 이디가 무시거엔 곶아낫저마는.
 106028 @ 삼춘, 수눅?
 106028 #1 수눅인가. 무신 거엔 곶아나서.
 106029 @ 곧기는 해신디 잇어불언예? 단추 종류는 어떤 거 잇엇수가?
 106029 #1 옛날에 단추가 어려왔주게. 단추가 요새 그때 단추는 그 소라껍데기
 해근에 단추 만드니까 그 와이샤쓰 단추.
 106029 @ 예.
 106029 #1 그런 거는 잇어도 이제 그 기냥 요새ㄴ찌 널어지는 단추는 볼 수가
 엇어.
 106029 #2 단추는 이 저 제주시보다 표선이가 훨씬 문저 발달 단추공장 잇언.
 106029 #1 단추 공장 잇어난. 소라 껍데기 고망 베롱허게 그거 단추 해근에.
 106029 #2 그 전에는 이런 디 아까 말헌 거 무신 거?
 106029 @ 별ㅁ작.
 106029 #2 그걸로 허다가 단추공장이 생기니까 다 단추로.
 106029 #1 계난 그거 소라껍데기 가정 기계로 행은에 흐끔 영 크게 요만은 딸
 랑 하면은 그런 디 이런 디도 영 돌아근에 저 이제 단춧구멍.
 106029 @ 예.
 106029 #1 단춧구멍 만들영은에 막 썰밥 늘어지지 아녀게 못앙.
 106029 @ 음.
 106029 #1 경 해근에 단추로 하고. 경 아녀민 콧걸이.

106029 @ 예.

106029 #1 영 해근에 이레 기지를 꿰어근에 기지를 꿰어근에 양쪽으로 해근에 이치룩 다 오그려근에 영 겹쳐근에 다 텅침. 그 이제 감추왕.

106029 @ 예.

106029 #1 감추와근에 그거 해근에 걸로 고리를 만들어근에 치마레 부쳐근에 그 이젠 혼쪽엔 단추 부치곡 혼 쪽엔 고리 부치곡 해근에 근치룩해근에.

106029 @ 계난 단추 전의는 전부 별ㅁ작.

106029 #1 별ㅁ작.

106029 @ 음, 별ㅁ작예?

106029 #2 나 어릴 때지만 나 우린 애월이난 고향이.

106029 @ 예.

106029 #2 경혜연 이리 넘어왔는데 하르버지네 할머니네 보민 단추란 것이 었어서. 단추공장이 잇언에.

106029 #1 별ㅁ작 다.

106029 @ 예.

106029 #1 그때는 이 하르방덜토 다 별ㅁ작.

106029 #2 별ㅁ작.

106029 #1 적삼에.

106029 @ 적삼에예?

106029 #1 다 별ㅁ작 해나신디 그 우리 경우는 일본 사름이 완에 그 단추, 단춧공장.

106029 @ 음.

106029 #1 단춧공장 해난에 그 소라, 소라덜 그 소라 이제.

106029 #2 통조림공장.

106029 #1 통조림공장에 가근에 소라껍데기 그거 단춧공장에서 거 사다가 어쨌든 지네끼린 풀고 사고 해실 테주.

106029 @ 계니까.

106029 #1 그거 해다근에 그거 영허영 빈찍빈찍한 거는 베겏되레 허곡 그 더들 더들헌 건 안트레 가게 혜영 거 이제 동글락동글락허게 딸르는 그거 ㅁ정 삭허연 우리 구경 간 보난 큰 건 큰더레 헨 하고 죽은 건 죽은더레 또 양쪽으로 그 가운디.

106029 @ 예.

106029 #1 고양이 쪼꿀락허게 바농 닳은 걸로 석허게 딸란에 그 하는 거 이제 그 일본 사름덜이 우리 이딘 한국 사름덜이 아니고.

106029 @ 예.

106029 #2 계난 제주시는 몰라도 서귀포도 단추공장이 었엇났는데, 표선리는.

106029 @ 표선이 빨리 시장도 형성이 돼고예?

106029 #2 통조림공장도 그 당시에 잇었으니까.

106029 #1 통조림 공장. 통조림 공장에서 전복허고 이제 그 소라를 받으니까 이제 그 껍데기 해근에 단춧구멍, 이제 단추를 만들젠 허난 이 표선이레 완에 단추공장을 한 걸로 우리가 생각해져.

106029 #2 경허고 또 하나는 우물. 두루박통 전에는 봉천수 먹고 기자 영 가두와서 물 나는데 막 초신 신은차 질어오곡 헛는데 여기는 그 공장이 생김으로써.

106029 #1 물통.

106029 #2 물을 허게 돼니까 말이야, 이런 지하 판에 경헨에 올리멍 먹언. 여기 그런 것도 서귀포 우리 어린 때 강 보면은 춤 서귀포는 물이 많이 나니까 통 만들어서 먹고 헛는데 이딘 전부 두레박으로.

106029 #1 드레박 먹기 전에는 드레박도 우리 그 시절에는 드레박도 어려완에 드레박 무시거 드레박 그 만들 것이 잇어사주. 게난 일본 사름덜이 통 영 한 거 그 양철 닳은 걸로 행근에 그것에 웬장 같은 거 행 앙 이디 왕 하민 이것이 드레박, 이것이 드레박이민 나무.

106029 @ 예.

106029 #1 요만한 나무 양쪽으로 췌뭇, 췌뭇 이거 여기 끈 돌아근에 그치록. 이것도 아무나 드레박 빌레 막 다니곡 해서. 게민 빌려주는 사름은 잇고 안 빌려주는 사름은 안 빌려줘.

106029 @ 음.

106029 #1 것도 무사냐 허민 노꼇 때문에. 노꼇이 산디찍 그거 해근에 던드렁마께 해근에 그거 던드렁 놔근에 그 마께로 막 해영 북삭하게 피와근에 해서 그 노꼇을 꼬아지기 때문에 그거 아정 아무나 스나이 엇인 집은 그 노꼇 잘 꼬지 못하주게.

106029 @ 예예.

106029 #1 게난 그거 가정 노꼇 하는 때문. 이 노꼇 끊어진덴. 노꼇 끊어진덴 안 빌려쥔 자기네만 쓰민 오래 쓸 거니까 아니 빌려 준 거.

106029 @ 예, 예.

106029 #1 그런 것이 잇어나서.

재단과 염색

106030 @ 삼춘, 그리고 옛날 미녕 강 상 오면 그냥 바로 옷을 못 만들지 아넵니까예? 옷 만들젠 허면 그 옷감 손질은 어떤 식으로 해수가?

106030 #1 그냥 우린 미녕 사오민 그냥 옷 만들어서.

106030 @ 그냥 만들어. 뱃에 발리거나.

106030 #2 이거 허는 거.

106030 #1 다듬이질 허는 거는 멍지. 또 광목 것도 풀 해여근에 거 막 반들반들 허게 다듬는 게 아니고, 다리미 해근에 그거 다려야 그 꾸굴꾸굴 한 거를 폐와질

건디. 다리미 엇인 집털은 그걸로 저 마께로 두드려근에 풀 헤영 하면은 마께로 두드령 그 오골오골한 거 다 폐와지게시리. 경 헤영 저 헤나서. 그 멧지 ㄴ치록 막 힘 들게 하지는 아녀고. 그자 그 폐와질 정도로만 두드려근에.

106030 @ 게문 멧지 손질허는 거 곴아줍서? 멧지는 어떤 식으로 손질하는 거.

106030 #1 멧지는 멧지 헤근에 멧지는 이 광목하고 멧지보단 멧지는 풀을 뒤흔게 해주게.

106030 @ 예.

106030 #1 압게 하면은 멧지에는 그 풀이 안 사.

106030 @ 음.

106030 #1 게난 풀을 뒤흔게 행 농경은에 영 접짚앙 접진 거를, 접진 멧지를 도고 리에 놔근에 영영영영 쭈물러. 곴고로 풀이.

106030 @ 가게.

106030 #1 가게. 영영 허영 쭈물러 놔근에 탁허게 너무 썰게 하면은 멧지가 흔 쪽으로 그 썰이 미어지기 때문에 솔솔 털어근에 줄에 영영 널어근에 반쭈물러 몰라가면은 그 이제 흥대.

106030 @ 응. 흥짓대.

106030 #1 흥대에 감아근에 그 양쪽으로 헤근에 이제 영허영 이것이 흥대엔 허민 요쪽 사름은 이쪽 심곡 이쪽 사름은 이쪽 심곡 양쪽으로 심어근에 영 돌리멍 그 거 이제 저 마께로 두드리는 거라.

106030 @ 흥대에 감아근에.

106030 #1 경 하면은 이치록 오그려놔근에 이거를 두드려근에 이제 멧지 폐와지게 하면은 이 그릇이 나기 때문에.

106030 @ 아아.

106030 #1 그릇 나기 때문에 나무 흥대에 가면은 뱅뱅허게시리 이치록 몰아놔근에 이치록 두드리면은 이런 저 오그라진 그것이 엇이 딱 일찍선으로 짝. 알고 보면 옛날 사름들이 머리 영리해서 그런 거 다.

106030 @ 요즘 잘 다리지도 아녕 입는디?

106030 #1 요새는 다리는 옷은 잘 헤 입지도 아녀신디.

106030 @ 삼춘, 염색 하영 헛지예? 옛날에. 염색은 무신 염색 해봬디가?

106030 #1 우리는 저 기자 주로 이제 옛날엔 농사 그 할 때도 감옷 집의서 놀 때도 감옷이난 감옷하고 꺼문물.

106030 @ 게문예? 감옷은 언제?

106030 #1 가을에.

106031 @ 어, 그 과정 한번 곴아줍서. 감옷 염색 혼변 해봬서?

106031 #1 감옷은, 감나무에서 토종감이라 뒤흔. 그 단감은 감이 들어지지 안 허여?

106031 @ 토종감은 이름이 뭐?

106031 #1 토중, 토중. 풋감.

106031 @ 음.

106031 #2 풋감.

106031 #1 풋감 요만씩 한 거.

106031 @ 예.

106031 #1 그거를 이제 가을 뒤편은 이만이 클 거 아니? 크면은 그거 다 따근에 경혜근에 그거를 이제 방에혹에서 다 뺏아.

106031 @ 음.

106031 #1 즘질게시리 문딱 이제 뺏아근에 방에혹에서, 돌방에혹이. 돌로 방에혹이 이신디 거기에서 나무 그 거시기 그 방에에 그 뺏는 그 무시거라. 그것이 아 이름 무신거여마는. 그 그걸로 막.

106031 @2 방엿귀.

106031 #1 방엿귀. 그걸로 혜근에 막 즘질게 뺏아근에 그거를 이제 물 쪼끔 넣이.

106031 @ 음.

106031 #1 그냥 물 아니냥 감으로만 막 허민 너무 뒤편 그 옷이 영 꺼꺼지는 때문에 물 쪼끔 놔근에 그 이제 도고리러레 그 감을 혜근에 그 미녕이나 그 광목이나 감 들이기 전에 물 적저근에.

106031 @ 예.

106031 #1 물 적저근에 짜근에 탁탁 털영 그 감물을 막 들이는 거라. 감물 들이면은 그 감물 처음 들일 때는 감색깔까지 흐뭇 픔리롱, 픔린 색깔 나신디 뱃데 조쩍 짹하게시리 마당에 깔아놔 마당에 짹 널어놓민 그것이 밤의도 널영 내불민 이슬에 발고 또 아침이는 물 적저근에 넣고 낮의 물 적저 널곡 여러 번 혜가민 빨간 색깔.

106031 @ 음.

106031 #1 빨간 색깔이 나기 시작하는 거라. 감옷이. 경허민 그거 허영 완전히 이제 그거는 그 광목, 그 옥영목 같은 거 얇은 거는 기지에 물, 그 감옷을 들여근에 옷을 만들지마는 이제 그 뚜꺼운 미녕 같은 거는 감 들여근에 옷 만들젠 옷을 만들젠 허민 썰밥이 너무 뚜꺼와근에 미싱에 그 넘어가지를 아녀.

106031 @ 예예.

106031 #1 게난에 옷을 만들어근에 감물 들이는 것도 잇곡, 기지가 얇은 거는 기지로 이제 감 들여근에 그거는 이제 썰밥이 뚜껍지 아녀니까 이제 광목으로 기자. 옥영목 그때. 옥영목은 폭이 이만은 널르곡 미녕은 폭이 요만이뱃기 안 허주게.

106031 @ 아아.

106031 #1 경허난 미녕은 하젠 하면 만약에 이제 이 정뱅이 중의를 만들젠 정뱅이를 만들젠 허민 앞이 하나 두이 하나 두 폭.

106031 @ 음음.

106031 #1 두 폭으로 하고 광목은 영 오그려근에 두 폭 썸 처근에 말령 허고.

106031 @ 계난 만드는 것도 옷감에 따라 똥난 거예?

106031 #1 음, 옷감에 따라, 미녕은 경 아녀도 뚜꺼운 뚜꺼운디 감깁장 들여놓면은 감 들영 감영 말리민 것이 땀땀해져. 계민 미싱으로 만들젠 허민 미싱 썰 딱 짝 끊어지멍 넘어가질 아녀. 주어지질 아녀.

106031 @ 예에.

106031 #1 경하는 때문에 그 감 들이지 아녀근에 옷 만들어 놔근에 들이는 지.

106031 @ 음.

106031 #1 또 기자 기지로 이제 물 들여놔근에 지금 이제 텔레비 나온 거 물들이는 거 다 옥영목 아니민 광목 그거. 이만큼 넓은 거.

106031 @ 음.

106031 #1 미녕은 폭이 요만큼벧긔 은 하주게.

신발

106032 @ 알아수다. 이젠 신발. 웃음.

106032 #1 신발 우리, 웃음. 우리 때는 이제 뭐 조리, 초신, 게다. 웃음.

106032 #2 계난 우리가 저 국민학교 이학년 때 해방이 됐는데.

106032 @ 예.

106032 #2 일학년 때부터 조리 이녁대로 삼으라고 해서.

106032 @ 예.

106032 #2 경혜연 삼아서 다녀났고. 또 그렇지 않으면 게다. 비온 날에.

106032 @ 예.

106032 #2 비온 날에 게다 신영 허다가 눈 온 날 쫘에 게다 허영 허민 밑에 눈이 쌓영 넘어정 밭목도 다치곡.

106032 #2 초신은 부모덜이 해주니까 허곡. 조리는 이녁대로 삼고.

106032 @ 그 옛날 비 올 때 어른덜은 무신 신 신엇수가?

106032 #2 남신. 남신.

106032 #1 나막신. 나막신.

106032 #2 남신. 남신이라고.

106032 @ 음.

106032 #1 남으로 만든 신 나막신엔 해낫주. 그때.

106032 #2 그디 표선리 가시리.

106032 #1 남신, 남신.

106032 #2 가시리 사름인디 그 하르방인 표선리 오랑 남신쟁이. 남신 신 팡은에 꼭는 사름이 잇어났수다.

106032 @ 음. 남신쟁이렌 행예? 아아.

106032 #2 남신쟁이. ** 아방이 남신쟁이.

106032 #1 경 헤나신가.

106032 #2 그 하르방 방 영 대면은 그래도 영 뭐냐 솟으로 그렁은에 만들민 틀림없이 맞추왕.

106032 #1 솟으로 그뻔 솟.

106032 #1 솟으로 만들주. 무신 ** 연필 그런 것도 그.

106032 #2 그 남진 처음 신으민예, 하루만 신으민 뒤치기 다 뺏겨져버.

106032 @ 음.

106032 #2 막 경 이디 아프곡. 경허는데도 비온 날에 거 신으민.

106032 @ 예, 경허고 삼춘도 신어보고?

106032 #2 신어보고.

106033 @ 아, 가족신은 여기는 안 신읍니까?

106033 #1 가족신은 신어보진 아녀서.

106033 @ 가족신은 안 신어봤예?

106033 #2 그 하르방은 족제비 잡아근에 겨울에는 이녁 신 영 만들영. 털은 안 트레 들어가게 허고.

106033 @ 어어.

106033 #2 경허영 멋쟁이 하르방인디 경헤낫는데. 우리는 안 신어보고?

106034 @ 음, 안 신어보고예, 나막신 그 파는 거, 남신 파는 거 어떤 식으로 파난 거 기억납수가?

106034 #2 아, 그거 파는 기계가 이렇게 쥔 것이 이거 **인데 안네, 그 안네 거 이렇게 다 파네더라고 핑장히 어려와.

106034 #1 손으로.

106034 #2 손으로.

106034 #1 뭐 기계로 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끝 닳은 걸로 헤근에 영영영 막 툫아내는 거라.

106034 @2 국췌.

106034 #2 음, 그걸로 해서 안네서 툫아나고 뺏겼된 것은 코쟁이 이렇게 만들어.

106034 @ 남신 코쟁이예? 아.

106034 #2 그거 만들영 허면 몇 잇어나신데 요샌 신 잇었으면 그거.

106035 @ 아, 혹시 초신도 직접 삼아봔디가?

106035 #1 삼아봔주 우리.

106035 #2 초신.

106035 #1 초신, 어둑어지민 우린 나가 커온 땀 스나이나 마찬가지라나서. 그 산디찍 헤근에 그 노 꼬아근에 허리에 졸라매여근에 또 이레 이제 초신 그 멘드는

또 끈 이디서 줄라메영 영 해근에 그 아파 노꼴이 석 줄인가 녀 줄 해근에 그것에 막 여끄멍 짜근에 저레 강 싹 잡아텡경 흐로쌍은에 어떻게 해영 멘들아난 거.

106035 #2 초신, 초신 초신허는 굶은 그것은 일로 허고, 초신 그 깨는 그것은 거 무신 거. 무신 거에 허느니, 무신 거?

106035 #1 송곳?

106035 #2 어웁, 위웁 무시거 즘질이 만들영 그레 만들영 꿔어서 홀트는 거주 게.

106035 @2 미마씨, 미?

106035 @1 미빠쟁이?

106035 #1 미빠쟁이.

106035 #2 그걸로 해서 그걸 꼬앙. 여러 개 쪽 허게 해놓고 굶은 것에 꿔어가지고 호로짜근에 만들었는데 걸 만들영 신어서 우리가 학교 갔다. 비 오면은 초신이 젓으카부텐 맨발로 오란 초신은. 웃음.

106035 #1 초신은 이런 디 허리띠 옆의 줄라매든가 어떻 하든가 해영은에 와나고.

106035 #2 그렇게 해나서. 초신도 우리가 무신 잘 만들어집니까?

106035 #1 예, 흐루벳기 못 신어. 초신 멘들민.

106035 @ 아, 웃음.

106035 #2 국민학교 경헌데 숨씨 잇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계시고 허면은 그 잘 만들영 신영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

106035 #1 곱닥허게.

106036 @ 초신도 그 종류에 따랑 이름이 이신가마씨?

106036 #1 초신이엔만 허난 몰라.

106036 @ 어, 그런 건 엇고예? 알아수다.

106036 #1 조리허고 초신, 남신, 기자 그런 거.

106036 #2 게다.

106036 @ 게다.

106036 #2 게다는 저 일본놈털이 현 거.

모자 등

106037 @ 예예예. 모자는 어떤 게 잇어신고, 옛날은예? 검질멜 때도 모자 쓰고.

106037 #1 옛날에는 모자가 어떻허연 잇어시냐 보리, 보리 쥔 쾇쟁이에 그 빠근에.

106037 @ 예.

106037 #1 빵 그걸로 혼 세 갠가 네 갠가 해근에 거 막 짜근에 영영영 여꺼근에 그치국하멍 해근에 뱅뱅 돌아가멍 그 주멍 영 행 올라가근에 해영 이런 디 영 그것도 우리 만들어나신디.

106037 #2 밀집모자라고.

106037 #1 인척 저치룩. 저거 저거. 저거 여꺼근에.

106037 @ 예, 이거 이름 뭐우과?

106037 #2 페랭이, 페랭이.

106037 #1 페랭이.

106037 @ 페랭이를 직접 해갖고에?

106037 #1 만든 덴 허는 건 다 만들언.

106037 #2 게난 우리는 저 여끄는 거 이렇게 해 놓면은 형이나 아버지가 건 영 만들어주고.

106038 @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여름에는 이런 거. 밧디 검질맬 때는 무신 거 썩 해서마씨?

106038 #1 검질맬 때는 저 페랭이. 저 페랭이도 아무난 못 만들어. 경허난 페랭이 엇이면은 밧디 강 고사리.

106038 @1 예.

106038 #1 고사리 휘어진 거 그거 꺼꺼근에 데가리 머리 우의 올려놔근에 수건 썩.

106038 @ 예.

106038 #1 수건 써근에 하곡. 그때는 옷 같은 것도 막 그 비 맞았다가 또 뭐 벳 나민 말랐다가 비 맞았다가 하민 쑤내가 보통 나지 아녀. 경허민 그 쉬프리덜 앓앙 등어리에 막 물 거 아니. 옷 하나 입어신디. 게민 그 고사리.

106038 @ 예.

106038 #1 고사리 꺼꺼근에 이 두으로 이레 찢렁.

106038 @ 예.

106038 #1 옷 소곱디레 찢르민 옷 사이가 널르니까 그 파리가 물지 못하게.

106038 @ 아.

106038 #1 경 험에 우리 어머니네가 우리 어머니가 그거 고사리 영영 헤다근에 이레 찢러주고 인치룩허고.

106038 @ 음, 샷갓 ㄴ튼 거는 여기는 안 써봤수가?

106038 #1 갓, 그런 건.

106038 @ 샷갓. 갓 같은 것도 안 하고.

106038 #1 갓은 거 육지 사름덜이나 그거 썩 다넛주 여기 사름덜은.

106039 @ 겨울에는 혹시 사냥할 때나 어른들 그런 모자 쓰는 모자는 안 봐판마 씨?

106039 #2 이렇게 털로 만는 거.

106039 @ 으.

106039 #1 아까 남신 족제비영 고녕이영 잡은 거 그거 해서 그거 해서.

106039 #1 **. 것도 이름 잇어나서.

106039 @ 이름 이서낫지예?

106039 @2 가족감티?

106039 #1 보꼬보시.

106039 #1 보꼬보시엔 해나신가. 그치록 해근에 만들언에.

106039 #2 거 쓰면은 상당히 뜻아.

106044 @ 예, 옛날 비올 때예? 비올 때는?

106044 #2 우장, 우장.

106044 @ 우장, 우장 허면 우장 우의는 뭐 써낫수가? 머리에는.

106044 #1 머리에 무시 거 쓸 거 있어. 페랭이.

106044 @ 그냥 페랭이 썬 예? 샷갓 같은 건?

106044 #1 갓 같은 건 여긴 없어.

106044 @ 우장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이십니까?

106044 #1 그 어른 것도 있고 아이 것도 이신디. 그 어른 거 아이 거 다 해주는 건, 하르버지들이 그런 거를 만드는데 하르버지 어신 집은 그것도 없어.

106044 #2 보통 사면은 우장을 이까지 오도록.

106044 @ 무릎까지예?

106044 #2 밑에까지 오도록은 아녀.

106044 @ 무릅까지. 우장은 뭘로 만듭니까?

106044 #1 새.

106044 @ 새 행은에?

106044 #1 새 행은에 안네는 것도 히안지게 만들어. 안네는 그 비가 영영 내려 가는 그것이 아니고, 이 굽 그런 거는 어떻게 안트레 오게시리, 안트레 오게시리 하면서 비 내려가는 건 밖으로 나가게 하멍 그.

106044 @ 음.

106044 #1 요령껏 그 짠 거 보민 비가 맞으면은 그 느람지를 다 물이 알러에 떨어지주. 옷 소곱디렌.

106044 #2 옷 소곱엔 절대 안 떨어전.

106044 #1 몸 소곱으로 안 들어오게 히안하게시리 그 옛날 어른덜 거 짠 거 보민.

106044 @ 이 동네 거 짜는 사름 엇인가마씨?

106044 #1 이제 없어.

106044 #2 저 옷토산에 가민 이실 거라.

106044 @ 옷토산에?

106044 #1 옷드르서는.

106044 #2 옷토산에 흔 사름 잇수다. 흔 구십난 사름.

106044 @ 아, 알앗수다. 삼춘 잠깐만예? 이제.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밥 종류에, 지난번도 잠깐은 헛주마는? 밥 종류는 어떤 거 잇수가?

107001 #1 옛날에.

107001 #2 조팍.

107001 #1 하이튼 햅뎡 부갓집의는 보리밥에 줍쌀 그 이제 겨울에 먹당은에 이제 양식이 남을 정도로 그런 집에는 보리는 주로 이제 봄에 보리 장만해가지고 이제 여름으로 이제 조 날 때갓장 먹는 거 아니?

107001 @ 예.

107001 #1 보린?

107001 @ 예.

107001 #1 경 아녀면은 부자칩덜은 보리밥에도 줍쌀을 서경 먹고.

107001 @ 예.

107001 #1 경 아녀근에 햅뎡 가난헌 집덜은 보리철에는 보리만 낱 햅영 먹곡.

107001 @ 음.

107001 #1 또 조철에는 조만 낱, 줍쌀만 낱 햅영 먹고. 또 그 이제 줍쌀 이제 얼마 햅영 엇인 사름덜은 이제 고구마, 이제 감자.

107001 @ 예.

107001 #1 감자 놔근에 줍쌀은 쪼끔씩 놔근에 그 밥을 햅영 먹고.

107001 @ 그거는 무신밥?

107001 #1 게난 감저밥.

107002 @1 예, 알아수다. 하나씩? 그러면 쌀을, 아니 밥을 지어서 먹을 수 잇는 곡식은 뭐라마씨?

107002 #1 밥을 지어서 줍쌀.

107002 @ 예.

107002 #1 보리쌀.

107002 @ 예.

107002 #1 밀 같은 것도 밥은 다 햅영. 멍쌀도 밥도 햅영.

107002 @ 멍쌀도 햅영.

107002 #1 산뉘.

107002 @ 산뉘.

107002 #1 피도 햅뉘고.

107002 @ 피도 햅뉘고예?

107002 #1 곡식으로는 햅하젠 햅민 햅하고 죽하젠 햅민 죽하고.

107003 @ 맞수다. 보리밥은 어떻 햅는 겨우과?

107003 #1 보리밥은 어떻 허느닌 허민 그 보리, 보리를.

107003 @ 예.

107003 #1 이제 그 옛날에는 보리 이제 물고랑에 가근에 그 소나 말이나 영 메여근에 이제 보리를 물 적저근에 그 이제 ㄴ레에 이제 ㄴ근에 이제 소를 영 사름으로 몰멍. 사름으론 하면은 너무 지치니까.

107003 @ 예.

107003 #1 소나 말이나 영 메여근에 거 뱅뱅 돌아가멍 비치락으로 밖에 나온 거 안티레 썰어 놓멍 경허영은에 이젠 곶양은에 그거를 말류와근에 말류왕 또 또 불려불면은 곶아진 체는 밖으로 나가곡 이제 그기 부튼 거 그냥 잇는 거 아니.

107003 @ 예.

107003 #1 게믄 두불 ㄴ는 거라이. 그런 식으로. 두불 곶아근에 헤영 말류와근에 이제 불려베뒤근에 그 보리썰만 ㄴ근에 밥을 하젠 하면은 밥이 잘 안 돼니까 옛날 어른덜토 머리를 씨근에 정ㄴ레.

107003 @ 예.

107003 #1 그 보리썰을 그거를 정ㄴ레에서 헤영 곶아근에 그 벌르는 거라.

107003 @ 예.

107003 #1 보리썰을, 벌러근에 이제 그거 게난 벌른텐 허는 말은 거핀덴 해주 거핀덴.

107003 @ 거핀덴.

107003 #1 거피여근에 그거 헤여근에 밥허여근에 경하면은 밥이 이제 틈자면은 밥이 잘 되고.

107003 @ 음.

107003 #1 그자 통보리 그 그거 보리로만 허젠 허민 밥이 살락허영 잘 돼지 안 허니까, 거피여근에 경허곡. 또 그 통보리로 헤근에 하는 거는 좁쌀 이신 사름덜은 좁쌀 서끄면은 밥이 이제 잘 되고.

107003 @ 음.

107003 #1 그보다 햅뽀 부자칩덜은 산디.

107003 @ 예.

107003 #1 산디헤여근에 서꺼근에 반지기밥이엔 헤근에.

107003 @ 음.

107003 #1 보리 반 산디썰 반 헤근에 하면은 밥 반지기. 그치룩헤여근에 헨 먹곡. 그치룩.

107004 @ 삼춘, 게믄 보리허고 조허고 반씩 서끈 거는 무신 밥?

107004 #1 게난 기자 그건 밥이엔 헤낫주. 반씩 서끈 거.

107004 @ 게난 반지기밥은?

107004 #1 산디.

107004 @ 산디 서끈 것만 반지기헛수가?

107004 #1 산디하고 보리하고 서끄든가 줍셀하고 산디하고 서끄든가 경혜영 반지밥. 반지밥이엔 현 거는 흥뽀 고급스럽게 이제 그 하는 밥을 반지밥이라고.

107004 @ 아까, 삼춘 정ㄱ레엔 굴안게마는 정ㄱ레는 어떤 걸 정ㄱ레엔 허는 거 마씨?

107004 #1 정ㄱ레 저.

107004 #2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니?

107004 #1 그 이제 ㄱ레 이제 보리쫄 영 ㄱ는 거는 ㄱ레.

107004 #2 ㄱ레.

107004 #2 정ㄱ레엔 현 건 이 ㄱ레 요만은 한 것에서 이제 요 가운데 요만은이 고망 툔라근에, 이 읍에도 고망 툔라근에 ㄱ레즈룩을 고망 툔른디레 남으로. 그거를 영 툔러근에 돌리가 영영 ㄱ는 거라이. 굴멍 그 우의 곡식 놓은 거 그거 알러레 내려가게 고망이 툔라진 쪼끔씩 쪼끔씩 영영 들이치멍 영영허영 돌리가 ㄱ는 거라.

107004 @ ㄱ레쫄 두 개 우알로 두 개 현 걸 정ㄱ레엔 허는 거예?

107004 #1 아래 아래 ㄱ레착에 아래 잇는 거는 쥔 가운데 요만은허게 혜영은에 그 저 ㄱ레 우의 ㄱ레가 벗어지지 아녀게시리 나무로 영 혜영.

107004 #2 나무로.

107004 #1 하고, 우의 건 쥔 가운데 가운 그 여자 남자허고 그거는 똑 ㄱ튼 거. (웃음)

107004 @ 여자 남자?

107004 #1 그레 맞게시리 혜영근에 혜야만이 영영영 굴아도 ㄱ레착이 벗어지지 아녀근에 그 거기에서만 잘 굴아진 거.

107004 @ 정ㄱ레잖아예? 물 넣은에 허멍은에 허는 거 잇지 아녀우과? 그건 무슨 ㄱ레우과?

107004 #2 들그랑.

107004 @ 큰 거 말고 작은 거?

107004 #1 그것도 ㄱ레렌 혜여.

107004 #2 그걸로.

107005 @ 둘 다 다 정ㄱ레식으로예? 그 다음에 이제 흰밥예, 쌀로만 지은 밥을 여기선 뭇렌 험니까?

107005 #1 곤밥.

107005 #2 곤밥.

107005 @ 곤밥은 어떤 식으로 지엇수가?

107005 #1 곤밥은 요새 우리가 밥하는 그런 식으로 혜여.

107005 @ 주로 어떤 때 먹어? 곤밥은?

107005 #1 곤밥은 제사 때. 제사 때 멩질 때벳기 그 옛날에는 누게네 집의 잔치 험덴 허면은 새각시상에 산디쫄 혜근에 밥허영 영 올리믄 그 밥도 다 언주와 먹엇덴 허난.

107005 #2 구경허는 아이덜 가면은.
 107005 #1 구경덜 허명 그 새각씨 그런 꼬기 밥도 다 손으로 접아당 먹언.
 107005 #2 밥도 새각시 방에거 설르게 뒤편은 그디 앓인 대반이
 107005 #1 골고로 혼 수까락씩 갈라주민 그거 먹언.
 107005 #2 손 내밀민 그거 우리 어릴 때도 많이 얻어 먹어나난.
 107005 #1 득새기 솥양 그거 허영 그디 헤영 올리고, 아이고 옛날엔.
 107006 @ 맞수다. 조팝은 어떤 식으로 험니까?
 107006 #1 조팝은 저 좁쌀밥은 물만 놔근에 삭삭 끓이면은 끓인디 좁쌀 놔근에
 행 끓여근에.
 107006 #2 조팝은 막 간단하게 해져서.
 107006 #1 끓이면은 해근에 불꺼근에 잇당보민 틈자불민 조팝 뒤.
 107006 @ 음, 좁쌀만도 넣은에 조팝도 헤영 먹어수과?
 107006 #1 조팝.
 107006 @ 어어.
 107006 #2 흐린조팝은 맛있었어.
 107006 #1 흐린조팝 모인조팝.
 107006 @ 음.
 107006 #1 흐린 거는 그 꺼먼좁쌀 그거 흐린 거, 모인조는 그거 노랑, 색깔이
 노랑하면서 막 게삭허주게, 그거는 살락해연.
 107006 @ 건 살락히고예?
 107006 #1 으.
 107007 @ 풋밥은?
 107007 #1 풋, 풋은 풋만은 밥 안 뒤고, 풋하고 보리쌀허고 솥아근에 이제 그거
 농곡 해근에.
 107007 #2 그건 주로 잔치 때.
 107007 @ 아, 풋밥은 잔치 때?
 107007 #1 풋밥, 풋도 그땐 막 귀헤영.
 107007 #2 보리 해서.
 107007 #1 솥양.
 107007 #2 좁쌀 조금 농곡 이만큼 거려주민 풀풀허게 맞신는지.
 107007 @ 음, 이제도 맛 좋을 거 다향예?
 107007 #2 아, 이젠 그런 거 엇어.
 107007 #1 그런 밥 헤영 자리젓에 먹으민 이제 경헤근에 자리젓에 먹어도 내려
 가지 아널 겨우다. 웃음.
 107008 @ 피밥도 직접 해봣디가?
 107008 #1 피밥. 우리 그 큰고모님이 저 신평리 씨집을 가서. 그때는 이제 집안
 집안끼리 이제는 경하주마는 부자는 부자끼리 영 헤근에 알앙덜 허난 우리 큰고모

가 이제 그 서귀포 간 송칩.

107008 #2 어어.

107008 #1 그 송칩이 씨집을 간 거라. 신평리.

107008 #2 태만이 **.

107008 #1 그디 헨에

107008 #2 *** 그 집안, 그 집안.

107008 #1 아, 게문 그 신평리에서는 피를 경 하영 갈아근에, 우리 큰고모가 그때는 이제 뭐 차도 엇고 무시거도 엇고 헐 때난, 마차로 해근에 우리 집의 그 친정에.

107008 @ 예.

107008 #1 친정에 이제 피허곡 산뒤 그런 거 그 옷뜨르는 그런 것이 막 하영 농사를 지니까. 그거 허여근에 시경 온 거 보민 피썰도 해양허여 이치록.

107008 @ 음.

107008 #1 줍썰 푹 줍썰, 푹 줍썰이라. 견디 밥은 허민 게썩이라.

107008 #2 게썩.

107008 #1 풀풀 아녕.

107008 #2 이 동네에서예, 이 동네에서 그 딸이 말을 안 들어가면은 저 득리 손당에 씨집보내켄 영 허는데 득리 손당이 어딘 줄 알지예?

107008 @ 예, 예.

107008 #2 그디가 딴 농사는 ** 피벳기 안 돼여마썸. 땅이 굶어가지고.

107008 @ 음.

107008 #2 그래서 그런 디 씨집보내켄 해난 겨우다. 견디 그디서도 우리 그 친축이 잇어가지고 피 그걸 가져왕 먹어보니까 먹을 때는 곤밥ㄴ치 하양헌 게 말여. 먹질 못허여 살락허여.

107008 #1 쌀 보기에는 엔간히 곱닥헌 디 밥은 허난 완전, 피썰이 헉나로 세어질 정도로 살락하는 거 아니.

107008 @1 음.

107008 @2 밥해도마썸?

107008 #2 밥알이.

107008 #1 쌀이 고운데 그치록. 우리 그 큰고모 이시난 피썰 그거 확실하게 알암주. 우리 여기는 피 안 갈아.

107008 @ 예, 예.

107008 @2 게난 피썰인 경우 피는 아옴 번을 곱아야.

107008 #1 몰르くだ. 우리 만약에 피 하나씩 서꺼지면은 그 피는 다 메어부러.

107008 #2 다 메여부러.

107008 #1 산디가 다 피면은 피도 피니까 다 그 문딱 하나 엇이 다 피는 메여. 산디더레 서꺼지카부텐.

107009 @ 음, 감저밥은 어떻 허는 거우과?

107009 #1 감저는 이 감저 이제 뱃겨근에.

107009 @ 예.

107009 #1 요만씩 썰엉. 반착만이 썰엉 솟디 낱은에 완전 그 감저가 다 익으면
은 좁쌀을 놓는 거라.

107009 @ 아아, 감저 다 익으면?

107009 #1 감저, 감자 익지 아널 때 감자가 익지 아녕 밥 못 먹어.

107009 @ 아.

107009 #1 좁쌀은 빨리 풀어지고 쟈쟈허니까.

107009 @ 예, 예.

107009 #1 감저는 그 빨리 익지를 아녀주게. 게난 감자 놔근에 저 막 끓이면은
감저 영 헤근에 밥자로나 국자로나 영헤근에 영 접아왕은에 물씩하게 하면 그때 좁
쌀을 우터레 삭하게 놔근에 끓여근에 흐뎡 잇다근에 막 그거 서꺼근에 이제 그 밥
자로.

107009 @ 예.

107009 #1 서끄는 거라.

107009 @ 예.

107009 #1 이제 밥 돼면은 그 밥 것듯이. 경 하면은 좁쌀허곡 감자허고 막 어우
러저근에 경헤근에 그 밥이 돼는디, 우린 우리 경우는 그때에 보리쌀에 좁쌀에 밥
허영 감저밥 바꾸레 텅겨나서. 감저밥이 맛 좋앙.

107009 @ 아아.

107009 #1 그 옛인 집의 감저밥이 그렇게 맛 좋은 거라. 게민 우린 그 밥헤근에
그거 아정 그 그 집의 바꾸레, 밥 바꾸레 갓다운 기억이 나고.

107009 @ 음.

107011 #1 또 탄 집의덜은 막 이제는 톨밥 그치록 막 헤영 하는디. 그 옛날에는
톨밥 하면은 아주 못 사는 집만 톨밥 행 먹으니까 우린 막 그 톨밥이 맛있어근에
그 보리쌀에 좁쌀에 그 나룩쌀에 영 헤근에 한 밥 가져근에 톨, 톨밥 바꾸레 그 바
파당은에 먹어나고.

107011 #2 게난 그 저 그 당시는 못 사는 집의는 감자가 안 들어갈 때 옛이 식
때. 점심에는 감저 청 점심 떼고.

107011 @ 예.

107011 #2 아침에 좁쌀 조금 농곡 감자 놔가지고 밥하곡, 저녁 때 그렇게 허고,
그렇게 허니까 감자가 뇌니까 어린아이덜 잇는 디 냉중에 좁쌀은 하나도 엇고 감자
만 남는 거라.

107011 #1 감자만 다 둥그렁 내부는 거라.

107011 @ 삼춘네는 밥만 먹으니까 그걸 먹고 싶어 간 거고?

107011 #2 톨밥 이야기 허는데, 그 한해 막 가물고 농사가 원 안 돼서 헐 때,

그때 자 좁쌀도 없지 톳 해다근에 톳밥을 허는데 흔히 요즘 사름덜 보는 것은, 보리 저 보리나 좁쌀에다 톳을 일부 서꺼가지고 허는 것이 톳밥인 줄 아는데, 좁쌀은 요만큼 놓고 톳만 이만이 놓고 허는데 완전히 톳만 먹는 거.

107011 @ 음.

107011 #1 요즘 톳밥은 별미로 해서.

107011 @ 예, 예.

107011 #2 그 우리 휘장은 경 곤는데, 그 톳이 이만큼 잇으면 좁쌀은 멧 방울만 잇는 거라. 그런 거 먹으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넘길 때도 많이 있어.

107011 #1 우리 그, 우리 어린 때는 그 감자뺏데기.

107011 @ 예.

107011 #1 감자뺏데기도 해근에 어떻 날씨가 좋양 곱게 물르민 해주마는 널어 놓민 비 오곡 들어와근에 비 여라 날 오민 경허영 곱쟁이 막 핀 거.

107011 @ 예.

107011 #1 그런 거 해근에 말류와근에 그거 방에혹에 그거 뿔아근에 체로 영 치명 해영 그거 가져근에 돌레떡도 만들어근에 먹고. 그거 가져근어 범벅.

107011 @ 예, 예.

107011 #1 감저 낱 범벅도 행 먹곡 경도 하는 집도 잇어나서.

107010 @ 그것도 엇그제라예? 예, 늣뻘 낱도 밥헝니까?

107010 #2 어, 늣뻘로도.

107010 #1 늣뻘 낱 밥 허주. 옛날은 늣뻘도 귀해서. 우жат 엇고 뒹허는 사름은 늣뻘도 엇영 옛날에 가시리깁장 풀늣물 캐어당 풀늣물에 무수.

107010 @ 예.

107010 #1 요만씩 현 것에 그거 해당 그거 캐어당은에 무수차 그 막 쫘양.

107010 @ 예.

107010 #1 경해근에 그 무수에 어떻어떻헤영 그거 밥헝 먹는 집도. 우린 그런 밥은 우리 먹어보지 아녀난에. 우리 앞집이 지준이네. 지준이네가 그렇게 가난헤영 애기덜은 하고 가난하고 밧도 엇고. 옛날엔 늣의 밧 반작하면은 밧 임제는 만약에 보리 다섯 단이민 녁 단은 밧임제 가져가고 농사 진 사름은 흔 단 아저가곡 허난 없는 사름은 만날 가난하는 거라. 이신 사름덜은 그치룩헤근에 밧 잇영 반작만 쥐도 먹영 사는다. 이제는 그추룩하면은 누계가 늣의 일 가민 하루 오만원 육만원 벌영 오민 쌀도 스십 키토 사곡. 반찬값도 나오곡 허는다.

107010 #2 웃음.

107010 @ 웃음.

107010 #1 옛날에 돼약세기로 저 좁쌀 하나 아저당 먹으면 일 하루씩 허고.

107010 @ 맞아예?

107010 #1 옛날은 못 사는 사름은 그렇게 그, 그거를 벗어나지 못헤영. 그런 식으로만. 겐디 이제 가만히 생각 못 사는 집은 애기만 처남신디사.

107010 @ 웃음

107010 #1 아니.

107010 #2 말이 잊지. 요즘도 그런지 몰라도. 육지에 그 철로 이신디 철로 이신디가 애기덜이 켈 만 허여.

107010 @ 아.

107010 #2 철로 끼익허민 줌자당 깨어나민 (웃음) 그런 말이 있어. 철로길에가 애기.

107012 @ 삼춘, 폐밥도 허는 거 봐봅디가?

107012 #1 폐, 폐는이, 폐로 밥 한 거는 안 보고. 못 잊지 아녀우과?

107012 #2 못.

107012 @ 못으로?

107012 #1 못허고 폐하고 ㄴ찌 뇌근에 송년 때에 솥양 난 밥 아정 폐, 폐밥을 바꾸레 가근에 바파당은에 먹으민 목이 경 아픈는 거라. 그 못허고 폐허고 허민.

107012 #2 폐 저 폐허고 못허고 두 끼 먹으민 목이 다 날라나는 거 같아. 그렇게 독헌 거라.

107012 #1 목이 경 아파.

107012 @ 경해도 쫄 힌 거를 바짱 먹어난.

107012 #1 바짱 먹으면은 우리 어머니 막 못하게 해도, 놔덜 그거 영 허영 먹으민 막 그 벨미로 먹구장 해근에 바파당 먹어.

107012 #2 못허고 폐 솥게 돼면은 흐를밤 흐를을 솥아야 쥘니다게.

107012 @ 아아.

107012 #2 그렇게 오래 솥아야 돼고. 거기다가 또 뭘 놓느냐 느쟁이. 모멸느쟁이 살짝허게 허면은 먹음직스러운데, 먹을 때 들끔헌데 두 끼 이상 먹어가민 목이 막 아파.

107012 @ 음.

107012 #2 그걸로도 때 살고.

107012 #1 그걸로도 때 살고 막꼇데라가난 그 저 못은 못 먹고. 폐만.

107012 @ 아.

107012 #1 폐만 영영 골란 먹어난 거 생각이 나.

107012 #2 당시에는 못이, 못이 밧데 뭐 미삭. 이젠 못이 흐나도 없어.

107012 @ 안 보여예?

107012 #2 제초제 때문에 그런 거 닳아.

107012 #1 못이 하나도 엇어. 미약. 밧디 강 밧갈양 비 와나민 강 보민 못이 헤뜩헤뜩허게 막 저 그 고랑에 막 잇는디 이젠 못 흐나도 안 보여.

107012 #2 흐나도 안 보여.

107013 @ 음, 맞아예? 이젠 국은 주로 어떤 국덜 행 먹어수가?

107013 #1 뭐, 우리, 우리 경우는 국 기자, 옛날에는 웬장도 하여튼 간에 열 말

씩 드는 향으로 두 개 세 개 헛어. 우리 어머니네 그 콩 흐르종일 솥앙.

107013 @ 예.

107013 #1 그땐 멍청하게시리 무사덜 방에에서만 다 뺏앙.

107013 @ 웃음

107013 #1 방에에서 해여근에 그거 반쯤 콩이 뿌서지면은 그 이제 방엿귀를 들르지 못할 정도로 찢득찢득하는디도 거 하멍 그 메주허영. 이제 그냥 내벼도 그냥 다 트는 걸. 이만한 멍탱이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콩찍 영 혼 도리 농곡.

107013 @ 음.

107013 #1 메주 만든 거 콩찍 우의 낱 콩찍 영 놔난에 또 메주 농곡. 게난 그거는 부떠불카부덴 그 중간중간 콩찍을 놓은 거라. 이제 생각해 보면은. 게연 그런 멍탱이로 세 개 정도 해근에.

107013 @ 음.

107013 #1 경해근에 그 동지선들 그 막 추울 때 돼민 거 다 해영 베갯디레. 북아가민 내닐영 이젠 돌아만 내벼도 모르는 거 내닐엇당 어둑어가민 이젠 멍탱이 들여농곡. 그런 향으로 장, 장 해근에 그 장을 이제 다 웬장국 게나제나.

107013 @ 예, 웬장국예?

107013 #1 웬장국. 웬장도 엇영은에 웬장도 빌레 오는 사름도 잇곡. 웬장 하영일이 많으니까. 일 와근에 일 왕 잘 해주면은 고맙게 생각허영 졸도 좀 주곡. 장도 주곡. 우잣에 녹물 늪뻘 뭉 단지늪뻘 쉼뻘늪뻘 우잣이 백 평 이상 돼난에 거기에 다 갈아놓민 동네 우리 동네에 다 우잣 엇인 사름. 계속이네도 밧 그 우잣 하난 늪뻘 그 아니 나는데 창배네 집도 우리 집의만 다 완 거 빌어당 먹어지민 왕 일덜 해주곡.

107013 @ 음.

107013 #1 경 해연 녹물에 기자 웬장 무신 메레치가 잇이카 무시거 잇이카 웬장에 녹물해영 국 끌리고 무수허영 국 끌리곡 그 무수썸 솥앙은에 웬장에 찍영 먹고. 그 그것이 반찬, 주료.

107013 @ 경해도 맛 좋아예?

107013 #1 겐디 우리는 맛사 잇어신디 무신 것사 잇어신디. 겐디 이제 쥔 생각나는 게 그 잔치. 그 잔치집이 그 저 단지늪뻘 그 썸 시커멍헌 썸 이만씩 술진 그런 거 해여당.

107013 #2 돛국물에.

107013 #1 이제 들망에.

107013 @ 으.

107013 #1 들망도 우리 여기 지경에 우리 마을에 들망에 돛국물에 킬려사주 저디 어디 구좌 어디레 들망은 민작해근에 안 돼여. 어울리질 안 허여. 너미 민작허영.

107013 @ 예.

107013 #1 우리 여기는 물망이 거치니까 돛국물에 흐뭇만 끓여도 그것이 민작 허는 거라 막 잘 익었.

107013 @ 예.

107013 #1 흐뭇 하민 돛국물에 그런 거. 잔칫집이 그때는 애기덜 처낭 무사 잔치 집의서덜 다 해놓난. 일주일씩 잔치 집의 강 먹엇덴 허난.

107013 @2 그것이 무슨 국이우과?

107013 #1 돛국물.

107014 @ 여기는 몹국 아녀고 돛국물. 우도도 가니까 돛국물 이렇게 허더라고 예? 그 다음 삼춘, 녹물국 할 때, 녹물국은 어떤 식으로 끓이는 거?

107014 #1 웬장 이제는 웬장도 걸르는데 그땐 웬장 거려다 낡 끓이민 그자 뒀 녹물 놔근에 행 영 맛 뽕 싱겨우민 간장.

107014 @ 예.

107014 #1 간장도 그 웬장 그치록허젠 허민 간장도 많이 이실 거 아니. 간장도 간장 낡 간허곡 소금 낡 간 안 허여. 간장 낡 간 허여.

107014 @1 여기는 간장이엔 험니까? 장물이엔 험니까?

107014 #1 장물.

107015 @ 장물, 제주도말로?

107015 #2 장물.

107015 @ 그 다음에 콩녹물예. 콩녹물험니까? 콩주름 험니까? 여기는.

107015 #1 콩녹물.

107015 @ 콩녹물도 국 헛수가?

107015 #2 제사 지내젠 허민.

107015 #1 콩 헤영 물에 담갓당 완전 그것이 이제 불면은 그거 이제 소쿠리 놔 근에 물 짝 빠주와근에 시리.

107015 @ 예.

107015 #1 옛날 시리에 시리 영영 고평 이신디 베 험벽이나 딱 깔아와근에 그 우의 콩 낡.

107015 @ 음.

107015 #1 이만한 장탕이에 이, 이것이 장탕이면은 이 나무를 양쪽으로 놔낡은 에 그 우의 시리를 놓는 거라.

107015 #1 시리러레 물 영허영 주면은 장탕이레 물이 빠질 거 아니.

107015 @ 음.

107015 #1 그치록하명 하면은 그때 콩이 나근에 콩. 그 콩만 우터레 영헤영 짝 올라오민 옛날에는 우리, 우리 친정 경우는 제사가 열두 번, 열두 번 제사허난에 동짓선들 두 달 동안에 혼 일고으담번 제사허니까 그 조침을 정제.

107015 @ 음.

107015 #1 정제 집이 혼 칸이민 옛날엔 집도 경사 짓어신디. 방 하나벳기 안 허

여. 집 하나에. 방 하나. 방 하나에서 반착 끓여 고팡, 그 다음은 마리 그 다음은 정제. 정제에 조칩 혼쪽에 이제 조칩 끝아와근에 그 이제 제사 해 먹어난 그릇 거 메칠 이시민 제사할 거니까 그 우의 다 어평 낫다근에 제사 때 그냥 허영 쓰곡 경해 나서.

107015 #2 콩나물은 제사 메칠 전부더 와근에 키왕.

107015 #1 제사.

107015 #2 일반으로 먹젠은 안 하고.

107015 #1 우리, 우리 집 경우는 겨울 내냥 그 콩나물이 있어야 돼여.

107015 @ 열두 번 허젠 허면은?

107015 #1 그치록 콩나물 잇엇도 밥 먹을 때 테우청 무청 먹거나는 안 허고 제스 때만.

107016 @ 예, 늠빠도 국허여마씨?

107016 #1 으음?

107016 @ 늠빠국?

107016 #1 늠빠국.

107016 #2 웬장국 허민 이제도 맛있는디 뭐.

107016 #1 웬장국 허민 맛사 잇어신디 잇어신디 저 국엔 허난 먹어신디.

107016 @ 음.

107016 #1 이제, 이제는 그 이제 경행 먹젠 허면 아이구, 경허명 현디 옛날엔 돼지고기 현 무수만 낱 국 끌려도 그르 낱 그 국 끓리민 그치록 맛 잇일 수 없는디 돼지고기 국 끓일 말 허민 에이그 경 허명.

107016 #2 나도 이제 옛날 거 생각허면 우리 애엄마안티 돼지고기 안 해.

107016 @ 안 해?

107016 #2 그걸 어떻게 먹느냐고.

107016 #1 돼지고기 낱 죽도 썰 먹어나서. 산디썰 낱.

107017 @ 산디썰낱예? 맞아예. 콩국은 하영 행 먹엇지예?

107017 #1 옛날에는 기갯방, 이젠 기갯방에 강 행 하면은 해신디. 콩 당가근에 물에 불와근에.

107017 #2 그레로 골아나서양?

107017 #1 그레로 방에에서 췌는 것이 쉬와. 그는 거는 혼 방울 두 방울 낱 영 허는 디, 방에혹엔 둘리 서이 세콜방에로 막 찍으면은 혼 십 분 이십 분이민 콩 두 관돼 현 거는 골주게. 그 곤 거 문작허게 췌아지민 그거 해근에 이제는 뭐 쏘 와근에 이제 죽. 콩죽을 췌도 콩국을 끓이나 콩죽을 췌나 해도 이제 그 콩국도 무수 와근에 완전 무수가 다 익은 디 콩그르 와근에 반죽 해근에 우터레 삭허게시리 그 무수 낱 익은 국더레 영허영 비와와근에 소금. 소금을 그 우터레 영 놓면은 케어 올르면은 그것이 이 거 콩국이 썩 뒤집어지명 케어.

107017 @ 아아.

107017 #1 싹 혼 쪽으로 올라 그치록 아무 탈도 없어. 익었저 설었저도 안 허고 영 끌영 혼 불 돌면은 이것이 국이 다 웬 거라.

107017 @ 아아.

107017 #1 이거 젓으른 안 돼여. 앞으로만 영 거리멍 먹어야 그 콩가루가 두부. 두부처럼 우의가 이만은 뚜끼로 딱 허게시리 그 혜영케 거 더꺼정 잇이면은 그거 젓어불민 거 그 물 댜게시리 가르륵할 건디 국 거렁은에 우에 거 영 허영 두 숟가락 쥘 우에 띄우민 진짜 콩국이 두부 그 혜근에 끓인 것처럼, 막 그거 한창 끓여불민 안 돼여. 콩국 콩가루 혜근에 놔 놓은 다음.

107017 @ 싹 뒤집영?

107017 #1 소금도 소금도 돌소금. 흠은소금.

107017 @ 음.

107017 #1 돌소금을 우터레 싹 허게 그거 이 정도 하면은 국 이제 짜고 싱거운 거를 잘 자기가 판단혜근에 영 놔근에 하면 국이 우깅 꿩영 혼번 싹 자기대로 뒤집어정 할 때 불 끄면은 우에 완전 두부라. 두부. 젓어불민 안 돼여.

107017 @ 아아.

107017 #1 앞으로 즈근즈근 거리멍 그 우의 두부 웬 거는 국그릇 하나에 그자 두 병탱이 세 병탱이 정도로 그 우의 혜 놓면은 완전 그 두부국처럼.

107017 @ 음.

107017 #1 앓다놓면은 먹엄직스럽게시리 막 끓일 때 젓어불면은 가르륵허영 안 돼여, 그거.

107018 @ 예, 예, 예. 재미진 거 하난 배웠다. 호박잎국도 하영 먹어서예?

107018 #1 호박입국. 호박입은 호박입을 톨아근에 옛날엔 호박입이 베랭이 엇어나신디, 이젠 호박입에도 베랭이 잇어. 호박입 부드러운 거로만 톨아다근에 앞 뒤로 이제 보멍 꺾데기 벳경, 잘 벳겨지잖아. 경 벳겨근에 혜영 그 호박이파리는 인정사정 엇이 막 부비멍 시쳐야 돼여.

107018 @ 아, 인정사정 엇이.

107018 #1 새파란 물이 막 나오는 정도로.

107018 @1 아, 경허는 겨우과?

107018 #1 경혜영은에 막 문대경 물 끓여가면은 호박이파리 낱 뒤 불 영 혜근에 두 불 끓이면은 가루 그 반죽헌 거 우터레 놔근에 혜영 소금. 요새 다시다도 요새 다시다 국맛이 그렇게 좋고. 호박이파리를 어떻게 이제 시치느냐에 따라서 그 호박국입국이 맛이 틀려.

107018 @ 아아.

107018 #1 호박이파리를 문짝허게 안 빨앗당은 꺼끄렁하고 호박이파리를 생각 엇이 부벼근에 국을 끌여야만이 호박이파리국이 완전 민작허곡 오박 가을 냄새가. 가을에, 가을에부떠. 게난 우리 아덜이 서울 사느디, 가을 댜면은 나영 살멍도 쿵, 그런 국을 많이 호박이파리국 바다에 가민 넙패. 넙패엔 헌 거 알아점서?

107018 @ 예.

107023 #1 에 국 끓여근에 먹어나니까 그 넙페에 국 해영 보내줄 수 있수가 호박이파리에 호박입국 해영 보내줄 수 있수가 허면은 호박입국 해근에 다 그 저 비니루에 그 하얀 일회용 그것에 담양 해영은에 냉동해근에.

107023 @ 경행 보냄수가?

107023 #1 경해영 아덜안티 다 보내곡, 넙페도 해당 국 끓여근에 냉동해근에 보내곡 경.

107023 @ 넙페국 끓여봅서? 건 어떤 식으로 허는 거우과?

107023 #1 넙페, 넙페국이 맛있주게. 넙페 바당에 강 보민 납작납작한 거. 페, 페는 펜디 영 납작납작한 것이 있어이. 그런 것만 넙페 트멍에 그건 영영 있어. 게문 그거 영영 해다근에 그거는 삶기 전에 막 바당에서 영 홈텅이에 놔근에 막 밍거근에 그것이 흐뎡 풀 죽게시리 밍경, 넙페도 영 보기에는 깨끗한 거 닻아도 비비면은 거 다 막 곳인물이 막 나와. 그디 바다에.

107023 @ 계속 잇는 거난예? 예.

107023 #1 으, 그 곳인물 나왕 그 판적 씻어근에 이제 물 어느 정도 놔근에 삶는 거라. 넙페만 낱.

107023 @ 아, 넙페만 낱 삶는구나.

107023 #1 넙페만 낱 삶아근에 서너 불 켜여근에 그냥 불 켜당 혼 삼십 분 잇당 가보민 넙페가 문작허게.

107023 @ 음, 삶아정?

107023 # 끓여정 잇는 거라. 삶아정 이신 거라. 경허면은 옛날에는 그 넙페를 이제는 넙페 씨가 이젠 오염되고 뭐 허니까 얼마 안 나근에 국 끓일 것도 그 어렵는다, 옛날에 그것이 오염 없고 하니까 막 너팔너팔해영 허민 그거 두말떼기로 하나 삶양 그거 허영 막 밥도 부병 먹고 문작허난.

107023 #2 동네 다 나누고.

107023 #1 반찬으로. 막 맛 있어. 간장 쪼끔 놓고 넙페농곡 허영 밥 막 부벼먹고 경해신디. 그 넙페를 문작하게 삶아근에 요만헌 그것에 너무 하영 놓지 말양 적당허게 놔근에 끓이면은 뭐 다시다 쪼끔 놓고, 믹말가루 그거 영 반죽허영 살하게 우터레 낱. 그것은 넙페국은 젓어도 돼고. 경해근에 드룻마늘, 달래.

107023 @ 예.

107023 #1 그거 썰어근에 놔근에 행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107023 @ 드룻마늘 낱예? 어어,

107023 #1 드룻마늘 놔야만 맛 있어.

107023 @ 간은 게문 뭇로 해마씨?

107023 #1 간은 게난 그 넙페가 바당 거난 짜주게. 짜난에 쪼끔 소금 쪼끔만 놔도 간이 돼여.

107023 @ 아아.

107023 #1 거는 간장으로 간 허민 맛 엇어. 거는 바당에 소금 그것이 잇기 때문에 소금으로 영허영 간 하면은 그 맛췌근에.

107020 @ 헌텐 헌 말은 들어수다마는 그치록 허영은에 헌 거는 안 먹어봤네이. 그 다음에 여기는 생선이 납니까?

107020 #1 생선.

107020 @ 옥돔을 이 동네서는 무신 거렌 불릅니까?

107020 #1 슬레기.

107020 @ 슬레기국은 언제 허영 먹어.

107020 #1 슬레기국은 가을에서부터 이때까지.

107020 #2 지금 이후로는 슬레국이 맛이 엇어. 건 겨울에. 늦은 가을부터 한 겨울까지가 켈 맛있을 때도.

107020 #2 이제부터는 문독내 나가지고.

107020 @ 문독내?

107020 #2 식당에 가더라고 슬레기국덜 안 먹어.

107020 #1 이제부터는 안 먹어.

107020 @ 슬레기국은 어떤 식으로 허여?

107020 #1 슬레기국은 간단허여. 슬레기국은 무수하고 미역. 무수허고 미역인디 물 식을 때 놓면은 슬레기가 잘 해싸지기 때문에 물 끓여근에 슬레기췌근에 이제 끓이며은 흥번 끓이민 슬레기가 다 익주게. 토막 토막 경 해난다음에 무수 익으면은 뭐 그 파여 그런 거 안 췌도 기자 간단 행 먹어도. 다시다 옛날에는 다시다 엇이 그냥 헛주마는 요즘에는 다시다 쪼끔 췌야주 경 아녀민.

107020 #2 옛날부터 그 저 슬레기국은 주로 제사 때 갱국으로.

107020 @ 갱국으로?

107020 #2 갱국 허면 무수 췌근에 허면 맛있어.

107020 #1 옛날에 슬레기도 하영 안 낫주게. 풍선 해근에 슬레기란 그거는 기폰 바당에만 하기 때문에 완전 멀리 가사 슬레기를 잡앙 오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일기 예보도 엇고 무신 거도 엇이난 갓당 태풍 불영 배 사람 죽어근에 배도 흔적 없고 사람도 흔적 엇일 때가 천지만지고.

107021 @ 음.

107021 #1 슬레기를 귀해근에 잘 안 해와신디. 이제는 뭐 무슨 일기예보 잇고 뭐 배 그거 기계, 그거로 하니까 뭐 그날 아침에 가근에 먼 디라도 가근에 해근에 저녁 때 뵤든 다 들어오니까.

107021 @ 음, 경해근에 슬레기국 이제 허고. 메역국은 메역만 낵도 국 허여마썬?

107021 #1 메역만 낵도 국 허주. 메역허고 참기름 췌근에 영영영 뽀끄다근에 어느 정도 보까지걸랑 물 췌근에 해영 어느 정도 끓여지면 간 해근에.

107021 @ 간은 무신 거?

107021 #1 뭐 그 미역국은 간장 놔야주게. 조선간장.

107021 @ 아, 메역국은 조선간장 놓는 거구나. 계란 국 종류에 따라서 간하는 게 특나다예? 음.

107021 #1 바다에 거 그런 거 허영 할 때는 소금 낱 간하고.

107022 @ 음, 냉국들도 하영 행 먹어서예? 냉국은 뭘로 험니까?

107022 #1 냉국엔 현 거는 누물허고 미역뻗기 안 돼여.

107022 @ 아아.

107022 #1 누물은 그자 그냥.

107022 #2 웨, 웨. 웨냉국.

107022 #1 웨냉국. 오이로는 냉국 안 험디다양? 오이로는 아녀고 웨.

107022 @ 웨.

107022 #2 물웨.

107022 #1 물웨혜근에 웬장. 이제는 웬장도 다 걸러근에 하느디 옛날은 그대로 웬장 먹어야 건강한테 허멍 웬장 병탱이도 그냥 먹으렌.

107022 #2 물웨 막 심어서 그 저 원두막 짓영 허는 하르방 보고 무신거엔 곶아 낫저마는.

107022 #1 건 옛날 그 우리 표선리 천도, 천도하르방이.

107022 #2 천도 하르방.

107022 #1 천도하르방이 그.

107022 #2 원두막 이름이 무신거여마는.

107022 #1 원두막에 살멍.

107022 @ 하르방 불르는 이름도 잇어나수가?

107022 #1 천두하르방.

107022 #2 이름이 천둔데.

107022 #1 보리 아정강 바파오곡.

107022 #2 보리 아정가곡 돈 아정가곡 허면은 그것에 맞춰서 스몫 구덕으로 습 뻗 하나씩 다 주고.

107023 @ 음, 경허영은에 물웨 냉국허는데, 냉국헐 때 뭘 저기 초도 놔?

107023 #1 으, 냉국헐 때는 초 놔야웨. 식초.

107023 @ 식초를.

107023 #1 경혜사 씨원허여.

107023 @ 음.

107023 #1 누물도 쭈양, 쭈아근에 쭈은 누물 썰어낱 냉국허고, 것도 웬장 행 해도 식초 놔야 웨고 간장 행 해도 해도 식초 놔야 웨여.

107023 @ 톨로도 냉국 안 험니까?

107023 #1 톨은 톨만 무청.

107023 #2 톨국엔은 안 허곡 톨채, 톨채.

107023 #1 톨채 흐끔 킨킨하게 뭘 새콤달콤하게 배도 썰어놓곡 오이도 썰어놓곡 경행 건 뭘. 그렇게 하면은 완전 뭘?

107023 #2 톨국이엔은 안 곤고 톨채.

107023 @ 톨채.

107023 #2 톨채 국물 등당허민 들이싸면은 그것이 국이 돼는 거난에.

107023 @ 그걸 톨채렌 헤예? 게난 톨만 무치는 게 아니라 거기도 국물도 놔.

107023 #1 어느 정도.

107023 @ 예.

107023 #1 짐박짐박허게시리 국거치룩은 아니고 흐끔 짐박짐박허게 큰일 때 톨채 하는디 국은 국대로 허곡 톨채는 따로 영 해근에 반찬으로 놓는디 흐끔 물 짐박짐박 물 말르게 말고 짐팍짐팍허게 놔근에 국물도 거렁 먹을 수 잇고 톨도 거렁 먹을 수 잇게. 그런 식으로

107023 @2 거기는 물 하영 놓민 톨국 아니마씨?

107023 @ 여기는 아니.

107023 #1 게나제나 물 하영 놔도 톨채.

107023 @ 게난 제주도는 넓어양? 시에는 톨채렌 말 안 허거든. 톨무침허고 톨냉국.

107023 #1 톨채만 헤여.

107023 @ 여기는 톨채예?

107023 #1 톨 헤영 냉국 헤영 먹는 거는 냉국 톨 허영 냉국 행 먹게는 안 허여. 톨 무청 먹게. 톨허영 먹게 영허영 허주.

107023 @ 삼춘 여기 성계를 여기선 뭘렌 곶아?

107023 #1 여기서 성계.

107023 @ 귀?

107023 #1 귀, 귀.

107023 #2 귀, 숨,

107023 #1 까지 아녕 막 잇일 땐 귀.

107023 @ 알은 성계렌 허고.

107023 #1 알은 성계엔 허곡 까지 아녕 귀 가시가 부떠 잇인거는 귀. 그거보다 죽게 해근에 요만씩 요만씩 가시 찌각허게 헌 건 숨.

107023 @ 그걸로는 국 안 험니까?

107023 #1 거 국허민 맛 잇주.

107023 #2 저베기도 행 먹곡.

107023 @ 거 낱 저베기헤영 먹어마씨? 건 어떤 식으로 행 먹는 거라?

107023 #1 저베기는 그거 해근에 뭘 밀끄르허영 저베기 그거 밀어근에 영영 끓어 놓는 것도 잇고, 뭘 반죽해근에 물 끓이민 그레 낱 숟가락으로 다 저베기만씩 좇아근에 행 다 헤지민 성계. 그거 영 해근에 그것에 따랑 국자로 하나 놔근에 젓

을 때 잇고 반 낱 짓을 때 잇고. 경허민 거 성게.

107023 @ 아, 그러면 물 헤갓고 끓어은에 다 익을 때 성게를 놓는 거라예?

107023 #1 응.

107023 @ 먼저 끓영 허는 거 아니? 우리 집에는 음식을 잘못 험신게게.

107023 #1 성게, 성게 므녀 놔근에 끓이면은 성게가 솟바위에 다 물어벼근에 그 디 얼마 엇어.

107023 @ 아, 우리 집에 경헤마씨.

107023 #1 경허난에 성게는 완전 다 헤 놓은 다음에 젤 막꿇데 혼번 싹 끓이면 성게는.

107023 #2 토실토실향 게.

107023 @ 우리 집에 토실토실향 적이 엇어. 암만 하영 놔도예 성게가 어디 간 지 몰라.

107023 #1 솟바위에 다 부떠벼근에.

107023 @ 아, 기구다. 거꿀로 강. 우리 어머니한테 골아줘야할 판이구나.

107023 #1 젤 막꿇데 낱 짓으면 성기 냄새 슴 냄새가 시원한 맛이.

107023 @ 보말? 여기 ㄴ메기?

107023 #1 보말.

107023 @ 보말. ㄴ메기예? ㄴ메기국도 헤.

107023 #1 춤ㄴ메기.

107023 @ 건 어떤 식으로 험니까? 춤ㄴ메기?.

107023 #1 그거는 보말 춤ㄴ메기는 막 쓰고.

107023 @ 으.

107023 #1 거 바둑이 판판헌 거.

107023 #2 그거 문두데기.

107023 #1 문두닥지.

107023 @ 문두닥지. 지난 번에 생각 안 난 거예?

107023 #2 나 간 노인덜한테 물어보난 문두닥지엔 나보다 우의 할머니한테 물어난 거 문두닥지 아냐 곧길래.

107023 #2 건 씨.

107023 @ 씨?

107023 #1 그거하고 마타살하고는 국 끓영 먹지 아녀고 주로 국 끓이는데, 보말 하고 춤ㄴ메기 국 끓이는데 그 ㄴ메기는 미역을 놔근에 끓인텐 하면 미역하고 ㄴ메기하고 막 손으로 문질러근에.

107023 @ 예. 그 보말 그거 똥이 다 헤싸져야 그 국물이 나.

107023 @ 아.

107023 #1 그냥 낱 오골오골 그자 잇영은 맛이 엇어.

107023 @ 음, 메역이랑 ㄴ치 낱예?

107023 #1 경도 하곡. 우리 어머니네 영허는 거 보민, 보말만 놔근에 막 끼여근에 이제 물 놔근에 영영 일어근에. 그 보말, 보말 그 모래덜이.

107023 @ 예, 예, 예, 예.

107023 #1 모래덜 먹으니까 그 끼여근에 창지에 모래 없애기 위해서 막 끓영 이제 끼여근에 물 놔근에 영영영 일영 하면은 모살이, 모살은 그거 무거우니까 나오지 아녜 그것만 일어근에 이젠 우리 말로 일영 경혜근에 그거 가정 미역 낵 국 끓령. 이젠 물 낵 경혜근에 그거 그 보말 주로 미역으로.

107023 @ 주로 미역으로예? 삼춘, 혹시 가시리도 국 끓령 먹어나수가?

107023 #1 옛날 가시리 국 끓령 먹어났주게. 가시리 국 끓리민 풀풀허게 맞은 잇어.

107023 @ 것도 뭘로 간장 웬장?

107023 #1 가시리 경우는 소금으로 해도 뒤토.

107023 #2 가시 도배허는데 써낫지양?

107023 #1 풀, 풀.

107023 @ 국도. 프레도 여기 나.

107023 #1 프레도 나. 포레도 나도 프레도 먹을 걸로 해당 먹지 아녀.

107023 @ 팍렛국 여기는 안 먹어나수가?

107023 #1 김덜 허영 사당 먹어도. 바당에 프레 시퍼렇게 잇어도 거 안 해와.

107023 @ 아아, 옛날에도.

107023 #1 그거는 헤다근에 옛날에 밀궤 웃고 무시거 헐 때 말렛당 풀 썬근에 방 킬 때 풀 사용허고.

107023 @ 프레도?

107023 #1 프레 가시리하고 것궤렌 가시새엔 허주게.

107023 @ 예.

107023 #1 프레 거.

107023 @ 프레도 찰프레도 잇고 기냥 개퍼래 큰 것도 잇잖아예? 가시새가 어떤 거가 가시새우과?

107023 #1 가시새엔 현 건이 그 이제 가시리 닳으면서 흐끔 영 포기지듯한 그 색깔은 그 같은 색깔인디 포기지듯 헤근에 흐끔 더박더박허고.

107023 @ 음.

107023 #1 가시새는 막 그 돌에 딱 부떠근에 요 정도بات게 안 크주게.

107023 @ 음.

107023 #1 하나 웨로 가시새는.

107023 @ 조작허게 이런 식으로 생긴 거구나. 발 멧 개 행은에.

107023 #1 돌에 부떠근에.

107023 @ 것도 가시리 종류라예?

107023 #1 게난 가시새, 가시새 종류는 이제 요만씩 크는디 가지가 영영 돋으멍

요 정도 크곡. 겐디 건 매기도 좋아.

107023 @ 예.

107023 #1 경헌디 것도 풀용으로 쓰곡. 가시리는 요만씩 헤근에 돌에 딱 부땡
완전 그거 매지 못헤연 꺼끄떡 꺾데기 가전에 간 박박 긁어나서. 돌에.

107023 @ 걸로 풀 허는 거예?

107023 #1 건 풀.

107023 @ 여기 물훼는 주로 아까 이제 냉국 말고 물훼예, 물훼는 어떤 거 낵
헝 먹어?

107023 #2 옛날에 물훼는 비께. 비께.

107023 @ 비께. 어.

107023 #2 요즘은 고등어다 뭐 먹었는데 그때는 안 먹어서. 비께난 상어나.

107023 @ 비께는 우리 표준어로 뭐우과?

107023 #1 비께. 그자 비께엔 헤나서. 비께.

107023 #2 그때가 비께고 표준어 상어. 뽕상어라고 허는가. 입이 이렇게 크고.
건데 쾡장히 순허여.

107023 @ 음.

107023 #1 해너덜도 다 쏘앙 나고.

107023 @ 요즘 상어가 잘 안 잡혀예?

107023 #2 이젠 비께는 씨전.

죽류

107024 @ 삼춘, 그거는 그 국이고 죽 같은 거는 어떤 거 헤마씨? 죽?

107024 #1 죽은 뭐?

107024 #2 바닷고기 낵 죽 쭈는 거?

107024 @ 아니, 그냥 일반 죽의 종류?

107024 #1 죽에 종류 팻죽. 팻죽, 콩죽.

107024 #2 콩죽.

107024 @ 예.

107024 #2 모멸죽.

107024 #1 믱멸쫄로 죽 썰 먹고. 쌀로 낵 죽썰 먹고.

107024 #2 쌀로 논 거 흰죽.

107024 @ 흰죽 헝니까? 곤죽 헝니까?

107024 #2 곤죽.

107025 @ 곤죽 혼번 썬뵈서? 곤죽은 어떤 식으로 쭈는 거우과?

107025 #1 곤죽 그거 쌀 시쳐근에 담강 낵당은에 곧 시치명 허면은 끓이는데
오래 걸려. 게난 쌀 싯저근에 당강 낵당 하면은 혼 두서너 불만 이렇게 쾡면은 풀
풀하게 죽이 되는데 그냥 곧 싯지명 하면은 쫄락쫄락 하명 쌀이 잘 제게 풀어지질

아녀. 경허기 때문에 거 담갓당은에 쭈곡. 믰물썰은 믰물죽은 물 낱 싹싹 믰물썰 놔 근에 그자 혼 번 끓이면 그거는 죽 웨여. 믰물썰은 그것이 영 우리가 기냥 믰물썰 로 먹어봐도 그거는 비삭 약해여. 쌀처럼 딱딱하지 안 허영.

107025 @ 예, 예.

107025 #1 연허영 경 하니까 죽 쭈는 것도 완전.

107025 @ 쉬우컨게예?

107025 #1 그거 허영 허면 죽 풀풀허게시리 그 믰물죽은 간 안 행 그냥 먹어.

107025 @ 간 안 해갓고?

107025 #1 간 안 허영 간장 낱 죽 먹곡 간장 영 찍영 먹고.

107026 @ 믰물죽예? 그 다음에 좁쌀로도 죽 해수가?

107026 #2 조죽.

107026 #1 조죽.

107026 @ 조죽은 어떤 식으로 해?

107026 #1 조죽은 그거는 당그지 아넛당 그자 놔근에 끓영 것도 그거 조죽도 간 간장 영 먹곡 해여.

107026 @ 음, 조죽 쭈는 것도 흐린좁쌀 허고 모힌좁쌀허면 뭐로 해? 조죽 할 때는?

107026 #1 죽 쭈는 조로 해근에 조죽은 저 흐린쌀로는 안 썬.

107026 @ 음.

107026 #1 그자 모힌쌀로만 썬.

107028 @ 모힌쌀로만예. 그 다음에 콩죽도 옛날 어른덜 하영 해영 먹은 거 님 아?

107028 #1 콩죽 인척이 말혈 때 콩 뽕앙 경허영 콩죽에는 쌀 얼마 안 들어가. 콩이 풀풀허고 하니까. 쌀 조금 놓곡 끓이면 풀풀. 경 해근에 우리는 콩죽에 미역 놔근에.

107028 @ 음.

107028 #1 미역 놔근에 쭈면은 그렇게 맛있어. 콩죽에 미역 낱.

107028 @ 녹말이 아니고.

107028 #1 아니, 미역, 미역.

107027 @ 미역 놔야 웨는 거. 경허고 팥죽?

107027 #1 팥죽은 팥 삶아근에 옛날에는 팥 삶아근에 꺾듯 말듯 해근에 뭐 쌀 놔근에 거 쌀 풀어질 때ㄱ장 젓으멍 썬 늘지 아녀게 젓으멍 남죽으로 젓으면 썬 풀 풀하게 썬지민 소금 놔근에 간 허영 팥죽은 탄 거 안 허영 소금 낱 간만 해도 팥죽 은 맛있어.

107027 @ 팥죽할 때도 그 썰을예, 산디썰 말앙은에 좁쌀도 낱은에 험니까?

107027 #1 좁쌀도 낱 허곡 아무 거 놔도 보리썰도도 만도 웨여.

107027 @ 상관없구나예? 보리썰이든 상관 없구나예? 좁쌀 낱은에 팥죽 하영 행

먹어텐 허더라고마씨.

107027 #1 좁쌀, 이제는.

107027 #2 곤썰이 산디허고 곤썰이 막 어려와놓난 옛날은 좁쌀 농곡.

107027 #1 그때는 풋 솥앙 영 꺾영 죽 헛주마는 이제는 풋 솥앙 다마네기 잘리에 담앙 꺾멍 그냥 문딱 해근에 영영영 허멍 꺾곡 꺾곡 하면은.

107027 @ 예.

107027 #1 풋 꺾데기만 그 잘리 속에 잇고, 여물은 짝 빼저근에 경혜영 그 국물에, 가만이 이제 풋 걸러근에. 그 걸른텐 허주. 걸러근에 놔두며은 혼두 시간 잇당 보면은 알맹이는 짝 가라앉고 우의 국물만 남아.

107027 @ 아.

107027 #1 그 물만 말강혜영 시민 그 물을 우리 건 절에서 죽 주는 방법인디, 그 물을 이제 비와와근에 처음에는 풋죽 쏠 때 물. 그냥 맹물을 넣은에 혼 솥 이만은 솥으로 하나 쏜텐 허면은 그 솥으로 한 사분지 일 정도 물 와근에 물 싹싹 끓이면은 이제 풋 우엿 물 거 뜸라근에 거 와근에 막 끓이면은 쌀을 놓는 거라. 쌀 당강 낫단건 쌀 와근에 어느 정도 풀어지면은 그 젤 막곳데 깔아얏인 그 풋 풋 밑에서 그거를 해근에 와근에 쑤는 거라. 그 걸른 밑에 것이 그것이 솥 밑에 잘 넣어.

107027 @ 아아.

107027 #1 잘 놀기 때문에 그거는 젤 막곳데 놓아근에 해근에 젓는 거. 그거는 잘 알아야 돼여.

107027 @ 게니까. 과학적이라예.

107027 #2 표선이는데, 실습 허는 날이 잇수다게. 요새도 초파일날.

107027 @ 아아.

107027 #1 초파일날 절에 오면은 다 해서 신도덜 표선리민덜 안테 다 혼 사발씩 줍니다. 여긴?

107027 @ 절에서가 여기 다 줘?

107027 #1 아 나이 든 사름.

107027 @ 어느 절에 경 햄수가?

107027 #1 관통사.

107027 #2 초파일날.

107027 @ 예.

107027 #1 넬 초파일이든 전날.

107027 #1 아니우다게. 초파일이우파? 동지주. 웃음.

107027 #2 동짓날 풋죽 먹는다고 해서 동짓날.

107027 #1 내일 동지면 오늘. 초파일날 등 싸는 날인데.

107027 @ 그러면 관통사에서 표선 어른들안테.

107027 #1 어르신덜안티.

107027 #2 다 통에.

107027 #1 일회용 그릇에 요런 것에 해근에 깎두기이 영 농곡 해근에 다 어르
신덜안티만 다.

107027 @ 여기 사름도 하니까 쟁장히 하영 써야겄는데.

107027 #1 표선면 다 가시리까지.

107027 @ 잊어불지 말앙은에.

107027 #2 동짓날 기억했다가 혼번 읍서.

107027 #1 그때 신도덜은 막 속암서. 매해.

107027 #2 쌀로 해서 뭘, 뭘, 뭘.

107027 #1 새알, 새알.

107027 #2 새알 그런 거 다 들이치고 그렇게 맛있게 해서.

107027 @1 아까 관통사에서 쓰는 방식이우과?

107027 #1 아니, 이진 어른덜안티 테우는 건 그냥 팻 걸르지 안 허영 그냥 허
여. 걸렁 한다는 거 고급스럽게, 고급스럽게 만든 음식이라. 그거 해근에 그 이제
참쌀을 찹쌀 곶아다근에 그 찹쌀 반죽할 때는 조심 아녀면은 파산하기 오분 전이
라.

107027 @ 예.

107027 #1 찹쌀을 곶아다근에 물 싹싹 가루에 농멍 혼 번에 물 넣은 안 돼여.
물 쪼끔 놔근에 이거 영영 해근에 그 이제 저 남죽이나 밥주걱이나 행 영영 젓어근
에 물 얼마 안 들주게. 이거는. 찹쌀은 물에 당갓다가 곶아온 거라부난에 물 끓인
물 놔근에 쪼끔씩 놔야주 줄락하게 낫당은에 그것이 죽 되면 감당 못허여. 가루 혼
푸대 놔도 안 돼여.

107027 @ 안 돼여.

107027 #1 안 돼여. 거 히안허여. 그 이제 반죽을 만들어근에 그거 떼멍 새알
다 만들어근에 해영 팻죽 열추 썬썬갈 때 새알 농면은 팻죽이 다 썬지면은 그 새알
이 다 우의 다 떠.

107027 @ 음.

107027 #1 까라앗인 거 하나 엇이. 다 뜨면은 이거 죽 다 뻬텐 해근에 경 허곡.
우리 이디는 관통사에 다니고 우리 연화사에 다니는디 우리 연화사에서는 그렇게
노인덜안티 경깅장 할 재정은 안 돼고 절 안네서 먹는 거는 그렇게 해근에 부처님
안티 이제 올리곡 이제.

(중략)

107031 @ 알아수다. 그 다음에 삼춘, 지난번도 얘기헌 거 닥다마는 독죽. 녹두
죽.

107031 #1 녹두는 걸르지 아녕 기냥.

107031 @ 음.

107031 #1 이때나 저때나 삶아가지고 기자 국자로라도 영영영 누르뎡은에 쭈물
쭈물 그 녹두는 그 막 쭈물르는게 맛이 아니고 녹둔 쟈쟈하니까 팻 반작만씩벳기

안 하니까 그거는 그렇게 막 묻지대기젠 하지 아녀고 기자 쫓 그 녹두 그대로 잇어도 그 녹두맛이 나니까 그건 그 쫓죽 쑤는 식으로 썬. 쭈물리지 아녀는 거 뿐이주.

107031 @ 옛날은 득죽이 쥔 큰 죽 아니라낫수가예?

107031 #1 닭죽.

107031 @ 예, 언제 해 먹어수가? 득죽은.

107031 #2 유월 달에.

107031 #1 유월 쭈무날에 득 잡아 먹는 거. 우리 어머니네 득 잡앙 먹을 거난 검질 빨리 메렌 허멍 집에서 다 키운 닭.

107031 @ 예, 예.

107031 #1 키운 우린 집원 다섯 마리 으섯 머리 잡아놓은에 잘도 푸지게 먹언. 그때가, 그때가 춤.

107031 #2 유월 스무날 득 잡아 먹는 날.

107031 @ 예.

107031 #1 일년에 그 정해진 날.

107031 @ 예, 그날은 꼭 먹어야 돼여예?

107031 #1 그날은 더위 먹은 것도 다 없어지곡 앞으로 더위도 안 먹넨 헤여근에 유월 스무날 이제는 말복이여 중복이여.

107031 #2 복날이엔 허영 일년에 세 번.

107031 @ 일년에 세번예?

107031 #2 초복 중복 말복.

107031 #1 근치록덜 식당에서 삼계탕 먹으레 옛날덜 집의서.

107031 @ 유월 스무날은 안 먹엄신가마씨? 이젠?

107031 #1 우리도 옛날 할망이주마는 우리도.

107031 #2 요새는 안 먹어.

107031 #1 집의서 하는 것도 귀차녕 안 먹어. 형제간들이영 가근에 먹영 오주.

107032 @ 그냥 먹영 치왕. 알아수다. 그 다음에 국죽?

107032 #1 국수.

107032 @ 국죽, 국죽?

107032 #1 국죽?

107032 @ 예. 그 녹물 뉘은에 허는 걸 국죽이렌 안 헉니까? 여긴?

107032 #1 아니 식은밥이라도 무신 거 그 놚근에 헤영 끓여 녹물 영영 무지러 놚근에 끓여근에 하면은 경헤근에 먹엇주. 옛날에 그 쫓 엇일 때 이젠 그런 죽 썬 안 먹어.

107032 @ 그 죽 일름이 뭐라마씨?

107032 #1 게난

107032 #2 국죽이엔 말은 들엇는데 그 당시에 국죽은 보리밥 행 놚두면은 조금 쉬면은 쉰다리 먹엇고.

107032 @ 예.

107032 #2 원다리 혈 정도가 아니면 씻어근에 그 녹물이영 넣은에 ㄴ찌 쭈면은 국죽 국죽 헛던 거 같애.

107032 @ 예, 밥 먹단 거 씻었어?

107032 #1 씻었.

107032 #2 바로 먹젠 허니까 원내 나고, 원다리 허젠 허난 너무 안 쉬엇고 이렇게 버리긴 아갑곡 해서 씻어뒀 낫어 바로 끓린 것이 국죽 국죽 해난 것 닮아.

107032 @ 그 국죽 혈 때 간은 해마씨?

107032 #1 간 하주게.

107032 #2 국인데 간 안 허민.

107032 @ 웬장 넣은에 허는 거?

107032 #1 웬장 아니 간장.

107032 #2 간장.

107032 @ 간장 넣은에?

107032 #1 옛날은 이제 답지 아녕 간장도 막 맛있엇어. 그 옛날 간장.

107033 @ 그 꿩으로도 죽 해먹어수가?

107033 #1 꿩으로 꿩탕. 꿩 그거 꿩도 그 꿩을 이제는 꿩 그거 쉽게시리 하주마는 옛날에 꿩이 허주마는 옛날에 꿩이.

107033 #2 잘 아녀서.

107033 #1 우리 아버지는 통조림 공장에 다니난 통조림 공장에 그 사장이 일본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영 그 소충.

107033 @ 예.

107033 #1 그거 잘 아정 그 꿩 쏘으레 잘 다년게. 게난 우리 아버지도 그 삼마 안티 이제 그거 소충 그거 헨에 그 개 들곡 해근에 강 허민 하루 즈물앙 영 허민 꿩 하나 아니민 두 개. 그치룩허영 집의서 먹어나고.

107033 @ 걸로도 죽해영은에?

107033 #1 그것도 죽은 몰라도 꿩탕엔 국은 무수 영 굵직굵직하게 썰어놓곡 허영 다 끓여지민 ㄴ르 카근에 넣은에 경해영 국은 해나도 죽은?

107033 @2 엇은 안 해수가?

107033 #2 여기서는 그 총 그런 것보단도 코 낱.

107033 @ 꿩코 낱예?

107033 #2 겨울에 이렇게 헨디 코 바근에 잡으면은 그렇게 잡기가 힘들고 해낫 주마는. 꿩엇덜은 행 먹는 거 봐서.

107033 @ 음, 꿩엇 겨울에.

107033 #2 꿩엇 허면은 혼 머리 허면은 혼 겨울 쪼끔씩 쪼끔씩 별미로 허영.

107033 #1 아이고, 옛날이 우리 집의 그 단지 어디 가신고? 이제 그거 잊어서민 돈을 얼마 갈 단지. 요만은 한 단지 요만허고 굵은 요만은 허고 배는 이만은 해근

에 요만은 한 거 막 헤영현 것에 퍼렁현 쫓 기려진.

107033 #2 도자긴데.

107033 #1 그거 그것이 우리 셋하르방 아저당 옛 봐짱 먹어버신가. 그것에 헤근에 썰엿을 헤근에 우리 오빠만 주게 우리 어머니가 우린 못 먹게 헤연. 그 꿔 우의 꿔 우의 놓는 거라. 경허민 버른은 경 잘 헤난. 옛날은 의자 그런 것도 엇이난 사름 굽으민 그 우의 올라가근에 그거 헤근에 그거 헨 들러 영 썰 엇 우의 고기 삐쭉삐쭉 그 우터레 올려놔볼꼭 헤난 그 생각이 나.

107033 @ 에 몰르게 이제.

107033 #1 어머니네 일허레 가불민.

107033 #2 썰엿은 보통 사름은 헤 먹지 못허는 거고.

107033 #1 것도 여간 아니. 그 썰엿 하는 과정이 나 이제 가만히 헤 보민 우린 못함직헤여.

107033 @ 예.

107033 #1 골, 주냉이보리 그거 이제 물에 커근에 이제 등갓다근에 그거 풀어지면은 그거 물 빠주와근에 어디 멩텅이에 놔근에 싹을 틔우는 거라이.

107033 @ 예.

107033 #1 거 싹 막 나면은 그거를 널영.

107033 @ 음.

107033 #1 그거 널어근에 이제 막 들루면은 정그레에 영 골면은 그것이 골이라이. 골이고 보리 막 보리차 헤근에 거피는 것보단 흐끔 흑게 헤근에 그거를 영영 떡 만들어 틔우면은 그거 누룩.

107033 @ 예.

107033 #1 경헿 그 누룩을 막 뿔아근에 헤영 그 골에 서꺼근에 헤영 놔두면은 그것이 이제 바글바글 쥔 거 아니. 꿔면은 그 흐린쭈썰 헤근에 오메기떡 헤근에 그거 헤영 그 물하고 그거 영 골하고 무신 거 그 누룩하고 서꺼진 그 물 그거 헤근에 버무려근에 그 물 내와근에 그거하곡 헨. 그거 헨에 막 두말떼기에 난 흐룻밤 흐를 딸리는 거라. 얼추 딸려지면은 그 썰 고기.

107033 @ 예.

107033 #1 그 썰고기 막 삶안 찢인 거. 찢인 거 헨에 엇에 난에 흐 시간쭈 딸린 그거 하난 그것이 썰엿, 썰엿 헨에 경헤연 막 하난에 요만한 그런 단지로 두 개도 안 쥔게.

107033 @ 음, 두말떼기 헤도예?

107033 #1 두말떼기 헤도.

107033 @ 얼마나 그거를 딸렁 헤여시믄?

107033 #1 게난 나가 이제 생각해보민 우리는 그거 못할 거 같애.

107033 @ 그 정성이 보통 정성이 아니네?

107033 #1 ** 아이고.

107033 @ 웃음.

107033 #1 옛날 어른덜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네 그 제사 다 허곡 거 허영 살젠 허난 고생께나 헛주.

범벅과 수제비

107034 @ 요즘처럼 돈도 있는 때도 아니고예? 삼춘, 범벅덜도 못사는 사름덜은 범벅 하영 헤먹어서예?

107034 #1 잘 사는 사름덜도 범벅은 막 헤 먹어서.

107034 @ 무사?

107034 #1 범벅 별미로게.

107034 @ 아, 별미로.

107034 #1 감저 해근에 이제 벻경.

107034@ 예. 이거 요거 요거민 두 개 세 개 해지게 썰어근에 솟디 놔근에 불 솟으면 그거 놔근에 그거 감자가 다 익어서면은 마르를 그 우터레 놓는 거라.

107034 @ 음.

107034 #1 게문 마르를 그 우의 놔근에 불 솟아가민 발탁발탁하는 소리 흥뽀 그 소리가 줄어 켓다근에.

107034 @ 예.

107034 #1 영 열아근에 막 남죽으로 그냥 거 젓젠허민 얼마나 힘들카부텐.

107034 @ 아아.

107034 #1 그거 해여 놔 마르 아니 마르 안 보일 정도로 막 젓젠 허민.

107034 @ 음.

107034 #1 해당 보민 헤뜩헤뜩 마르 나오곡 하민 그 마르가 그 마르 하면은 쟈 마난 잘 안 뻐텐 마르 안 보일 정도로 막 젓어놓민 경허영 범벅.

107034 @ 그게 범벅?

107034 #1 으.

107034 @ 게민 범벅은 주로 뭐 놔 허는 거우과? 범벅에는.

107034 #1 감저 놔 하곡 무수 놔 허곡 그거.

107034 @ 뭐 여기는 저베기?

107034 #1 저베기?

107035 @ 저베기는 무슨 저베기 헤영 먹은 거우과?

107035 #1 저베기는 아무 마르라도 해근에 반죽행 영영 끓어 놔근에 해도. 밀, 옛날에는 밀 옛날 토종밀 그거 헤영 곱아근에 정마레에 곱앙 그거 해근에 반죽 해근에 물 끓어가민 손으로 영영영 끓어놔근에.

107035 #2 쥬 간단히 행 먹는 거 마물초베기.

107035 @ 마물초베기 아.

107035 #1 마물초베기 애기 낳나민 먹는 거. 그건 물 싹싹 끓으면 마물마르에

반죽하면은 그거 반죽 다 끓으는 물리레 문딱 다 그레 비와나근에 국자로 탁탁 다 찌는 거라. 찌으민 짓어가민 그거 궁둥즈배기.

107035 @ 그제 궁둥즈배기? 궁둥즈배기는 그냥.

107035 @2 통채로 놓는 거.

107035 @ 영허영 비와냥?

107035 #1 다 숟가락으로 끓는 거라. 끓당 보면은 끓일 거 아니. 반죽할 때부터 끓인 물 놓니까 벌써 다 익은 거. 혼 불만 끓이면은 조금 낱 간 해근에 궁둥즈배기.

107035 @ 무사 궁둥즈배기엔 해신고예? 삼춘.

107035 #1 계난 그자 마르 그자 혼번에 해연에 하난에 궁둥이엔 현 것이 그것도 무신 의미가 이신 말이라.

107035 @ 계난 그 막 크덴 허멍예? 그렇게 허면은?

107035 #1 막 크주게. 경혜영 이만한 것도 뿌시레기도 지고. 이만한 것도다 익어. 선 건 엇어. 끓인 물로 반죽.

107035 @2 메밀 마르로헨 겨우과?

107035 #2 믹멀츠배기.

107035 @ 밀가루는 안 돼고마씨?

107035 #1 밀가루로 궁둥즈배기 옛날에 그

107035 #2 피 삭넨.

107035 #1 믹물 믹물 그거 피 삭넨 해근에 낱민 곧 궁둥즈배기 해당 애기어멍 안티 앓다주구게. 먹으렌.

107035 @ 음음.

107035 #1 그 다음부턴 미역국 해근에 해주곡.

107035 @ 그 다음 삼춘, 궁둥즈배기 헐 때는 그냥 뭐 메역을 놓거나 늬뻬 이런 것도 안 놓는 거?

107035 #1 아무 것도 안 낱.

107035 @ 일반 저배기헐 때는?

107035 #1 일반 저배기 헐 때는 그 밀 같은 거 저 거세기 이제 마뜨민 밀 마르.

107035 @ 으.

107035 #1 그런 거 반죽 해근에 물 끓여놓민 그자 영영 손으로 반죽 해놓은 거 손에 심영 닐류멍 끓어 놓는 거라이. 끓어 낱은에 그디 무시거 건데기 놓구정 허민 농곡 말구정 허민 말곡.

107035 @ 아, 놓지 안 허고.

107035 #1 늬물이라도 놓고 이녀 싶은 대로 놔근에 행 먹을 수 잇곡 믹물 그 궁둥즈배기는 무시거 안 낱 기자.

107035 @ 안 낱예? 궁둥즈배기. 저쪽 구좌 가니까 궁둥즈배기이란 말 처음 들어신디 여기 왕 또 들엄신게. 여기완 딱 두 번 들엄수다, 궁둥즈배기.

107035 #1 궁둥즈배기.

107036 @ 그 다음에 칼국수도 해서예? 믱말칼국수는 어떤 식으로 해서마씨?

107036 #1 믱말칼국수는 어떻게든 끓인물 이만한 돛배. 그런 거에 놉근에 병.

107036 @ 음.

107036 #1 병 가정 막 그거 이제 미는 거라. 돛배에 놉근에 막 이제 얹게시리. 이치룩 이제 이런 식으로 영 밀영 밀면은 이거를 이제 영 토막토막 인치룩 다 끓는 거라.

107036 @ 예.

107036 #1 즈근즈근 놉근에 영영 썰면은 그것이 다 국수처럼 다 썰어. 막 ㄱ늘 게 하젠 허민 ㄱ늘게 썰곡. 보통 하젠허면 보통으로 썰곡. 물 끓으면은 그것디레 영 영 영영 해근에 영영 골골로 흠치 다락 놓면은 범벅지니까 골고로 영영 놉근에 그 거 할 때는 불도 와랑와랑 숨아야 돼여. 불 켜불이라야.

107036 @ 켜불이라야.

107036 #1 미지근하면은 것이 다 부뜨니까, 불이 켜여야. 그 완전 익으면은 안 부뜨는디, 익도 설지도 안 헐 때 부뜨주게. 거 빨리 익게시리 와랑와랑 놉근에 젓어. 닭, 닭죽 헐 때는 뭐 닭으로 해근에 국수할 때는 닭 국물 끓이다가 그렇게 해서 놓곡. 놉난 다음에 닭고기 영영 찢어논 거 경허영 해근에 간하면은 그것이 이제 뭐 다 그런 식으로라.

107036 @ 믱말칼국수예?

107036 #1 저 메밀이나.

107036 @ 메밀이나.

107036 #1 메밀은 그거는 이 풀이 좋아서.

107036 @ 예.

107036 #1 뭐 물 흐썸 미지근하게 데와도 반죽이 돼는디 믱물ㄱ르는 물 뜨거워야 돼여.

107036 @ 믱물ㄱ르는예, 믱말칼국수는 언제 먹어마씨? 주로.

107036 #1 믱말칼국수는 뭐 주로 뭐 겨울에. 겨울에 그거 집의서 그냥 집의서 이녀 식구 먹젠 그치룩 번거롭게 하지 아녀주게. 거 반죽하곡 이거 밀곡 하민 이레 ㄱ르로 해영하곡 사람이 여간 아니. 그거 무시거 하니까 뭐 무슨 우리 올히 총회할 때 헐에 저.

107036 #2 특별한 소님이 올 때.

107036 @ 아.

107036 #2 특별한 소님이 올 때.

107036 @ 아.

107036 #1 특별한 날.

107036 #2 특별한 날.

107036 #1 믱물국수 할 거여 오라. 경해주게. 귀하게 귀하지도 아녀 건디 만드는데 과정이야.

107036 @ 맞아예?

107036 #1 복잡하니까 잘 아녕 먹주게. 게난 특별하게시리 뭐 총회나 사름 하영 올 때는 영 할 때는 특별하게 그런 거 영 해근에 행 먹곡.

107036 @ 게난 올해 총회할 때 삼춘이 모뎀국수헐에.

107036 #1 닭은 없고 꿩 대신 닭.

107036 #2 꿩 대신 닭.

107036 @ 원래는 꿩으로 하영 먹어서예?

107036 #1 꿩 대신 닭 헐에 닭 열 마리 해단 므물꺾르 서 말인가. 웬간이 푸지게.

107036 @ 서 말 정도하면 얼마큼 헐단 말이야.

107036 #1 먹구정 현 냥 먹으니까.

107036 @ 다른 지역에는 강 보니까 므물칼국수 행예 제에도 올리고 경 헐디다.

107036 #1 제예?

107036 @2 멩질하기 전에마씨?

107036 #1 멩질하기 전에. 이디는 모뎀국수 해근에 올리지 안 허영 죽어 숨이 떨어지 므물썰 가져근에 죽 썬근에 원미. 원미엔 행 죽 올리곡. 또 사름 죽영 절로 해영 완젠 허민 원미 썬 놔두라. 영해근에 므물쌀 해영 죽 썬근에 해다근에.

107036 #2 뭇엔 허는고.

107036 #1 케우리고.

107036 @ 케우리고예? 지금도 그런 식으로 헐니까?

107036 #1 지금도 경 허주.

107036 @ 아아.

107036 #1 영장 곧 하면은 풋죽 썬 먹고 그 상에는 원미 썬근에 올려.

107036 @ 그것도 원미 썬 올리곡. 잠깐 너미 하영 해부난 미안해여.

107036 #1 그만 허주 오늘랑.

107036 @ 그만허카마씨?

김치

107037 @ 이제는예, 지난번에 범벅까지 애길 해신디 오늘은 김치.

107037 #1 김치.

107037 @ 여기는

107037 @ 그냥 김치.

107037 #1 김치.

107037 @ 김치 종류는 어떤 종류들이 잇어신고예?

107037 #1 옛날?

107037 @ 예.

107037 #1 옛날에는 우리 두릴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썸인가 그때 보면은 우

리 어머니네 씨도 좋지 아년 때 허난 퍼데기주게.

107037 @ 예, 예.

107037 #1 퍼데기 김치 해근에 그거 캐영 바당 그땐 소금이 귀하니까.

107037 @ 음.

107037 #1 바당에 강은에 짬물 질어당.

107037 @ 예.

107037 #1 절여근에 절영 시지는 것도 바당에 정강 싯정 왕은에 김치를 담그는
디 옛날에는 멜덜 그 바당에 잘 올르난 멜젓헛당 그거 하고 집에 고치.

107037 @ 예.

107037 #1 이젠 고추엔 허주마는 그땐 고치이.

107037 @ 예.

107037 #1 파랑헌 거 받은 익고 받은 선 것도 오래 놔두면은 헤영허게 바라근
에 막 허는 거. 우리 어머니네 보면 그거 말경 보깁.

107037 @ 예.

107037 #1 솟두경 보까근에 방에에 뿔앙 입 막 막앙은에 방에에 뿔아근에.

107037 @ 음.

107037 #1 그것에 꿔 놓곡. 그자 농사진 거 꿔놓곡 옛날에는 미원 엇이난.

107037 @ 음.

107037 #1 꿔하고 고치만 놔근에 버무령.

107037 @ 그 짐치를 무신 짐치해마씨?

107037 #1 기냥 김치, 김치 허멍 헤신디 벨다르게시리 땀 김치 말은 들어본 기
역이 엇인디.

107037 @ 퍼데기느물헛은에.

107037 #1 씨가 나쁘니까 속이 안 앓다. 암만 돛가레 썬만 새파랑헌 썬만 이만
썬허주. 캐면은 퍼데기.

107037 @ 그 느물로만 짐치를 헛 거라마씨?

107037 #1 음.

107037 @ 춤느말 이런 거는 안 허고.

107037 #2 늬삐김치.

107037 #1 늬삐 그거 헤영케 버물영 그자 경허영 허고.

107039 @ 요즘 열무짐치 허지 앓읍니까예? 그런 것도 옛날에 헤신가마씨?

107039 #1 무수 그 썬 끓어근에 그거 해근에 김치명 말명 소금물에 담가근에
경 헛다근에 겨울 뒤편은.

107039 @ 으.

107039 #1 감자가 주로 양식으로 그때 먹을 때는 우리는 경 안 헛주마는 땀 집
덜 보면 감자를 두말떼기로 두말떼기로 하나.

107039 @ 예.

107039 #1 그거 해근에 뭐 낭푼 그런 것이 아니고 차룽.

107039 @ 예.

107039 #1 그 차룽으로 수빱 감자 내놔당 낭 무수 이파리 소금물에 그거 하멍 감자 다 먹어나서.

107039 @ 그 무수 이파리 해갓고 소금물에 둥근 거는 뭐렌 불런마씨?

107039 #1 소금물에 담갓덴망 찰늑물짐치 가정오라 가져오라.

107039 @ 찰늑물짐치 그 말이 필요헌 거.

107039 #1 좋은 김치로 생각헤연 감저 먹을 때는 그 김치를 안 먹고.

107039 @ 예.

107039 #1 찰늑물짐치 먹고. 소님이나 오면은 꼭 배추짐치 헤연 먹곡.

107040 @ 그 다음 물짐치도 헛수가?

107040 #1 옛날에.

107040 @ 옛날에.

107040 #1 중간에 돼니까 물김치여 헤연 먹어신디.

107041 @ 옛날 동지짐치도.

107041 #1 여긴 동지짐치 안 톨 게. 소금물 헤여근에 그거 당가농난 갓 쓰멍 기 후가 막 찰지 안 허니까 안 돼연 돼연. 갓.

107041 #1 그 국물이 말짱헤야 허는디 갓 우에 우리 그때 우리 어머니네 허여 보단 따시 안 헨게.

107041 @ 동지짐치예, 삼춘네도 허여보지 아녀고.

107041 #1 여기가 돼지 안 허니까?

107041 @ 갓도 지역에 따랑 트나다예?

107041 #1 육지는 소금물 헤영 담강 농른 국물이 말짱허고 무수 물 그거 겨울 에쭈은 상강이 얼음 그거 영 하민 그거 얼음이영 물 떠당 그거 영영 썰어놔근에 무수에 경행 먹으니까 씨원행 좋아신디.

107041 @ 음.

107041 #1 그 육지 부산 살 때 나가 이디 완 하니까.

107041 @ 건 동치미고. 배추, 배추 헛당 꽃

107041 #1 동김치.

107041 @ 여기서는 동김치헛니까? 우리 시에서는 동지짐치허는데 동김치. 양념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107041 #1 무수 통차 농는 거 아니? 적당한 걸로만 골라가지고 우의 갓 썬 곶 피연.

107041 @ 무수

107041 #2 무수 통채로 고고김치. 조채 고고김치 모르지예?

107041 #1 다짱, 다짱.

107041 @ 여기서 어떤 식으로 헨 거라마씨?

107041 #2 조چه 오래 놔두면은 발짱게.
 107041 #1 조 색깔 나주게. 다짱이.
 107041 #2 것보고 여기서 고고짐치.
 107041 @ 고고짐치렌 헤예? 고고짐치. 어.
 107041 #2 그래서 부산 가서 잇을 때 짜장면 집에 가서 인제 허는데 다짱이 나 오니까 우리 친구가 고고짐치 더 가져오세요? 허난 못 알아먹언. 나 헤석해줘나서.
 107041 @ 조침이
 107041 #1 조를 갈아근에 하면은 쌀은 쌀대로 체를 가정 소금에 버물여근에 그 것도 같이 버물영.
 107041 #2 묻어놔두면은
 107041 #1 묻영 놔두면은 색이 줍쌀색깔.
 107041 @ 고고짐치엔 현 말은 이제까지 한번도 안 들어봤수다.
 107041 @2 고고짐치.
 107041 #1 정신 출렁 그냥은 김치랑말양 웬장도 엇언에 웬장 다 빌레 다니고.
 107041 @ 맞수다.
 107041 #1 웬장 혼 사발 빌어단 먹어서.
 107042 @ 계문 이쪽에가 늑뻬를 하영 갈아수가?
 107042 #1 늑뻬 우жат 이신디는 늑뻬 갈안 먹영 살아신디. 가시리 풀김치. 풀김치가 아니고.
 107042 #1 그 무수가 무수차 다 캐여다근에 그거 가져근에 소금물에 담жат당은 에 경헤연 먹고.
 107042 #2 여기 두 가지 단지늑뻬라고 허고
 107042 @ 쉼뻬늑뻬.
 107042 #1 쉼뻬늑뻬.
 107042 #1 단지늑뻬.
 107042 @ 고고짐치는 어떤 걸로?
 107043 @ 그 다음, 삼춘 여기 파짐치도 험니까>
 107043 #1 그 당시는 파지덜 막 유행. 다 집집마다 다 행 먹어서.
 107043 @ 근데 파지렌 험신고예?
 107043 #1 파로 하니까 파지엔 험실 테주. 글자 하나 빼여불면은 시간도 절약웨고.
 107043 @ 그것도 양념으로 허는 거지예?
 107043 #1 것도 김치 양념으로 다허는 거.
 107044 @ 옛날 달래를 이 동넨 뭇렌 험니까?
 107044 #2 썽마농.
 107044 #1 썽마농엔도 허고 드룻마늘이렌도 허곡.
 107044 @ 썽마농헤갓고도 짐치헤난마씨?

107044 #1 드르에 나강은에 거 문딱 캐영은에 보리 가근에 거 캐연그에 즈근즈 근혜영 주지 만들영이.

107044 @ 예.

107044 #1 소라껍데기처럼 이렇게 영 허영 만들영은에 소금물에 담강.

107044 @ 예.

107044 #1 담강 돌 지들랏당 놔뒀은에 그거 주지. 영 주지처럼 몰아진 그거 헉 나씩 꺼내 먹어.

107044 @ 그거는 무신 거렌 혜여? 이름은 무신 거옌 혜여?

107044 #1 드룻마늘 그거 저.

107044 #2 마늘지.

107044 #1 마늘지 가정오렌 허는가? 뭐 그런 식으로 혜여근에/

107045 @ 여기는 갓을 뭐렌 험니까?

107045 #1 머리에 쓰는 갓.

107045 @ 아니, 김치허는 갓.

107045 #2 갓김치.

107045 #1 갓김치 그 당시에도 잇엇어.

107045 #2 막 독헌 거 이십니께.

107045 #1 거세기. 무신. 아이고.

107045 #2 갈진 안 허고 드르에 나는 거.

107045 #1 갓느물집치 막끗데털은 갓김치옌 그런 거 행 먹고.

107045 #2 돌산에서 전라도 그디서 갓김치옌 말은 엇엇어.

107045 @ 우리 같은 경우는 갓느물집치.

107045 #1 갓느물집치.

107046 @ 새우리집치도 헛지에?

107046 #1 새우리집치는 여름 김치주게. 봄 나근에 가을까진디 겨 김치명말멍 지영 데우청은에 그자 혜영 그때는 게도 간장, 조선간장.

107046 @ 예.

107046 #1 그거 무청도 먹곡. 이녁 집의 대충 영 이녁 집의 먹을만씩만 갈양허 면은 자리물훼하는 물훼하는 디 톨채하는 디 냉국덜 하는디 그 새우리는 꼭 들어가 야 혜여.

107046 @ 경혜야 맛이 구수하고예? 그 다음에 아까는 배추집치 담그는 거 말해 주엇고예?

107047 @ 늬삐집치 담글 때 순서.

107047 #1 늬삐집치 해서 즐게 썰지 아녕은에 주먹 이만씩만씩.

107047 @ 주먹만씩.

107047 #1 그거 버무려근에 담아근에 돌 지줄황 바당에 곱닥곱닥헌 거 이시민 다 봉강오주게.

107047 @ 예.

107047 #1 자리젓 할 때 지들르고 그 우의 거는 변하니까.

107047 #1 물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돌로 지들르는 거라.

107047 #2 늪빼 김치

107047 @ 건 뭐우과?

107047 #1 득리 놔놓은에 양념 따로 먹을 수 있으니까 배추김치 무수 기냥.

107047 @ 예.

107047 #1 무수 기냥.

107047 #2 이만큼씩 썰영.

107047 @ 아아.

107047 #1 혹께 썰어근에 김치 하면은 배추김치에 양념이 무수에 들어가근에 썬원허고 맛 잇을 수가 있어. 지금은 경행 먹어도 맛 잇일 거우다.

107047 #2 아아.

107047 #1 입이 틀러부니까 그거 꺼낸 그냥 막 영허영 끓으멍 경 아녀민 영 썰어근에 먹기도 하고.

107047 #1 김치 그것도 사는 집더렌 다 차례 출려근에 헛주. 경 아녀디 그냥 닥치는냥 바당에 강 툄도 기자 혜근에 반찬혜근에 먹곡. 무시거 특별하게 감자 넣은에 조팍만 해도 반찬엇이 밥 먹어신디.

젓갈

107048 @ 이제는 젓갈, 젓갈은 여기에서는 어떤 젓갈 어떤 젓갈 행 먹어신고 예?

107048 #1 옛날엔 술춘 영헌 거 잇어났어.

107048 @ 술춘.

107048 #1 그 술춘은 요만은벧기 안허주게. 그걸 벡허게 요만큼 널르게 만들영.

107048 @ 음.

107048 #1 경혜근에 거기에 그때 옛날에는 자리.

107048 @ 예.

107048 #1 자리젓이 젤이 큰 반찬. 거 쪼끔 산텐 하는 집의나 자리젓 하주. 자리젓 헐에 보면은 우리 집의는 두 개씩. 사람, 인부를 빌어근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치록 혜근에 돌 지들랑. 우의 대나무썩 어떻든 간에 자리젓이 맛있어.

107048 @ 음.

107048 #2 식구들 많은 데는예 밥 먹을 때 어멍이 흐나씩 배급해줘.

107048 #1 자리젓 하나민 밥 먹엇주게. 두 개 세 개 욱심으로 먹젠 허곡. 멜을 저디 그때는 지금 담지 아녕 통에

107048 @ 예.

107048 #1 미처 못 그런 것덜 대체니 이만한 차룽이니 거렁 돈 쥘 사지 아녕.

107048 #2 경헌디양 표선이라 갯놉이란 데가 잇수다 통.
 107048 #2 갯놉.
 107048@ 갯놉.
 107048 #2 갯놉이란 그디.
 107048#1 우리 두린 때 보민 반치. 반치엔 현 거 알아져.
 107048#1 통에 뽕이 잘 들어.
 107048 @ 예, 예, 예.
 107048 #1 바나나낭 닭은 반치.
 107048 @ 예.
 107048 #1 딱딱 잘라근에 찰라근에 해영 간장에.
 107048 @ 예.
 107048 #1 영영 찢으멍 우리 막. 뽕리 같은 경우는 막 먹고. 그 남뎡이, 남뎡이
 는 영영 찢으멍 밥 먹어나서.
 107051 @ 반치지. 반치지도 잇고예? 그 다음에 혹시 알게미것도 헛수가?
 107051 #1 알게미것 그때에 알게미. 그때는 고기가 하영 나지 아녀니까 창지것
 게.
 107051 #2 창란젓.
 107051 @2 갈치
 107051 #2 그것도 험니다.
 107051 #1 그 옛날에는 풍선 가져근에 갈치를 나끄레 가면은 갈칠 하영 나까져
 서.
 107051 @ 계난.
 107051 #1 뭐 배차 다 얹어정 사람도 하나도 배도 흔적엇이 엇어져불곡. 그치록
 먼바당에 나가야 하영 나까는데.
 107051 #2 풀 건 엇고.
 107051 #1 이녁 방상에덜 영 해영 나누영 먹고.
 107052 @ 그 정도예? 여기는 갱이를 갱이렌 험니까?
 107052 #1 갱이. 무시거 아까?
 107052 #2 북군엔 갱이.
 107052 @ 갱이로도 젓헛지예?
 107052 #1 갱이젓 하주게.
 107052 @ 거는 어떤 식으로?
 107052 #1 갱이젓은 간장에 담강.
 107052 @ 어떤 갱이로.
 107052 #2 큰갱이가 돌 일러근에 준준 하루 정도 물에 담강으로.
 107052 #1 우리 할머니네 곁은 오즘 싸베야헌텐 허멍. 그거 해근에 단지에 놔근
 에 간장 우티레 비왕.

107052 @ 음.

107052 #2 똥갱이로 다 하여.

107052 @ 여기서는.

107052 #2 막 우에 올라오는 거. 그것이 켈 맛있고.

107053 @ 아, 경험니까? 그 다음에 자리젓 헐 때는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우과?

107053 #1 자리젓은?

107053 @ 비율은?

107053 #1 그때 비율 칠리멍 그런 식으로. 자리 헐 말이든 소금 헐 관뎀 낱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나도 웬장은 담아근에 먹는다.

107053 @ 예.

107053 #1 소금이 그 콩 두 관뎀 삶으면 헐 관뎀. 골썩하게 헐 관뎀. 난 이제까지 웬장 상 먹어보지 아녀서.

107053 @ 이따 웬장.

107053 #1 콩 삶아 아덜한티도 보내곡 딸덜은 딸덜 웬장 공짜 가져가민 아덜 못 산텐 허멍 돈 다 받아근에 딸덜은 주곡.

107054 @ 옛날에 칠레, 칠레 헤서예? 칠레가 뭐우과?

107054 #2 칠레 젓갈 국물을 칠레, 칠레 헐 거 아니?

107054 #1 젓갈.

107054 @ 젓국물?

107054 #1 반찬엔 헐 말이주게.

107054 @ 젓갈 국물해갓고.

107054 #1 칠레 썩지롱하게시리.

107054 @ 그 칠레는 어떤 식으로 먹는 거라마씨?

107054 #1 그 칠레는 자리젓 국물도 뉘곡

107054 #2 냉중에 그것에 문저 들러부니까.

장아찌와 회

107055 @ 남은 게 칠레구나게.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반치지도 헛잖아예? 지 멘 들엉 먹엇던 거는 뭇로?

107055 #1 무신 거?

107055 @ 지.

107055 #1 지는 그 ?

107055 @ 예.

107055 #1 콤포데산이 가져근에 그 지. 그런 거. 그것도 밧디 우жат 이신 사름 엇인 사름은 마농지도 못 담앙 먹어서.

107055 @ 유지는 안 헤마씨?

107055 #2 유.

107055 @ 갯잎?

107055 #1 누게 담양 먹어서. 안 담양 먹고. 이 마농지도 저 부잣집의덜 영 우
갯 잇는 사름덜 경 아넌 사름들은 썩마늘.

107055 @ 예.

107055 #1 그거 캐여당은에 그거 조지 만들영 경해영.

107055 @ 양웨는 집집마다 잇잖아예?

107055 #1 양웨는 숙전 박아근에. 이만은 노프게시리 거기에 양웨 빨리 심영 놔
두면은 집집마다 양에는 잇어났어.

107055 @ 그것도 해영 지도 해영 먹었지예?

107055 #1 그땐

107055 #2 양웨입해근에 솟아근에 밥 썩 먹었주.

107055 @ 솟아근에예?

107055 #1 그 밑으로 빨간 거 양에끈.

107055 @ 양에끈.

107055 #1 그거 해 채소도

107055 #2 채소도

107055 #1 상에도.

107055 @ 그 채소는 어떤 식으로 만든 거라?

107055 #1 영영영 찢어놔근에 그때 뭐 조선간장 간장 농국 기름 넣고 경해근에
무쳐근에.

107055 @ 경허영 제사에 올린 거라예? 여기 물망도 지 답습니까?

107055 #1 물망은 지 안 답아. 물망은 해떡국 물망 그거 물리왓당은에 물에 그
거 허영 무청 떡국.

107055 @ 으음.

107055 #1 그 그치룩했주.

107055 @ 장에 담국 이런 것은 엇어.

107055 #1 그치룩 안 해여.

107055 #2 요새 나온 물망하고 표선리서 나오는 물망은 틀러났수다게.

107055 #1 아아.

107055 #2 그렇게

107055 @ 너무 민작해영예?

107055 #1 옛날 물망은 거칠게시리 하난 그거 허영 단지늬뻘썩 서꺼근에 돛국
물 그 잔치 때 멧 가메 끓이민 동네방네 다 왕 떡국. 아니 온 아인 혼 사발 드라
두 사발 드라.

107055 #2 우리 나이에는.

107055 @2 방울이 컷수가?

107055 #2 방울 툭툭 씹는 맛도 나고.
 107055 @ 예, 예, 예.
 107055 #1 겐이 이젠 씨저벤.
 107055 #2 양어장덜로.
 107055 @
 107055 #1 어디 쪽더레 김녕 그런 디덜 잇인 모냥이라. 경혜영 돛국물 끓리민
 그거 허민 맛이 엇어.
 107056 @ 삼춘, 요즘 마농지 담암수광?
 107056 #1 요새는 마농지 우리 마늘지 잇주마는 마늘지 쪼끔 주걸랑 가정 강
 먹어보젠?
 107056 @ 알아수다.
 107056 #1 마늘은 만약에 요만씩 무꾼 것이 다섯 단 다섯 단. 거 다 다듬양은에
 이제 싹저근에 그냥 썰영 다라에 놔근에 이제 간장 4대 1 비율로이.
 107056 @ 사대일 비율이민 뭐가 사고
 107056 #1 그거 이제 녁 단이민 간장 대 혼 돼. 녁 단 한 일고으덱 단 여남은
 단 가까이 돼면은 두 돼. 두 돼 해근에 농곡 설탕 일 킬로 농곡 저 현미식초 그거
 혼나 농곡. 경혜근에 마늘 주걸랑 가져당 먹어봐. 나가 다 만든 거.
 107056 @ 우리 마농장아찌 못 만들었는데. 경혜 딱.
 107056 #1 갓도 하나 안 썬.
 107056 @ 그걸 여기서는 마농지.
 107056 #1 마농지. 콤포데산이지.
 107056 @ 옛날에도 콤포데산이지렌 해낫수가? 콤포데산이지.
 107057 @ 옛날은 해는 어떤 거 주로
 107057 #1 자리훼.
 107057 @ 자리훼.
 107057 #2 비께, 비께.
 107057 #1 비께같은 거.
 107057 #2 상어.
 107057 @ 비께허고 상어허곤 어떻게.
 107057 #2 그때 비께엔 현 것은 이 가죽 뱃겨서 돌아매서 혼 점씩 일주일 동안
 뛰어.
 107057 @ 아.
 107057 #1 돌아매둬서 찢라 먹어.
 107057 #2 일주일간 돌아매여서 혼 점씩 변허느
 107057 @ 아아.
 107057 #2 게난 상어훼가 비께훼가 배 이상 비싸.
 107057 #1 속담 잇는 거라. 애기가 다음에 또 왕 돈 비께 돌아매영 끓어 먹는

식으로. 웃음. 비끼 자꾸왕

107057 #2 돈 툇아감덴.

107057 #1 돈 툇아가는 식으로 곤주게.

107057 @ 비끼를 둘아매영. 여기가 비끼가 하영 나낏수가?

107057 #2 해너덜토 비끼가 순해가지고 안아서 일어날 정도로.

107057 #2 크니까.

107057 @ 이제는?

107057 #2 이제는 씨 저서.

107057 #1 북바리도 씨지고.

107057 #2 우리 우에 우에 사름덜은 비끼를 생각을 항상 해여.

107057 @ 어떤 애긴지는 모르쿠다.

107057 #2 입이 이렇게 크고.

107057 @ 건 어떻게 생견마씨?

107057 #1 상어 식으로 툇 거라. 가죽이 상어하고 완전 틀려.

107057 #2 가죽 도끼 매는 거라. 그렇게 강헌 거.

107057 #1 마당질허는 도끼.

107057 #2 학생덜. 그거 가정강은에

107057 @ 아아.

107057 #1 빼빠. 그런 용으로.

107057 #1 비끼가죽.

107057 @ 비끼가죽 완전 유용허게 써신게예?

107057 #1 사슬사슬하주게. 연필도 저 그 비끼 가죽헤근에 빼빠ㄱ치록 밀리고. 상도 더러우면.

107057 #2 빗게 친헌 사름 비끼가죽을.

107057 @2 도끼 어디 써마씨?

107057 #1 도끼 영 탁허면은 땅에 그 부분에 낭끼기 세 개 네 개 헤근에 여꺼 근에 손에 심은 건 헝나고. 두두리는 건 하이튼 네 갠가.

107057 #1 세 갠가 여끼는 그 용도 가죽이.

107057 #2 노꼬아근앵에 현 거는 헝루만 지나민 완전히 박살나는데 이거는 멧년 간다니까.

107057 @ 얹어 여기는 틀레잇고.

107057 #1 이것이 비끼가죽으로.

107057 @ 비끼가죽으로.

107057 #2 상어가죽 ㄱ튼 건 안 돼고.

107057 @ 안 돼고.

107057 #1 건 버려부는 거고.

107057 @ 입도 크고예? 비끼훤허고 자리훤허고 이 동네서는 먹엇던 거 어떤

거?

107057 @ 도랭이훤?

107057 #2 그것도 상어훤보다는 낫아.

107057 @ 도

107057 @

107057 #2 토렴헤영. 먹는 식이 다 틀립니다.

107057 @ 예. 토렴이렌 헨 게 뜨거운 물에 헨에.

107057 #1 팍팍 낱 건져내는 거.

107057 #2 건져내는 거.

107057 #1 우왁하게 끓으민 건져내는 거.

107057 #1 요새 ㄹ트민 사부사부라.

107057 #2 껍질은 남고 그 우의거만 뱉겨정.

107057 @ 도랭이는 껍질차 먹어예? 도랭이는 토렴을 해서 먹고. 해삼도 토렴헌 덴 허지 안 험니까예?

107057 @ 그건 해삼토렴이렌 허는데. 토렴해서 먹는 건 어떤 거?

107057 #1 도랭이 땀 거는 도렴허지 아녀.

107057 @ 음.

107057 #1 사브사브헤근에 그거는 아무 고기라도 헤근에 사브사브.

107057 #2 요새는 바닷고기 다 헛감으로 먹는데, 그때는?

107057 #1 훤로 먹는 중 몰르고.

107057 #1 고등어도 잘못 잘 안 먹곡 생차 먹으로 큰일나주. 요즘은 고등어훤가 그렇게 맛 잇는디.

107058 @ 예, 맞수다. 우럭조림 같은 경우는 어느 계절에 먹는 거우과? 여기 우럭조림 허지예.

107058 #1 옛날엔 기자 지정. 조림에 안 행은에

107058 @ 지정은예?

107058 #1 옛날에는 우럭은 바당에 가면은.

107058 @ 예.

107058 #1 페우럭 새카망.

107058 #1 호랑쟁이에 잇는디 페나는디 쥔 우에 페 나는디 그 호랑쟁이에 신디 페우럭은 거멍허여. 색깔이 페우럭.

107058 @ 그거를 하영 헤영 지정 먹엇구나예?

107058 #1 그 우럭이 가시가 썬주게. 경 지정은에 먹는 것도 어른이나 아이덜 먹당 페싸근에 소금헛당은에 옛날에 대막텅이 큰 거 행 놔근에 노꿓 그 폰리 아니 올라가게 저 우터레 올려근에 돌리와근에 이제 소 먹어난 자골이나 고사리도 소 안 먹주게. 그런 거 ㄹ튼 거 소가 먹을 때.

107058 @ 음.

107058 #1 그거 가정은에 불 불 숨으면은 불이 양강허여.
 107058 @ 으.
 107058 #1 107058 #1 게른 적췌예.
 107058 @ 예.
 107058 #1 흐뎡 탕 낱은 불 꺼져부니까 그 구어근에 코생이 어랭이도 그치록
 구워근에 시둘라근에 구워 먹어사 코스롱허영 맛 있어.
 107058 @ 그거는 어느 계절에 먹는 거?
 107058 #1 여름에라.
 107058 #1 통에도 코생이 어랭이 씨가 저서.
 107058 @ 봄에 먹는 그 반찬 종류는 어떤 거 잇수가?
 107058 #1 봄철에는 그 옛날에는 바당에 그때는 톨.
 107058 @ 예.
 107058 #1 바당에 거 주로 해당 먹엇주게. 넙페. 넙페국 끓여 먹고 물망 해당
 돛 나가면은 육지서도 봄 돼도록 먹는다.
 107058 @ 음.
 107058 #1 그땐 우리 이 생각을 못허니까 그거를 밧되서 그 여울에 막 눈 오국
 이제 무수는 겨울 곳지를 안허는디 옛날 무수는 그 눈 와근에
 107058 @ 다 곳아부러.
 107058 #1 소게 ㄹ치록 부각허영 먹지 못 허여.
 107058 @ 못 먹고.
 107058 #1 먹을 수가 엇고. 바당에 톨. 그때는 톨이 막 성하고. 물망 같은 거 미
 역 주로.
 107058 @ 미역 주로예?
 107058 #1 미역행 미역채 해영 먹곡. 미역이 깎이, 깎이 너무 미역값 잘 가면은
 미역은 예겨근에 풀앙 돈 사젠 안 먹곡. 그자 물망 ㄹ튼 거 돈 못 사는 거. 넙페 ㄹ
 튼 거.
 107058 @ 봄에는 주로 바당에 풀로 먹엇다예? 여름은 아까.
 107058 #2 여름에도 여름 때는 우갯에 영 콩입.
 107058 #2 콩입.
 107058 #1 콩입덜 옛날에는 콩입. 집의 콩 갈아수가?
 107058 #2 드르에.
 107058 #1 출구덕 들에 콩입 톨으레 가낫주. 밧임제 구덕 왕 빼가불곡.
 107058 @ 늬의 밧되 강 막 톨앙 와 물웨도 갈앙 먹어수가?
 107058 #1 그때는 물웨도 사름덜이 멍청헌 거라. 똑 그 물웨나 보리나.
 107058 @ 예.
 107058 #1 바짜근에 와근에 먹고.
 107058 #2 이디 천도 매해마다 원두막 그 하르방넌 밧도 엇곡 허니까 밧 빌어

근에 허면은 쌀.

107058 #2 보리 조 이런 거 아저가서 물웨 바짜오곡.

107058 #1 그딘 양석허곡.

107058 #1 먹으민 겨울 나곡.

107058 @ 힘들지 안 허게 해신게예?

107058 #2 웨 줍서 허면은 그것에 주곡.

107058 #1 난, 나 커울 땐 그 원두막에 그 더운 때 씨원헌 브름 저 혼쪽으로 강도독질 해근에. 웃음.

107058 @ 하르방 줍들 때만 베렷구나.

107058 #1 그 웨도 그렇게 맛 잇엇는디 지금은 그 맛이 엇어.

107058 @ 예.

107058 #1 웨ㄴ튼 건 먹을 거 생각도 안 허여.

107058 @ 가을에는 어떤 음식 주로 먹어수가?

107058 #1 가을에는 뭐 마농지여 가을 배추여 무수여 그때는 먹을 것이 이제 많이 잇주게.

107058 @ 가을에가 먹을 게 핫구나예?

107058 #1 가을 돼면은 그거 이제 무수덜토 가을ㄱ장은 팬참고 가을지난 겨울 갓아부는 때문에

107058 @ 겨울에 푸성귀는 하지 안 허커라예?

107058 #1 툇아다근에 느물덜토 동사불곡. 옛날 씨가 나빠놓니까 그 시절 흥품 넘어가민 다 동사곡 무수도 다 갓아불곡 허명.

107058 @ 겨울에는 자리젓이나 멜젓이 반찬?

107058 #1 반치지 그것이 그렇게 맛 잇어.

107058 @ 어어, 그거는 한번도 먹어본 드레가 엇수다.

107058 #2 반치지는 이디 표선리벳긔 엇어.

107058 #1 이제 보민 반치랍디가.

107058 #2 열대지방에서 이 근방에서벳긔 반치가 엇어낫수다.

107058 @ 서귀포도 가난 잇입디다.

107058 #2 성산포 표선ㄱ지.

107058 #1 우리 우잣에는 이만은 살진 거가 멧 개가 잇어나신디.

107058 #2 찰라불민 또 나곡 찰라불민 또 나곡 허는 거.

107058 #1 그때 우잣에라도 올레라도 그냥 싸부는 거 아니.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반치 돌아나분덴 허명. 오줌 싸민 반치가 엇어져부는 생이라.

107058 #2 그 반치도 하우스 열매가 열 건데.

107058 #1 열 수도 잇어난디.

장 담그기

107059 @ 맞아예? 삼춘 이제까지 장 담감텐 허는데, 장은 언제 담굽니까?

107059 #1 장은 음력으로 동짓달 돼면은 너미 일찍 메주 하면은 저 파리.

107059 @ 음.

107059 #1 파리가 엇어져버야주 파리 이실 때 하면 메주 냄새가 나니까 파리덜 왕은에 쉬 싸부는 때문에 동짓달 콩 삶아근에 콩 삶아근에 잘리에 담아근에 밍양.

107061 @ 밍양?

107061 #1 방에 탁 뵈으민 방에가 나오지 아녀근에 스몓 그 어깨가 다 무시거 헤신디.

107061 @ 음.

107061 #1 이제는 뭐 잘리에 곱닥허게시리 해근에 장화로 아래 비니루 그 우의 냥은에 콩 두 말은 한 건 삼십 분도 아녕 다 발라져. 콩찍 행 낫다근에

107061 @ 예.

107061 #1 그거 해영은에 다 밍아지면 다라에 이치룩 메주 만들어근에.

107061 @ 음.

107061 #1 이제는 고무다라 큰 것에 멩탱이에 헤신디.

107061 @ 예, 예, 예.

107061 #1 경해영 영 농곡 영 봐근에 일주일 넘어가가든 북삭허게 해영헌 숨 닙은 그 곱쟁이가 피어올 때.

107061 @ 음.

107061 #1 그거 그때 장 담아부는 거.

107061 #1 콩 삶을 때엔. 이제 젔 중요한 게 무엇이나 허든 그 콩물.

107061 @ 예.

107061 #1 메주 쫄 때 콩물을 봐근에 그 동안에 콩물 간수를 해야하느디.

107061 @ 음.

107061 #1 이제 콩이 혼 말이민 소금이 그 두 관뎌 들어가는 거 아니.

107061 @ 예.

107061 #1 두 관뎌를 콩물러레 완전 짜게.

107061 #1 그렇게 콩 장 만들 때는 그 콩물도 농곡 그디 농단 나머지 소금도 농곡 경해근에 골고루 잘 끼어근에 저 항에, 우리 판 사름덜은 고무통이여 무시거 여 해도 난 항에 우의 소금 내불민 봄 나가면은 그거.

107061 @ 삼춘네 웬장 막 맛종으쿠다. 웨냐허면 콩물을.

107061 #1 우리 동네서 나

107061 @ 예.

107061 #1 나가 근치룩 하렌 다 가리켜주니까 그렇게 헤.

107061 #1 콩물이 제라헌 건디.

107061 @ 그러니까마씨.

107061 #1 소구리 건져봐근에 밑에를 밑에 다라를 영 바뵈근에 그 콩물 나온

거 해근에 사발에 영 떠근에 설탕 쪼끔 먹어봐. 켈장히 맛 이시매.

107061 @ 맞수다. 게니까 콩물을 간수해근에 헐 사름 엇주마씨.

107061 #1 게난 그 콩도 콩 혼 말 소금이 두 관뎌 들어가는 거라이. 소금 두 관뎌를 두 관뎌에서 콩물러레 놓는 거라. 두 관뎌 말고 소금을 이제 콩물러레 탄 소금을 해당 놔근에 소금 그거 다 놓고 허민 짜근에 먹지 못하니까 두 관뎌에서 해 놔근에 그 콩물러레 놔근에 해엇당 그 장 담을 때는 콩물도 농곡 남은 소금도 농곡 해근에 골고루 영 해근에 끼여근에 항에 딱 골고루 누르뎡 소금 우의 주둥이 딱 무 꺼근에 고무줄로 딱 즐라매영 내불민 봄 나가사 열아근에.

107061 @ 삼춘네 어머니가 허던 방식?

107061 #1 우리 어머니네 허는 방식이주. 젠디 우리 어머니네 할 때는 콩물 다 네껴베서. 나가 할 때는 가만히 생각해보난 콩물을 네껴베 안 뉼 건디 네께 콩물을 아까 곤는 식으로

107061 @ 딱 저장을 헐 거내예?

107061 #1 우리 큰딸도 오십둘인디 올히부턴 작년에 장 올히 장 담안 익을 때 깻장 우리 집의서 장 담는 거 다 베와근에 느대로 올힌 지대로 담아서 장.

107061 @2 그 장 먹어봄디가?

107061 #1 나사 우리 큰딸은 나 곤는대로 해영 담아. 하영 허지 말앙 콩 두 관뎌 쪼끔 이제 허영 잘 뉼민 하영 허곡.

107061 @ 예.

107061 #1 내년엔 혼꺼번에 하영 하젠 허민 잘 못한덴 허멍.

107060 @ 그 장도 종류가 으라 개 잇지예? 장 종류는 어떤 거 어떤 거 잇수가?

107060 #1 장 종류는 여기, 여기주 육지는 여러 가지가 이신디 우리 여기 식은 그렇게 해근에 메주 그거 허영 곰생이 탁 곰 피어오면은 곰피어 온 것도 딱 열아뵤 일주일 잘 트게시리 더경 놔둔 거. 한 육일쪼 뉼가민 열아봐. 열아보면은 그거 흰히 알아져. 이것이 이 정도 그 곰이 피어와.

107060 @ 음.

107060 #1 해양한 거 그거 흐루 쪼만 시커멍.

107060 @ 아아.

107060 #1 그거는 못 먹는 거.

107060 @ 썩어부는 거라예?

107060 #1 경하니까 암균이 잇고 무시고 경하니까 해영케 해영허영 북삭허게 올라올 때 콩물 장 허영 하고. 또 그 웨에 장 그거는 직접적으로 장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엔 간장 빼는 거는 이제 메주를 해서 영영영 딱딱하게 영해영 열앙 보면은 그거는 완전 그 곰팡이가 피어오르지 아녀도 히뜩히뜩하게시리 뜯 것만 닮으면은 그때부터 말류우는 거라이. 뱃겅디 어두 날씨 베겅디 내놔다 들여놔다 말리왕 보름 동안은 경해야 뉼여. 경해근에 한 이월달 이월달 뉼면은 음력으로 물 뜻뜻하게시리 데와근에 메주를 다 다라에 놔근에 수세미를 싹저근에 항아리에 놔근에 혼 말일 경

우에 혼 말에 물이 얼마 들어가냐 허베기로 하나.

107060 @ 예, 예.

107060 #1 그거로 혼나. 두 말일 경우엔 두 개. 그치록 해근에 와근에 그 향 그 광목으로 해근에 무경 낫당은에 경해영 거기 솟도 영허영 피우곡 고치도 놓고 그레 간장 그거는 간장 빼는 거.

107061 @ 음, 간장 빼는 거는 장 듬양 언제.

107061 # 삼월달. 삼월이 돼면은.

107061 @ 동짓월에 메주 삶양?

107061 #1 삼월이 메주하곡 간장하곡 따로이. 그거 메주만 영영영 건져내버웠은 에 간장은 줌진 단지러레 간장 주시를 다 찌꺼기 들어가지 아녀게 경해근에 딱 허 영은에 거 간장이고. 메준 그거는 보리 같은 뭐 현 거 누룩해영 서경은에.

107061 @ 음.

107061 #1 소곰 적당하게 농곡 행 그거는 해근에 와두면은 것도 그런대로 맛있 게.

107061 @ 웬장 쥘 때도 누룩 낱 해마씨?

107061 #1 누룩을 와근에 허면은 처음에는 누룩 놓은 거는 간장 떠다근에 간장 이, 그 웬장이 떠다근에 먹당 와두민 시커멍허여. 누룩 놓은 거는.

107061 @ 누룩 놓는 건 무신 거에 놓는 거우과?

107061 #1 장물 빼난 메주에 그거는 주로 웬장국 끓여먹을 때. 그때 그때 영 해 영 영 해영 그 즈루. 즈루러레 영해근에 걸러내근에 웬장 끓여먹는 거는 그 장으로 하곡. 그 이제 누룩 놓지 아녜 누룩 놓지 아녜 거는 뜰 때 떠다 놓은 거는 색깔이 변하지 아녀는데 그 누룩 놓은 거는 처음에는 새빨강하게 그 빛깔이 좋앗다가 그 먹다가 뒷날썸 먹젠 보면은 맛은 변한 것이 아닌디 색깔이 변허여.

107061 #1 웬장국 뭐 웬장찌게라든지 냉국행 먹을 때 그치록 직접 직접 먹는 국 할 때는 그 웬장을 쓰고 누룩 놓지 녹물을 삶양 먹을 때 하던가 그런 거 톨도 삶아근에 웬장에 그 웬장으로 먹고.

107061 @ 누룩 서꾼 거랑 누룩 안 서꾼 걸아 웬장 이름을 트나게 부르진 안 험 니까?

107061 #1 이녀 생각대로만 이거는 누룩 서꾼 웨장이다 생각해근에 그거는 그 자. 이름은 틀리지 안 허여.

107061 @ 간장은 여기에서 뭐렌 험니까?

107061 #1 장물.

107061 @ 장물. 고추, 고치장도 해낫수가?

107061 #1 고치장 그 옛날에는 우리 여기가 고칠 고치장 허겔 갈질 아녀게. 그 거 사근에 만드는 집덜은 만들영 먹곡.

107061 @ 하영은 안 헤서예?

107061 #1 요만은 그거 하면은 귀하게 예껴근에 이제는 너러진 게 고치장.

107063 @ 맞수다. 삼춘, 장 담을 때에 뭉뭉 허지 말라. 장은 본명일 이실 때는 안 담고 허잖아예?.

107063 #1 안 담아.

107063 @ 장은 메주 삶은 때나 장 담는 거는 언제 해마씨?

107063 #1 저 닭날 뭐 개날 뱀날 같은 때 사름날 그런 날에는 닭지 말곡. 장 담는 거 콩 삶는 것도 마찬가지로.

107063 #1 넌을 물날이 어느 날 개날이난 장 담으라. 뱀날 용날 사름날 그런 날덜은 안 담아.

107063 @ 안 담아예? 장 담을 때 금기사항 잊어마씨?

107063 #1 부정할 때 안 하고. 집안에 상이 나거나 여자들은 자기 여자들 뭉

107063 @ 몸 곳영 안 하고.

떡류

107064 @ 안 허고. 그리고 이제는 떡예? 떡 종류는 어떤 거 잇수가? 떡 식게 떡?

107064 #1 식게떡 우리는 어떻헛냐 하면 요새 쌀이 아니고 이딴깎장 사오지도 못하지만 산뒤쌀.

107064 #1 산뒤쌀 헤여근에 시리떡도 집의서 이제 우리 집의 그 시리가 잇인다.

107064 @ 아, 기우과?

107064 #1 옛날에 옥상에 놔두난 놀부난야 집의 팡팡 하는 소리가 난. 놀 다 상이 지네 향이 지네끼리 부닥치명 시리도 잇인가 잇인가 모르켜.

107064 @ 음.

107064 #1 시리에서 기갯방 집의서 주로 헤여근에 시리떡 할 때에 무신 정चे엇인 말 곁으민 떡 잘 안 익엄젠 허멍 아이덜 오지 못하게 허고. 막 헤근에 허곡. 주로 솔벤 절벤.

107064 @ 솔벤 절벤.

107064 #1 약케.

107064 @ 예.

107064 #1 중케 약케.

107064 @ 중케 약케.

107064 #1 중케엔 현 건 건 거고 약케엔 현 거 네개방장현 거.

107064 @ 예.

107064 #1 솔벤 절벤.

107064 @ 네 가지.

107064 #1 솔벤 절벤 경허곡.

107064 @1 그것이 웃기우과?

107064 #1 기름떡.

107075 @ 여기는 우썩이렌 말은 안 해마씨?

107075 #1 그것이 그거 닳아. 그거 저 시리, 시리 그 시리떡을 젤 밑에 낳.

107075 @ 땃 빗 놓니까?

107075 #1 정반을 영 수랑헌 거주게. 두 빗 낳. 그 아래는 젤 아래는 솔벤 낳은
에 이렇게 한 거 그거 혼 드리 놔놓은에 절벤 놓는 거라이. 절벤 놓은 다음에는 젤
우의는 우지시. 기름떡이 아니고 우지시.

107075 @ 우지시.

107075 #1 그거 젤 우의 놓는 거.

107075 @ 계문?

107075 #1 그거

107075 @ 아, 계문 중케 약케를 하나에 올려마씨?

107075 #1 어떤 집의 가면은 따로 올리는 집도 있어.

107075 @ 삼춘네는 같이.

107075 #1 요만은 쟁반이 따로 있어.

107075 @ 예.

107075 #1 시리떡 두 줄 놔근에 그 우의 솔벤 절벤 놓고 중케 약케 우지시.

107066 @ 경허고 삼춘, 송펜은 안 만들야?

107066 #1 송펜은 솔벤 절벤 해난.

107066 @ 이후에?

107066 #1 이후에 솔벤이란 송펜이란 거 나왔주.

107066 @ 이걸 나중에 나온 거라예?

107066 #1 솔벤 절벤 다음에 송펜이라는 건 나와서.

107067 @ 여기는 정기떡은 식계에 안 올렸수가?

107067 #1 정기떡은 영 보면은 옛날에 보면은 놈의 집덜은 정기 허영 상에도
올리는데.

107067 #2 먹을 걸로, 먹을 걸로.

107067 #1 정기떡덜 해영 상엔 안 올리게.

107067 #2 먹을 걸로, 먹을 걸로.

107067 #1 그동안에 정기떡덜 지정은에 오민 먹고. 만뒤.

107067 @ 만뒤?

107067 #1 만뒤 그거 이제 므말가루 해근에 밀어근에 사발로 본 떠근에 경해근
에 거기 양꼬 쉬 놔근에 뭐 앓은베기콩 그때는 우잣에 싱경 그거 숯아근에 그거 췌
아근에 그런 거 놓고 영영 영 숯아내영.

107067 @ 예.

107067 #1 다라레 췌이나 또 막 미청. 경해근에 그런 거는 상에 잘 올리지 아니
허고 먹는 종류로만.

107067 @ 느놔떡을 걸로만예?

107067 #1 그거하고 골감취 헛당 감취에 정기에 만두에 그거는 그 그렇게 귀곳
좌근에 먹는 집의.

107067 @ 베랑.

107067 #1 멧 집 안 돼여.

107067 @ 삼춘네 집에서는 상에 올리는 거는 산디쫄로.

107067 @ 중케 약케도 다 곤쫄로.

107067 #1 믱물쫄로 해근에 올라가는 거는 저 목. 목 청목. 모

107067 @ 청목.

107067 #1 검은 거 깨끗한 거 해근에 뜻뜻한 물에 담갓당. 담갓당은에 이 광목
해근에 저 잘리 이거 영 해근에 것도 이름 이신디 하도 오래난. 그것에 담아근에
쫄물쫄물헤영 하면은 물이 나와.

107067 @2 놀려.

107067 #1 껌데기만 남고 그 속은 다 빼진 거라. 경해근에 헤영 그 물을 쭈는
거라.

107067 @ 예.

107067 #1 쫄 때에 잘못 췌당은 하나도 엇어. 게난 게나제나 그 목 다 췌 때까
지.

107067 @ 젓어.

107067 #1 도고리에 영 좌근에 이제 도고리에 손에 물 적저근에 딱딱 멘쫄 헤
영한 청목. 그거는 그렇게 한 거는 청목이고 그냥 믱물쫄 해근에 가루, 기냥 믱물쫄
정ㄴ레에서 갈아근에 그 곱아낸 그 가루로 해근에 목 쫄 거는 그냥 목.

107067 @ 그냥 목.

107067 #1 잘리에 영영 해근에 믱물쫄 물 빼영 하는 거는 청목.

107068 @ 청목하고 이제 목이고. 그리고 삼춘 여기는 상웨떡도 멘들아?

107068 #1 상웨떡 그 때는 밀. 상웨떡은 밀 해근에 이제 것도 ㄴ레 막 곱앙.

107068 @ 예.

107068 #1 ㄴ는체로 다 처근에 ㄴ는체로 처근에 체 우의 거는 두불 곱고 그거
가져근에 뭐 지금 식게 말허민 막걸리 그걸로 반죽헤영은에 좌두면은 멧 시간 부각
허게 반죽이 올라와.

107068 @ 음.

107068 #1 그때 해근에 솟디 영 아래 고살 좌근에 그 우의 베로 만든 포.

107068 @ 예.

107068 #1 갈아좌근에 그 우의 떡을 좌근에 알로 불 솟으면은 완전 옛날 할망
덜 어느 정도 검질 멧단 솟으면은 다 췌다는 거 입력 그만 솟아. 두경 올앙보면 이
만은 상웨떡.

107068 @ 뭐 곱앙 처마씨?

107068 #1 베. 이 솟 동글락헌 낭께기 뭐 저 깨끗한 거 대나무나 영영 상자리

ㄴ치룩 놓는 거라. 중간으로. 딱 부뜨게 말앙 요만쪽이 이만은 놔근에 이 우터레 이것에 솟이면은 이 우터레 그거 이제 대막댕이나 그 촛근촛근허게시리 딱허게 놔놔은에 베 포를 싹 끌아근에 그 우터레.

107068 @ 그때 놓는 그거를 뭐렌 해? 여기서.

107068 #2 상자리.

107068 @2 아까 골아수다, 휘장님이.

107068 #1 고살,

107068 #1 낭 촛근촛근 인치룩 놓는 거라. 공간. 이 밑에는.

107068 @ 이렇게 해근에 만들아정 잇수가? 그 고소왈이.

107068 #1 그때그때.

107068 #2 솟이 이렇게 돼니까. 여기에 맞춰서 찢르멍.

107068 #1 그 우터레 포 끌앙.

107068 #2 물은 끓어서.

107068 @ 이 만들어진 거는.

107068 #1 판데기 판데기 솟에 남자덜이 줌상헌 어른덜 하르방덜 아방덜 그것에 맞춰근에.

107068 @ 그 이름은 뭐우과?

107068 #1 고살. 것도 무신 이름이 잇어나신디 하도 오래부난.

107068 @ 나중에 뜰내봅서. 우리 시에서는 징이렌 허거든예? 떡징.

107068 #1 떡징이 아니.

107068 #2 할망덜안티 들어봅서.

107068 #1 나 들어봐야켜.

107067 @ 그 다음에 삼춘 빙떡 지질 땀 어떻 지젓수가?

107067 #1 그 옛날에는 두에 돌 놓곡 이제 막아불민 안 돼여. 이디 솟두껍 솟뚜경 영혜근에 가르싸놔근에 알로 불 솟으멍 그 우의서 정기떡을 짓는다.

107067 #2 기름 불르멍. 무수.

107067 @ 예.

107067 #1 옛날에는 참기름벧기 안 췌주게. 이만은 끓어근에 길게시리 정기 하나 그 무수 가정은에 영영혜근에 반죽해다 놔근에 찰지름으로 지져.

107067 @ 삼춘네는 찰지름을 해가지고 정기를 지진 거라?

107067 #1 찰지름으로 지져.

107067 @ 돛지름은 안 헛수가?

107067 #2 돛지름에 해나서.

107067 #1 돛지름덜은 몰라.

107067 #2 경도 해나서.

107067 @ 삼춘네는

107067 #1 난 그거 안 봐나서.

107067 @ 역시 부잣집은.
 107067 #2 겐디 이 이만큼 세 개.
 107067 #1 아이고, 옛날은 빙떡 하나민 이젠 세 개라.
 107067 #2 엄청 커서.
 107067 #1 거 놔근에 그레 이제 저 쉬. 거 놔근에 영영영 말면은 이만
 107067 #1 요새는 요만은 허영 요만씩.
 107067 @ 게른 그 안네는 뭐 놔?
 107067 #1 무수 흐뎡 부잣집덜은 앓인베기콩,
 107067 @ 예.
 107067 #1 앓은베기콩 두불콩.
 107067 @ 앓인베기콩이 두불콩이우과?
 107067 #1 콩이 열아 장마 때는 땅에 다 열아근에 땅에 박아진 건 다 나.
 107067 @ 맞아예?
 107067 #2 흐꼬만 벳 나민 두불콩 타근에 흐 주제만 물리면은 나지는 안 하니
 까 옛날에 그 죽만 죽만 먹어. 아까우난 죽 썬근에 익혀근에 먹어부는 거벳고.
 107070 @ 앓은베기콩으로 죽을 썬 먹어마씨.
 107070 #1 죽 맛좋아.
 107070 @ 삼춘 아까 제사떡 아니우과? 상때도 똑 같은 그 떡?
 107070 #1 상날 때. 그 상 날때도 그거주게.
 107070 @ 그거예. 여기도 조개솔벤
 107070 #1 돌레떡엔 현 건 잇어났어.
 107070 @ 돌레떡 그건 어떤 떡?
 107070 #1 그자 동글락허게시리 영장이 나면은 피력엔 한 것도 돌레떡으로 쥐
 나서.
 107070 #1 돌레떡도 이만은 장밋디 므물돌레 피력헛젠 허멍.
 107070 #2 돌도 운반해야 돼고 허면은 힘드니까 그거 혼짐 정 갓다오면은 돌레
 떡 하나에 둘 혼잔.
 107070 #2 술도 므음대로 먹도로 주지 아녀서. 잔은?
 107070 @2 고뿌로예.
 107076 @ 당에는 갈 때는 무신 떡 가져가마씨?
 107076 #1 본향에 갈 때. 그것도 돌레떡인데. 이름 잇일 거라 이제 생각해보민.
 107076 @ 그 다음에.
 107076 #1 므물로벳고 돌렌 안 허주게. 산뒤솔이나 므물로만.
 107071 @ 여기는 친떡을 여기서 뉘렌 험니까?
 107071 #2 좁쌀로 허민 조친떡,
 107071 @ 그 다음에 산뒤솔로
 107071 #1 어쨌든 간에 친떡도 산뒤솔로 한 건 다 곤떡엔.

107072 @ 갯당 읍서. 남자 삼춘만.
 107072 #1 인절미가 이렇게 반달썬 거 아니?
 107072 @ 네모난 건.
 107072 #1 절벤, 절벤. 네모난 거는 삼각형 아닌가?
 107072 @ 네모난 거는 은절미 영 헨 거는?
 107072 #1 솔벤 절벤.
 107072 #1 그 젤 우의는 우지시.
 107072 @ 약간 지역마다 설귀떡이렌 말은 안 헤.
 107072 @ 흐뭇 쉬쿠다.

떡류

(중략)

107073 @ 절변이나 솔변 만들젠 허민 어떤 식으로 만들아마씨? 옛날에.
 107073 #1 절벤 솔벤. 게난 나가 생각하기론 솔입을 낳 찌니까 솔벤 해신가.
 107073 #2 기구가 잇지 아녀.
 107073 #1 절벤은 나무로 헨에 또 솔벤은 췌로 꽃 이렇게 나무 가정은에 딱 찍어내는 거.
 107073 @ 삼춘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보진 안 헨?
 107073 #1 아니, 우리 다 만든 건.
 107073 @ 그 순서를 곁아줍서?
 107073 #1 ㄱ르 곁아왕은에 ㄱ르를 뜨신물 반죽엔 허민 얇게 생각허지 말고 판판허게 그 반죽을 만들영은에이.
 107073 @ 예.
 107073 #1 그거를 동글락허게 다 만들영.
 107073 @ 예.
 107073 #1 너무 뚜껍게 말앙. 경 물 싹싹 끓이믄 그거를 놔근에 그거 다 익으면은 그거를 건정 다라에 놔근에 걸 꺾여근에 또 반죽을 만드는 거라.
 107073 @ 음.
 107073 #1 반죽 만들어근에 돔베에 요만씩 끓여놔은에 영영영 미는 그 저 뭐가 잇어.
 107073 @ 밀대로?
 107073 #1 밀대로 영영 밀어근에 그거 밀어놔근에 그거는 얇게 밀지 아녀 흐뭇 뚜껍게 뚜껍게 밀어놔근에 뽀으로 다 떠내는 거라.
 107073 @ 절벤은 뽀으로 두 개로 헛수가?
 107073 #1 절벤은 얇게 두 개로 포개놔 그거로 딱 찍어내영.
 107075 @ 동글락허게, 알아수다.아까 웃지시는 어떻 멘들어마씨?
 107075 #1 질 우의 놓는 거.

107075 @2 예.

107075 #1 켈 우의 놓는 거 그것도 동글락하게 만든 거라. 것도 뿐이 있어. 바위에 토닥토닥 그걸로 해근에 아까ㄴ치 영영영 떠 내영.

107075 @ 음, 별도로 지름에 지지거나 영은 안해마씨?

107075 #1 기름에 지지는디 지지는 집 안 지지는 집 허여.

107075 @ 삼춘네는 안 허여예?

107075 #1 우리 어머니넌 영 기름이 기름이 아저다니는 디도 궂고 딱 떡 더레도 뿐 떠근에 지지지 아녕 그냥.

107076 @ 알아수다. 삼춘도 당에 텅겨받마씨?

107076 #1 이천년, 이천녀까지 텅년 안 다녔덴 허난.

107076 @ 오래 다녔네. 본향에 가져갈 때는 뭐뭐 가정 가마씨?

107076 #1 팔찌엔 한 거는 비단이나 양단.

107076 @ 예.

107076 #1 그런 거 이만은 넓주게. 기지가 딱허영 혼 발 혼 발 뒤편에 해영 그거 가지고 이제 시라목.

107076 @ 예.

107076 #1 시라목 이제 해근에 혼 반씩 해근에 뭐 다섯 식구문 다섯 개 해근에 가족의 이름 쓰곡이. 흥나에 흥나씩.

107076 @ 시라목예?

107076 #1 그 종이.

107076 @ 예.

107076 #1 지전.

107076 @ 으, 지전.

107076 #1 앞으로 혼 번 두으로 혼번 해근에 요만은 하계시리 다 이제 접어근에 이 정도 켈 거 아니?

107076 @ 예.

107076 #1 그 지전이 그거 가정은에 가위로 자기가 생각대로 그 지전 말르는 그 생각대로 다 끊는 거라. 영 폐우면은 본향 같은 데 강 돈이렌 제송돈이레 고망 베통베통 허게 만든 경 끊어근에 폐우면은 그런 것이 되는 거. 그거 해놓곡 제숙 굽곡 국은 안 허여.

107076 @ 음.

107076 #1 국은 안 허게 쟁은 안 허고 메만 헨에 본향 세 그릇, 제숙도 세 개 굽곡. 독새기 세 개 근치록해근에 잘 생각해영 허는 사름은 썰도 경해근에 그 지전 허고 시라목허고 따시 그거.

107076 @ 팔찌?

107076 #1 팔찌가 팔찌는 공동으로 그 하나에 가족 이름 쓰고. 경해근에 지전하곡 그 저 무시거 시라목 그거 해근에 허곡 또 무시거 혼 가진가 잇일 거라. 그거

영 해근에 혼 사름 하나씩. 혼 사름 하나씩 허게 우의 매듭 짓는 거라이.

107076 @ 음.

107076 #1 아덜, 아덜이든 아덜. 또 그거는 아덜 거는 놔둬팅 혼나 허영 딸 거
죽은딸 거. 따로 따로 쌀 또 낭퐁으로 혼나나 사발로 혼나나 경해근에 그 가정 가
면은 그 쌀 가정 접아근에 영 세영 좋으켜 굿으켜 허곡.

107076 @2 제비썰로.

107076 #1 그 쌀 가정가근에.

107076 @ 걸 제비썰엔 헤마씨?

107076 #1 제비썰이주게. 제비 뽑는 거라. 으답 짹 틀리게 혹 들러데껴 내불민
곳이난에 인정 걸렌 허민 돈 그레 또 놓고 그추룩허멍.

107076 #1 떡은 안 만들야.

107076 @ 그 제숙은 제숙은 무슨 걸로 권마씨?

107076 #1 제숙은 뭐, 아무 거나 헤여. 우럭이라도 돼고 슬래기라도 돼고. 고기
는 차별엇이 사과, 사과 세 개.

107076 @ 으.

107076 #1 그디 본향이 신이 세 분이니까 다 혼나씩 헤영 세 개씩.

107076 @ 신이 세 분이구나.

107076 @ 당이름이 뭐우과?

107076 #2 저바당.

107076 #1 저바당인가.

107076 #2 당 잇는 근처 이름이 저바당.

107076 @ 저바당본향.

107076 #2 저바당표선리본향.

107076 @ 표선리 본향당이구나예? 표선리저바당표선리본향.

107076 #1 이디 표선리 사름 제주시 강 살아도 ** 각시네. 이디 혼 들에 혼번
오란에

107076 @ 계난 그 본향이 지켜주난 잘 뵈수게. 그 본향은 언제가마씨?

107076 #1 정월달에.

107076 @ 정월 메칠?

107076 #1 정월웨면은 저 메칠날 삼일날 칠일날 가주게.

107076 #1 선네선네 막.

107076 #2 영장 나거나 허면은 미루어지고.

107076 #1 돼지고기도 안 먹곡 정성 해근에 경허영 가.

107076 @2 마을제 지내기 전에 갑니까? 지낸 후에 갑니까?

107076 #1 마을제 지낸 다음에 갑니다. 마을제가 우의까.

107076 #2 포제, 포제.

107076 @ 남자덜은 안 갑니까?

107076 #2 베꼈디 강 잇어.

107076 @ 게른 심방이 뜰아가는 게 아니고.

107076 #1 본향 메인 심방이.

107076 @ 항상 삼일이나 칠일은.

107076 #1 그 심방이 거기 잇어.

107076 #2 아 자꾸 바빠지니까.

107076 @ 이제 메인심방은 누게우과?

107076 #2 어디 신평리 사름이렌.

107076 @ 원래 여긴 심방이 엇수가?

107076 #1 신기선이 어떻아방네 그딜로부터.

107076 #2 길수 어머니허단.

107076 #1 허보살허고 하단 죽어불민 판 사람 허곡.

107076 @ 이 동네 심방은 엇어마씨?

107076 #1 이 동네 심방도 헤낫주마는 죽어부난.

107076 #2 후계가 엇어.

107076 #2 신평리 사름이 오란.

107076 @ 아이고, 삼춘 집의서 굿해봬디가?

107076 #1 우리 어머니네는 굿 하여튼 간에 일년에 혼번씩 굿 해실 거라. 굿허
명 멩근이네 그 돈을 얼마나 썰어간.

107076 #2 우리 어머니가 자꾸 아프니까 병원도 웃고 그렇게 허니까 우리 아버
지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을 헛던 모양이라. 굿도 일주일 대 세완에

107076 #1 큰굿 큰굿.

107076 #1 경혜연 허는데, 마지막쫘 돼 가니까 심방이 멩근이. 심방이 어디 갓
느냐고 이거 마지막 허는 디 인정도 안 걸엄텐.

107076 #1 인정 걸렌.

107076 #2 나보고 어머니가 막 아버지가 좇양오렌. 가난 어머니가 꾀남시난 오
렘 험수텐 허나. 술은 이만큼 먹곡 현디.

107076 #2 가난 어머니가 준소리를 헤가는 아버진 그 상 출린 거 왕창 썰어불
곡 굿도 해산헛는데. 그 다음부터 십년동안 혼번도 안 안 파서.

107076 @ 굿은 아버지가 헤신게.

107076 #2 귀신이 그 후로는 춤 심방도 아니 완. 아버지 술자리에서 혼번씩 심
방 곤는디 굿을 큰굿을 헤야돼.

107076 @2 심방웨는 책 잇어예? 책 보다 보면 예를 들면 또 점괘가 안 나올 것
같으면 굿. 게니까 굿하는 사람, 어떻게 하라 허는 것이 다 잇어마씨?

107077 @ 옛날에 다 굿헛 때 어떤 떡 생각납니까?

107077 #1 굿헛 땀 주로 돌레떡.

107077 @ 집에서도 돌레떡해예?

107077 #1 곶할 때 믫물썰 안헤근에 산디썰로.
 107077 #1 소금 안 넣.
 107077 @2 보시떡은 안 험니까?
 107077 #2 사발에 놔근에 쫓나면 쫓아근에.
 107077 #1 저 거세시. 그거 사발에 넣 쪼넨 거. 그런 거는 봐난 거 닐아.
 107077 #2 예, 마지막 쫓나면 배 띄와부는 거 어릴 때 기억.
 107077 #1 바당에 강.
 107077 #1 공양미 무신 삼백석에 시꺼근에 배 뛰웁젠.
 107077 #2 골충 돈 멧 십원인가 천 원짜리 쫓 놓면은 우리 다 봉가당 사떡곡.
 107077 @ 버려진 것덜 난 봉가보지 아녀수다.
 107077 #1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거 봉강 먹으민 귀신 들린덴 허멍.

소와 고물

107079 @ 잇어도 저는 안 좇어봐신디. 안에 놓거나 밖에 쉬 쓰는 거는 어떤 걸로 헛수가?
 107079 #1 게난 팻 아니민 두불콩인디.
 107079 @ 주로 그거? 그냥 뭐 그 깨 같은 건 안 써?
 107079 #1 켜 같은 건 안 써.
 107079 @ 안 쓰고.
 107079 #1 팻이나 얹으배기콩.
 107079 @ 조침떡같은 거는 안 험니까?
 107079 #1 팻으로 새 놓는 거라.
 107080 @ 그것도 다 쉬렌 험니까?
 107080 #1 것도 솥아근에 물 빠지와근에 적당히 너미 물썩허게 익으민 혼디 죽 웨부렁 하는 때문에 근치록 맞추왕 방에에 뽕앙 콩덜. 쫓도 다 뽕아근에.
 107080 #1 동쫓으로 다 뽕앙은에.
 107081 @ 떡 헐 때 아이덜 열러헛기지 말렌 헛잖아예? 그 떡에 얹힌 속담이라든가 금기사항. 어떻허민 뽕헌다.
 107081 #1 그 떡 시리떡 칠 때는 이상하게 부정한 말을 곤거나 하면은 떡이 혼작은 떡 안 익은은에 떡이 솥통을 기차난 생이라.
 107081 @ 음.
 107081 #1 아이덜도 못 들어오게 말도 하영 곤지 못허게 하고 떡 찌는 사름만 찌게 하고.
 107081 @ 떡 찌게 허고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맨든 떡은 뽕 아이덜 안 먹는다 이런 말은 엇어마씨?
 107081 #1 막떡이나 뽕떡. 뽕 통에 빠져나민 아이덜은 주지말고 어른덜만 주렌.
 107081 #2 뽕떡이라고 잇엇주.

107081 #1 잘 디디거나 흥글랑허게 뚫통더레 자빠정허민 이제 오래 못 산텐 그 거 일년벳기 못 산텐 해근에 뚫떡을 멘들앙 백 사름안티 떡을 다 쥐근에 먹게 해야 그 운을 백 사름안티 그 운을 백 사름안티 갈라가불면은 아무 그 뚫떡 길레 사근에 넘어가는 사름. 애기덜은 안 쥐. 어른덜안티만. 아이덜은 안 주고. 경해근에 뚫떡 해근에 것도 헉나썩벳기 안 주주게.

107081 @ 백 사름안티 쥐야는 거니까. 그런 거를 직접 봐놔마씨?

107081 #1 그거 그치록 다 하는 거.

107081 #2 디딜팡에 돼지 길르는 거 넘어져다 허믄 뚫떡을 허여.

107081 #1 일년도 못 산텐 헨에 뚫떡을 백 개 멘들앙 백 사름안티 쥐야.

107081 #1 운이 다 갈려전근에 질레 상 가는 사름 오는 사름 다 테와쥔.

107081 @ 그거 안 먹켄 허믄 어떻게?

107081 #1 더 드렌 행 먹주. 하나 더 드렌 허난 안 쫓주.

107081 @2 웃음.

107081 @ 거 안 받아가켄.

107081 #1 아니, 그거를 그 어른덜이나 알주게. 중산 식으로 잘 모르주게. 하나 더 드렌 해도 안 쫓주.

107081 @ 기구나예.

107081 @2 아, 우습다.

별식

107082 @ 삼춘, 옛날 수에덜 하영 담아서예?

107082 #1 순대 잔칫집마다 담앗주게.

107082 @ 삼춘도 수에 잘 담음니까?

107082 #1 아 거, 돼지베설. 혹은베설 판직하게 시쳐근에 옛날은 판직하게 잘 안 시쳐도 잘만 먹어서. 시쳐근에 믰물ㄹ르에 돼지 잡을 때 피. 피 거기 하고 그 무시거 메역귀 ㄹ튼 거 그런 거 다 좇아놓곡 좇아놓곡 파도 놓고 거기에 양념같은 거 뭐 무시거 뭐 쌀 해근에 나룩솔헤영 밥 헤영도 그레 놓곡 베설에 담아. 빵빵 담으민 터정 안 돼여. 쌀이 익어가민 빵빵헐 거니까. 그것에 잘 맞추왕은에 거에 담아야지. 하영 담아불민 터쳐근에 안 돼여. 그 대신에 뚫국물은 맛있어.

107082 @ 그렇지. 안에 거 나오니까.

107082 #1 어떤 집은 가문잔치에 다 먹영 치와부러. 가문잔치에 준베설.

107082 @ 예.

107082 #1 준베설은 베설대로 삶아근에 그 순대 이제 순대 이제 반에 안 놓젠 하면은 반에 놓젠 허민 안 먹주게.

107082 #2 순대코벳기 안 남아.

107082 #1 이 준베설 요만씩 놓곡 ㄹ는베설.

107082 #2 가문반이라고해서.

107082 #1 가문반이렌 요만씩 현 거 놓민 그거 먹으로 저녁 때 오닐 저녁에 가문에서만 먹는 반.

107082 @ 음.

107082 #1 게른 그거 먹으레. 쥐도 이젠 먹지 안 허여. 준베설 솜은 것덜.

107082 @ 담지 아녀고예?

107082 #1 담진 안 허여.

107082 @ 게른 가문반에는 뭐뭐 놔마씨?

107082 #1 베설 그거 놓곡게. 순대 흥나 놓곡 무시거 베설.

107082 #2 북베기ㄴ튼 거.

107082 #1 북베기, 북베기, 간, 간.

107082 #2 지레 그런 거 다 골고루.

107082 #1 그런 거는 소님덜안티 못 놓는 거 가문에서만 다 먹는다.

107082 #2 가문반이 소님부터 받을 거니까 낼은 친족덜이 와서 어떻게 어떻게 헤달라 의논허는 거. 가문반으로 해서 술 한 잔 먹으면서 의논허는 거.

107082 @ 역할 분담 시키젠 허는 거구나게.

107082 #1 이제 그거 겨울에 눈 이만이 물을 때도 잔칫집의 다 가낫텐 허난.

107082 #2 아이들ㄴ장 다 데령.

107082 @ 그때 밥은 어떤 밥 헤여마씨?

107082 #1 그 나록쫄은 흥 방울씩 들게시리 행은에 솜앙 허민 이제 다라에 무시 거에 무시거 뭐냐 아이스박스에 뭐 그레 비니루 그거 영 곱닥헌 거 낱은에 경허 영 허는다. 옛날엔 밥 푸는 건 다 무조건 멥텅이에.

107082 @ 멥텅이에예?

107082 #1 멥텅이가 끌지 아녀고 더프지 아녀도 빨리 식지도 안 하고 하니까.

107082 @ 맞수다.

107082 #1 멥텅이에 티덜 밥에 티 잇어도 누게 티 잇젠 좇어불멍 경 하려니.

107082 @ 그렁주마씨.

107082 #1 경혜근에.

107083 @ 삼춘, 둠비도 직접 멘들아뵈마씨?

107083 #1 무시거?

107083 @ 둠비.

107083 #1 우리 두부 만드는 게 그렇게. 우리는 멘들아나서. 콩 컷다근에 다 곱아근에 그거 혜근에 이제 그 썬근에.

107083 @ 예.

107083 #1 썬근에 잘리에 담아근에 헤여근에 막 누르떠근에 그 물 밑으로 빠진 그것이 얼리면은 두분디. 그거 하젠을 헤봐봐.

107083 @ 잔치헐 때는 둠비를 헤알 거 아니우과?

107083 #2 북군에는 두부 흥나 놓던데.

107083 #1 이레 안 놔.

107083 @2 저기 북군인 경우에는 도새기 석 점 둠비 하나.

107083 #2 이딘 안 놔서. 나도 모관 그디 가면은 그것이 맛이 잇었는데 이딘 안 해.

107083 @ 여긴 둠빌 안 하는구나예? 여긴 잔칫 때 반에 뒤편 놔?

107083 #1 경허난 애기 돌아근에 저 잔치밧디 영 가면은 애기가 아기가 가족을 먹으면은 연치카부덴 저 아방이 그 아덜 반에 그 고기를 영해근에 가족 떼어가민 “아버지 술도 하영 부떠뵤젠 허멍. 가족에 술 하영 먹어뵤젠 하멍 고기가 귀했던 거라.

107086 @ 계난 가족 먹는 디 술도 먹엄덴 아덜이 타박을 현 거라예? 아까 개역은 어떻 헛수가?

107086 #1 옛날은 개역.

107086 #2 개역은 간식으로.

107086 #1 보리로 줄우리보리 술우리보리 이신디 술우리 보리 그거 보까근에. 그거 보깡 그 ㄴ레에 곶아신가.

107086 #2 ㄴ레에 곶안.

107086 #1 기궛방이 엇이난 것도 해 먹는 집의 해 먹고 못해 먹는 집원 못해 먹어.

107086 #1 어떤 집원 ㄴ레도 엇주게.

107086 @ 예, 예.

107086 #1 놈의 집이 ㄴ레 빌레 가곡 ㄴ레 이신 집의 왕 보까가곡. 보끄는 거깅장은 좋은디 곶아놔근에 체 줌진체로 다 청.

107086 @ 음, 경해야 ㄴ르가 뵤니까.

107086 #1 경해야 ㄴ르가 깨끗허곡.

107087 @ 요즘은 지지미 아무 때도 해영 먹엇주마는.

107087 #1 옛날에 지지미 벨미로덜 호박. 우리 호박해근에. 이제는 영영 미는 걸로 헛주마는 칼로 다 줌질게 썰영. 썰어근에 그것도 해 먹젠 허민 여간 아니. 이제 ㄴ뜨민 확 강 밀ㄴ르 사당 허주마는 밀 곶아야 ㄴ르도 잇어야 하지. 계난 먹고 싶기는 해도 하는 게 너미 무신 거 하곡. 그 ㄴ레 곶젠 허민 무시거 요만씩 놔근에 에이그.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영영 ㄴ레 하나에 서이가 앗앙 ㄴ는디 안 봐는 트멍에 숨 브르왕은에 바락하게 담아놔불민 그것이 ㄴ르 뵤지 아녕 거피영 나오민 그 뵤약세기로 머리 맞앙.

107087 @ 안 곶아진 거.

107087 #1 아이고, 얼마나 지루헌지.

107087 @ 지루허지.

107087 #1 그 알러레. 안 보는 트멍에 ㄴ르 곶아지지 아녕 거피영 나오민 뵤약세기 앗앙 막 울멍 곶아나서.

107087 #2 아무튼 여자들은 고생 많이 해서. 남자한테 이거 돌리렌 안 허난에.

107087 #1 남자덜은 그거 하젠도 안 하고 시키젠도 안 허여.

107087 #1 여자만 여자만.

107087 @ 췌로 못 나부난 여자로 낳수게.

107087 #1 우리 제사 때에 묵을 쑈는디이, 청묵 말고 묵을 쑈는디. 이만은 반죽 행 쑈젠 허민 어느 정도만 묵이 췌 때는 저 췌는디 묵이 얼추 다 췌 때는 딱딱허니까 힘이 췌장히 들어. 먹을 것이 엇어난 거주.

107087 #1 우리 어머니가 나안티 허는 말이 물 다섯 번 질영오민 남죽 굶어먹으렌 물 다섯 번 텡가라 물 질어난디 이름이 텡가라통에 물 다섯 번 그 엇어난 남죽 주민 숟가락으로 굶영 먹영.

107088 @ 경허영 다섯 번을 저에? 삼춘, 오메기술도 해봣디가.

107088 #1 오메기술은 그냥 팽상시 때는 안 하고, 우리 집은 보면은 돛가레밭 할 때에 돛가레 불리곡 시꺼가곡 하젠 하면은 그거 오메기 해여근에 오메기 이만은 향으로 하나 담아놔 보리밭 하젠 허민 삼사일 걸리난 그때까지 먹을 거. 췌췌 물에 컷당은에. 흐린췌췌.

107088 @ 흐린췌췌로.

107088 #1 그거 행은에 방에에 췌앙. 기냥 거려당 하는 걸로 허면 허주마는 다 체로 저영.

107088 @ 처야 돼고.

107088 #1 우의 거는 근치룩허영 그거 해근에 반죽해근에 다 오메기 멘드는 거라이.

107088 @ 음.

107088 #1 오메기 오무룩하게시리 이만씩 다 만들영. 경해영 그거를 다 삶는 거라.

107088 @ 음.

107088 #1 건져내영 다 꺾여근에 누룩하게 막 서꺼근에 물 어느 정도 해근에 그 저 향에 담양 놔두민 부글부글부글 막 췌연게. 부

107088 @ 음.

107088 #1 부글락부글락 췌면은 걸르민 그것이 막걸리라.

107088 @ 그게 막걸리, 그게 오메기술예?

(중략)

107088 @ 췌은에 민속촌에서 삼춘 해봣디가?

107088 #1 안 한 거 엇이 난 식육점만 안 해서. 그때에 다 할머니영 어머니네 다 돌아가셔불고 나가 애기덜이영 낳고 재산도 엇고 친정 재산은 하신디 나 이름으로 췌 재산이 엇이니까 식육점도 하젠 해신디 우리 오빠가 못하게 그걸랑 하지 말렌. 아이덜 공부시킬 때 돈 엇이민 나가 대주켄. 췌헨 안 췌. 췌 해실 건디. 딱 장산

107088 #2 배도 해낫지양.

107088 #1 배도 해낫고.
 107088 @ 아아.
 107088 #1 그때는 고기 하영 잡아오민 망신이라. 이제 그 고기 이제는 일키로에 얼마 해신디 그때 일판에 얼마 해낫주게. 그 우리 배는 그렇게 고기를 잘 잡아 와 신디. 우리 배만 들어오민 우리 뱀 아니 말으켄 허는 거라.
 107088 #2 너무 많이 잇어부난.
 107088 #1 이백 관 잡안 왓저. 어떤 때는 기도 만선기 돌아근에 오꼭 허멍.
 107088 @ 경해도.
 107088 #1 경해도 이제 그 고길 잡아시민 부자 돼실 건디.
 107088 @ 삼춘, 이제도 부자 아니.
 107088 #1 부자는 무신.
 107089 @ 여긴 쉰다리 험니까? 순다리 험니까?
 107089 #1 쉰다리 뭘 밥, 저 밥 그것에게 누룩 서꺼근에게 물이영 서경 놔두민 보글보글 케민 거 걸러내민 쉰다리.
 107089 @ 음, 요즘도 순다리 해영 먹엄수가?
 107089 #1 이디 노인덜 밥 남으면 가정 강 쉰다리 행 먹켄 행 가정가.
 107089 #2 우리는 자꾸 해 먹는데.
 107089 #1 좋주게.
 107090 @ 누룩은 어떻 만드는 겨우과?
 107090 #1 누룩은 어떻 만드느냐 허면은 해, 나가 혼 나가 낳은 지가 팔십 년 돼신디 아니 본 거 엇이 다 봐보난 누룩 만드는 건 주녕이보리.
 107090 @ 주녕이보리.
 107090 #1 보리개역 술우리로 하신디 누룩만큼은 주녕이보리로 하는 거라. 그거를 이제 영 싯저근에 물 그거 빠주와근에 건물만 빠주와근에 통에 담양 놔두민 싹이 뜨는 거라. 영허영 싹이 뜨는 거라이. 그 싹이 싹이 요만큼 다 뜨민 뱃난 디 물랴근에 그거 거핀 것이 누룩이라.
 107090 @ 골은 뭐?
 107090 #1 골은 그 주녕이보리 가정은에 그거는 이제 골아근에 인치룩 저 돌레 떡ㄴ치 만들어근에 띄와근에 굳 거는 그 골.
 107090 @ 삼춘, 거꾸로 ㄴ는 것 닐다.
 107090 #2 띄운 것이 누룩.
 107090 #1 누룩 골.
 107090 #2 싹 난 거 굳 것은 골.
 107090 @ 계난 띄운 거는 주녕이보리 싹 띄운 게 아니라. 쉰다리 험 이렇게.
 107090 #1 그거.
 107090 #2 띄운 거. 튀운 거 놔뒀다가.
 107090 @ 떡 이렇게 해가지고.

107090 #1 지금 장에 강 보면은 동글락헌 거 팔주게. 그런 거 사당은에 집에서
뺏아근에 쌀 허고 서꺼근에 걸르민 순다리 뒹고.

107090 @ 계난 누룩 똥글락허게 만들 때 이거는 어떤 식으로 만드냐고?

107090 #1 것도 거피여근에 물 그자 줌질게 거피영 경혜근에.

107090 @ 건 술우리보리?

107090 #1 줌질게 거피여근에 떡 만들어근에 띄와근에 그건 띄와근에 기자 동
글랑헌 거그냥 그대로 풀레 다니고.

107090 @ 음.

107090 #1 콜인가 싹 뜯 거 그르로 만들어근에 장에 풀레 오는 건, 주냉이보리
로 돌레 영 허영 헌 거는 술우리보리로 헌 거.

107091 @ 직접 엿도 만들어봐마씨?

107091 #1 나는 엿 안 만들어봐도 어머니네 엿 만드는 거 봐왔주게.

107091 @ 건 어떤 식으로 만듭디가?

107091 #1 건 오메기 흐린좁쌀 가전에 물 반죽혜근에 오메기 그거 이제 삶아내
어근에 누룩하고 그거 물하곡 서꺼근에 놔두면은 그것이 켜면은 그 물을 툇라근에
그 물을 막 불 솥아근에 만약에 혼 속 물이 혼 솥 뒹면은 반 솥 뒹 때까지 그 불
솥으멍 막 쭈어들게 만드는 거라이. 그것이 엿.

107091 @ 엿.

107091 #1 그만은 닭 삶양은에 닭고기 찢어놔 거기 하면 닭엿.

107091 #2 썩 농면은 썩엿엔 허곡.

107091 #1 썩 농민 썩엿엔 허곡.

107091 #1 뒹지고기 요만은 그것도 잇어신디 그것도 잇어신디 요만은 헌 단지.
혜영헌 거 이제는 무신 꽃인지 몰라도. 푸린 걸로 영영 기려진 그런 것에 엿을 담
아근에 우리 어머니네가 엿 이제 혜근에 그런 단지에 담양 켜 우의 놓는 거라. 시
렁혜근에 켜 우의 놓민. 아이고, 그거 우리 아버지 약하젠 영영 놓민 우리 오빠 나
안티 굶으레 허민 그 우의 올라상 나신디레 고기덜이 엿 우티레 올라오주게. 난 굶
은 엿도 안 주곡 우리 오빠만 다 먹언.

107091 @ 웃음. 계난 혼번 얻어 먹지 못허언.

107091 #1 오빠가 나가 느량은에 나 믈녀 먹켄 허언 오빠 먹어지민 돌아나불민
배꼽 다 썰지게 웃이매.

기타

107092 @ 경허니까, 그것말고 이 마을에서 표선리에서만 하는 특별한 음식 이
시카마씨?

107092 #1 특별한 음식은 뭐 하여튼 간에 그자 우리 노인당에서 와근에 전복죽
썰 주는 거. 전복죽 썰주는 게 특별한 음식이라. 썰 막 크게 생각해근에.

107092 @ 옛날.

107092 #1 혼번 맥이젠 허민 혼 칠십만 원 정도 들어. 전복 그거 하고.

107092 @ 삼춘, 옛날에 물질도 헤신난 집에서 전복줄 헤실 거 아니라예? 어떨 때 험니까?

107092 #1 옛날에는 죽 썰 먹을 줄 몰라서.

107092 #1 통조림 공장에 와근에 썰어근에 기자 이만은헌 점복이라도 멧 점 돼지 안 허여. 대으섯 점 혼 점씩 먹으민 그치룩헤영 죽 썬먹거나 경허진 아녀.

107092 @ 게웃은?

107092 #1 게웃도 다듬앙 혼 사름 먹영 꺾나불곡.

107092 #2 게웃은 통조림 공장에서.

107092 #1 게웃 통조림 공장에서 전복 숙보헤근에 전복을 문딱 터근에 물 꿰우는 물에 끓이는 디 등가근에 건저근에 말리왕. 그때는 삼마엔 헌 사름이 우리 아버지가 일본말 아니까 그디 이제 직원으로 헐에 헤신디 그때 아버지 그디 시난 통조림 공장에 놀레가주게. 강 보면은 옛날에는 하나가 바로 이따위라. 이따위. 그런 전복덜 헤근에 저 거시기 물 끓여근에 그 다 전복 터근에 게웃 다 때불영 물 끓영 일 본더레 보내곡 허연게.

107092 #2 그때는 빌어단.

107092 #1 우리는 게웃 먹으렌 허난 먹지 아녀나서. 우리 아버지가 그런 거 뇌시게 먹어나난.

107092 #2 그때는 해방 후에니까 우리 통조림공장을 헤시니까 게웃은 자꾸 빌어단 먹어서. 게웃으로 해당 게웃으로도 먹곡 슥양도 먹고 소금허면은 짓이 돼고.

107092 @ 음.

107092 #1 우리 집은 우리 어머니네는 그 게웃적 먹은 거 생각남서. 무시거 접시에 새카망한 거 우린 그 거멍하덴 허멍 안 먹엇주게.

107092 @ 그렇주마씨.

107092 #1 거멍허덴 허멍 안 먹어신디 그것이 게웃젓인 거 닐아.

107092 @ 먹는 거는 여기까지 끝내쿠다.

8. 주생활

구조

108001 @ 자 집을 지엇던 경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08001 #2 나 목수는 아니라도 주인으로.

108001 @ 예.

108001 #2 아까 휘장 말헌 대로.

108001 @ 계난 집 지엇던 경험 곶아줍서?

108001 #2 결혼, 결혼헤가지고 분가를 허게 돼니까 어머니 아버지 터를 내주니

까 당장에 좋게 지을 수는 없고. 요 서화리엔 현 디 잇수다게. 거기 가서 놈의 집
튼는 거 그걸 사다가 나무를 보태가지고 나무 딱 그만큼 짓어놔수다. 그거 짓고. 밧
거래엔 현 거 무시 거 불치도 뭐 허곡 이렇게 허는 거.

108001 #1 불치 데미고.

108001 #2 예, 그렇게 해서 살아나십주.

108001 @ 그거 지었던 건 언제마씨?

108001 #2 그것은 스물세 살 스물네 살.

108002 @ 스물네 살 때. 그때 지었던 집은 어떤 집 짓었수가?

108002 #2 초집, 초집. 초가집으로 지어서 혼 십 몇 년 지나가니깐 지붕개량허
라고 해서. 그래서 쓰레트 면사무소에서 보조도 받고 해서 지붕개량허고. 이렇게 해
서 살다가 곤란해연 폴아십주. 것도 서귀포로 가뱃수게.

108002 #1 그거는 그거 그 휘장님네 그 시대는 그거 좀 나올 때 집이우다. 우린
옛날에 어릴 때에. 우리 어릴 때에 놈의 집 막 그 못사는 사름. 그, 그런 집 지은
디 가보민예, 집을 짓어가지고 방하고 방 하나만 하고 그 다음에 칸 하나는 뭐 북
대기 그 검질 막 끌아근에 혼쪽에, 혼쪽에는 밥 해먹고. 거기에서. 그자 방하고 그
거라. 부억 상방 그런 거 엇이 방 하나 북대기방. 그거 해근에 거기에 불습양 밥 해
먹고. 그 이간집 조그만허게 초가 조그마하게 짓어근에 불치막처럼 짓어근에 사는
사람덜토 우린 봐놔수다. 그 저 게영 영 강 보면은 저 방더레 들어가는 문도 허나.
흐나만 해영 그 영 잡아텅경 열아근에 들어가근에.

108002 @ 음.

108002 #1 경헌디.

108002 @ 으음. 그런 집은 무신 집 해마씨?

108002 #1 그, 그런 집은 뭐 불치막살이ㄴ치 짓언 살앗저. 그때 말로는.

108002 @2 계난 막살이?

108002 #1 막살이, 막살이주게.

108002 @ 예, 알아수다.

108002 #1 경해연 그 다음에 흥뽀م 낮게 허난에 이간막살이. 해근에 조금 낮게시
리 그것보단 방하나 마리 닳은 거 영허고 부억허고 영 헨에.

108002 #2 난 짓을 땀 삼칸, 삼칸.

108002 #1 이 휘장님네 집 짓을 때는.

108002 #1 휘장님 그때는 방허고 마레ㄱ장은 부뜨곡 그 부억. 그 부억도 흑땅에
서. 흑땅에서 그자 덕 놔근에 거기서 이제 해영. 그자 그 그냥 흑땅에 밥 거려 놓고
국 거려 놓고 경해여근에 경허영 먹엇주. 상 출리고 무시거 허고 그 시대는 경 안
헛수다. 처음에 그 저 못 살 때.

108002 @ 예.

108002 #1 완전 못 살 때에.

108002 @ 맞아예. 계난 그 제주도에 게른 집 종류는 어떤 집 종류들이 잇어나

수가? 삼춘네 살 때?

108002 #1 계난 불치막살이허고 이간막살이.

108002 #2 이간막살이 삼간막사리 잇는데, 표선리에는데, 그 우리가 이제 자라서 이제 나 집 짓을 때 보니까 예, 양철집이라고.

108002 @ 예, 예.

108002 #2 양철집이 참 잘 사는 사름덜. 그런 사름덜은 어떤 사름이나 허면은 일본 놈덜 망해서 가버리니까 인자 그것을 이자 뭐라 허는가 불하는 아니고. 돈 내가지고 일부 내가지고 자기가 맡아가지고 그런 양철집이 잇었고. 여기 잘 사는 송방식씨.

108002 @ 예.

108002 #2 많이 들었지예.

108002 @ 예, 예.

108002 #2 그분들은 양철집을 해서 살았고. 그 나머니 우리들은 집 짓젠 허민 삼칸집. 경 아녀민 불치막살이. 불치막살이 해서 살안. 불치막살이 제도가 만할수다.

108002 @ 초집허고 양철집.

108002 #2 양철집.

108002 #1 그 다음은 쓰레트.

108002 #2 쓰레트는.

108002 @ 지에집?

108002 #1 기와집. 우리 표선인 경우에는 알동네 진하네 그디 표선이서 그 집만 기와집. 기와를 하니까 그 집으로 다.

108002 #2 기와집 허민 거기 저 밑에.

108002 @ 예.

108002 #2 그 사름은 배 선장도 해나고 육지를 자꾸 왕래허곡 허니까 기와집 짓언. 기와집 허민 그 사름네 집.

108002 @ 그러면은?

108002 #2 표선면 일대에서

108002 @ 그러면은 초집 지을 때 흑집이우과? 돌집이우과?

108002 #2 돌 닿아놓고 흑빌르는 거.

108002 #1 그 집이 흑질하젠 허면은 동네 사름덜 다 나와근에 물 길어다주곡 경혜근에 말이나 소나 경혜근에 그 보리짚, 보리짚 하이튼 보리짚일 거라. 보리짚 막 그거 뿌리명 막 소하고 말하고 그거를 배합시키는 거라. 막 발라근에. 영 서로서로 그 부뜨게시리.

108002 @ 예.

108002 #1 경혜근에 그거 가정은에 영영 심영 작작 고망.

108002 @ 고망 막고.

108002 #1 담 영 다 놔근에 고망더레 흑. 우리 거 두런 때에 그런 저 집 짓는

거 봐난 거주. 우리가 직접 짓은 거는 아니고.

108002 @2 우리 동네는예, 고시락하고 보리낭 작두로 쫄랑예.

108002 #1 보리낭덜 작두로 꿰엿은에 불랑. 말하고 소하곡 하명 허주 사름으로 다 불르지 못허여. 그 흑이.

108002 @ 예.

108002 #1 배합돼게시리 힘이 없으니까. 게난 말하고 소나 헨에 허고 동넷사름덜 다 물 길어다주곡.

108002 @ 예.

108002 #1 집 짓젠 허민.

108002 #2 집 짓젠 허민 목수는 품 줘서 허고 담 다는 거 돈 줘서 허고 그 다 음에 동네사름덜이 다 나와서.

108002 #1 부주로, 부주로.

108002 #2 부주로.

108003 @ 그러면 보통 집 하면 안거리가 잇고.

108003 #1 몽크레.

108003 @ 맞거레?

108003 #1 몽크레.

108003 #2 불치막살이.

108003 #1 우리 신천리 웨가애가 그 시절에 잘 살앗낫주게. 안거레는 막 좋게 짓고 몽커레 그보다 적게 짓어. 그 적게 짓은 디는 정제 허고 밥허는 그런 식으로 해근에 행 짓곡. 몽크레는 이문간.

108003 @ 예.

108003 #1 이문간하고 겹쳐근에 지은 집은 몽크레엔 골안게. 무신 거 몽크레 강 가져오라. 뭐 안거레 강 가져오라.

108003 @ 한 집에.

108003 #1 미음자 식으로 영 짓어.

108003 @ 세 채?

108003 #1 막 부잣집은 네 채도 짓어.

108003 @ 삼춘네 집은?

108003 #1 부잣집 암만 집 커도 집 하나에 방 하나벤틀기 엇어. 춤 이상허여. 암만 집이 커도 방 하나 고팡 마리 정제.

108003 @ 예예.

108003 #1 그치룩이라. 방 두 칸이 엇어.

108003 @2 족은구들도 없고예?

108003 #1 밧거레도 족게시리.

108003 #2 밧거레.

108003 #1 그 식 비슷하게 몽크레엔 완전 부잣집이. 부잣집 아니면은 그 이문간

에 영 집을 지어지지 아녀주게. 문을 대문 막 크게 행 들곡. 그 혼쪽에 부쩌근에 불
치도 이제 밥해난 불치 하영 메와지민 그런 거 해다근에 데미곡 허난 혼쪽에.

108003 @ 음.

108003 #1 명석.

108003 @ 음.

108003 #1 덕석, ㄱ레덕석 ㄱ튼 거 보관. 보관. 혼쪽에는 그런 거 보관허고 멩텅
이 같은 거 돛가레착 그런 거 보관하는 거 그거 영 혼쪽하고, 혼쪽은 대문. 부жат집
은 대문 잇고. 이제 그디 이신디 그 꼭 집을 집을 영 막 엇은 집은 그자 대문이고
거고 엇고 그자 막 안거레엔 현 딴 흥끔 낮게 허곡. 밧거레ㄱ장은 잇어.

108003 @ 밧거리?

108003 #1 몽커레는 엇어. 못 사는 집은.

108003 @ 게문 쉼은 어디 밧수가?

108003 #1 쉼막이 딱로 잇주. 쉼막이 딱로.

108003 @ 아아, 안거리 밧거리 말고?

108003 #1 밧거레 혼 칸 부쩌근에 쉼막도 잇어난 거 닙아.

108003 #2 밧거레.

108004 @ 밧거리예. 알아수다. 삼춘, 아까 삼간집 지엿텐 헛잖아예. 그 과정을
굴아줍서. 땅은 어떤 식으로 다 골랑은에 허고. 지둥은 어떻 세우고.

108004 #2 그러니까 목수가 땅을 골라서 목수가 노꼴으로 헤가지고 짹허게 그
려 놓니다. 이렇게 해놓면은 헤 놔서 완전히 다려 놓고 해 놓은 그 다음에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석공들이 와서 담을 쌓고 기둥 세우곡 다 허는 거.

108004 @ 음.

108004 #2 기둥 담 쌓놓은 데만큼 흑질을 해근엔에. 내중 흑질허기 전엔 지붕
다 씌와난 다음에 지붕 더프는 겁주.

108004 #1 지붕도 그 왕대. 왕대 해근에 영영 이제 서리를 이제 놔놔근에 우로
그, 그 저 그디도 흑질해서. 그 청장도.

108004 #2 청장은 집 잘 짓는 사름이 허고.

108004 @ 음.

108004 #1 청장 흑질. 옛날에 우리 두린 때 두린 때멍 말멍 혼 열여섯 열일곱
살 때 검질메레 갓다왕 영 지청 뉘시민 서리도 베미 막 지나 베미 가도 베미 지나
감덴 굴으멍 뉘 잠자나서.

108004 @ 웃음. 요즘 같으면 난리나실 건디.

108004 #1 난리 낮지게. 옛날 집은이, 기둥 세우기 전에 돌 이만은 한 거 해근
에 밑에 돌기둥 요만은 현 거 땅에 부뜨게 놔놔 그 우로 나무 영 헨에.

108004 @ 그 돌을 뭇렌 험니까?

108004 #2 주춧돌, 주춧돌.

108005 @ 주춧돌. 경해근에 이제 하고예. 그러면은 삼춘, 아까 주춧돌이 이실

거고 기둥이 잇일 거고, 담혜영 기둥 세울 거 아니라예? 계문 위에 올라가면 부분 명칭들은 기억나는 거 잇수가? 뭐 아까 서슬이여 서리여 허는 거?

108005 #2 서리. 서리 잇고. 그 상냥식혈 때 그것보고 무신 나무엔 헤라마는.

108005 #1 상므루, 상므르.

108005 #2 상므르. 상므르 그거 놔가지고 상냥식을 험주게. 이만큼 냉겨놔다가. 서리를 이렇게 다 해놓고, 상므르 거기다가 상량엔 막 올려놓는 거주. 그 다음에 서리를 다 부썬.

108005 @ 계문 서리는 이렇게 부썬 게 서리고.

108005 #1 나무 가정은에 서리 영 해놓고 가만히 영 생각해보민 그 저 왕대 그, 그런 거 가져근에 영 다 느람지처럼 여껴근에 청장에 강 그거 끌아놔 그 우의 흑. 그 저 끌안 더퍼난 거 그 생각 남신게.

108005 #2 우리는 가난헛기 때문에 왕대로도 못허고 갈대, 갈대.

108005 @ 예.

108005 #2 갈대 그거 해서 여껴가지고 놔서 흑을 놓면은 무거우니까 아예 흑은 없어.

108006 @ 그러면 그 갈대로 현 거는 뭐렌 곶아마씨?

108006 #1 거는 무신 거엔 곶아나신고. 하, 어째튼 간에 그 서리하고.

108006 #1 갈대나 저 대나 말이지 그대로 여껴가지고 올려놔는데.

108006 @ 그런 거는?

108006 #2 그 이름을 몰르겟네.

108006 @ 고대, 고덴 뭐우과?

108006 #1 고살. 하이튼 간에 고살엔 헛던가. 어떠튼 간에 그런 거 닮아베여.

108006 @ 포는 뭐우과?

108006 #2 포. 포?

108006 @ 예, 포랑 드리랑 잇일 거 아니라예?

108006 #2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 상므르 그 밑에 잇는 거 이렇게 돌아가는 데 놓는 거 포라 허지. 거기다가 상므르가 이렇게 올라가서 서리를 그 밑에 영 닿는 데가 이거 포. 서리를 이렇게 허는 거 이걸 받쳐주는 것이 포.

108006 @ 서슬은?

108006 #2 서슬, 서슬은 밑에 그 저 뭐야 돌담궂지 해 놓고 그 우에 인자 대로 해서 엮어가지고 그 우에는 흑질해놓는 거 서슬.

108006 #1 돌 이만큼 쌓아놓고 그 우터레는 그 저 대막댕이 어떠튼 간에 영영 헨에 그 글로 우터레는 그걸로.

108006 #2 예, 서슬.

108006 #1 서슬.

108006 @ 아까 그게 서슬?

108006 #1 으, 그거 영혜근에 놔놔근에 그거양 담 요만씩 허게 놔놔 이 칸에는

그걸로 다 해놔근에 그것에 흑질 다 허여. 흑 털어정 나오민 대막댕이 나와.

108006 @ 음.

108006 #2 그러니깐 돌담을 우에꺼지 쌓지 못허니까 .

108006 #1 서슬해근에, 서슬로 해근에.

108006 #2 글로헨에 우로 서슬까지는 우에 흑질허는 거.

108006 @ 그 벽체 같은 거는 뭐렌 해난마씨?

108006 #1 벽체가 서슬 아니?

108006 #2 이진 돌담이고 안네는 멘작허게 여기다 도배하고.

108006 @ 이름이 생각 안 나니. 표준어는 윈데.

108006 #2 웨? 웨?

108006 @ 표준어는 윈데 서슬은 지붕에 허는 거고.

108006 @2 삼춘이 얘기허는 웨야 웨. 백장 만들 때에.

108006 #1 백장이주. 아니 그것이 여기까지 담을.

108006 @2 튀기.

108006 #1 담을 영 싸놓면은 일로 우터레는 멘작헌 게 아니고 중간 중간 나무로 해놔가지고 나무 사이에 저 거세기 여꾼 그거 가져근에 서슬 그거 어떻게산지 부짱은에.

108006 @2 거기가 튀기. 웨는 튀기야.

108006 #2 웨. 웨라는 말은 이딘.

108006 @ 그거허고 집이 어느 정도 일정한 돌 당고 그 우에는 흑으로 올리는 거 아니라예?

108006 #1 그저 여겨근에 딱하게 영 양쪽으로는.

108006 @2 흑블랑에?

108006 #1 저 흑 블른 게 아니고, 어쨌든 나무 세와가지고 나무에 어떻 나무에 부쳐근에 흑으로 헨 짝허게 안네는 멘작허게시리 발르고 두에는 더들더들해도 내불고.

108006 @ 음.

108006 @2 요기는 흑시 호미라든가 낫 같은 연장도 놔뵈수가?

108006 #1 하이트 나무 홈 멘들앙 낱 그레 끼운 거 닳아.

108006 #2 경헌디 구멍 뚫버가지고 아까 영 말헌 거.

108006 #1 홈베기. 이거민.

108006 @2 예.

108006 #2 돌담 이렇게 쌓아서 여기 간격을 놔뵈서 서리 이딘 공간이 생기거든. 그디다 꿀게기 ㄴ튼 거 놓주게. 그런디.

108006 @ 그디 이름은 모르쿠과? 웃음.

108006 #2 웃음. 이렇게 물을 줄 알앗으면 다 적영 놔둘 건데. 어릴 때.

108007 @ 어릴 때. 맞수다. 백장 여긴 시렁? 백장을 뭐렌 험니까?

108007 #1 시렁, 시렁.
 108007 @ 시렁은 어떤 식으로 만든 거라마씨?
 108007 #1 시렁은.
 108007 #2 시렁도 마찬가지로. 나무 이렇게.
 108007 #1 방, 이것이 영영 방이면은 그 방 안쪽에 영 이것이 영 들어오꼭 밖으로 나가게시리 이거를 만들영 이 시렁 잇는 쪽은 굴목이주게. 굴목.
 108007 #2 굴목이라 베갯디 굴목.
 108007 #1 저쪽으로 들어왕 보면은 시렁 궤 놓고 영 한 디는 밖으로 영 내방은에 한 디는 그 저쪽으로 영 돌아가민 굴목이라. 굴목. 게영 글로 행은에 굴목 때고 하느디 그거 행은에 글로 행 시렁, 시렁을 만드느 거라. 시렁엔 현 거를. 만들어근에 그디 해근에 궤도 놓고 저쪽으로 가민 굴목엔 가면은 툇 튀어나니까 영 굽영 가근에 굴목 살르고.
 108007 @ 예, 게문 삼춘네 아까 삼간집 지었을 때는 방이 몇 개라난마씨?
 108007 #2 방 두 개.
 108007 @ 방 두 개. 그러면 맨 큰방은 뭇렌 헛수가? 방을 뭇렌 헛수가? 표선리에서는.
 108007 @2 구들.
 108007 #1 구들.
 108007 #2 큰구들 죽은구들.
 108007 @ 큰구들 잇고 죽은구들 잇고? 그 다음에 가운디 잇인 거는?
 108007 #2 상방, 상방.
 108007 @ 옛날에 집 구조를 뭇 큰구들 죽은구들?
 108007 #2 죽은구들 이신디.
 108007 @ 예.
 108007 @2 정지.
 108007 #2 정제.
 108007 @ 고팡은 어디우과?
 108007 #1 큰방 이신디 반
 108007 @ 그 다음에 아까 시렁은 어디라?
 108007 #2 시렁은 굴목 잇느디 여기 궤 놓고.
 108007 @ 궤 놓곡. 마리에도 뭇?
 108007 @2 화로 같은 거?
 108007 @ 화리나 뭇?
 108007 #2 그거 화리가 옛날 집은 화로가 잇엇어. 돌화로 적도 구웁 허고, 우리가 지을 때는 그건 것 엇엇어.
 108007 @ 제기 같은 거 놓는 디는 어디에 놔놔마씨?
 108007 #2 제기?

108007 @2 젓그릇.

108007 #1 아, 제기.

108007 #1 제기는 우리는 큰 케. 케헤근에 케 소굽에 제사 지내나면은 큰 젓그릇이난게. 젓그릇이난 깨끗하게 따까근에 안 놓면은 파란, 파란 녹이 쓸 주게. 경하카부덴 우리 어머니네 영 보민 완전 깨끗이 햇빛에 말랑은에 케 소굽에 낫다근에 꺼내근에.

108007 #2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보니까, 어머니네 허는 걸 제사허는 거 보니까 내냥 재로 허영 다끄곡 해서 제사 낫나민 이런 구덕에 놔가지고 고팡에다 놔두던데. 놔둘 디가 없으니까.

108007 @ 마루에 어떤 장을 만들거나

108007 #1 우리 친정집은 마루에 마루가 커났어. 거 크난에 두주.

108007 @ 음.

108007 #1 두주엔 한 거 양쪽으로 이제 이거 이것이 영헤근에 마루면은 요기는 저 두에.

108007 @ 예.

108007 #1 안뒤에 가는 문이 잇고 그 양쪽에는 두주 두 개.

108007 @ 음.

108007 #1 그 두주 두 개가 하이튼간에 우리 미치지 못할 정도로 큰 거 두 개. 그디 행은에 그것에 곡식 같은 거 이제 두주에 담고.

108007 @ 장을 뭐 장방 이런 거는 안 만들고.

108007 #1 어떤 집원 가면은 영행은에 부쳐근에 만든 디덜토 잇어. 문 열아근에 그디 하고. 정제는 보면은 살레.

108007 @ 예, 예, 예.

108007 #1 살레, 살레를 이만은 큰큰헌 거 헤근에 한 세, 네 칸 정도 우에 다리가 이만은 행은에 일로 이레는 뭐 칸이 이제 우티레부터 칸 만들어근에 세 칸 정도 헤근에 국그릇 어프는 디 밥그릇 어프는 디, 보시 접시 경허곡 경 우리 친정에는 그치록헤나서. 두주도 저 아무 집이나 그때 두주라는 것이 엇어났어.

108007 @ 맞수다.

108007 @2 물항은 어디 낫수가?

108007 #1 이것이 정제면은 저 살레 이신 옆에 이제 물항.

108007 @ 음.

108007 #1 물항도 지세물항이렌 헤근에 허베기로 허벽으로 열두 번을 질어다 놔야 그 항이 짹 차는 이만헌 항이라. 우리 어머니네 드르카명 저 항으로 물 하나 습빱 질어다 놓고 명석 멧 개 낄아근에 날레 넣어근에 이제 어리니까 이젠 날레 들여놓지 못허니까 더경 놔두라. 더경 놔두민 어머니네가 와근에 밧디서 와근에 다 멧탱이에 담양은에 큰멧탱인 일로 이만이 멧탱이. 경 헤근에 곡식.

108007 @ 음.

108007 #1 경혜영 해나고 경.

108007 @ 삼춘네는 정말 부라자난 거 닮아예?

108007 #1 두주.

108007 @ 두지 해근에 하고. 뭐 이불상이나 이런 건 엇어마씨?

108007 #1 이불장은 엇고 그자. 이불 퀘 우의 이불 하나.

108007 @ 웃음.

108007 #1 이불이 엇어난 거 닮아.

108007 @ 거난 이제 방이 두 개 만들잖아예? 두 개 만들면 하나는 삼춘 같은 경우는 굴목예, 큰구들은 굴목으로 하고. 작은구들은 굴목 안 해마씨?

108007 #2 작은구들은 밥 해나면 뜻뜻하고.

108007 @ 알아수다. 그 마리에 그 삼춘네도 아까 부섭 그거 놔놔? 화리? 돌화리?

108007 #1 마리에 돌화리 요 정도 올라오게시리 해근에이, 저 마리 가운데 흐끔 뒷무똥 부전에 해여근에 거기에서 뭐 불 저 낭께기 해근에 불 솜곡 그때는 그실곡 그런 거 무신 건 엇고 불 솜양 뜻뜻하게시리 하고. 거기에 이제 제사 때는 적쇄 영 놔근에 고기 귀근에 후라이판 그런 거 아니고 막바로 이제 밖에서 막 제사 때는 나무 같은 거 막 해나민 그 갈레죽으로 해근에 불 담아당 그레 놔근에 적쇄를 이렇게 놔근에 거기서 고기. 목 같은 거 할 때는 꿩 풀랑지 해근에 영 해근에 만든 거 참 기름 그거 영영 목더레 불르명 돼싸근에 굽곡 그때는 목 썰은에 목을 고쟁이에 꿩 영 적쇄에서 굽주게.

108007 @ 아아.

108007 #1 경해근에 구우멍 꿩 하이튼 풀랑지 무시거 행은에 그거 행은에 그걸로 참기름 영 이제 적저근에 목더레 영영 불랑 돼쌍 불르곡 느땃상 불르곡 영 꺼내고. 우리 우리 친정에는 경해근에 청목.

108007 @ 예.

108007 #1 그런 것도 하고 목도 하고 막 해난거.

108007 @ 요즘도 목 행은에 제사합니까?

108007 #1 우린 이젠 간단하게. 믱덜ㄹ르로 하긴 하는디 후라이펜에 영 전 지지똥 지정은에 딱딱 끓어근에 하주. 우리 어머니네 목 지정 그치록 굽곡 청목하고.

108007 #2 청목허젠 허민 여간 힘들지 아녀서.

108007 #1 청목은 믱물쌀 그거 해근에 당갓당은에 혼닥허면은 풀주머니.

108007 @ 예.

108007 #1 풀주머니 그것에 담양은에 다 빼는 거라. 주시만 남아. 그 안네는 보민. 경해근에 그 물을 쭈면은

108007 @ 아까 무슨 주머니?

108007 #1 풀주머니.

108007 @ 풀주머니렌 해?

108007 #1 베로 하면은 다 나와병 안 뵙니다. 옥영목 줌진 거 가정은에 풀주머니를 이만인허게 만들어.

108007 @ 음.

108007 #1 만들어근에 그 쏘곶에서 담아근에 영영 큰도고리에 놔근에 영영 헤가른 그 이제 여물만 다 빠지곡. 껌테기는 빠진 물을 쑤면은 거 잘못 쑤당 다 넣어 베근에 하난 게나제나 묵 다 뵈 땀까지 쑤야 젖어야 뵈여.

108007 #2 젖어야.

108007 #1 젖은은에 풀탁풀탁허게 끓여지면은 헤여지면 요만은헌 도고리에 헤근에 비와근에 손에 물 적지멍 영영영 눌러근에 놔두면은 그것이 얼리면은 청묵. 청묵은 그거 그냥묵보다 헤영하덴 허영은에 청묵이엔 하는 거주게.

108007 @ 예예예.

108007 #1 기냥 묵은 ㄱ르로 카근에 경혜근에 젖으멍 그거 아까 쑤듯.

108007 @ 음.

108007 #1 다 쑤질 때까지 게나제가 젖어야 그것이 밑에 안 눌주. 경 아녀민 눌러베근에 안 뵈여.

108007 @2 그 화리를 뭐렌 헤마씨? 마리에 잇는 화리를?

108007 #1 그 마리에 잇는 화리는 그때 무신거에 헤낫저마는.

108007 @2 부섭?

108007 #1 무신 석엔 헛저마는.

108007 @ 돌화리엔은 안 허여.

108007 #1 돌화리에는 안 허고.

108007 @ 봉덕불 아니고?

108007 #1 살아시민 알 건디. 요섯 사름덜은 돌화리. 쉽게 말허민 돌화리에 행 좋주.

108008 @ 예, 마, 마리는 어떤 마리덜 깔아놔수가?

108008 #1 마리는 우리 집 경우는 그 마리 널이 이만씩 한 거 가져근에 이런 가운데 이만은 아니, 이만은 한 걸로 행 짹허게 해놓은 그 흠베기 속에 그거를 다 영영 지금 헤보난에 그치룩헨 마리를 짹 논 거라. 그때는 마리 나무도 가시냥.

108008 @ 가시냥.

108008 #1 굴무기냥.

108008 @ 굴무기냥.

108008 #1 그런 냥 같은 거 헤근에 마리널 해 놓면은 마리가 다끄면 다끌수록 기름 불른 거보다도 빈찍빈찍허매. 그런 거 헌 마리. 이 휘장넨 그런 거 몰라.

108008 @ 예. 이 가시냥 헤갓고 직사각형 모양으로예?

108008 #1 딱딱 이치룩 헤근에 저 짹허게 놔 놓고, 또 거 다 놔지믄 다음 또 이거, 이거 이거는 거 가운데 이제 흠베기.

108008 @2 드리가 잇어마씨.

108008 #1 흠베기 이거 해 놓면은 이쪽에 이거 허여근에 다 놔지면은 그 다음
요쪽으로 짝 놓고, 마리 전체.

108008 @ 다 연결을 하는 거라예?

108008 #1 다 연결 허영. 경헛주 이제 ㄴ치록 허지 안 허여.

108008 @ 난간에도 마리 놔놔수가?

108008 #1 난간. 우리 집 경우는 난간. 경혜근에 그 대문 예염에 난간, 대문 밖
으로 이제 마당더레 혜근에 그 난간이 이제 이 마당 이것가 마당이면 요만은 높으
게 혜근에 대문하고 ㄴ짱하게 혜근에 쪽 난간이 있어난.

108008 @ 마리로 해갖고예?

108008 #1 그 나무 난간 마리는 조금 긴 거.

108008 @ 더 긴 걸로?

108008 #1 더 길게 혜근에 딱 집이슬하고 딱 맞게 시리헛에, 것도 다 맞추멍 다
혜. 그때엔.

108009 @ 집이슬하고예, 그 다음에 그 고팡은 다 집집마다 잇엇잖아예? 고팡은
어떤 식으로 생겨놔수가?

108009 #1 고팡은 우리 그 집에는 큰방 다음에 고팡이 집이 영 하면은 이 여기
가 이제 창문 아니?

108009 @ 예.

108009 #1 창문, 이제 창문이든 마당 쪽으로 창문. 이쪽으로 큰방이 이렇게 돼
면은 그 다음에는 고팡.

108009 @ 음.

108009 #1 고팡 혜신디 경혜근에 또 작은방은 이 아까 이디 어디엔 헤라마는.
작은방은 어디에 하나하든 정제, 정제하는 쪽으로 꿇어근에 작은방은 완전 큰방보
다 완전 반 정도 족게 혜근에 그때는 정제에서 밥 먹고 정제에서 살림을 주로 살기
때문에 정젠 널르게 헛에 살레 놓고 물항 놓고 뭐 혼쪽에는 제사 많이 할 때는 조
척 혼쪽에 끌아와근에 그릇덜 다 시치멍 그레. 우리 친정에는 동지선들 나민 제사
가 일고으답번 돼니까 제사 그릇 들어놓지 안 허영 조침 끌아놔 어떻 낫당은에 삼
일 제사 그레 혜근에 제사 다 꿇나면 그거 아까 불치로 헛텐 헛게마는 이 불치로는
절대 안 돼여. 그 놋그릇. 저 거세기 이제 바당에 가면은?

108009 @ 모살.

108009 #1 모살이 아니고. 요만씩 돌 닳은 거.

108009 @2 속돌.

108009 #1 속돌, 속돌. 그거를 헤다근에 방에에 ㄴ는체로 체로 ㄴ는체로 다 치
멍 그 가루로 혜근에 놋그릇을 따까나서 우리.

108009 @ 아 아.

108009 #1 속돌.

108009 @ 속돌로예?

108009 #1 속돌 그거를 줏어다근에 방에에서 줏진체에서 그거를 처근에 그 낫 그릇 깃어진텐 해근에 아주 가루 가늘게 그거 처근에 그거를 해근에 산디찍 해근에 산디찍도 그냥 허면은 버짜허영 안 돼니까 조금.

108009 #2 두드렁.

108009 #1 쪼끔 그 두드려근에 복삭허게 두드려근에 물적정 아까 그 가루 헤여 야 낫그릇 빈찍빈찍허게 따까지주.

108009 @ 음, 경허고 삼춘, 고팡인데, 고팡 문 같은 것도 멘들잖아예?

108009 #1 고팡에는 문 만들지 안 허영 요만은 허게 그냥 톨라만 놓주.

108009 @ 음.

108009 #1 톨라진 데로 해근에 보면은 출단. 출단이나 그런 거 해당 짝 막앙 내 부는 거라. 고팡에 들어가민 콤콤허주게. 거 다 뭐 가라수나 이제 ㄹ으른 하주만은 옛날에는 출단해당 이만씩 현 거 두 맞디 톨라와근에.

108009 @ 그 이름은 뭐렌 골아?

108009 #1 그, 그거.

108009 @2 창곰?

108009 #2 창곰.

108009 #1 창곰, 창곰.

108009 @ 삼춘네요 고팡에 식계를 허거나 허면 고팡에 제 올리는 거?

108009 #1 우리는 올려나서.

108009 @ 그거를 무신 제렌 해?

108009 #1 안칠성엔 해근에.

108009 @ 음.

108009 #1 안칠성 밧칠성.

108009 @ 음.

108009 #1 밖에 모시는 건 안칠성 밖에 모시는 것가.

108009 @ 웃음.

108009 #1 것은 안칠성 밧칠성. 칠성엔. 안네는 안칠성엔. 우리 친정에는 밖에도 칠성이 잇고 안네고 요만은현 차룽에 문딱 해놓은 거 골고로 헛당은에.

108009 @ 그 안칠성 해난 음식은 놈 안 준텐 허멍에?

108009 #1 하도 엇일 때는 다 주난 다 먹어서. 말이 안 준텐 말은 경해도.

108009 @ 그 밖에 밧칠성은 어떤 식으로 모셨수가?

108009 #1 밧칠성은 나무가이, 만약에 나무가 이시면 우린 나무가 막 우거정 우에 집터가 사백 평 가까와부난 우의 먼안튀에, 먼안튀엔 하주게.

108009 @ 먼안튀? 어.

108009 #1 먼안튀 나무 막 우거진 거 나무 밑에에 돌덜 요만씩 현 거 해근에 그거 모신 거 아무것도 아니라.

108009 #2 기와.

108009 #1 기왓장 하나. 그디 두 개 해근에 아래 흐나 우의 흐나 영 행 모신 거 그거 밧칠성에 해근에 건드렛당은 눈 어둑엄저 뭐 험저 그 탈을, 탈 봐근에 해나신디. 그거 돌, 돌 준준한 기왓장 그거 해근에 그 기왓장에 물 안 들어가게 주지.

108009 @ 예.

108009 @2 주쟁이.

108009 #1 주지, 주쟁이 여꺼근에 그레 더꺼근에 뱅뱅 돌아가멍 산뒤 갈아 흐끔 덜어당 우리 어머니네 보난 그레 갓당은에 올리고. 조 하면은 조 흐 줌 행은에 그레 올리고 경 험게.

108009 @ 그레 어디 기와에 올리는 거? 아니면은?

108009 #1 그 우터레. 그 주지 그거 영 이신 우터레 가근에.

108009 @ 주지 우의로.

108009 #1 으.

108009 @ 여긴 밧칠성하면 여기 기와 잇잖아예?

108009 #1 이거 더끈 거이. 옆더레.

108009 @ 이런 옆에. 이런 옆에 쪼끔 영 올리는 거라예? 그릇에 담양 올려.

108009 #1 조차 그냥 앓다당은에.

108009 @ 무꺼진 거를?

108009 #1 무꺼진 거 멧 개. 대여섯 개 해당 올리고. 산에도 그만큼 짝에 다 부뜰냥. 떼지 말고.

108009 @ 비어온 걸.

108009 #1 비어온 걸 흐 줌 올리고. 해오는 곡식마다 그치록 가근에.

108009 @ 가장 처음에.

108009 #1 처음에. 그거는 곡식을, 내년에도 곡식을 잘 돼게 험 올리는 건지.

108009 @ 그겁주게.

108009 #1 우린 본 것은 내용은 잘 몰르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난 내년에 도 농사를 잘 돼게 해드렌 험 경 올리는 거고, 안네 고팡에 한 거는 자식들 건강하게 잘 해드렌 경행 험 거 닻아베여. 가만히 생각해보난.

108009 @ 안에 곡석헌 거는 올리지 아녀고?

108009 #1 제사 때 출린 그것만.

108009 @ 특별하게 안칠성만을 위해 제 지내거나 허진 아녀마씨?

108009 #1 제사 때. 멩질 때.

108009 @ 예.

108009 #1 건 영 보면은 그것도 흐끔 사는, 잘 사는 집덜은 그런 식으로 다 허고. 그자 엇인 집덜은 거 하지도 아녀. 그런 거를.

108012 @ 그러면 옛날은 집 지으면 문들은 어떤 식으로 들꼭 헛수가? 문?

108012 #1 대문.

108012 @ 대문?

108012 #1 대문 뭐 널로 혜근에 상방으로 들어가는 디 대문. 거는 널로 영 허고. 또 고평디레 들어가는 거는 뭐 영혜근에 요새 집 짓어근에 안넛집 영 그거.

108012 @ 창살.

108012 #1 창살 네개방장허게 요만씩허게.

108012 @2 지계문.

108012 #1 그치룩 하게 한 문 두 개 혜근에.

108012 #2 방 허나면은 바깥으로 나나디는 창문 잇고.

108012 @ 예.

108012 #2 마루로 드나드는 문이 잇고 문 두 개.

108012 @ 그러면은 밖으로 쟁긴 문이 이렇게 쥔 거 아니라예? 여기가 마당이면 이렇게 삼간집은 이렇게 쥔 거 아니. 삼춘네 집은, 여기 난간 잇고 여기에 대문 잇인 거 아니예?

108012 #2 예, 거기. 마루로 드나드는 거.

108012 @ 마루로 드나드는 거예? 이거는 큰구들이우과?

108012 #2 큰구들.

108012 @ 큰구들이면 또 문이 잇수가?

108012 #2 마루로 드나드는 거.

108012 #1 저딘 정제니까 정제.

108012 #2 이진 요건 요렇게 해서.

108012 @ 굴목.

108012 #1 고평.

108012 #2 굴목 위로는 시렁이 잇을 거라예.

108012 @ 이렇게 들어가는.

108012 #1 시렁엔 허지.

108012 @ 고평은 어디?

108012 #2 고평은 이렇게 해서.

108012 @ 고평이면은 문은 어디 됩니까?

108012 #2 이렇게 해서.

108010 @ 여기는 아까 그 문을 닫는 거라예? 계문 여기는 아까 정제?

108010 #2 정제.

108010 @ 정제 허면 이렇게 찰라?

108010 #1 정제는 찰르지 아녕 그자, 너딩으로 헨에.

108010 @ 여기도 문 잇고예?

108010 #2 일로도 가고 고평으로 가고.

108010 @ 솟은 어디?

108010 #2 솟은 이렇게 앓지주. 이렇게.

108010 @ 이렇게.

108010 #2 이거 우리 집 해난 걸 굳는 거.
 108010 @ 삼춘네.
 108010 @2 물항.
 108010 #2 물항은 요래.
 108010 @ 요건 죽은방인디.
 108010 #1 죽은방 없이.
 108010 @ 삼춘네는?
 108010 #2 살레는 요만큼.
 108010 #1 옛날에는 살레도.
 108010 @ 삼춘네는 방 헉나.
 108010 #2 삼칸. 크게 이건 삼칸인데도 그렇고.
 108010 @ 예, 예, 예.
 108010 #2 냉중에 죽은방 해서 부엌.
 108010 #1 작은방은 죽주게.
 108010 @ 정제하면 솟 하면 불치 나와알 거 아니우과? 거기는 뭐렌 해?
 108010 #1 불치 그거 뭐.
 108010 #2 불치를, 불치를 이거 허면은 싸여가든 담아당 불치막에 갖다놓주게.
 108010 #1 불치막에. 차가면 담다당 불치막에.
 108011 @ 불치막에예? 예, 알아수다. 그 다음에 문 들젠 허면 밑에는 그 대문 한번 돌아봅서. 들젠 허면?
 108011 #2 지팡, 지팡.
 108011 #1 지팡에 고망 영 뜰란에 그거 그 문 그 무신 도절귀?
 108011 #2 예, 도절귀.
 108011 @ 음.
 108011 #1 그걸로 그거 헨에 고망더레 그거 만들언에 문더레 부편에 그걸로 헨에.
 108011 @ 도절귀 속에 문을 이렇게 헨 거라예? 게영 이걸 열아?
 108011 #1 영, 영, 영. 앞으로 열었다 더젓다 하는 거 아니?
 108011 #2 문 두 개.
 108011 @ 도절귀로 허는 거우과?
 108011 #1 도절귀 지팡에 고망. 지팡에 고망 뜰라근에 나무 동글락헨 거 대문더레 옆으로 부편에 그 고망더레 그거 이제 디물양 우의도 고망 뜰랑 경허고.
 108011 @ 문 중그는 거 잇일 거 이젠 뭐렌 헤여?
 108011 #1 문고리.
 108011 @ 문고리하고,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108011 #1 지팡.
 108011 @ 여기 지팡이 이실 거 아니우과예? 지팡.

108011 #2 지팡.

108011 @ 여기 낭으로?

108011 #1 낭 지팡에 아예 구녕을 뚫러.

108011 @ 구녕 이름은 뭐?

108011 #1 그건 몰라. 구녕 무신 거.

108011 @ 구녕으로 나무가 양쪽으로 텔 거 아니예?

108011 #1 지등에 문에, 문에 혼쪽으로 헨에 거기에 딱 들어가게끔 동글락허게 옆으로 부편에 췌못으로 박아신가 여기에 맞추와근에 헤영 여기에 딱허게 들어가게 시리 우에도 열앗다 더꼈다.

108011 @ 여기에 맞춘 거는 여기에 잇는 겨우과?

108011 #1 그거는 나무를 나무 요만은 긴 거 요만은 긴 거 헤근에 그 구녕에 맞게시리 동글락허게 영 만들어근에 그 문에 부췌. 부췌선게.

108011 @ 도절귀가?

108011 #2 지팡에 구멍을 뚫어서 여기 들어가도록 허는 걸 이 나무에 걸 저 .

108011 #1 만들어 부췌서.

108011 #2 넓은 걸 해서 이레 꼽아놔서 이것이 약해서 췌여지카부덴 양철.

108011 @ 예.

108011 #2 양철로 땡겨당 못을 딱 박주게.

108011 @ 그게 도절귀이우과?

108011 #2 으, 우에는 힘이 안 가니까 밑에는 힘이 가고 우에는 그대로 만들어 서 그냥 꼽곡.

108011 #1 꼽앙.

108011 #2 쪽허게 올리면은 쑥 올라가서 놓면은 이 구멍에 닿게.

108011 @ 예, 예, 예, 어떤 건지 알아지쿠다. 그러면은 우에는 이름은 몰를고?

108011 #1 지팡.

108011 #2 지팡 문 구멍엔 허주, 무신 거.

108011 @ 계난 지팡도 밑에도 잇고 우에도 잇고 밑에 것은 무엇이렌?

108011 #1 지팡.

108011 #2 우에지팡 밑에지팡.

108011 @ 알지팡 웃지팡.

108011 #2 알지방 웃지팡.

108011 #1 지팡, 지팡, 지팡.

108011 @ 문대방은 뭐라?

108011 #2 지팡에는 당도록 지팡에 다 만들어놓는 거.

108011 @ 여기는 지팡이렌 헨 거라예?

108011 #2 그래서 지팡에는 문이 닫으면은 우에 닫도록 지팡에 다 만들어놓는 거.

108011 @ 예, 예.

108011 #2 밑에도 그렇게 우에도 그렇고.

108011 @ 여기도 문입쟁이 이런 말도 씹니까?

108011 #1 거는 무시거 허는 말이라?

108011 @2 문틀.

108011 @ 이 동네 말은 아닌가 보네.

108011 @2 입쟁이를 세우고 난 다음에 어르신이 말헌 이 지팡을 여기 놓을 겁주.

108011 #1 여기에선 기둥에.

108011 @ 그런 건 안 쓰고예? 알아수다. 삼춘, 그리고 창문이든가 어떤 식으로 허고.

108011 #1 도절귀로.

108012 @ 옛날에는 다 도절귀로 단 거라예? 예. 그 다음에 창도 블라야 텔 거 아니우과? 대문은 널로 웨어 잇주만은 그 방에서 나오는 창은 다 창이엇잖아예. 그 거는 어떤 식으로 헉니까?

108012 #2 창오지.

108012 @ 그거는 뭐렌 헉니까? 그 문들은 무신 문이렌 헉니까?

108012 #1 창문.

108012 @ 그대로 창문에?

108012 #1 마리레 현 건 셋문, 창문.

108012 @ 셋문, 창문. 그 창은 어떤 식으로 발라난 거 곶아줍서?

108012 #1 옛날에 뭐 밀가루 엇일 때 우리 바당에 강은에.

108012 #2 우미.

108012 #1 우미우과? 깨꿋도리. 웃음.

108012 @ 깨꿋도리.

108012 #1 그거 메여단근에 그걸로 해근에 쏘으민 풀이 되는 거라.

108012 @ 음.

108012 #1 그걸로 해근에 해영 창오지에 블라근에 문더레 부짱. 문에 그것에 깨꿋도리가 은직한직한 것이 깨꿋하게 안 보이주게. 그거 블라놓으난.

108012 @ 음, 음. 그러면 깨꿋도리풀허고 가시리풀은 안 허고.

108012 #1 가시리는 돌에 그거는 하젠 허난 오래난에 깨꿋도리 물 바짝 사민 이제 그거 저 도박.

108012 @ 예.

108012 #1 그런 거 메여단근에 말리왓당은에 그거 해영 풀 쭈민 그거 해영 어느 정도 녹아부련에 꺾테기가 지져부게 하진 안 허여. 가시린, 이레 영영 메젠허민 너미 쯔쯔허난에 저 그 점복새끼.

108012 @ 예.

108012 #1 껌데기 꺼끄떡 껌데기 행은에 그걸로 박박박 긁어넣.

108012 @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보통 창은 보통 어느 철에 불러
마씨?

108012 #1 가을에.

108012 #2 가을에.

108012 @ 아, 가을에 불러?

108012 #1 옛날엔, 장마나, 장마가 그치룩 심허영 장마 이젠 그치룩 안개 안 끼
주마는 안개 끼민 여기 사름도 안 보일 정도로. 장마 넘어나민 온 집안이 곰팡이로.

108012 @ 음.

108012 #1 곰팡이로 살 수가 없어. 다 그런 것도.

108012 #2 하늬브름 날 때 잘 몰르고.

108012 #1 하늬 나가면 문덜 불를곡 구들 방덜 다 도비허곡. 팔월멩질 헤먹젠
허민 조그만이 초상덜 올 거난에 판치룽허게 구들 다 불르고 창 다, 창문덜 다 불
르곡 그 제사 지낼 정뱅이 그 우의 적삼 그런 거. 어른덜 스나이어른덜 시민 두루
막.

108012 @ 예.

108012 #1 그거 다 해근에 풀 해근에 다 다려근에 스몓 해여근에 입영 제 지내
곡. 이제 그치룩 아멩이나 입영 뎡기당 제 지내서. 그때는 제 지낼 옷도 이제 모시
해근에 바짝하게시리 풀 다려드렌 싹 헤영허게 헤영 입곡 헨 그렇게 다 지내나곡.
난 옛날 식으로 우리 아덜, 우리 아덜은 제 지낼 때 모시 중의적삼하고 우의 저 후
루,

108012 @2 후루메.

108012 #1 후루메.

108012 @ 이제도예?

108012 #1 이제도 팔월멩질 때는 그거 입게 해근에 제 지내곡.

108012 @ 그러면은 창문은 일 년에 혼 번 불러마씨?

108012 #1 일 년에 혼 번.

108012 @ 일 년에 혼번씩 다.

108012 #1 장마 지나민 꼭 불러야 데여. 그 냄새, 곰팡이.

108012 #2 장마 넘어나민 다 곰생이 피영.

108012 @ 아아.

108012 #2 방바닥도 다.

108012 @ 방바닥도 다.

108012 #1 구들도 옛날에 뭐 구들 무신 종이. 이제 그뜨민 비료 푸대 닳은 걸로
불라근에 유, 유치름.

108012 @ 예.

108012 #1 유치름 것도 흠뻑 이신 집의 어녕부녕허영 불랑 허민 옛날은 베룩이

여 무시거여.

108012 #2 베룩이여 빈대여.

108012 #1 물것이 조그만이 잇어나서 그치룩헤근에 막.

108012 @ 벽같은 거 도비는 어떤 식으로 헛수가?

108012 #1 종이 사다근에 이녁대로. 다 도비 헤젯주마는 그뻘 이녁대로 다. 이
녁대로 다 불랏주.

108012 #2 도비사가 엇엇주

108012 @ 도비도 일년에 혼번 허고.

108012 #1 이제는 뤼.

108012 #2 그뻘 종이가 필필필 물 칠 찰찰헤벼. 불르지 못허여.

108013 @ 경허난 일년에 혼 번 헨 거라예? 그 다음에 옛날에 호청창 들어봐수
가?

108013 #1 고랑창엔 헨 말은 들어봐서.

108013 @ 창문 이름인데 하르방덜 창문?

108013 #2 건 내다보고 호령헌텐 행은에 호령창인게.

108013 @ 게메, 모르쿠다.

108013 @2 예.

108013 #2 하인덜 부를 때 말이지 “이레 오너라” . 이딘 그런 문은 엇어나신디.

108013 @2 성읍 가면은 대문 두 개 잇어마씨. 대문이 두 개. 게서 큰구들쪽이
잇는 것이 조금 족읍주게. 요놈이 호령창이라.

108014 @ 삼춘, 옛날 굴목 때젠 허민 어떤 식으로 뗏수가?

108014 #1 굴목은 하루 혼번 때는디 어둑워 가민 때는디.

108014 #2 뭇똥.

108014 #1 소하고 뭇하고 엇인 사름덜은 드르에 가근에 술이파리.

108014 @ 예.

108014 #1 글쟁이로 굶어당 굴목 때신디.

108014 @ 예.

108014 #1 우린 소 말덜 잇이난 올레가 막 기니까 담 고망에 소똥 뭇똥 다 이
제 착착 가을 때부터 그 겨울 나면은 그 굴목 때젠 막 부썸근에 행 놔두민 바상이
몰르민 그거 다 떼여내똥 그치룩 행 국물 살를 거 다 헛당 허는디, 그 소 말 엇인
사름덜은.

108014 #2 뭇똥 좇이레 막 다녀.

108014 #1 뭇똥 좇으레 저 웃뜨르. 뭇똥 좇영왕 말릅고. 술입 걸어오고.

108014 #2 경허곡 부억에 오래 밥헤나믄 문지락이 생기주게.

108014 @ 예, 예.

108014 #2 그거 굶어당 굴목 진으고.

108014 @ 이런 ㄱ시락은 안 해판마씨?

108014 #1 ㄴ스락도 막 부자침이 보리 하영 간 집의가 ㄴ스락도 하고 보리찍도
햇주 놈은 풀팔이 현 집은 ㄴ스락도 다 구경도 못허여. ㄴ스락 곳어도 쓸모 잇는
디 쓰지도 못하곡.

108014 @ 경혜근에 산에 강 술입 걷어당.

108014 #1 말뚝. 엇인 사름은 술입 걷어당 때고. 옛날에는 이제 성냥도 엇영.

108014 @ 음.

108014 #1 성냥도 엇이면은 정제 영 혜근에 영 한쪽 저 동숫.

108014 @ 예.

108014 #1 젤 죽은 숫이 동숫.

108014 @ 예, 동숫.

108014 #1 동숙 옆덩이에 흥뽀 공간 잇어. 거기 불부찌근에 불부짱 불치 더경
놔두면은 거기서 그 불이 부떠근에 체게 꺼지지 아녕 이시민 그거 가정은에 혜근에
저녁 때 그 불로 혜근에 불어근에 크게 만들어근에 밥 행 먹곡. 거 엇인 집은 놈의
집의 불 담으레 땡겨나서. 불 빌레.

108014 #2 제일 여자덜이 입장 곤란헌 것이 아침이 불 꺼져불엇어. 성냥은 없
지. 놈의 집이 불 빌레.

108014 #1 불 담으레.

108014 @ 예.

108014 #2 여자가 놈의집의 처음으로 꺼림해가지고 그거 기억이 나.

108014 @ 음.

108014 #2 그런 기억이 나.

108014 @ 예.

108014 #1 그 불 담으레도 전복쩍데기.

108014 @ 예.

108014 #1 거 가정은에 그것에 어떤 집원 가민 고맙게 말 엇게 주고, 어떤 집원
재수없이 이제 불 담으레 아침부터 땡겼젠 허고 준소리, 준소리가 아니고 그거 사
실이주게.

108014 @ 웃음

108014 #1 여자가 불 담으레 아침이 가면은 욕하는 집이 잇고.

108014 #2 남자가 가진 앓을 거난 여자가.

108015 @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삼춘, 그리고 옛날에 집 앞에에 비 오거나
영 허면 앞에 뭘 풍채?

108015 #1 풍채.

108015 @ 그거는 멧 개나 이렇게 저기 해난 겨우과?

108015 #1 풍채도, 그거 풍채 하는 집 잇고 안 하는 집 잇어.

108015 @ 음.

108015 #1 흥뽀 잘 사는 집들은 풍채 혜근에 이제 안거래일 경우에 두 개.

108015 @ 예.

108015 #1 두 개 만들민 풍채작데기 네 개.

108015 @ 음.

108015 #1 흥끔 말 안 들으민 풍채작데기 빠근에 두드리레 땡기븐 돌아나곡.

108015 #2 풍채가 필요한 것이.

108015 @ 예.

108015 #2 장마 때.

108015 @ 예.

108015 #2 창문 비바람 불 때 풍채 짝 내려와불면은 그 창문에 비가 안 났. 그렇게 하고 날 좋은 날은 짝 올려불곡.

108015 #1 올렁 풍채작데기.

108015 #2 상당히 필요헌 건데 그걸 헐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사는 사람도 많 았어.

108015 @ 음. 게난 그 올려분텐 현 말은 그냥 우에?

108015 #2 쪽허게 풍채작데기를 지둘라불고.

108015 @ 예.

108015 #2 내려와불텐 풍채작데기 내려와불곡.

108015 #1 비오곡 무시 거 허민 요새 무시것덜 만들엇다근에 그 하는 거나 마 찬가지주. 재료가 틀린 거 뿐이주.

108015 #2 태풍이나 분다고 허면 거 내려와불주. 그러면은 창문에도 어떻 안 허 고.

108015 #1 날씨 좋으면은 짝 올려근에 풍채작데기로 영 받쳐놓면은 이제 햇빛 도 가리와지곡.

108015 #2 게난 말 안 듣는 즈식들은 풍채작데기로 맞는 거라. 풍채작데기로.

108015 #1 풍채작데기 확허게 빼영 두드리젠 허민 막 터정 돌아나곡. 웃음.

108015 @ 그렇게 해서 이제 풍채도 그냥 영 세우는 것도 있고 돌아매영 허는 것도.

108015 #2 돌아매서 영 허주.

108015 #1 들에메서 올리곡.

108015 #2 풍채작데기 비온 날은 앓아불면은 영 내려오곡.

108016 @ 그 다음에는 물팡. 집집마다 물 질레 다니니까 물팡이 잇어서예?

108016 #1 물팡.

108016 @ 물팡은 어느 쪽에 보통 잇입니까?

108016 #1 물팡은 부억디레 가는 맞은편이 물팡이 돌로 해근에 딱허게 우의도 돌 이만은 현 거 헨에 옛날 어른덜 어디 강 봉가당 다.

108016 #2 거 다 만든 거 아니우과?

108016 @ 넵작헌 거예?

108016 #1 물 다 질어다민 그 우터레 특 부렁 낫당은에 그디서 저근에.
 108016 @ 게른 물구덕 채 부렁 놔둔 거라마씨?
 108016 #1 물구덕 채 부렁 낫당은에 또 이제 물 질레 가젠 허민 또 그냥 정 가
 곡. 비 와가면은 물허베기만 들렁 알러네 놔뒀은에 물구덕은 안네 들여놓고.
 108016 @ 음.
 108016 #1 비 맞앙 삭아분덴.
 108016 @ 게른 옛날에 물도 아이 때 질엇던 거 허고 어른 쓰는 거 허고 트나짚
 아예? 아이덜 쓰는 거는?
 108016 #1 대바지, 대바지.
 108016 @ 대바지도 물구덕 있어?
 108016 #1 대바진 옛날 그 차롱. 차롱으로도 뒀여.
 108016 @ 아아.
 108016 #1 일부러 만들지 않아도. 흠뿔 통 지픈. 정기 하영 지정 놓는 그런 차
 롱 있어. 고령착.
 108016 @ 고령착에 경허영 하고예? 물구덕을 하면 밑에도 받치지 아녜니까예?
 그러면은 그건 뭐?
 108016 #1 대막당이 영영 깨여근에 받치는 것가 뭐여마는.
 108016 #2 여꺼가지고.
 108016 @ 등에 젖지 말렌.
 108016 #1 바드랭이.
 108016 @ 등 바드랭이에, 건 뭘로 만들야?
 108016 #1 현웃 가정은에 이제 하는 것도 있고. 뭐 이제 같으면은 수건 그런 걸
 로 해주마는. 주로 버리는 거 어떻게 영 저 바놓으로 해근에 누병은에 이디 등받
 이. 등바랭이.
 108016 @ 등바랭이.
 108016 #1 돌아메영.
 108016 #2 물구덕에 돌아메영.
 108016 @ 물구덕에 돌아메영 그런 식으로 삼춘은 대바지 벌렁은에.
 108016 #1 메 쳐맞아. 대바지 벌렁은에. 하이튼 대바지 어떻사 약헌지 아니 흐
 꼬만 그냥 찌깍해도 벌러저부는 거라.
 108016 @ 어.
 108016 #1 가민 매맞아지카부덴 올레 강 ㄱ만이 앓앙 들어가카 말카 허멍 대바
 지 옛날에 대바지하고 호야허고 따끄당
 108016 #2 호야가 켈 약해.
 108016 #1 따끄당 호야 벌러병 또 매맞곡.
 108016 @ 웃음.
 108016 #1 매맞는 게 족아. 기름 상 오렌 허영 기름 상 오당 또 털어정 벌러병

은에 매맞곡 아이고. 요새 사름덜 그런 거 안 험.

108016 #2 기름은 요 공장에벳기 안 풀아서양.

108016 #1 술공장에 가근에.

108017 @ 아, 그 다음에 삼춘네는 집이 잇으면 올레가 질어났수가? 어떻 헤낫 수가?

108017 #1 올레 막 질언. 올레가 길어부난에 하이튼 여름에 사십일 이상 밖에 검질 매영 검질 밧디거 다 헤영 집의 들어오면 집의도 삼일은 메여사 돼여. 메젠허 민 베민 경 함광. 놀굽에 베미들이 이만은 허고 이만은 현 거 잇어나고. 게난 옛날에 밧도 이디서 밧파니가 저 사커리 갈 만큼 파니가 길어부난에 막 검질 매명 난 이 이후에 나가 어른이 돼영 살아도 밧도 엇곡, 집을 헤근에 살아도 올레도 엇인디 그치룩한 디 살아, 그 생각만 하명 한디 이제 밧도 하나도 엇고 올레도 가게라부난 엇이난 원 딱 나 원, 원대로 웨난에 밧 엇인 것도.

108017 #2 그 당시에 그 저 집 짓는 데는 풍수지리에 의해서.

108017 @ 예.

108017 #2 그래서 허면은 밧이 이렇게 잇으면은 똑 집을 가운디레 집을, 밧 가운디레 집을 짓도록.

108017 #1 흔쪽에 짓지 아녕.

108017 #2 그리고 길이 이거면 길 부쳐서 지으면 좋을 건디 반드시 올레가 길어. 풍수지리에 의해서 정시덜이 여기다 짓어야 허민 절대적으로 여기다 짓어야지 읍기지도 못해나서.

108017 @ 아아.

108017 #2 그레 놓니까 올레 긴 집은 부잣집이라. 그 당시에.

108017 #1 옛날은 다 부잣집 올레 긴 집.

108017 #2 움막허게 들어가야 돼곡.

108017 @ 그 올레 모양은 어떤 식으로 웨나수가?

108017 #1 아니, 올레 모양은 올레 영 허난 우리 집 경우는 올레에 리아카도 못들어갈 정도라. 돌맹이 이만은 현 거 막 잇어부난 사름 다니는 건 어떻 어떻 다니는디. 이거는 곡식을 행 와근에 헤도 그 먼 길에 퍼근에 다 집더레 저 날라야웨곡. 들어가질 못하니까 그 돌맹이로. 이제 ㄴ뜨민 그 뿌슴이라도 허주마는 뿌술 수가 엇이난 옛날에 보리 태작허는 기계를 들어가젠 헤도 벳깃디에서 보리 같은 것도 두드리명 고생헤난부난에 그때에 검질매명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트명에 앗앙 검질 매명 난 이 냉중에 어른 밧도 실질적으로 집을 살아도 올레도 하나 원 엇인 디 살아야주 허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허명 검질 맨 거라. 경헌디 밧, 밧도 하나도 엇이난 원 미련엇이 좋고. 집도 올레 엇이난 원 딱 생각대로 원.

108017 @ 웃음. 딱 원을 세와갓고 그 원이.

108017 #1 남 밧덜 얼마 잇저 얼마 잇저 헤도 나 처녀 때 이만 평 그 농사 지명 헤나난 뒤 누게네 멧 천 평 하나 부러운 것이 엇어.

108017 @ 아.

108017 #1 그것이 이시민 이녁이 괴로우니까 그런 거 잊어서민, 이제 원 부럽지 아녀. 누게네 밧 무신 만평 잊저 만평이고 천평이고 원.

108017 @ 게른 올레도 먼올레엔도 험니까? 먼올레?

108017 #1 먼올레.

108017 @ 건 먼올레예. 가까운 올레는?

108017 #1 가까운 올레 우린 몰라. 올레가 혼 참을 헤놓난에. 그 땅에 사백 평 인디 안네 쭉 들어간에 집을 짓어놓난에 우리 오빠에 그거 7만이 놔근에 그 십억 주켄 해도 안 풀암서.

108017 @ 그 올레도 그대로 잊어마씨? 그 집 잊어?

108017 #1 집은 틀어 베된 집터만 잇고. 집은 이층 크게 짓언에.

108017 @ 올레는 그대로예? 사진 찍으레 가사켜.

108017 #1 올레 그대로 이신 게 아니고 옆에 땅 더 산에 올레를 이제 그 먼올레를 넓게 넓히멍 영 다 터를 만들어분 거라.

108017 @ 음.

108017 #1 옛날에는 올레 길게 현 거 영허영 이거 길이면은 올레가 긴 거는 이거는 저 우жат 만들어부난게. 일로 끊언 우жат 만들어부난 길어신디. 이젠 들어오는 디 요만은 헨에 좁아신디 그 기갯방에 **에 땅을 산에 올레 큰 차 들어가게끔 만들면서 이거 이거 다 혼 너텡으로 옆에 담털 다 앓아근에 밧 전체로.

108017 @ 밧 멘들아불언?

108017 #1 옛날 형체는 잊어.

108018 @ 옛날 형체는 잊어사는다. 그 다음에 문간채 이문간? 이문간은 어떤 식으로? 삼춘네는 이문간 잊어실 건디?

108018 #1 우리, 우리 친정에는 이문간 이제 집 영 들어가는 디 그거 짓고. 이문간에는 영 보난 나가 생각허기론 대문을 잊이 그자 이문간만 잇고 이문간 절로 요래 짓어서민 이제 그 장남.

108018 @ 음. 장남.

108018 #1 장남 사는 방 하나 만들고 그 다음은 소.

108018 @ 음.

108018 #1 소막. 쉼막 그치록 헨에 우리 친정에 경헤나서. 소 보곡 말 보곡 하는 그때 그 시절에 말로는 머슴이주. 장남.

108018 @ 예.

108018 #1 성이 김쥔디.

108018 @ 예.

108018 #1 김가 김가 김 서방이, 김 서방 헤나신디. 그 김 서방이 각시도 잊고 애기도 잊고 헨에 우리 집의 쪽 살아신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부난 이젠 집도 헝 썸 기울어지고 소 말털 잊이 문딱 헤연 팔아버신디 어떻 헨 허난에 우리 집을 나간

에 살아신디 저디 당케레 가는디 단추고망 뜰라난디 막살이 살안. 그디 살아나서. 그디 살단에 김 서방이 죽어신디 그 이제 민속촌 거기 해난디 그 옛날에는 당투독 이렌 해낫주게.

108018 @ 당투독?

108018 #1 민속촌 짓은디가 이름이 당투독이라. 그 당투독은 이 마을 땅인지 면 땅인지 뭐 군 땅인진 몰라도.

108018 #2 군유지.

108018 #1 그디 간에 이젠 물어나신디 이제 민속촌 들어사명 그 김 서방 무덤 이 어떻 웬 줄 몰라.

108018 #2 포크레인으로 다 밀어변.

108018 @ 주인이 엇어부난예?

108018 #1 경허난에 김 서방이 이제 우리 오빠가 우리 어머니네 문딱 돌아가션에 문딱 화장헨에 이제 저디 어디 서울 옥천사 모셔단에 천도해난에 옥천사는양 다 뿌리는 터가 잇언게.

108018 @ 음.

108018 #1 그디 헨에 다 뿌런 그디서 천도식 할 때에 우리 오빠는 옛날에 저 무신, 그 우리 어머니네 우리 초상덜 다 헨에 천도식. 천, 천제를 지내신디.

108018 @ 음.

108018 #1 천제를 지내신디 그때 돈으로 혼 이천오백 만원 들엇덴. 우리 오빠 말이. 그 망인덜 옷도 다 하고 천 날은 제 지내신디 마지막날은 김 서방도 ㄴ치.

108018 #2 ㄴ찌이.

108018 #1 김 서방도 ㄴ치 애기도 엇고 돌아가셔부난에 김 서방 짝세도 옷 다 해놓고 같이 제도 지냈젠 허멍. 그 서울에서 우리 오빠가 완 우리안티 그때 제 지낼 때 말 해시면, 우리 오빠 말 하는 제성에 현 그디가 이시면은 죽영 강 보면은 김 서방도 아버지네영 다 ㄴ찌 살암실 거옴.

108018 @ 그 제석천에예?

108018 #1 그런 말 하젠 하난에 우리 오빠 그 김 서방도 말을 하젠 하난에.

108018 @ 음.

108018 #1 김 서방 불쌍허던 허멍 경헤신디 모르주 건 뭐 어떻.

108018 @2 큰오빠가 잘하신 거 같애예? 어쨌든 이제 그 주인도 없고 허난에 그냥 밀어붙엿은에 얼마나 억울헤실 거라예? 그냥예?

108018 #1 게난 이제 민속촌 하멍 뭐 무덤덜 파당 헤신디 그냥 무쳐버신디 그 우리 오빠가 그때에 그디 해근에 민속촌 들어상 거 하는 줄 알아시민 어디레 옮겼이라도 놔둘 건디.

108018 @2 게난 그 장남 살앗던방은 무신 방 헤마씨?

108018 #1 그 살아단 방은 원 방 이름은 무시거옴 현지사 몰라 원.

108018 @2 저 남군 쪽에 가면에 고랑케구들. 고랑케구들 들어봍디가?

108018 #1 그런 말 안 들어봤.

108018 #2 고랑케구들. 구들?

108018 @2 예, 방이니까 구들.

108018 #2 고랑케구들.

108018 #1 난 들어보지 못하고.

108019 @ 삼춘네는 쉼 하영 키우난 놀랐도 커실 거라예? 우쟈디 놀랐.

108019 #1 그 놀랐. 이젠 집터가 한 사백 평 됐난 그 놀 놀젠 허민 그 놀 누는 그 터는 이제 검질 영 놀영 놔두면은 땅에 하면 검질이 썩으카분덴 돌 해근에 놀굽을 다 만들어 놓주게.

108019 @ 예.

108019 #1 큰놀굽 죽은놀굽 해근에 그 돌로 해근에 옛날에 어른덜 초상덜 어떻사 그 돌사 허여당 만들어신디 둥긋하게 그디 큰 놀터. 큰놀 큰 출 놀고. 죽은 놀터는 죽게 놀고 해신디. 그 놀터에 그 일 다 해낭 검질메레 그 집안에 검질 메레 가민 그 놀터에가 다 베미라 베미.

108019 @ 웃음.

108019 #1 이만은 한 베미 이만헌 베미, 이만한 베미. 우리 득 키와신이 한번 큰닭이양 베미 이만은 헌 걸 먹은 거라. 계난양 나 생각에는 그 득 소곱에 그 베미가 이제도 살아 잇는 걸로 그 두린, 어린 때 생각에. 계난 혼번 유월 쓰무날 득 잡아 먹게 됐니까 그 득을 이젠 잡게 댜 거라. 계난 나가 그 베미가 ㄱ자 그 닭 베속에 산 줄 알안에 아이, 그 득 잡으민 그 베미가 어떻 또 헛. 그거 그 득 잡을 땐 난 안 보켄 허명 먹지도 안 허켄 허명 아니, 득 다 잡아간디 베미가 나올 건디 안 나와 간 보난 베미가 었어. 아 그때 그 닭 먹어신디 베미 어디 가신닌 허난 계영 그 때 우리 어머니네 다덜 베설브뜨게 웃어난. 웃어난 거 생각나는다.

108019 @ 그 베미 나와안디 안 나와 갖고.

108019 #1 계난 그 베미덜이 지금 다 어디 가신디.

108019 #2 베미가양 박정희 대통령 때 쥐 잡기 운동 헛수게. 쥐 잡기.

108019 @ 예, 예.

108019 #2 알아집니까? 쥐 잡기 해가지고 메칠날 멧 시에 쥐약을 놓라. 혼번 헤났는데 딱 허게 놓니까 쥐가 엄청나게 죽엇. 그 쥐들을 뱀덜이 다 먹은 거라.

108019 @ 음.

108019 #1 그 제주도 뱀이양 그 당시 삼분지 일이 다 죽어서.

108019 @ 쥐들이 없으니까예?

108019 #2 아니, 쥐, 약 먹은 쥐를 먹어서 뱀이 다 죽엇어.

108019 @ 아아.

108019 #2 계난 쥐 잡기 운동을 잘 헌 거라마씨.

108019 @ 그 다음에 삼춘, 놀왓디서 놀아난 경험덜도 잇지예?

108019 #1 아이고, 그 놀왓디서 득 키완에 우쟈 널르고 옛날에는 곡식 안 줘서.

그냥 내불민 베미도 좇어 먹고 이견 뭐 게우리도 먹고 주냉이도 먹고. 우жат 널르난
늑물 갈곡 허난. 약 엇이난 그 늑물에 베랭이덜 그런 거 뜯어먹고 닭들이 다 뜯어
먹고 해신디.

108019 #2 닭 곡식도 필요 엇고.

108019 #1 그런 거 다 뜯어먹으멍 닭덜이 다 살아신디. 그때 우리 두린 때 생각
허민. 우리 그 우жат, 게난 집도 베미도 많고 그런 것이 많으난이 죽은 집의 사는 사
름덜은 그런 거 안 봐도 돼주게.

108019 @ 예, 예.

108019 #1 우린 물 질영, 물 질영근에 그 진진한 드레박에 물 질어가당 놀렌 적
이 백 번도 더 잇수다.

108019 @ 웃음.

108019 #1 베미가 줄락허게 나왕 노래곡, 그자 한창 아무 생각없이 가당 보민
베미가 옆으로 술술 가당 탁 만나근에 또 주침허멍 노래곡 아이고.

108019 @ 웃음. 물 것도 아닌 데도.

108019 #1 그때엔 요샌 베미 문 사름이 헛나씩 잇어도 그땐 베미 문 사름이 하
나 엇어.

108019 #2 건드리지 안 허민 안 무난에.

108020 @ 예, 경허고 삼춘, 집에 돼야지덜도 다 헛잖아예. 거는 어떤 식으로 키
왔수가?

108020 #1 옛날에는 돼지 영 해근에 이제 그 고팡 다음에 공터가 영 이시면 거
돗통인디.

108020 @ 예.

108020 #1 돗통 옛날엔 돼지. 돼지 해근에 그 그때는 곡식덜 농사 지영 곡식 그
기겅방에 강 곁아난 꺾데기 그 곡식.

108020 #2 체.

108020 #1 그 체를 가전에 돼지허고 그 감저 이제 그때는 감저가 많이 싱글 때,
고구마 많이 싱글 때난 뿌시레기 같은 것덜 멧 날 멧 날 메칠 쳐다근에 이만은 데
명 놔둬서 그거 행은에 도새기 주멍 새끼도 내우곡 경해근에.

108020 #1 돗통에 똥 싸. 돗통에 강 똥 싸신디 돗통 영 헛 똥 싸는 디 다 만들
잖아.

108020 @ 예.

108020 #1 디덜팡. 그거 해근에 무심코 똥 싸다근에 도새기 탁탁 털어불민 스
몹.

108020 @ 웃음.

108020 #1 아 그때덜은 ㄴ치 경허영 살앙 어울령 영영 살아도 념새덜토 안 나
신가. 념새 나텐 하는 사름도 엇고. 돗통에 만약에이 저 영 닭 닿은 디 돌 헛곰 뽀
죃허게 나온디 그디 다 또꼬망 씨는 거라. 그 돌에. 경허민 그 돌이 뽀뽀뽀뽀하는

하게 예영 해도 누게 똥 냄새 난텐 허는 사름더 잇고. 이 사름도 똥 싸나민 거기 따끄고 ** 그디 영 혜영 따까근에.

108020 @ 돌맹이로 따까마씨?

108020 #1 돌맹이 쪼작허게 나온 디 그런디 혜영 따끄곡 막 혜여난.

108020 @ 뭐 저기 보리낭으로 이렇게 따까보진 아녀고마씨?

108020 #1 보리낭으로도, 조칙 같은 거 그런 거 허민 다끄지 못허여 아파근에.

108020 #2 게난 출단을 그레 낱 놔뒀. 출단.

108020 @ 아아.

108020 #1 출단 놔두는 집도 잇고.

108020 #2 그것이 문지락허니까. 웃음.

108020 #1 산티썸 같은 것도 그디 앓다당 놔두곡.

108020 @ 그대로 돌맹이에 따깁.

108020 #2 돌맹이에 따깁.

108020 #1 아이덜 어른은 그디 썸덜 놔두민 따끄는디.

108020 @ 돌맹이로 따깁텐 말은 처음 들어수다. 웃음.

108020 #1 돌맹이로 따까. 돌맹이 쪼작헌 거 이시민.

108020 @ 아, 경허면 도새기 사는 집은 무신 거렌 혜여?

108020 #1 도새기 사는 집?

108020 @ 게난 돛통 말고 도새기 새끼낳고 허는 집이 이실 거 아니우과?

108020 #2 돛통 안네.

108020 @2 돛집.

108020 #2 돛집이지.

108020 @ 돛집은 어떤 식으로 행은에?

108020 #1 저 흥썸 호랑쟁이 낭께기 영영영 저 놓아근에 그 우터레 집, 집 만들 듯 그 우의 새 혜근에 더꺼근에 만들어. 경허영 쏘굽에 뭐 오줌. 그디 도새기덜토 이녁네 집의 똥 오줌은 절대 안 싸메. 뱃껏되만 나왕 쌍.

108020 @ 어어.

108020 #1 경허민 그, 그디 잇당 막 추, 눈이나 오곡 추웁직 하면은 이제 보리 썸이나 그런 썸 아정가근에 풀어주곡.

108020 @ 음.

108020 #1 경하민.

108020 #2 풀어주곡. 브름코지 썸 저 돛통 이시민은 베겏으로.

108020 #1 두로 강 막아주곡.

108020 #2 영 막아주곡.

108020 #1 가멩이, 가멩이 ㄱ튼 거 튼어근에 두이로 강은에 영영 뒤편 얹영 떨 어지지 아녀게시리 혜주곡.

108020 @ 그 다음에 보리낭 같은 거 영허영은에 돛통에 담잖아예? 건 뭐 험텐

허여?

108020 #1 걸름허젠 담는 거.

108020 @ 거 뭐준텐 험니까? 도새기 짓 준텐 험니까?

108020 #2 도새기 짓 준텐 허여. 도새기. 도새기 것통에 짓 주는 거.

108020 @ 짓 주는 거예? 이 돼지를 막 키우당 보민 도새기 허당 보면은 그 돛
통담 넘영 오는 경우도 잇잖아예? 어떤 때 넘영 와마씨?

108020 #2 그건 수툯 좇을 때.

108020 @ 수툯 좇을 때.

108020 #1 수ㄱ나 암ㄱ나.

108020 #2 암컷이 수컷 좇을 때 그때 막 코 문질르멍.

108020 #1 담 클어근에 담 클영 나와난 도새기는 암만 성담ㄱ치록 싸놔도 담
클영 나와.

108020 @ 음.

108020 #1 그 돼지덜.

108020 #2 심웃 곳은 도새기덜 잇어.

108020 #1 어떤 땐 막 무꺼근에 돌아매봐도 클영 나와.

108020 @ 가시담도 이렇게 만듭니까?

108020 #2 쌍담으로 다 해놔도 심웃 곳은 건 이 주둥이로 다 클어. 얌전헌 건
그대로 ㄱ만이 잇고.

108020 @ 예.

108020 #2 수툯 좇는 것도 암툯이 발정기가 올 때 그때 수툯 좇는 건데 얌전헌
건 웨기나 허지 담 클질 아녀. 경 아년 거는 막 이거로.

108020 @ 이 주둥이로 담을 이렇게 클어부는 거.

108020 #2 보통 주둥이 아니.

108020 #1 비오젠 허민 걸름 주둥이로 해갈아근에 거름 냄새 나게.

108020 @ 아, 비올 때?

108020 #1 비오젠 험젠 저 뭐 그 걸름 돛통 냄새 남쩌.

108020 #2 게난 그건 허민 이렇게 파가면은 이디선 게오리라고 허는데.

108020 @ 예.

108020 #2 지렁이, 지렁이.

108020 @ 예, 예.

108020 #2 그것이 나온 거 그거 잡아먹젠. 비올라고 허면은 그 지렁이들이 꿈틀
거리는 모양이지 아마. 그러니까 거 냄새 마탕 다 해싸놔.

108020 @ 으음.

108020 #2 그래서 그거 잡아먹고.

108020 #1 돌토고리도 다 얹어분텐 허난.

108020 @ 돛도고리도 다 얹어부러마씨?

108020 #1 이녁 것 먹는 돌토고리도 어퍼.
 108020 #2 그것도 다 어퍼.
 108020 @ 것 잇어나도.
 108020 @2 거 일부러 돼지 새끼를 내올려고 하면 아까처럼 암토새기 발정기 오면 암퇘을 수퇘한테 몰아잡니까? 아니면?
 108020 #2 수퇘을 몰양 읍니다. 보통 여기서는.
 108020 @2 수퇘을. 걸 여기는 종장 놓다 헉니까.
 108020 #2 아니, 수퇘 놓레.
 108020 @2 아, 수퇘놓레.
 108020 @ 우리도 수퇘놓게 감썰.
 108020 @ 암퇘을 몰양 가는 거 아니라예?
 108020 #2 수퇘을 몰아와. 수퇘이 조그마해. 수퇘이 이디가 커가면은 불 냄새 나면은 불 까버리거든. 까기 전에.
 108020 @ 아아.
 108020 #2 그 암퇘 잇는 돛통에다.
 108020 #1 옛날엔 도새기 불 깡도 술 혼 춘씩 먹어놔수다.
 108020 #2 웃음.
 108020 @2 우리 동네선 그걸 종장 놓다 헉주게, 종장 놓다.
 108020 #2 이디선 수퇘 놓레 감젠.
 108021 @ 음, 그 다음에 아까 삼춘 아까 변소예, 칩간 그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 이렇게 된 거 뭐 마씨?
 108021 #2 디딜팡.
 108021 @ 그거는 돌맹이로 돼영 이신 거. 그 다음에 집도 엇어놔잖아예? 돌만 영 다아정 잇었지예? 게른 사름덜 와가면 어떤 식으로 해여?
 108021 #2 게른 좀 으스룩헌 디다 짓는 거.
 108021 @ 인기척헨에 나 여기 잇다 허영 헛기침도 영 해 봤수가?
 108021 #1 경 헤실 거라.
 108021 @ 그 설사혈 때는 베 아프거나 설사혈 때는 똥 사젠 허면 잘도 애먹어예?
 108021 #1 급혜근에 강은에 도새기는 사람 가가면 으레이 똥 먹젠 오주게. 그것도 생각 아녀곡게 설사허민게 강 하당 도새기 딱딱 털어불민 막 온몬에 다 똥 튀어근에 혜근에 혜여도 거 왕 대충 기자 다끄명 말명 혜근에 혜여도 누게 똥냄새레 남젠 허는 사름도 엇고. 그때는 냄새가 나놓난. 오만 거가 다 냄새 나놓난 냄새를 못느낀 모양이라.
 108021 #2 젤 곤란 헛던 때가 육이오 동란 일어나가지고.
 108021 @ 예.
 108021 #2 피난민들이 다 여기. 육이오가 일어나기 전에 친일파들이 평양에서

숙청하게 됐니까 다 미리 여기 왔거든. 게 그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이디 피난들 왔거든.

108021 @ 음.

108021 #2 이 사람들이 놈의 밧거레 들어가곡 허는데 켈 변 보는 것이 켈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춤 놈의 우영팟디도 가서 앉아서 봐불고 허니까 켈장히 말썽이 나났지.

108021 @ 아아.

108021 #1 돛통에 앉아서 거드럭허게 앉아서.

108021 #2 돼지 때문에 겁 나근에.

108021 @ 아아.

108021 #2 돼지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108021 #1 우리야 도새기. 뭐 이제 돼지 돼지 하지만 옛날 도새기. 도새기 요만 혈 때부터 ㄴ치 뭐 똥 싸고 거 크는 것도 혜영 허곡 허난 도새기 므스울 건 하나도 엇인디. 그 저 피난 온 사름덜이 되게 고통스러워나서.

108021 @ 여기에 피난민들도 하영 왔구나예? 표선도예?

108021 #1 하영 완. 집집마다 의무적으로 저 혼 가구씩 다 저 들앙 살렌 헨. 우리도 밧거레 우리 할머니 살던 그디 할머니 안거레 어머니영 같이 자게 만들고. 그 밧거레 헨에 그 피난민덜 살려나서.

108021 @ 음.

108021 #1 살단에 밥도 막 멕이고 멕이고 스몫 배고팡 허민 쓸도 주곡 헌디 가난에 편지 혼 장 엇어. 진짜로 잘해줄 필요가 엇어. 그런 걸론 보면. 난 이거 무릎 수술 이거 할 때도 간병인 데련에 서울대학 병원에서 수술. 간병인 데련 헨 완 미깡 두 상자 보내줬수다. 저 그 거세기. 무시거 집 주소 드렌헨에 아전 왔단에.

108021 @ 제주도 사람들이예? 진짜.

108021 #1 경헨 보내난에 그 나 그 저 무시 거. 전화번호 적언 놔둔 거 허단 여변에 미깡은 받안 먹고 고맙덴 전할 길이 엇이난 우리 아덜안티, 아덜안티 전화 가서렌.

108021 @ 음.

108021 #1 영영헨에 어머니한티 고맙덴 전해드렌 우리 아덜 전화 와선게. 경혜 사주. 어디 완 밥도 반 이상 먹고 혜신디 우리 옛날에 농사 지명 막 허명 경해도 그 곡식을 많이 하니까 사당 먹는 것이 아니니까 경헨 우리 할머니네 우리 할머니네가, 할머니가 막 마음씨가 종양 막 주곡 막 혜난 거 닳은디 가난 곳.

108021 @2 게난 그 아까 오빠가 그 천도할 때에 장남까지도 다 현 거 아니우과?

108021 #1 예. 웃음. 장남. 이제 김 서방.

108021 @ 김 서방.

108021 #1 표선린 다 알아. 김 서방엔 허민.

108021 @ 예.

108021 #1 우리 집의 총각 때부터 완에 그 흔 칠십 뉘도록 사난.

108022 @ 아, 삼춘, 경허고 헛간. 아까 이제 모커리.

108022 #1 으.

108022 @ 그 헛간에 대행은에 다시 한번 더 곁아줍서.

108022 @2 몽ㄱ레.

108022 #1 몽커레 헛간. 그 헛간 대충 보민이 우리 그 김 서방 거 살아난 디도 거 잠자난 디도 헛간이나 마찬가지로.

108022 @ 음.

108022 #1 영 혜근에 장남덜 사는 디덜은 사는 방덜 보민 우리 집 뿐이 아니고 딴 디도 강 보민 헛간에 방 닥게 꾸며놔 살게시리 기자 혜선계.

108022 @ 구들 놓거난 이런 식으론 안 허고예?

108022 #1 경혜영 북대기. 산디찍.

108022 @ 예.

108022 #1 산디찍 북삭하게 낄양은에 명석 낄고 경 혜근에 기자.

108022 @ 음.

108022 #1 경혜근에 이불이멍 말멍 무신 옛날엔 그런 것도 옛이난에 경혜근에. 게도 우리 집의 그 김 서방은 우리 아버지가 그때 통조림 공장에. 일본 사름덜 완에 통조림 공장 허는 디 일본말 딴 사름덜은 일본말 몰라부난에. 우리 아버지는 일본말 잘 안 그디서 먹을 거 그때에 그 일본 사름덜 오바양 시퍼령헌 걸로 무시거 오바. 그때는 오바 오바 해낫주. 그런 거 그 혜근에 그 일본 사름 그때 이름이 삼마라. 삼마엔 한 사름이 우리 아버지 입으렌 앳다 주민 그 김 서방, 김 서방 거시기 입으렌 영 혜영 주민 그거 가져근에 밤의 더경 자고. 경헨. 경헌 거 닥아. 막 이불이렌 혜근에 어디레 개어놓고 막 북삭허게 더퍼근에 자거나 헌 건 봐 본 거 닥지 아녀.

108022 @ 그러면은 삼춘, 헛간에는 무신 것들 주로 놓은 거.

108022 #1 헛간에는 명석 덕석.

108022 @ 음.

108022 #1 그자 무신 돛가레착, 멩텅이 그런 것덜. 그 집의 그 농사 그거 저근에 막 하민.

108022 #2 농기구들.

108022 #1 농기구 같은 거영. 그거 헛간에 그런 거. 명석이 우리 주로 곡식 다 몰리젠 허민 명석이 스무 개 정도 우리 집인 잇어근에 하면. 명석 데민 디가 **. 그거 덕석도 잇지. ㄱ레착도 ㄱ레ㄱ치록 동글락 헌 거. ㄱ레 곁 때만 하는 동글락헌 ㄱ레착도 잇고.

108022 @ 삼춘예, 명석 잇곡, 덕석 잇고.

108022 #1 덕석 잇고. ㄱ레착.

108022 @ 덕석은 뭐?
 108022 #2 덕석은 명석보다 작은 거.
 108022 @ 아아,
 108022 #1 명석보다 작은 거.
 108022 #2 돛가레착도 있고.
 108022 @ 그러면 명석은 큰 거?
 108022 #1 음.
 108022 #1 덕석은 그보다 작은 거.
 108022 @ 작은 거.
 108022 #1 ㄹ레착은 ㄹ레 킬 때만 킬아근에 ㄹ레 ㄹ는 거?
 108022 @ 으, 그거는 무신 거?
 108022 #1 ㄹ레착, ㄹ레착.
 108023 @ ㄹ레착. 으음, 동글락헌 건 ㄹ레착이고 예. 그 다음 삼춘 아까 쉼막.
 쉼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수가?
 108023 #1 쉼막은 기냥 저 민짜허게시리 저 뭐 놓고 무시 거 아녀게 해근에 이
 런 거 혼 칸 쉼 하는 디. 쉼 영 메는 거는 밖으로 해근에 담이 영 이시민 이 담 하
 고 요 담하고 담구녕 이시민 담구명으로 노꼇 해근에 영 해영 일로 영 해영 밧끗으
 로 해영 안트레 강 졸라멩 코러레레 저 소도 메곡 경헌게.
 108023 @ 으음, 쉼막은? 게믄 출은 그 밑으로 주는 거예?
 108023 #1 출은 앞더레, 쉼 앞더레 가근에 픽픽 던정 내불민 지네덜이 막 똥기
 멩 다 먹어.
 108023 @ 음.
 108023 #1 입 툇 앞으레 안 해도 저꼇디레만 던정내벼도 먹어.
 108023 @ 쉼막 안에 매면 나무로 이렇게 넘어오지 못허게 허잖아예? 그 나무를
 똤런 불르는 이름 잇어마씨? 여기서.
 108023 #1 우리는 그 남 엇이 기자 담에 그 코 멘들아 낱 그레 그자 쉼 졸라멩
 주. 그 남 같은 거.
 108023 @ 아아.
 108023 #1 그거 이제 데레비 보면은 남 그거 그런 건 아니.
 108023 @ 아아. 쉼막에 그냥
 108023 #1 코.
 108023 @ ** 코 멘들앙예?
 108023 #1 돌멩이로 해근에.
 108023 @ 집밖으로 코 멘들앙 거기만 현 거.
 108023 #1 고망 난 디로 노꼇 그거 그 코러러레 그 저 소.
 108023 @ 별도로.
 108023 #1 경허영, 경해근에 매여, 그레 졸라메영.

108024 @ 그리고 이제 집마다 다 장독대가 잇엇잖아예? 여기는 장독대를 뭐 렌
해낫수가? 이 동네서는.

108024 #1 그, 장독대 옛날에 장독대엔 헨에 특별하계.

108024 #2 장 담은 거 놓는 디.

108024 @ 장항들 놓는 디?

108024 #1 장항 헛자. 육지ㄴ치곡 장항 안 해영 우리 집도 보면은.

108024 @ 으.

제2절 어휘

-

1. 인체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머리
201002	대가리	대가리
201003	크다[大]	크다
201004	숯구멍	송골
201005	제비초리	*
201006	머리털	머리꺼럭, 머리터럭
201007	머리카락	머리꺼럭
201008	길다[長]	질다, 걸다
201009	짧다[短]	쫄르다
201010	빗[梳]	얼럭지
201011	얼레빗	얼럭지
201012	참빗	챙빗
201013	땅다	당다
201014	비녀	빈네
201015	고수머리	꼼실머리
201016	가마[旋毛]	가마
201017	쌍가마	상가마
201018	가르마	앞갈르는 거
201019	이마	이마, 임탱이
201020	넓다[廣]	넓다
201021	이마빼기	임탱이
201022	숨털	간세터럭
201023	얼굴	얼굴, 낫
201024	낫[面]	낫
201025	웃다[笑]	웃다
201026	그리다[寫]	기리다
201027	세숫대야	세숫대
201028	씻다[洗]	씻지다
201029	거울	거울, 멘경
201030	보다[見]	보다
201031	빤	빼얌
201032	빤따귀	불빼
201033	때리다[打]	때리다
201034	볼	볼

201035	불따구니	불
201036	불거리	*
201037	광대뻘	불뻘뻘
201038	보조개	보지개
201039	주름살	주름살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흰동자
201042	검은자위	검은동자
201043	눈꺼풀	눈두꺼
201044	거적눈	*
201045	눈썹	눈두꺼눈썹
201046	질다[濃]	*
201047	속눈썹	*
201048	양미간(眉間)	*
201049	수침(垂針)	*
201050	거머리	*
201051	폐롭다	폐까랍다
201052	눈곱	눈꼽제기
201053	눈초리	눈구석
201054	사팔눈	삼팔, 눈돌아져젠, 눈돌아진 사람
201055	눈웃음	눈웃음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문직다
201058	콧마루	콧마루
201059	세다[強]	쎄다, 노프다
201060	콧구멍	콧고냥
201061	코딱지	코퍼렝이
201062	콧물	콧물
201063	닦다[拭]	따끄다
201064	콧수염	콧쉬염
201065	인중	코인중
201066	입	입
201067	쓰다[苦]	썽쓰름허다, 쓰다
201068	참말	바른말
201069	거짓말	거짓갈[갈]
201070	바르다[正]	바르다
201071	답달하다	답도리허다
201072	입술	입술
201073	헐다[毀]	헐다
201074	입노름	입노렘젠
201075	말하다	말곤다

201076	입방아	*
201077	허풍	허풍
201078	뇌다	*
201079	침[唾]	춤
201080	삼키다[吞]	숨지다
201081	가래침	개춤, 가래
201082	뱉다[吐]	바끄다
201083	느침	니치름
201084	턱받이	턱받이
201085	혀	세
201086	활다	할르다
201087	헛바늘	셋가시
201088	이[齒]	니빨
201089	앞니	앞니
201090	송곳니	걸니
201091	덧니	덧발
201092	버드렁니	빠덩니
201093	어금니	어금니
201094	사랑니	*
201095	옥니	*
201096	옥다[曲]	오그라젓텐
201097	돋다[出]	돋다
201098	억물다	악물다
201099	턱	아굴탁
201100	턱살	턱술
201101	빨다[稍峽]	빨아지다
201102	수염	쉬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귓자락
201105	귓볼	*
201106	귓구멍	귓고냥
201107	귀청(고막)	귀창
201108	귀지	귓밥
201109	귀이개	* cf 화갑살로 파내다
201110	가는귀	ㄱ는귀
201111	귀밑	*
201112	구레나룻	*
201113	목	모가지
201114	굶다[飢]	술지다, 똥똥허다
201115	모가지	모가지
201116	먹살	목고대

201117	잡다[執]	잡다
201118	뒤통수	뒷머리
201119	꼭뒤	*
201120	뒷덜미	뒷모가지

상체

201121	어깨	독지
201122	어깨뼈	독지짱
201123	어깨죽지	독지
201124	거드랑이	저갱이
201125	팔	폴, 팔
201126	팔뚝	폴뚝
201127	새기다[刻]	그리다
201128	팔심	*
201129	힘줄	썸줄
201130	담살	득술
201131	팔꿈치	폴굽지
201132	팔목(=손목)	홀목, 폴목
201133	뼈	짱
201134	뼈다귀	짱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웬착손
201137	오른손	ㄴ돈착손
201138	왼손잡이	웬쟁이 ↔ ㄴ든쟁이
201139	손등	손등어리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톱	손콧
201142	들다[舉]	들르다
201143	흔들다[搖]	흔들다
201144	거스러미	손거슴
201145	할퀴다	꺅주다
201146	손가락	손가락(손까락)
201147	엄지손가락	어금손가락
201148	검지손가락	*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ㄱ락
201150	약손가락	*
201151	새끼손가락	생끼손ㄱ록
201152	손살	손거림[꺼림]
201153	가슴	가슴
201154	뛰다[跳]	뛰다

201155	젓가슴	젓가슴
201156	명치	멩짱
201157	명자리	오목가슴
201158	젓	젓
201159	젓꼭지	젓고고리[꼬고리]
201160	젓멍울	젓멍얼
201161	짜다[搾]	짜다
201162	울다[鳴]	울다
201163	배[腹]	배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고프다
201166	배꼽	베또롱(줄)
201167	옆구리	역갈리, 옆구리
201168	갈비뼈	역갈리짱, 역갈리뼈
201169	등	등어리
201170	밀다[推]	밀다
201171	굽다[曲]	굽다
201172	등때기	등어리
201173	가렵다[癢]	ㄱ렵다
201174	긁다[抓]	긁다
201175	결리다	절리다
201176	등목(=목물)	등어리에 물 치대검젠
201177	찬물	실려운물
201178	등마루	등상ㄱ루
201179	등뼈	등상ㄱ루짱, 척추짱

하체

201180	허리	허리
201181	잔허리	*
201182	가늘다[細]	ㄱ늘다
201183	엉덩이	엉둥이
201184	살집	*
201185	볼기	볼뼈
201186	엉덩이뼈	엉둥이뼈
201187	궁둥이	궁둥이
201188	궁둥이뼈	궁둥이뼈
201189	살	솔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또꼬망
201191	더럽다[汚]	덜롭다
201192	가볍다[輕]	게롭다

201193	무겁다[重]	무겁다
201194	살	저드레기
201195	가래툰	저드레기에 멍얼 샷저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사다
201198	허벅다리	허벅지
201199	넓적다리	*
201200	무릎	무릅, 독ㄴ리
201201	무릎뼈	무릅짱, 독ㄴ리짱
201202	빠다[樫]	빠다
201203	정강이	정갱이
201204	정강뼈	정갱이뼈
201205	종아리	종아리
201206	장딴지	주술
201207	오금	*
201208	복사뼈	귀마리짱, 발목짱
201209	발[足]	발
201210	걷다[步]	걷다
201211	긋다[凶]	긋다
201212	헛발질	헛발 ㄴ렛저
201213	발목	귀마리, 발목
201214	걸질리다	발 빠다
201215	발등	발등어리
201216	발바닥	발마닥, 발창
201217	발부리	발부리
201218	차다[蹴]	(발) 차다
201219	간지럽다	근질근질ㅎ다, ㄴ롭다
201220	간지럼	저금, 저굴람저
201221	발가락	발ㄴ락

201221-1	엄지발가락	어금발
201221-2	둘째발가락	상발
201221-3	가운뎃발가락	*
201221-4	넷째발가락	*
201221-5	새끼발가락	생끼발

201222	발살	발거림[꺼]
201223	까치눈	*
201224	티눈	*
201225	고린내	긋인내

201226	발톱	발굽
201227	발뒤축	발뒤치기
201228	쓸개[膽]	실게
201229	허파	허폐, 북베기
201230	마음	마음새 *베설트맥이 굿다
201231	곱다[麗]	곱다
201232	창자	베설
201232-1	큰창자	큰베설
201232-2	작은창자	족은베설
201233	목숨	맹
201234	빼앗다[脫]	뺏다, 빼여가뺏다
201235	한숨	한숨

2. 육아

발달

202001	서다[孕]	설다
202002	시다[酸]	시다
202003	기쁘다[喜]	지꺼지다, 기분 좋다
202004	입덧	입덧
202005	낳다[娩]	낳다
202006	태(胎)	애깃봇
202007	탯줄	베또롱줄
202008	나이	나이
202009	어리다[幼]	두리다
202010	터울	몬이
202011	갓난아이	물애기
202012	싸다[包]	싸다
202013	어린아이	두린애기
202014	사내아이	스나이
202015	계집아이	제집아이
202016	아깝다	서운허다, 을큰허다
202017	아이보개	애기업개
202018	업저지	애기할망, 애기보는할망, 애기업개
202019	품다	품다
202020	오줌	오줌
202021	오줌독	오줌항, 오줌통
202022	오줌버캐	오줌정갱이[정갱이]
202023	오줌싸개	오줌썰기

202024	누다[便]	오줌싸다, 오줌싸다
202025	나무라다	욕하다
202026	지런내	지렁내
202027	마렵다	먹롭다
202028	꾸지람	욕하는 거
202029	배냇저고리	*
202030	기저귀	샷바
202031	배두령이	배불레기
202032	포대기	지성귀, 애깃포데기
202033	보자기	포데기
202034	보파리	보파리, 포데기
202035	풀다[解]	클르다
202036	끄르다	클르다
202037	쳐네	포데기
202038	띠	애깃걸레
202039	개구멍바지	애기정뱅이

재롱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줍매줍매
202041	곤지곤지	곤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선마선마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짹짹	짹짹 짹짹
202045	부라부라	*
202046	걸음마	걸음바
202047	걸리다	걸리다
202048	곤두박질	자빠지다, 쓰러지다
202049	곤두서다	곤작사다
202050	가동가동	발도당퀴다
202051	안다[抱]	안다
202052	안기다	안기다
202053	목말	정계고계
202054	흉내	숨
202055	흉내질하다	숨틀다
202056	엄살	엄살
202057	쌈	새움
202058	자라다[成長]	질다, 길다
202059	부아	부에
202060	참다[忍]	춤다
202061	심술	심술
202062	밉다[憎]	밉다

202063	옛말	옛말
202064	자치기	자치기
202065	구슬치기	다마치기
202066	딱지치기	딱지치기
202067	통차기	깡통차기
202068	숨바꼭질	굽을락
202069	숨다	굽다
202070	소꿉놀이	소꿉장난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실뜰락
202073	풍계물이	물건찾기
202074	줄넘기	베뜰락, 베틀락
202075	줄다리기	줄맹기기
202076	수수께끼	수수께끼
202077	공기	공기
202078	공깃돌	공깃돌
202079	던지다[投]	데끼다
202080	고누	꼰
202081	땅뺏기	땅따먹기
202082	사금파리	사그마치
202083	말놀음질	물타기
202083-1	생말타기	*
202083-2	죽은말타기	*
202084	대말[竹馬]	대물
202085	달음박질	들을락
202086	겨루다[競]	숨비역허다
202087	제기차기	꼭깨차기
202088	헤엄치다	힘치다, 히다
202089	웃놀이	넉두배기, 웃노리
202090	웃가락	웃, 웃가락

202090-1	도	한 짝만 젓혀졌을 때	토
202090-2	개	두 짝 젓혀졌을 때	캐
202090-3	걸	세 짝이 젓혀졌을 때	걸
202090-4	웃	네 짝 모두 젓혀졌을 때	웃
202090-5	모	네 짝 모두 엮어졌을 때	모

202091 동무니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흔지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데 어울려 가는 말	두지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데 어울려 가는 말	석지
202091-4	넉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려 가는 말	넉지

202092	막동	막지
202093	보리웃	보리웃
202094	줄목	울목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싱강이
202097	싸우다[鬪]	싸우다
202098	패싸움	패싸움
202099	모다기령	모다들영 때리기, 발모듬
202100	편백하다	편백들다, 편백하다
202101	팽이치기	팽이치기
202102	팽이	팽이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브름도레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들연, 네모연
202107	가오리연	가오리연
202108	연달	연대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
202108-2	뽕숫달	연의 가운데에 길이로 붙인 대	*
202108-3	꺾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붙인 대	*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

202109	방구멍	*
202110	꼭지	*
202111	갈개발	*
202112	벌이줄	벌이줄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벌이줄	*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벌이줄	*
202112-3	꽂숯줄	연의 꽂숯구멍에 꿰어서 꽂숯달에 잡아 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벌이줄	*
202112-4	활벌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처럼 잡아당기어 맨 벌이줄	*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벌이줄	*

202113	얼레	얼레
202114	두모얼레	*
202115	네모얼레	*
202116	감다[捲]	감다
202117	개미[연놀이]	*
202118	퇴김	*
202119	그네[鞦韆]	그네
202120	밑싹개	그네발
202121	굴렁쇠	굴렁쇠
202122	구르다[轉]	둥글다
202123	썰매	썰매
202124	자전거	자전거
202125	키[身長]	지레
202126	키다리	헌살레-비유적 표현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염, 하위염, 하품
202128	선하품	*
202129	기지개	질
202130	기지개하다	질트다
202131	경기하다	경기나다
202132	놀라다[驚]	금착ㅎ다
202133	졸음	즘
202134	졸다[眠]	졸다
202135	졸리다	조랍다
202136	잠	즘
202137	귀잠	깊은잠, 묵중ㅎ게 자젓저
202138	자다[眠]	자다
202139	잠꼬대	헛소리
202140	잠귀	즘귀
202141	잠꾸러기	즘푸대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ㅎ다
202144	트림	게틀레기
202145	딸꾹질	딸꾹질
202146	채채기	햇쟁이
202147	개치네췌	어취나
202148	방귀	방귀, 똥
202149	방귀뀌다	똥꺾엇저
202150	방귀장이	똥복쟁이
202151	구린내	똥냄새, 똥내
202152	노린내	꺼끄렁내, 꺼끄렁냄새
202153	사레들다	살레들다
202154	감기	거뿔
202155	기침	지침, 기침
202156	홍역	마누라
202157	학질	학질
202158	천연두	큰마누리
202159	곰보	곰보[꼼보]
202160	비듬	비듬
202161	기계충	기계충
202162	독창	독짓
202163	두부백선	*
202164	옷	칠
202165	버짐	버즘
202166	마른버짐	군버즘
202167	진버짐	도리버즘
202168	주근깨	푼리똥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사막
202171	여드름	니끼비
202172	멍	멍
202173	퍼렁다	퍼렁허다
202174	굳은살	헝이
202175	부스럼	부스름
202176	종기	허멀
202177	습종	십종[십쫑]
202178	나다[生]	나다
202179	붉은발	허멀발[허멀빨]
202180	다대	허멀딱지
202181	고름[膿]	고름
202182	고장물	긋인물
202183	낫다[癒]	낫다

202184	아물다	아물다
202185	표적	폐적
202186	생인손	생손
202187	알다[痛]	알리다
202188	두드러기	두드레기
202189	땀띠	땀때기
202190	소경	봉스, 봉사
202191	청맹과니	뜬봉스
202192	먼산바라기	*
202193	애꾸눈이	웨눈베기
202194	사팔뜨기	사팔이, 사팔눈
202195	다래끼	개썸
202195-1		개썸
202195-2		둘룻
202196	언청이	얼챙이, 켜보
202197	외언청이	웨얼챙이
202198	쌍언청이	쌍얼챙이
202199	귀먹다	귀막다
202200	귀머거리	귀막시
202201	병어리	버버리
202202	말더듬이	말더듬엄젠
202203	혀짤배기	헤졸라부난
202204	입비뚫이	입트레기
202205	구안괘사	와살풍
202206	가납사니	말쟁이
202207	곰배팔이	*
202208	곰사등이	곰새
202209	절뚝발이	절룩발이
202210	얇은뱅이	얇은뱅이
202211	문둥이	문둥병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부지
203002	어머니	어머니
203003	아비	아방
203004	어미	어멍
203005	할아버지	하르부지
203006	할머니	할머니, 할망

203007	남편	우리집의아방
203008	아내	우리집사름
203009	부부	내외간, 두갓
203010	싫다[厭]	긋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2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3	셋째아들	역은아덜/웁은아덜
203012-4	막내아들	족은아덜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아덜
203012-6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7	셋째아들	역은아덜
203012-8	넷째아들	*
203012-9	막내아들	족은아덜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203013	친아들	친아덜
203014	의붓아들	다슴아덜, 들아온아덜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친딸
203017	의붓딸	다슴딸, 들양온딸
203018	자식	즈식, 자식
203019	없다[無]	엇다
203020	자손	자손
203021	어비딸	에이딸
203022	어비아들	에비아덜
203023	닮다[相似]	닮다
203024	어이딸	에딸
203025	어이아들	에새끼
203026	맡이	몬이[모지]
203027	막내	막냉이, 막내
203028	형	성, 형
203029	누님	누님
203030	누이	누이
203031	언니	언니, 성님

203032	아우	아시
203033	외아들	웨아덜, 단아덜
203034	외딸	웨딸, 단딸
203035	쌍둥이	쌍둥이
203036	다르다[異]	틀리다
203037	같다[如]	같다
203038	양자	양제, 양제아덜
203038-1		양제가다
203038-2		양제들다
203039	처녀	처녀
203040	총각	총각
203041	혼인	혼인, 잔치
203042	날[日]	날
203043	사주보다	스주보다
203044	중신	중매, 중진
203045	권당	퀀당
203045-1		덥덜
203045-2		집안
203046	앉은잔치	안팎잔치
203046-1	암창개	*
203047	사위	사위
203048	며느리	메느리
203049	시아버지	시아버지
203050	시어머니	시어머니
203051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시어명
203053	외할아버지	웨할아버지
203054	외할머니	웨할머니
203055	삼촌	삼촌
203055-1	삼촌	삼촌
203056	아주버니	아주버니
203057	아주머니	아주망
203058	환갑	환갑
203059	늙으신네	늙신네
203060	꾸정꾸정하다	굽지않다, 정 광허다
203061	살다[生]	살다
203062	고로통팔십	콜랑팔십
203063	병추기	벙꾸시
203064	거동하다	거동허다
203065	손자	손지
203066	손녀	손녀

203067	친손자	친손지
203068	외손자	웨손지
203069	친탁	친탁
203070	외탁	웨탁
203071	내척	성펜
203072	외척	웨펜
203073	종내기	종네기
203074	시누이	씨누이
203075	올케	올케, 아지망
203076	큰아버지	큰아버지, 백부
203077	큰어머니	큰어머니
203078	작은아버지	족은아버지
203079	작은어머니	족은어머니
203080	조카	조케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203083	이모	이모
203084	이모부	이모부
203085	외삼촌	웨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넋하르방
203087	넋할머니	넋할망
203088	넋손자	넋손지
203089	홀아비	홀아방
203090	홀어미	홀어멍
203091	친아버지	친아버지
203092	친어머니	친어머니
203093	의붓아버지	다슴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다슴어멍
203095	웁딸	비린뜰
203096	누구	누게
203097	남[他]	놈

4. 의복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옷감
204002	꿇다	꿇다
204003	명주	멩지
204004	명주실	멩지썰

204005	명주옷	멩지옷
204006	줄다[縮]	줄다
204007	무명	미녕
204008	무명실	미녕썰
204009	닷새무명	*
204010	엿새무명	*
204011	생목	생미녕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베
204014	베옷	베옷
204015	베치마	베치메
204016	숨	소게
204017	풀숨	설멩지
204018	숨틀	숨틀
204019	숨틀집	소게테우는 집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
204024	번테기	베랭이
204025	고치	고치
204026	뽕잎	뽕낭썸
204027	뽕나무	뽕남, 뽕낭
204028	산뽕나무	*
204029	오디	뽕낭여름
204030	다듬잇돌	다듬이판
204031	다듬잇방망이	다듬잇마께
204032	퍼다	페우다
204033	빨다[滌]	빨다
204034	거품	버꿈
204035	물거품	버꿀레기
204036	빨랫돌	빨래판
204037	빨랫방망이	물마께
204038	빨랫바구니	질구덕, 세답구덕
204039	행구다	헤우다
204040	빨랫줄	세답줄, 빨랫줄
204041	마르다[乾]	몰르다
204042	바지랑대	작데기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걷다[收]	들이다
204045	바래다[褪]	발래다, 바라다

204046	형끓	험벌
204047	찢다[裂]	브리다
204048	나부랭이	(험벌) 주제기

복식

204049	바지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바짓가랭이
204051	저고리	저고리
204052	치마	치메
204053	치맛자락	치메알단
204054	풀치마	깍치메
204055	옷고름	옷곰
204056	옷깃	옷짓
204057	옷섶	앞섭
204058	단추	단추
204059	매듭단추	벌ㄷ작
204060	동정	동전
204061	소매	소미
204062	중의	중의
204063	갈중의	갈중의
204064	적삼	적삼
204065	도포	도폭
204066	두루마기	후루메
204067	장옷	장옷
204068	고쟁이	고장중의
204069	토시	*
204070	누더기	누데기옷
204071	거지	동녕바치
204072	구두쇠	놀부, 뽀냉이, 뽀쟁이, 뽀쟁이
204073	잠방이	정뱅이
204074	허리띠	허리디
204074-1		허릿곰
204075	주머니	주멩기
204076	호주머니	계와
204077	넣다[入]	찢르다
204078	버선	보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보선목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뒤치기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보선앞섭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뽕족한 부분	보선코

204079	길목버선	*
204080	버선발	보선발
204081	대님	다님
204082	감발	*
204083	홀옷	홀옷
204084	겹옷	점옷
204085	숨옷	소게옷
204086	얹다	압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깃
204090	이불잇	이불띠
204091	홀이불	홀이불
204092	겹이불	점이불
204093	사이	사이
204094	누비이불	누빈이불, 깔 레이불
204095	이불보	이불포
204096	보풀	보풀레기, 푸슴
204097	홀청	홀청
204098	요	요
204099	옷잇	요더께
204100	눅다[臥]	누다
204101	누이다	눅지다
204102	담요	담요
204103	방석	방석
204104	앉다[座]	앗다
204105	베개	베게
204106	베갯잇	베갯잇
204107	베갯머리	머리맛
204108	베갯모	*
204109	목침	목침
204110	삿갓	삿갓
204111	패랭이	페랭이
204112	유건	유건

204113	병거지	털꺾죽
204114	밀짚모자	밀짚페랭이
204115	미사리	*
204116	짚신	초신
204117	제총박이	각신, 깍초신
204118	판총박이	*
204119	미투리	*
204120	삼다[造履]	삼다
204121	나막신	납신, 나막신
204122	가죽신	가죽신
204123	부르트다	복물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
204126	문수	몽수
204127	부채	부채, 선채
204128	미선	미선
204129	부치다[扇]	부끄다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질고리	바놓상지
204131	가위	꺾새
204132	마르다[裁]	몰르다
204133	골무	*
204134	실	썰
204135	실꾸리	썰도레기
204136	실패	썰패
204137	바늘	바늘, 바놓
204138	찌르다[刺]	찔르다
204139	바늘겨레	*
204140	바늘귀	바놓귀
204141	꿰다	꿰다
204142	집다	줍다
204143	실밥	썰밥
204144	접다	접다
204145	곱치다	고비치다
204146	휘갑치다	감추다
204147	재봉틀	자봉틀
204148	다리미	다리웨
204149	다리다[熨]	다리다
204150	인두	윤디
204151	인두판	윤디판

204152 누르다[壓] 눌르뜨다

204153 씨아 멘네틀

204153-1	(씨아 기둥)	가락을 끼우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	
204153-2	썰기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204153-3	(칼개)	씨아질을 할 때 씨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타 앓는 앓을개	
204153-4	씨앗귀	가락 끝에 파배기처럼 생긴 톱니	
204153-5	씨아손	손잡이	
204153-6	가락	씨를 빼는 톱니	

204154 물레 물레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204154-11	물렛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204155 자세 *

5. 음식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쌀
205003	쌀독	쌀항
205004	담다[入]	담다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퀘다
205007	빠다[渴水]	툼자다
205008	조밥	조팍
205009	덜다[減]	덜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팔밥	팟밥
205012	반지기	반지기
205013	고두밥	*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렁이
205016	눌은밥	누렁지, 눈밥
205017	더운밥	더운밥
205018	식은밥(찬밥)	식은밥
205019	툇밥	툴밥
205019-1	패밥	페밥
205019-2	파래밥	프레밥
205020	밥보	밥푸대, 식충
205021	밥술	밥수꾸락
205022	밥알	밥티, 밥방울
205023	끼니	때
205024	늦다[晚]	늦다
205025	이르다[早]	이르다
205026	공밥	공밥
205027	눌다	눌다
205028	승냥	승냥
205029	화독내	꺼끄렁내, 끄끄렁내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느물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춧국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건데기, 건지
205036	국물	국물
205037	굶다[飢]	굶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덥다
205040	흰죽	곤죽
205041	팔죽	팟죽
205042	섞다[混合]	서끄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국죽

205045	깨죽	폐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부식

205047	반찬	출레
205048	데우다	데우다
205049	김치	짐뀌, 짐치
205050	배추김치	베추짐뀌
205051	무김치	눔베짐뀌
205052	열무김치	열무짐치
205053	물김치	물짐치
205054	나박김치	나박짐치
205055	갯김치	갯늑물짐치
205056	파김치	파지, 패마농짐치
205057	깍두기	깍뚜기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담다
205060	간장	간장, 장물
205061	장물	장물
205062	된장	웬장
205063	소금	소금
205064	소금버캐	정갱이
205065	소금장수	소금바치
205066	간	간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간허다
205069	콩나물	콩지름
205070	숙주나물	녹디지름
205071	무나물	무수채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늑물
205074	고사리밥	고사리고구미
205075	썬다[切]	꺼끄다
205076	곳[場所]	고단
205077	고비	베미고사리
205078	미나리	민네기, 미나리
205079	부추	새우리
205080	상추	부루
205081	시금치	시금치
205082	푸성귀	송키
205083	오이	오이

205084	물외	물웨, 웨
205085	참외	참웨
205086	수세미외	*
205087	만물	초물, 초불
205088	끝물	막물
205089	개똥참외	갈장귀
205090	원두막	원막, 원두막
205091	갯잎	유입, 유썸
205092	고추	고치
205093	풋고추	풀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춧가루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족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늪은호박
205099	호박잎	호박입, 호박썸
205100	시들다	시들다
205101	더덕	던덕
205102	젓	젓
205103	자리젓	자리젓
205104	멸치젓	멜젓, 멜컷
205105	아감젓	알게미젓
205106	짜다[鹽]	짜다, 째찌롱ㅎ다
205107	초(식초)	초, 췌

별식

205108	흰떡	곤떡
205109	백설기	시리떡, 백시리
205110	부스러기	부시레기
205111	송편	송편
205112	소[떡소]	쉬
205113	고물	쉬
205114	도래떡	돌레떡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만뒤떡
205117	가루	ㄴ르, ㄴ를
205118	국수	국수
205119	칼국수	칼국수
205120	삶다[烹]	숯다, 쏘다
205121	수제비	저베기, 수제비
205122	물다[淡]	얹다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개역(보리개역, 밀개역)
205125	볶다[炒]	보끄다
205126	붕지	붕지
205127	과줄	과질
205128	엿기름	꿀
205129	감주	꿀감지
205130	달다[甘]	들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막걸리
205133	붓다[注]	비우다
205134	기울다[傾]	기울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먹다
205137	준(罇)	춘
205138	엎다	어프다
205139	술고래	술광질다리, 술주정뱅이
205140	술독	술독, 술항
205141	술심부름	술부름씨
205142	술장사	술장시
205143	숨기다	굽지다
205144	찾다[索]	쫓다
205145	들이켜다	들으싸다
205146	갑시다	ㄱ끼다, 체허다
205147	지짐이	지짐이
205148	누름적	*
205149	산적	적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제
205151	부엌문	정젓문
205152	불때다	불숨다
205153	불등걸	불망울
205154	불뚝	*
205155	부엌비	정젓비차락, 비치락
205156	내[煙氣]	네, 연기
205157	낮다[低]	눗다
205158	높다[高]	노프다
205159	그을음	꺼끄렁
205160	검댕	숫검댕이
205161	아궁이	숫강알

205162	재	불치
205163	모으다[集]	모으다
205164	부뚜막	숯덕치레
205165	붓돌	숯덕
205166	숯	숯
205167	옹달숯	동숯
205168	무쇠숯	췌숯
205169	끓다[沸]	웨다
205170	숯뚜껑	숯뚜껍이
205171	숯귀	*
205172	숯전	숯전
205173	숯바닥	숯창
205174	숯밑	숯창
205175	숯검정	숯검텡이
205176	부삽	불갈레죽
205177	군손	헛손
205178	군일	헛일, 헛부지런
205179	살강	살레
205180	부지깻이	부지땡이, 불이땡이
205181	짚방석	*
205182	성냥	화갑, 불갑, 성냥
205183	성냥개비	화갑쌀
205184	성냥갑	화갑
205185	부시	부췌
205186	부싯돌	부싯돌
205187	부싯깃	불수세미
205188	부시쌈지	불좁지
205189	부시통	*
205190	등잔	각짓불
205191	관술	술각
205192	호룽	호룽, 초룽
205193	남포등	호야(일)
205194	접싯불	젹싯불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숯	숯
205197	검다[黑]	검다
205198	숯가마	숯구텡이
205199	뜯숯	게시미
205200	숯검정	숯검텡이
205201	불타다	불나다
205202	탄내	꺼끄렁냄새

205203	불태우다	불태우다, 불부찌다
205204	불티	불똥, 불데미
205205	끄다[消火]	쓰다
205206	화로	화리
205207	돌화로	돌화리
205208	청동화로	정동화리
205209	봉당	돌화리
205210	화롯불	화릿불
205211	불찌다	불초다
205212	화상(火傷)	불에 데다
205213	부손	불수까락
205214	부젓가락	불저뽀
205215	다리쇠	*
205216	석쇠	적쇄
205217	물독	물항
205217-1	춤	춤
205217-2		허베기
205218	담배	담배
205219	피우다	피우다, 꽃다
205220	용고뚜리	담배초관
205221	담뱃대	담뱃대
205222	빨다[吸]	빨다
205223	물부리	물부리
205224	담배통	담배통
205225	담배설대	담뱃대
205226	담배쌈지	담배쌈지
205227	재떨이	재떨이
205228	벼루	베리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비다
205232	주발	놋그릇
205233	사발	사발, (사기)사발
205234	뚜껑	뚜껍이
205235	접시	젍시, 접시
205236	굽달이	믈그릇
205237	대접	대접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제기
205240	간종지	장종제기
205241	술가락	수까락

205242	젓가락	저붐
205243	수저통	수까락통
205244	설거지	그릇 씻지다, 그릇 시치다
205245	구정물	קות물
205246	도시락	점심그릇, (대)차반지
205247	주전자	주젠지
205248	냄비	냄비
205249	바가지	쿱박세기
205250	박	쿱
205251	뒤옹박	테왁
205252	조롱박	*
205253	쪽박	쪽박
205254	양푼	낭푼
205255	조리	조리, 조루
205256	단지	단지새끼
205257	뚝배기	독사발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밀	시룻고망막은 거
205260	시룻번	시룻마게
205261	경그레	상자리
205262	함지박	남박세기
205263	바구니	구덕
205264	소쿠리	소쿠리
205265	대[竹]	대
205266	이대	수리대
205267	왕대	왕대
205268	숨대(분죽)	*
205269	제주조릿대	조릿대
205270	굳은대	*
205271	무른대	죽신
205272	항아리	항
205273	물동이	허벅, 허베기, 대바지
205274	뒤주	두지
205275	도마	돔베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돔베칼
205278	빼다[拔]	빼다
205279	무디다[鈍]	무끼다
205280	갈다[磨]	갈다
205281	숫돌	셀돌
205282	날카롭다	늘사다, 늘쓰다

205283	행주	상뻘
205284	번철	*
205285	국자	국자
205286	밥주걱	밥자
205287	죽젓광이	남죽
205288	수세미	쭈세미, 산디찍수세미
205289	떡살	떡본
205290	밀판	돔배
205291	밀개	밀대
205292	소줏고리	고쇠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술코
205292-4	(반이팽)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

205293	빋다	다끄다
205294	풍로	간데기(일)
205295	삼발이	삼발이, 바레기
205296	달이다	딸리다

6. 가옥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집, 초가집
206003	길[路]	질
206004	골목	울레
206005	좁다[峽]	좁다
206006	낡다[古]	헐다
206007	기와집	기와집
206008	흙집	흑집
206009	돌집	덜ㅈ;뽀
206010	오막살이	막살이
206011	외채	흔채, 독채
206012	안채	안거레
206013	바깥채	밧거레
206014	안팎채	안팏거레

206015	문간채	이문간
206016	결채	모커레
206017	짓다[作]	짓다
206018	장독	장독, 장항
206019	덮다[蓋]	더끄다
206020	장독대	안튀
206021	헛간	헛간
206022	외양간	쉐막
206023	잃다[失]	잃다
206024	마구간	물막
206025	변소	돛통
206026	부춘돌	디들팡, 지들팡
206026-1	부출	*
206027	기척	인기척, 그적, 기적
206028	맞서다[拮]	맞사다, 촌기침
206029	냄새	냄새, 내
206030	맡다[臭]	마트다
206031	울담	울담
206032	울안	울안
206033	터알	우연, 우잣밭, 우영팻
206034	가리	눌
206035	보릿가리	보릿눌
206036	짚가리	짚눌
206036-1	출눌	출눌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눌다
206039	사닥다리	사다리
206040	이영	늑람지
206041	주저리	주지
206042	엮다[編]	여끄다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풍채
206043-1		*
206043-2		*
206044	디딤돌	잇돌
206045	난간	난간
206046	마루	마리
206047	마루문	대문, 마릿문
206047-1	‘호령창’	*

206048	마룻널	마룻널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돌
206051	종이	종이
206052	얹다	얹다, 알루다
206053	구들직장	*
206054	큰방	큰구들
206055	들다[入]	들다
206056	윗목	밧자리
206057	아랫목	안자리
206058	천장	청장, 천아반
206059	닿다[觸]	*
206060	옷바람	우풍
206061	안방	큰구들
206062	방문	방문
206063	비[霈]	비자락, 비치락
206064	빗자루[柄]	비치락즈룩
206065	쓸다	쓸다
206066	버리다[棄]	데끼다, 네끼다
206067	바람벽	백브름
206068	걸다[掛]	걸다
206069	벽장	시렁
206070	시렁	*
206071	선반	선반
206072	헛대	*
206073	도배	도비
206074	귀얄	*
206075	폴비	폴비치락
206076	찾방	*
206077	광	고광
206078	두다[置]	놔두다
206079	광문	고광문
206080	간수하다	굽지다
206081	안뒤결	안튀
206082	지붕	지붕
206083	함석	양철집, 도당집(일)
206084	지붕물매	물매
206085	이다[蓋]	일다
206086	평고대	거왕대
206087	치마	지슬
206088	치맛기슭	지슬

206089	낙숫물	지슬물
206090	댓돌	숙전
206091	흙	흑
206092	진흙	질흑
206093	찰흙	즌흑
206094	흙덩이	흑병덩이
206095	새벽	개백
206096	흙질	흑질
206097	이기다[淚]	뀌다
206098	산자(撒子)	서슬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둥	*
206101	틔기둥	*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주춧돌
206104	서까래	서리
206105	용마루	상마루
206106	보	포
206107	대들보	대들포
206108	반자틀	빈지
206109	귀틀	귀클
206110	외(櫻)	테기
206111	인방	*
206112	문설주	*
206113	문곶도리	*
206114	문얼굴	*
206115	문틀	문틀
206116	문머리	웃지방
206117	문흙	문골
206118	문지방	지팡
206119	지계문	*
206120	닫다[閉]	더끄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2	잠그다	중그다
206123	창호지	창오지
206124	뛰창문	창굄
206125	구멍	고망
206126	미닫이	미닫이, 밀문
206127	여닫이	*
206128	살문	쌀문
206129	널문	널물

206130	덧문	덧문
206131	문틈	문트멍
206132	돌쩌귀	도절귀
206133	암톨쩌귀	*
206134	수톨쩌귀	*
206135	문고리	문고리
206136	배목	*
206137	퀘	퀘
206138	열다[開]	열다
206139	장식	장식
206140	자물쇠	통췌
206141	열쇠	게철
206142	부수다[碎]	부시대기다
206143	서랍	설랍

연장

206144	툽	툽
206145	양날툽	*
206146	거도	*
206147	틀툽	대툽
206148	툽밥	툽밥
206149	자귀	자귀
206150	옥자귀	국췌
206151	노루발장도리	못빼기
206152	못뽑이	못빼기
206153	박다[釘]	박다
206154	배척	*
206155	끌	끌
206156	망치	망치
206157	방망이	마깨
206158	대패	대패
206159	개탕대패	*
206160	송곳	송곳
206161	뚫다[鑿]	뚫루다
206162	굽자	굽은자
206163	먹통	먹통
206164	먹줄	먹술
206165	먹칼	먹칼
206166	흙손	췌손
206167	쇠흙손	췌손

206168	나무흙손	남손
206169	흙받기	*
206170	돌물레	*
206171-1		호랭이

7. 생업

농업

207001	농사	농스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에엎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빼기	트쟁이
207006	병작(並作)	반작
207007	갈다[耕]	갈다
207008	쟁기	잠대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지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 나간 나무	*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나무	*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뻗은 나무	*
207008-5	좀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쇠조각	*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쇠조각.	보습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벧
207008-9	‘뚝’	좀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

207009	옥보다	속다
207010	겨리	저리
207011	벧밥	병탱이
207012	곰방메	곰베
207013	밭머리	멍에
207014	밭두둑	두둑
207015	밭고랑	고랑
207016	밭이랑	파니

207017 거웃 파니
 207018 극쟁이 *
 207019 씨레 *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
207019-2	찍게발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
207019-3	몽둥이	씨레발을 박을 수 있는 굽은 막대	*
207019-4	씨레발	씨레 몽둥이에 박힌 뽕죽한 살	*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

207020 번지 *
 207021 켤이 켤이
 207022 곡쟁이 못쟁이
 207023 파다[堀] 파다
 207024 쇠스랑 쉼스랑
 207025 삽 갈레죽
 207026 따비 따비
 207027 거름 걸름
 207028 걸다[肥] 걸다
 207029 씨앗 씨
 207030 알씨 *
 207031 백씨 *
 207032 뿌리다[撒] 뿌다, 뿌리다
 207033 망태기 망텅이
 207034 끄게 끄시기
 207035 남태 남테
 207036 돌번지 *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매다
 207039 애벌매기 초불
 207040 두벌매기 두불
 207041 세벌매기 세불
 207042 가다[去] 글라
 207042-1 글라
 207043 호미 굴게기
 207044 홍아기 홍앵이
 207045 눅 눅
 207046 시키다 시기다
 207047 품삯 품

207048	비싸다	비싸다
207049	결두리	간식, 중석
207050	품앗이	수놓음
207051	삼태기	굴채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호미즈룩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뽕족하고 긴 부분	*
207052-3	낫쟁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
207052-4	낫놀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
207052-6	날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날

207053	베다[刈]	비다
207054	새 꽤기	새깎
207055	새끼	노
207056	꼬다[索]	꼬다
207057	매듭	맷작
207058	노	노
207059	끈	끈, 친
207060	참바(바[索])	베, 쉼얏베
207061	짐바	베, 질베
207062	질빵	질빵
207063	잇다[承]	잇다
207064	길마	질메
207065	소길마	췌질메
207066	말길마	물질메

207066-1	길맞가지	길마의 몸을 이루는 말굽 모양의 나뭇가지	질멧가지
207066-2	앞가지	길마의 앞부분이 되는 민둥산 모양의 나무	앞가지
207066-3	뒷가지	길마의 뒷부분이 되는 편자 모양의 나무	뒷가지
207066-4	궁글막대	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어 맞춘 나무	*
207066-5	둥우리막대	궁글막대 아래 댄 나무	*
207066-6	경거리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	*
207066-7	경거리끈	경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	*
207066-8	경거리막대	경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	*
207066-9	배뎛끈	길마를 엮을 때에 배에 걸쳐서 졸라매는 줄	*

207067 멍에 멍에

207067-1	목대	멍에 양쪽 끝 구멍에 꿰어 소의 목 양쪽에 대는 가는 나무	*
207067-2	봇줄	멍에 양 끝에서 비겨미까지 연결된 줄	*
207067-3	한태	봇줄을 마소의 등 위로 잡아매는 줄	*
207067-4	(오리목)	봇줄 끝에 댄 비겨미와 쟁기의 물추리막대를 연결하여 매는 줄	*
207067-5	비겨미	봇줄이 소 뒷다리에 닿지 않도록, 두 끝을 턱이 지게 하여 봇줄에 꿰는 막대기	*

207068 지게 지게

207068-1	지겟다리	지게 몸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양쪽 다리	지겟발
207068-2	지겟가지	지게 몸에서 뒤쪽으로 갈라져 뻗어 나간 가지	지겟가지
207068-3	지게세장	지게의 두 다리 사이에 가로 박아 맞추어 놓은 나무	지게틀
207068-4	지겟등태	지게를 질 때 등이 배기지 않게 붙인 등태	지렛받이, 지겟바지렛이
207068-5	지게꼬리(밀뻘)	지게의 짐을 잡아매는 줄	지게끈
207068-6	지겟작대기	지게를 버티어 세우는 긴 막대기	지겟작대기

207069 바지게 바지게
207070 발채 바지게
207071 물지게 물지게
207072 이삭 고고리
207072-1 이석

207073	짚	짚
207074	익다[熟]	익다
207075	개상	*
207076	벼훑이	훑데
207077	그네	훑데

207077-1	보리 이삭(등근 살)	*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

207078	타작하다	마당질허다
207079	땀	땀
207080	진땀	선땀
207081	젖다[濕]	젖다
207082	죽을힘	죽을힘
207083	겨를	저르, 틈
207084	도리깨	도깨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깨즈룩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도깨아덜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너	도깨틀레

207085	여물	여물, 췌죽, 췌것
207086	쭈정이	줄레
207087	꼴	출
207088	꼴발	출왓
207089	꼴꾼	출놉, 출비는 놉
207090	꼴단	출단
207091	싣다[載]	시끄다
207092	마차	물바레기
207093	복두	췌앗베
207094	멍석	멍석
207095	덕석	덕석
207096	거적	거적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체)	ㄴ는체
207099	굵은체	대체
207100	말총체	총체
207101	챗바퀴	챗망

207102	챗다리	*
207103	어레미	얼맹이
207104	키[箕]	푸는체
207105	키질	푸는체질
207106	까불다	푸다
207107	드리다	불리다
207108	‘술박’	술박
207109	풍구	*
207110	홉	홉
207111	홉되	홉제기
207112	되	웨, 관웨
207113	관되	관웨
207114	사샷되	웨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통말
207115-2	모말	*
207116	가웃	가웃
207117	끓다[不充滿]	콜르다
207118	고무래	근대
207119	불당그래	근대
207120	떡둥구미	멕
207121	가마니	가맹이
207122	끗다[引]	끗다
207123	곡식	곡석
207124	흩다[散]	근다
207125	자루[袋]	잘리
207126	부대(負袋)	푸대
207127	거두다[收]	거두다
207128	게으름	간세
207129	노라리	놈팽이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왓
207132	누리다[黃]	누렁다
207133	밝다	블르다, 밝다
207134	까끄라기	ㄴ스락
207135	보리쌀	보리썰
207136	보릿겨	보리체
207137	겉보리	것보리
207138	쌀보리	술우리
207139	맥주보리	주녕이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리짚
207141	매끼	깨
207142	감부기	*
207143	귀리	대우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밭
207146	차조	흐린조
207147	메조	모힌조
207148	쑤다	소끄다
207149	조이삭	조코고리
207150	서숙(黍粟)	서숙
207151	비비다	보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제비, 허수아비
207153	좁쌀	좁쌀
207154	조짚	조침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나룩고고리
207157	벼씨	나룩씨
207158	못자리	*
207159	밭벼[山稻]	산디
207160	밭벼 이삭	산딛고고리
207161	밭벼밭	산디왓
207162	밭벼쌀	산디쌀, 곤쌀
207163	밭벼짚	산디짚
207164	맷돌	정ㄴ레

207164-1	맷돌짝	맷돌의 위아래 돌	ㄴ레착
207164-2	윗돌	맷돌의 위쪽	우착
207164-3	아랫돌	맷돌의 아래쪽	알착
207164-4	매암쇠	맷돌 위쪽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
207164-5	맷수쇠	맷돌의 아래쪽 한가운데 박힌 물건	ㄴ레죇
207164-6	맷손	맷돌의 손잡이	ㄴ렛즈룩

207165	맷방석	ㄴ렛덕석, ㄴ렛방석
207166	매함지	맷도고리
207167	풀맷돌	*
207168	풀매	*
207169	썰기	뜸
207170	방아	방에

207171	쌍방아	두콜방에
207171-1		세콜방에
207171-2		*
207171-3		*
207172	방아확	방에혹
207173	방앗간	기젯방
207174	븀비다	부피다
207175	방앗공이	방엿귀
207176	남방아	남방에
207177	연자매	물 ㄴ랑
207178	방앗돌	방엿돌
207179	연자맷간	물 ㄴ랑
207180	절구	절귀
207181	절굿공이	방엿귀
207182	뺑다	뺏다
207183	늪	니
207184	고르다[擇]	콜리다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체
207187	콩	콩
207188	콩잎	콩입
207189	기름콩	콩늑물콩, 콩지름콩
207190	콩깍지	꼭깍지
207191	콩짚	콩짚
207192	꼬투리	*
207193	두부	둠비
207194	두붓물	둠빗물
207195	뜨겁다	데불다
207196	비지	비제기
207197	찌꺼기	아쟁이
207198	완두	보리콩
207199	강낭콩	두불콩
207200	동부	둠비
207201	팥	팻
207202	팥알	팻방울
207203	팥밥	팻밥
207204	녹두	녹디
207205	깨(참깨)	웨
207206	들깨	유
207207	참기름	참지름
207208	갯묵	팻주시, 팻주생이

207209	고소하다	크스롱허다
207210	메밀	므믈
207211	메밀밭	므믈팻
207212	나깨	므믈느쟁이, 므믈느쟁이
207213	메밀껍질	므믈체
207214	메밀국수	므믈국수
207215	메밀수제비	므믈저베기
207216	메밀칼국수	므믈칼국수
207217	메밀떡	므믈떡
207218	메밀묵	므믈묵
207219	무르다[軟]	가르릉허다
207220	고구마	감저
207221	절간고구마	감저뻗데기
207222	찌다[蒸]	치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슬, 지슬감저
207225	마늘	마농
207225-1	마늘대	마농남텡이
207225-2	마늘밀	마농뿌리
207225-3	마늘종	마늘쫑
207226	마늘장아찌	마농지시
207227	파	패마농
207227-1	파밑동	패마농뿌리
207228	무	눔빠
207229	무청	춤물
207230	시래기	씨레기
207231	장다리무	씨눔빠
207232	열무	춤물
207233	배추	눔물, 김치눔물
207234	고갱이(배추)	쭙
207235	나물	송키
207236	채소	송키
207237	겉대	유레기
207238	다듬다	다듬다
207239	값	깎
207240	옥수수	대축부레기
207240-1	옥수수	대축부레기
207241	수수	대축
207242	쌀수수	썰대축
207243	비목수수	비대축
207244	사탕수수	사당대축

207245 수수깥 대축남탱이

어업

207246	잠녀(潛女)	잠수
207247	물질	물질
207248	물웃	물웃, 속곳
207249	물안경[水鏡]	눈
207249-1		큰눈
207249-2		족은눈
207250	테왁	테왁
207251	망사리	망사리
207252	비창	비창
207253	작살	소살
207254	어부	보제기
207255	뜰채	족바지
207256	그물	구물
207257	돛단배	풍선
207258	이물	이물
207258-1	이물간	*
207258-2	이물사공	*
207259	고물	고물, 배코지
207259-1	고물간	*
207259-2	고물사공	*
207260	돛	돛
207261	마룻대(돛대)	돛대
207262	마룻줄(용충줄)	*
207263	활대	활대
207264	외대박이	웨돛
207264-1	두 대박이	쌍돛
207264-2	세대박이	*
207265	노(櫓)	노
207266	곁노	*
207267	상책(노착)	*
207268	노잎(노깃)	*
207269	노앞	*
207270	노뒤	*
207271	노손	*
207272	돛구멍	*
207273	돛줄	*
207274	돛	돛

207275	닷가지	닷가지
207276	닷줄	닷줄
207277	닷돌	*
207278	닷걸이	*
207279	키[舵]	치
207280	킷구멍	킷고망
207281	키잡이	*
207282	강다리	*
207283	상앗대	삿대
207284	떼[浮筏]	터베

기타

207285	이웃	이웃
207286	더불다[與]	어울리다
207287	마을	믄슬
207288	고을[村]	고을
207289	누리[世]	세상
207290	윗마을	웃드르
207291	옮다[移]	옮기다
207292	아랫마을	알뜨르
207293	마을가다	믄슬카다
207294	밤마을	*
207295	가게	상점, 점빵
207296	구멍가게	구멍가게
207297	다녀오다	경겨오다
207298	심부름	부름씨
207298-1	부름씨	부름씨
207299	잔돈	즌돈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우수리, 주리
207302	있다[有]	잇다
207303	에누리	에누리
207304	우수리	주리, 우수리
207305	받다[受]	받다
207306	나머지	남제기
207307	홍정	홍성, 홍정
207308	빚	빚
207309	빚지다[負]	빚지다
207310	변리[邊利]	벤리
207311	늘다[增]	늘다
207312	대장간	불밋집, 대장간

207313	풀무	불미
207314	손풀무	*
207315	모루	믄릿돌
207316	모루채	메, 망치
207317	갓양태(양태)	*
207318	망건	*
207319	망건골	*
207320	탕건	*
207321	결다[編]	*
207322	사냥	사농
207323	사냥개	사농개
207324	사냥꾼	사농꾼
207325	쏘다[射]	마추다, 쏘다
207326	뽕잡이	뽕바치
207327	고	코
207328	올가미	*
207329	덧	덧
207330	나누다	갈라먹다
207331	갖다[持]	가지다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ᄒ나
208001-2	(2)	둘
208001-3	(3)	셋
208001-4	(4)	넷
208001-5	(5)	다섯
208001-6	(6)	ᄇ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ᄇ답, ᄇ덥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세다
 208003 알다[知] 알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	스물
208004-2	(30)	서른
208004-3	(40)	마흔
208004-4	(50)	쉰
208004-5	(60)	예순
208004-6	(70)	이른
208004-7	(80)	으든
208004-8	(90)	아흔
208004-9	(100)	백

208005 한~엿

	단위	되	말
208005-1	(1/한)	흔	흔
208005-2	(2/두)	두	두
208005-3	(3/서, 석)	세, 서	세/서
208005-4	(4/너, 녀)	네, 녀	네
208005-5	(5/닷)	다섯	다섯
208005-6	(6/엿)	으섯	으섯

208006 한두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흔두	흔두	흔눈
208006-2	(2-3/두세)	두세	두세, 두서	두서
208006-3	(2-3-4/두서너)	두서너	두서너	두너서
208006-4	(3-4/서너)	세네	세네	서너, 세네
208006-5	(4-5/네댓)	너댓	네댓	네닷
208006-6	(5-6/대여섯)	대으섯	대으섯	대으섯
208006-7	(6-7/예닐곱)	예슬곱	예슬곱	예슬곱/으섯 일곱
208006-8	(7-8/일고여덟)	일고으답	일고으답	일고으답
208006-9	(8-9/여덟아홉)	으답아홉	으답아홉	으답아홉

208007 여남은 여남은

208008 서른남은 설남은

단위

208009	뺨	뺨
208010	집게뺨	조리
208011	발[單位]	발
208012	밟다	발다
208013	필(무명/명주) 필	
208014-1		

208014-1	무명	*
208014-2	명주	*
208014-3	광목	*
208014-4	베	*

208015	마지기(평)	마지기
208015-1		*
208016	못	단
208017	묶다[束]	무끄다
208018	나르다[移]	날르다
208019	동	단
208019-1		짐, 단
208020	조짐	*
208021	바리(종류)	바리
208021		

208021-1	보리	30
208021-2	조(이삭 있음)	12
208021-3	콩	14
208021-4	밭벼	20
208021-5	꿀	30
208021-6	띠	20
208021-7	각단	30
208021-8	어욱	*

208022	모금	직
208023	섬	섬
208023-1		열 말
208024	덩이	덩이
208025	포기	퍼기

208026	그루	그루
208027	돌이(양태)	*
208028	마리	머리
208028-1	두[頭]	머리
208028-2		*
208029	축	*
208030	궤미	깨미
208031	쌍(돼지)	자리
208032	채(집)	채, 거리
208033	장(무덤)	자리
208034	컬레(신)	베, 컬레
208035	바퀴(운동장)	바퀴
208036	못	못
208037	죽	죽

9. 민속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사리
209002	아이서다	애기설다
209003	삼신할머니	애기할망, 삼승할망
209004	깃저고리	붓웃
209005	배넛머리	배쪽엿머리
209006	돌	돌
209007	새 색시	새각시
209008	새신랑	새스방
209009	가마	가마
209010	시집가다	씨집가다
209011	시집보내다	씨집보내다
209012	장가가다	장게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장게보내다
209014	함	함
209015	위요(우시)	우시
209016	대반(對盤)	대반
209017	신부상	새각시상
209018	휘다[椽]	뿌러지다, 휘다
209019	이바지	이바지
209020	부조	부지
209021	사돈	사돈

209021-1	안사돈	여사돈, 안사돈
209021-2	바깥사돈	바깥사돈, 사돈
209022	겹사돈	겹사돈
209023	상갓집	초상집, 영장집
209024	수의	호상옷
209025	상복	상제옷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큰상제
209028	만상제	큰상제
209029	두건	두건
209030	복치마	복치메
209031	상장(喪杖)	방장대
209031-1		왕대
209031-2		머귀낭
209032	짚동	북시미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제
209034	조문하다	고름가다
209035	뫼자리	산자리, 산터
209036	지관	정시
209037	패철	췌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생이
209040	보장(寶帳)	화단
209041	계(契)	접
209042	상두꾼	상뒤꾼
209043	장삿날	영장날
209044	장지	영장밧
209045	광중	광중
209046	횡대	개관
209047	호충	*
209048	무덤	봉분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이	돌챙이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
209053	마치다[終]	믄치다
209054	벌초	벌초
209054-1	소분	소분, 벌초
209055	묘위전	소분밧
209056	고충	골충
209057	제사	식계

209058	제삿집	식궈집
209059	편틀	편틀
209060	퇴물	툼물
209061	메	메
209062	갱(羹)	갱
209063	제육	제숙
209064	제편	백시리
209065	인절미	인절미
209066	절편	절벤
209067	웃기떡	웃지시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반놓다
209070	몫	나시
209071	면례(緬禮)	천리

세시풍속

209072	설날	정월초하를날, 정월맹질
209073	세배	세배
209074	명절	맹질
209075	결립	결궁
209076	금줄	솟
209077	매다[結]	매다
209078	장구	장귀
209079	설장구	살장귀
209080	뽕과리	뽕과리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단오
209083	물맞이	물맞이
209084	모래찜질	모래뜸, 모살뜸
209085	추석	팔월맹질, 추석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올레코시, 올레궈시, 올레대접
210004	당	당
210005	무격	심방

210006	긋	긋
210007	긋판	긋밧
210008	명두	멩대칼
210009	추다[踊]	추다
210010	소지(燒紙)	소지
210011	사르다[燒]	슬다
210012	살(煞)	살
210013	삼살방(三煞方)	삼살방
210014	도깨비	도체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체비
210016	허깨비	헛깨
210017	어둡서니	기신새
210018	무섭다	므습다
210019	겹쟁이	겹쟁이
210020	고사(告祀)	궤스
210021	고수레	코수레, 코시
210022	포제	포제

11. 자연

들

211001	들	드르
211002	풀[草]	풀, 푸습새
211003	방화(放火)	방에
211004	불다[點火]	부찌다
211005	내[川]	내창
211006	넷가	내창저끗되
211007	물가	물저끗되
211008	따르다[從]	조치다
211009	건너다[渡]	넘어가다
211010	낭떠러지	베랑
211011	다리[橋]	드리
211012	가깝다[近]	브디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설덕
211014-1	가시덤불	가시설덕
211015	돌무더기	돌설덕
211016	갈림길	커리질

211017	묻다[問]	듣다
211018	비탈길	동산길
211019	벼랑길	*
211020	내리막길	내림길
211021	오르막길	동산길
211022	길가	질에염
211023	큰길	한길
211024	분화구	굼부리
211025	꼭대기	꼭데기
211026	오르다[登]	올르다
211027	기슭	(오름)밭
211028	산바람	산브름
211029	산꼬대	서리
211030	상고대	상강
211031	구렁	흠
211032	고랑창	고랑창, 고랑창이
211033	건너가다	넘어가다
211034	넘어지다	푸더지다, 자빠지다
211035	자빠지다	자빠지다
211036	천상수	봉천수, 곳인물
211037	숲	고지
211038	성(城)	성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개곶, 개곶이
211041	바닷물	바당물, 촌물
211042	바닷바람	바당브름
211043	깊다[深]	지프다
211044	얕다[淺]	아프다
211045	물먹다	복물먹다
211046	모래	모살
211047	모래밭	모살밭, 모살왓
211048	자갈	자갈, 존돌, 돌생이
211049	갯가	개곶디
211050	펄	펄(밭)
211051	먼바다	먼바당
211052	파도	절
211053	파돏소리	절소리
211054	듣다[聞]	듣다
211055	너울	삼절, 삼형제절

211056	굳뇌	긷절
211057	물결	절
211058	잔물결	*
211059	무수기	물때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흔물	9일 24일
211059-2	두무날	두물	10 일 25일
211059-3	서무날	서물	11일 26일
211059-4	너무날	너물	12일 27일
211059-5	다섯무날	다섯물	13일, 28일
211059-6	여섯무날	으섯물	14일, 29일
211059-7	일곱무날	일곱물	15일, 30일
211059-8	여덟무날	으덟물	16일 1일
211059-9	아홉무날	아홉물	17일 2일
211059-10	열무날	열물	18일 3일
211059-11	열한무날	열흔물	19일 4일
211059-12	열두무날	열두물	20일 5일
211059-13	(열서무날)		
211059-14	아끈췌기	아끈조기	21일 6일
211059-15	췌기	조금	22일 7일
211059-16	한조금	한조기	23일 8일

211060	여	여, 옛동산
211061	곶(串)	코지
211062	물밀다	물들다
211063	밀물	든물
211064	물써다	물싼다
211065	썰물	싼물

시후

211066	오늘	오넵
211067	내일	넵
211068	모레	모리
211069	내일모레	넵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재작날
211072	어제	어제
211073	그저께	그지게

211074	그끄저께	그직아시날
211075	새벽[曉]	세백
211076	꼭두새벽	동세백이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빛	빋
211079	아침	아침, 아척
211080	낮	낫
211081	저녁	저낙
211082	저녁거리	저낙ㄴ슴
211083	초저녁	초저낙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밤중
211086	하늘	하늘, 이밤과 저밤새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푸리다
211090	별	벨
211091	은하수	오작교, 은하수, 미릿내
211092	달	들
211093	차다[充滿]	차다
211094	달무리	달머리, 들갓
211095	초승달	초생들
211096	보름달	둥근들, 보름들
211097	그믐달	구름들
211098	햇무리	해갓
211099	무지개	상고지
211100	쌍무지개	쌍고지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여름
211103	가을	가을, ㄴ슬
211104	겨울	겨울, 저슬
211105	입춘	새철
211106	동지	동지
211107	초하루	초흐루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구름

211110-1	하루	ᄒ루
211110-2	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사을
211110-4	나흘	나을
211110-5	닷새	닷췌
211110-6	엿새	읏췌
211110-7	이레	일뤼
211110-8	여드레	으드레
211110-9	아흐레	아으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을
211112	너더닷새	너닷새
211113	대엿새	대읏췌
211114	지나다[過]	지나다
211115	삭망	초ᄒ루보름
211116	저물다	저물다
211116-1	‘구물다’	구물다
211117	지다[落]	지나
211118	이월달(영등달)	영등들
211119	선달	선들, 그믐들
211120	올해	올리, 올히
211121	내년	내년
211122	내후년	후내년
211123	작년	작년
211124	재작년	재작년

날씨

211125	별	벧
211126	별살	벧살
211127	따스하다	뜨뜻허다
211128	땡볕	웁벧, 즈작벧
211129	가을볕	ᄆ슬벧
211130	양지받이	벧발른디, 양지
211131	아지랑이	아지랑이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그늘
211134	나무그늘	낭그늘
211135	쉬다[休]	쉬다
211136	그림자	굴메, 그늘

211137	바람	븃름
211137-1	바람위	븃름우티
211137-2	바람아래	븃름알
211138	맞바람	*
211139	바람받이	븃름코쟁이
211140	바람살	븃름살
211141	회오리바람	훼오리븃름, 뵤오리븃름, 돛쟁이주제
211142	동풍	셋븃름
211143	남풍	마븃름
211144	서풍	셋갈븃름
211145	북풍	하늬븃름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굳다
211148	빗줄기	빗살
211149	장마	마
211149-1	봄장마	봄장마
211149-2	가을장마	ᄫᆞ슬마
211150	곰팡이	곰생이
211151	소나기	더럭비
211152	여우비	*
211153	가랑비	ᄫᆞ랑사니
211154	이슬	이슬
211155	시원하다	씨원허다
211156	도롱이	우장
211157	가물다	ᄫᆞ물다
211158	가뭄	ᄫᆞ뭄
211159	흉년	승년
211160	비바람	비븃름
211161	안개	으남, 안개비
211162	번개	편개, 번개
211163	천둥	천둥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내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함박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스락눈
211170	도둑눈	*
211171	내리다[降]	내리다, 오다
211172	희다	희다
211173	춡다	얼다, 춡다

211174	떨다[慄]	털다
211175	고드름	동곳, 고드름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얼다
211179	굽다	굽다
211180	진눈깨비	짐벙이, 눈비
211181	우박	우박

방향

211182	앞	앞
211183	뒤	두
211184	결	즈끗디
211185	옆	옆
211186	위	우
211187	아래	알
211188	밝다[明]	불다
211189	어둡다[暗]	어둑다
211190	왼쪽	웬작
211191	오른쪽	늑단작
211192	밀	밀
211193	흐르다[流]	홀르다
211194	안[內]	안
211195	밖	베껏디
211196	구석	구석
211197	모서리	모서리
211198	가[邊]	궂
211199	가장자리	가쟁이
211200	가운데	가운디
211201	곧다[直]	곧다

12. 동물

가축

212001	소[牛]	쉐
212002	막다[防]	막다
212003	암소	암쉐
212004	수소	밧갈쉐
212005	침소	식쉐

212006	불까다	불까다, 불블르다
212007	불알	불
212008	황소	황쉐
212009	얼룩소	어럭쉐
212010	부리망	망울
212011	쇠고삐	쉐늑대
212012	끝다	끗다
212013	송아지	송예기
212014	배넛소	반작쉐
212015-1	하릅~열릅	

		소	말
212015-1	하릅(1)	금승	금승똥생이
212015-2	이듭/두듭(2)	다간	이수
212105-3	사릅(3)	사릅	삼수
212015-4	나릅(4)	나릅	사수
212015-5	다듭(5)	다춧술	다춧살
212015-6	여듭(6)	*	*
212015-7	이릅(7)	*	*
212015-8	여듭(8)	*	*
212015-9	아듭/구릅(9)	*	*
212015-10	열릅/답불(10)	*	*

212016	작두	잘두
212017	쇠죽	여물, 쉼죽
212018	구유	쉐도고리
212019	말[馬]	물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암물, 즈매
212023	수말	숫물, 웅매
212024	망아지	똥생이
212025	가라말	*
212026	청총마/총이말	*
212027	절따말/적다마	*
212028	얼룩말	*
212029	유마	*
212030	백마	백매
212031	고라말	*
212032	곰배말	*
212033	조랑말	조랑물

212034	달리다[走]	들리다
212035	마소	므쉬
212036	글경이	글쟁이
212037	털[毛]	터럭
212038	말고빠	물죽대
212039	당기다	둥기다
212040	낙인	낙인
212041	개[犬]	개
212042	짖다[吠]	지꾸다
212043	쓰다[用]	쓰다
212044	수캐	수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도랭이
212048	비루먹다	도랭이 올르다
212049	고양이	고녕이
212050	암고양이	암코녕이
212051	수고양이	수코녕이
212052	도둑고양이	도둑고녕이
212053	살랭이	식고녕이, 식
212054	닭	득
212055	암탉	암득
212056	수탉	장득
212057	멀떠구니	멀턱
212058	산맥	산맥
212059	닭의어리	고리
212060	닭장	득집
212061	달걀	득새기
212061-1	노른자위	노린알
212061-2	흰자위[卵]	흰알
212062	끓다[腐]	고리다
212063	병아리	비에기
212064	까다[剝]	깨우다
212065	돼지	도새기
212066	수돼지	수토새기
212067	암돼지	암토새기
212068	추렴하다	추렴허다
212069	가르다[分]	갈르다
212070	고기[肉]	퀘기
212071	일솜씨	손재주
212072	생둥이	서툰바치

212073	새끼 돼지	도새기새끼, 자릿도새기
212074	돼지우리	돛통
212075	돼지고기	도새기썰기, 돛썰기
212076	적	적
212077	적꼬치	적꼬지
212078	굽다[炙]	굽다
212079	무판(푸줏간)	무판
212080	기르다	질루다
212081	둘치	지지랭이
212081-1	둘암소	지지랭이썰
212081-2	둘암말	지지랭이뜰
212081-3	둘암돼지	지지랭이도새기
212081-4	둘암캐	*
212082	거위	거위
212083	오리	올랭이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베랭이
212085	파리	푼리
212086	취	취
212087	취슬다	취싸다
212088	가시	취, 베랭이, 장베랭이
212089	구더기	구데기
212090	취파리	취푼리
212091	쇠파리	썰푼리
212092	똥파리	똥푼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
212096	장구벌레	고노리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蠃]	니
212099-1	서캐	취
212100	서캐훅이	챙빔
212101	지렁이	게우리
212102	회충	게우리
212103	거머리	거멀
212104	바구미	남송에기
212105	콩바구미	남송에기
212106	굼벵이	굼벵이

212107	땅강아지	하늘강생이
212108	그리마	*
212109	쥐며느리	동골랑베랭이
212110	노래기	구더기
212111	지네	주냉이
212112	진딧물	진쉬
212113	진딧물내리다	진쉬 일다
212114	하루살이	하루살이, 눈에눈이
212115	눈에놀이	눈에눈이
212116	달팽이	들뱅이, 옷입은들뱅이
212117	민달팽이	옷벗은들뱅이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게염지
212120	왕개미	왕게염지
212121	불개미	*
212122	메뚜기	말축
212123	방아깨비	*
212124	여치	*
212125	사마귀[螳螂]	국주베기
212126	귀뚜라미	귀뚜라미
212127	풍뎅이	풍뎅이
212128	장수풍뎅이	*
212129	무당벌레	*
212130	쇠똥구리	쉐똥벌레
212131	딱정벌레	*
212132	집게벌레	*
212133	하늘소	*
212134	노린재	노린재
212135	나비	나비
212136	호랑나비	호랑나비
212137	날다[飛]	날다
212138	사슴벌레	*
212139	잠자리	밥주리
212140	고추잠자리	고치밥주리
212141	장수잠자리	슬진밥주리
212141-1		*
212142	매미	자리
212143	매미허물	(왕자리)집
212144	말매미(왕매미)	왕자리
212145	쓰르라미	*
212145-1		뿔자리

212146	소금쟁이	소금바치
212147	방개	물방개
212148	반딧불이	불란지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청벌
212151	꿀	청
212152	땅벌	*
212153	말벌	왕벌
212154	붓다[腫]	붓다
212155	진드기	진드기
212155-1		*
212155-2		부구리
212156	송충이	솔충, 송충이
212157	개구리	가가비
212158	올챙이	올챙이
212159	맹꽁이	맹마구리, 맹꽁이
212160	두꺼비	두꺼비
212161	뱀	베미
212161-1	뱀띠	뱀헤치
212161-2	뱀허물	뱀웃, 흘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헤치, 용띠
212163	도마뱀	장쿨레비
212164	구렁이	구렁이, 집임제
212165	살무사	독사

들짐승

212166	여우	여시
212167	노루	노리
212168	염소	염송예기
212169	토끼	토끼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헝이
212172	갸다	갸다
212173	쥐구멍	헝이고망
212174	박쥐	드람지, 박쥐
212175	다람쥐	다람쥐
212176	오소리	지달이
212176-1		지달이굴
212177	지달(이)	지달이
212178	지달피	지다리가죽, 지달이털

212179	멧돼지	*
212180	원숭이	원생이
212181	원숭이띠	납띠, 납혜치
212182	호랑이	호랭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호랭이띠, 범띠
212184	꼬리	꼴랑지

날짐승

212185	새[鳥]	생이
212186	꿩지	(생이)꼴랑지
212187	깃[羽]	깃, 놀개
212188	새총	생이총
212189	새가슴	*
212190	참새	참새, 생이, 밥주리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새
212193	매	매천이
212194	참매	매천이
212195	솔개	똥수레기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가메귀, 가마귀
212198	딱따구리	*
212199	빼꾸기	빼꾸기
212200	종달새	주주머리
212201	올빼미	옷밤
212202	평	평
212203	까투리(암평)	암평
212204	장끼	장평
212205	평알	평독새기
212206	꺼병이	평비에기
212207	두루미	두루미
212208	기러기	기러기
212209	갈매기	갈매기

바다 동물

212210	고둥	보말, ㄴ메기
212211	개울타리고둥	춤ㄴ메기
212212	명주고둥	*
212213	눈알고둥	문두테기
212214	밤고둥	먹보말

212215	팽이고등	수두리
212216	각시고등	*
212217	두드럭고등	췌, 메옹이
212218	대수리	마타살
212219	타래고등	*
212220	대롱뿔고등	*
212221	제주개오지	*
212222	애기삿갓조개	*
212223	거북손	대오살
212224	따개비	*
212225	군부	군붓
212225-1		물군붓, 춤군붓
212226	진주담치	합죽
212227	소라	구쟁기, 고등
212227-1		민둥구쟁기(살×), 쌀고동(살), 생 쨍이(小)
212228	전복	점복, 전복
212228-1		암천복
212228-2		수첨복
212229	전복갑	전복껍데기, 겁덕, 겁녕
212230	오분자기	조개
212231	게	쟁이
212232	바위게	*
212233	부채게	*
212234	엽낭게	*
212235	참게	춤쟁이
212236	꽃게	*
212237	소라게	게들레기
212238	그물무늬금게	*
212239	집게발	어금발
212240	갯강구	바케
212241	말미잘	물문주리
212242	성게	성귀, 귀
212243	말뚝성게	숨
212244	군소	군수, 굴멧이
212245	새우	새우
212246	불가사리	불가사리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
212248	해파리	물췌기
212249	낙지	낙지
212250	문어	몽게
212251	서대	*

212252	해삼	해삼
212253	멍게	멍게
212254	바닷물고기	바당궤기, 바룻궤기
212255	맑다[淸]	맑다
212256	흐리다[濁]	어둑다
212257	잘다[細]	줄다
212258	썩다[腐]	썩다
212259	비늘	비늘
212260	배따다	페싸다, 페쓰다
212261	생선(生鮮)	놀궤기
212262	미끼	니궤, 이궤
212263	갯지렁이	갈거리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싯대	춤대
212266	만들다[造]	멘들다
212267	낙싯줄	정술, 노궤
212268	붕돌	뽕돌
212269	참대	참대
212270	낙다	나끄다
212271	주낙	주낙
212272	주낙배	주낙배
212273	지느러미	놀개
212274	아가미	어우생이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멜갈치
212279	베도라치	브들락, 브들레기
212280	말뚝망둑어	*
212281	별망둑	*
212282	매통이	에이리
212283	고생놀래기	코생이
212284	용치놀래기	맥진다리
212285	어렁놀래기	어렁이
212286	실놀래기	술멍이
212287	옥돔	술래기, 생선
212288	흑돔	웁이
212289	돌돔	돌돔
212290	감성돔	감은돔
212291	벵에돔	구릿
212292	황돔	황돔

212293	자리돔	자리
212293-1		자리 거리다
212294	고등어	고등에
212295	전갱이	각제기
212296	조기	조기, 노란조기
212297	보구치	흰조기
212298	가오리	가오리
212299	오징어	오징어
212299-1		부찌다
212300	불바리	불바리
212301	다금바리	다금바리
212302	농어	*
212303	쥐치	객주리
212304	우럭불락	우럭
212305	불락	불락
212306	쭈기미	술치
212307	독가시치	다찌
212308	방어	방어
212309	재방어	저립
212310	상어	상에
212311	가래상어	*
212312	개상어	*
212313	괭이상어	도랭이
212314	귀상어	*
212315	돌묵상어	*
212316	수염상어	*
212317	두툽상어	비께
212318	별상어	*
212319	고래	고래
212320	돌고래	물췌기
212321	쥐돔	각제기
212322	복어	복쟁이
212323	흑산호	무낭

13. 식물

풀

213001	가라지	ㄱ라지
213002	갈대	갈대

213003	억새	어웁
213004	새 품	미뿌쟁이
213005	화승(火繩)	화승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새왓
213008	길차다	미악허다, 휘차다
213009	빨기	빨이
213010	사초	올리풀
213011	천일사초	*
213012	김의털	췌터럭
213013	쇠무릎	*
213014	바랭이	제완지
213015	민바랭이	*
213016	조개풀	대롱제완지
213017	방동사니	*
213018	마디풀	*
213019	솔새	소세
213020	개솔새	*
213021	뜯새풀	*
213022	팽이밥	생이풀
213023	원추리	*
213024	메꽃	메마꿀, 메마꽃
213025	갯메꽃	*
213026	비름	비듬
213027	쇠비름	췌비늬
213028	개비름	*
213029	참비름	*
213030	땅빈대	빈네
213031	애기땅빈대	*
213032	평의밥	*
213033	여우구슬	감낭풀
213034	질경이	베체기
213035	쭈	쭈
213036	캐다[採]	캐다
213037	쭈떡	쭈떡
213038	토끼풀	토끼풀
213039	개자리	개자리
213040	냉이	난생이
213041	방울새풀	*
213042	무릇	무
213043	여뀌	*

213044	오이풀	*
213045	영경퀴	소행이, 소왕가시
213046	췌기풀	*
213047	수크령	글리역
213048	망초	하늘풀
213049	별꽃	진풀
213050	병풀	*
213051	깨풀	*
213052	박조가리나물	*
213053	파리	푸케
213054	땅파리	*
213055	피막이풀	*
213056	도깨비바늘	개바늘
213057	도꼬마리	*
213058	모시풀	모시
213059	왕모시풀	쥔낭
213060	천남성	*
213061	맥문동	*
213062	밀나물	멜순
213063	살갈퀴	포깨기
213064	차풀	자골
213065	결명자	*
213066	까마중	*
213067	하눌타리	*
213068	노랑하눌타리	두루웨기
213069	부처손	푼채순이
213070	방가지뚱	고름풀
213071	닭의장풀	*
213072	배풍등	*
213073	췌	꼭
213074	췌덩굴	꼭줄
213075	췌뿌리	꼭불휘
213076	댕댕이덩굴	정당
213077	노박덩굴	*
213078	새박덩굴	*
213079	호자덩굴	*
213080	한삼덩굴	*
213081	함바기	*
213082	담쟁이	담쟁이
213083	송악	송악
213084	인동	운동고장

213085	멀꿀	*
213086	천문동	*
213087	계요등	*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등대풀
213090	수영(승아)	술낭
213091	애기수영	*
213092	싸리	싸리
213093	땀싸리	*
213094	명아주	*
213095	갓	갓늑물
213096	달래	뽕마농
213097	썸바귀	고름풀
213098	고들빼기	*
213099	박하	박하
213100	비수리	*
213101	꿀풀	*
213102	마삭줄	*
213103	갯기름나물	방풍
213104	구릿대	*
213105	으아리	*
213106	익모초	익모초
213107	피마자	피만지
213108	뉴질랜드삼	신사라
213109	양하	양웨
213110	파초	반치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
213113	개구리밥	*
213114	줄	*
213115	마름	*
213116	싱경이	늑

꽃

213117	꽃	고장
213118	꽃봉오리	꽃봉오리, 봉오지
213119	채송화	채송화
213120	민들레	민들레
213121	봉선화	봉숭아, 봉선화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마농꽃
213123	분꽃	*

213124	할미꽃	할미꽃
213125	붓꽃	*
213126	참나리	*
213127	맨드라미	떡꽃
213128	해바라기	해바라기
213129	진달래	지달래
213130	철쭉	철쭉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쑥부쟁이	*
213133	수국	*
213134	산수국	*
213135	광대나물	*
213136	제비꽃	썰게풀
213137	복수초	*
213138	수선화	*
213139	선인장	선인장
213140	문주란	*

나무

213141	뿌리	빨리
213142	잔뿌리	즌빨리
213143	줄기	줄기
213144	가지	낭가지
213145	잎	썸
213146	나무	낭
213147	하다[爲]	허다
213148	삭정이	삭다리
213149	소나무	소낭
213150	솔잎	솔썸
213151	솔가리	솔입
213152	솔방울	솔똥
213153	멜감	지들거
213154	마디다	므디다
213155	갈퀴	글갱이
213156	도끼	고치
213157	팽나무	폭낭
213158	팽	폭
213159	동백나무	돔박낭
213160	붉다[赤]	붉다
213161	멀구슬나무	믈쿠시낭
213162	버드나무	버드당

213163	녹나무	녹낭
213164	아카시아	가시낭, 아카시아낭
213165	은행나무	은행낭
213166	옴나무	*
213167	삼나무	숙대낭
213168	심다[植]	싱그다
213169	벗나무	*
213170	왕벗나무	*
213171	사옥	*
213172	느티나무	굴무기
213173	주목	노가리
213174	종려나무	남총낭
213175	윤노리나무	윤유라넝
213176	비목나무	*
213177	구상나무	*
213178	굴거리나무	*
213179	생달나무	신낭
213180	굴나무	미깡낭
213181	따다[摘]	타다
213182	광굴나무	산물낭
213183	유자나무	유지낭
213184	비자나무	비자낭
213185	치자나무	치자낭
213186	비파나무	비파낭
213187	오동나무	*
213188	조롱나무	*
213189	배롱나무	백일홍
213190	감탕나무	*
213191	거망웃나무	*
213192	팡팡나무	*
213193	노린재나무	*
213194	때죽나무	종낭
213195	마가목	*
213196	말채나무	*
213197	느릅나무	누룩낭
213198	두릅나무	들굽낭
213199	향나무	*
213200	옻나무	칠낭
213201	소리나무	소리낭
213202	솔비나무	솔피낭
213203	층층나무	*

213204	닥나무	*
213205	돈나무	*
213206	무환자나무	*
213207	쥐똥나무	*
213208	섬쥐똥나무	*
213209	이팝나무	*
213210	가시나무	가시낭
213211	개가시나무	*
213212	종가시나무	*
213213	호랑가시나무	*
213214	돌가시나무	*
213215	제주가시나무	*
213216	꾸지뽕나무	꿇가시낭
213217	덜꿍나무	*
213218	사스레피나무	*
213219	머귀나무	머귀낭
213220	좁머귀나무	*
213221	자귀나무	자귀낭
213222	말오줌때	*
213223	중대가리나무	*
213224	예덕나무	복닥낭
213225	참식나무	*
213226	까마귀쪽나무	부레기낭
213227	천선과나무	빈독낭
213228	실거리나무	*
213229	굴피나무	*
213230	후박나무	후박낭
213231	풍개나무	*
213232	먼나무	먼낭
213233	박달나무	*
213234	떡갈나무	*
213235	상수리나무	*
213236	참나무	츠낭
213237	산딸나무	탈낭
213238	초피나무	췌피낭
213239	국수나무	*
213240	사철나무	*
213241	겨우살이	저슬사리
213242	모람	*
213243	누리장나무	개낭
213244	아왜나무	*

213245	순비기나무	순베기낭
213246	붉나무	*
213247	협죽도	*
213248	담팔수	담팔수

열매

213249	과일	과실
213250	껍질	껍데기
213251	깎다	벧기다, 까끄다
213252	벗기다	벧기다
213253	딸기	탈
213254	뱀딸기	게염지탈
213255	멍석딸기	*
213256	복분자딸기	*
213257	줄딸기	*
213258	산딸기	*
213259	가시딸기	가시탈
213260	검은딸기	*
213261	장딸기	*
213262	개암	*
213263	머루	멀리
213264	개머루	*
213265	까마귀머루	*
213266	산머루	*
213267	상동나무	*
213268	상동	*
213269	시로미	*
213270	다래	드레
213271	개다래	*
213272	보리수나무	볼레낭
213273	보리수	볼레
213274	보리장나무	마께볼레
213275	앵두나무	*
213276	앵두	*
213277	매실	매실
213278	매화나무	*
213279	밀감	미깡, 굴
213280	밀감나무	미깡낭
213281	탱자	통지
213282	탱자나무	통지낭
213283	감	감

213284	떨다[柿]	쫄잡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홍실
213287	꽃감	선감
213288	청미래덩굴	멩게낭
213289	맹감	벨레기
213290	찢레나무	독고리낭
213291	영실	*
213292	사과나무	*
213293	사과	능금
213294	배나무	배낭
213295	배	배
213296	돌배	돌배낭
213297	팔배나무	*
213298	밤나무	밤낭
213299	구실잣밤나무	재배낭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속껍질
213302	복숭아나무	복숭게낭
213303	복숭아	복숭게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낭
213306	으름	*
213307	오미자	오미자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넙메역
213310	미역쇠	메역쉐
213311	김	짐
213312	파래	푼레
213313	톳	톨
213314	패	페
213315	넓패	넙페
213316	지층이	지층
213317	다시마	곤포
213318	듬북	듬북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물망
213321	청각	정각
213322	우뭇가사리	우미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
213325	진두발	*
213326	도박	도박
213327	갈래곰보	*
213328	풀가사리	가사리